

# 수능특강

국어영역 | 문학



이 책의 특징

- 01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국어영역 ‘문학’ 과목을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된 여러 문항을 통해 다양한 재재와 유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02 ▶ ‘교과서 개념 학습 → 적용 학습 → 실전 학습’의 단계를 통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03 ▶ 갈래별로 다양한 작품들을 고루 수록하였으며, 서답형과 수능형 문항을 통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러두기

- ① 본 교재에 수록된 작품은 가급적 교과서 표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고전 문학 작품을 현대어로 풀어서 수록한 경우가 있고, 현대 문학 작품도 오늘날의 표기로 고쳐서 수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 ③ 문학 작품은 원문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현대어로 운문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교과서 개념 익히기] ‘문학’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문학’ 과목의 기본 개념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작품으로 이해하기] 기본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갈래별로 다양한 작품들을 읽고 서답형과 수능형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 과목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부 적용 학습

교과서 기본 개념을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시행된 모의 평가와 수능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표적인 작품을 선별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으로 개념 적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시의 표현과 형식**

○ **시적 표현**  
 풍채나 고운, 울인 머리 등에 감  
 이 아름다운 정열을 나타내다. (191)  
 것은 모든 다양한 법이나 노래  
 를 통해 구별되고 있다. (191)  
 고의 넓은 것은 동일한 관에서  
 서로 평등이나 음의의 단위로 감  
 은 특이한 지위를 구별하는 것  
 으로 보인다.

○ **시적 표현의 개념**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언어적 표현을 가리킨다.  
 • 비유, 상징, 역설, 반어, 대구, 반복, 삽어, 열반, 도치, 열거, 환상, 우의, 풍자, 병렬 등  
 의 표현 기법이 있음.

○ **시적 표현의 여러 가지 효과**  
 • 음악적인 리듬이 느껴지게 함.  
 • 시어의 함축성을 높여 의미를 풍부하게 함.  
 •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상하게 함.  
 • 상징적인 생각을 뒤집거나 깨닫도록하여 지의 충격을 줌.  
 • 재미를 느끼고 호기심이나 반대로 같은 감정을 유발하게 함.  
 • 일상적인 표현에 변화를 주어 묘미로 느끼게 함.  
 • 화자의 사고나 감정, 상황 등을 강조하거나 부각함.

○ **시적 형식**  
 (1) 시적 형식의 개념과 특성

**01 고전 시가**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① 일아 그 물을 건너지 아오 公輸渚  
 일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公輸渚  
 물에 빠져 돌아가지나 漂而  
 가신 임을 아찌말코 當公輸

— 백두 광무의 *아래* 『강원도』 87가.

② 저운별 바란 가세 無雲別  
 일고 있는 알소 농계 하시고 執高手  
 나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無愧  
 꽃을 짊어 바쳐오리다 花冠

— 권우 노인의 *『한해』*.

③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들고 神策  
 묘한 계상은 지리에 통달한데 妙算

### 3부 실전 학습

교과서 개념 학습과 적용 학습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대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갈래별로 다양한 작품과 실전 문제를 실었습니다. 총 2회 분량을 제시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고 '문학' 과목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답과 해설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 해제, 주제를 제시한 후, 구성이나 줄거리로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까지 모두 설명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전 학습 ①**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장동석이한테 마음에 내기가 싫고 생이를 가지오도록 시킨 나는 눈을 뜰 때도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워서 행랑개 단장이 드뭇합니다. 일을 맡아 오스스한 동공의 입구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눈을 가렸다.

그날 무렵은 짙은 울미늘이 두껍게 깔린 밤을 피고 아버지를 운었다. 흉을 저 나눌 수도, 배를 들 수도 있어 장흥(長興)을 하고 동시에 공중거리며 돌을 날려다 두면 한때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일투위를 응해달라 장동석이한테 부탁한 뒤, 상앗집에서 허둥지둥 더 지고 날이 밝기 전에 꽃피듯 활짝피를 비친다.

활짝피를 피나서서 나는 장동석이한테, 활짝피 사람답을 미소으로 부릴 수 있을 만큼 관둔을 벌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 결심을 말해 주었다.

그 결심을 맺을것같았 어근나 울고 울고 3년 동안 시랑 바다에서 배가 굶고 손바닥 밟바닥이 달 [A] 도록 뛰며, 활짝피 사람답을 모두 미소으로 부릴 만한 존은 못 되어도, 이만하면 이제 피고 싶겠다 싶어서야 두 눈 부들부들고 고향에 돌아갔다.

[출처] 무명꽃피고 고향에 돌아오면 '나'는 장의 활동을 하며 비탄할 무지를 죽었다는 아버지의 누렁이 소꿉장간을 미룬 채 아들 사람답을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무명 이장 시집에 아버지를 죽였다고 내세웠던 사람들을 죽였다.

**1부 | 교과서 개념 학습**

**1. 시의 표현과 형식**

**1.1** 시의 표현과 형식

1.1 시의 표현과 형식

1.2 시의 표현과 형식

1.3 시의 표현과 형식

**목적** '예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의 표현과 형식을 설명할 수 있다.

**내용** 이 시는 실제 관찰기반의 사실적 묘사를 담고 있다. 시인은 시의 표현과 형식을 설명할 수 있다. 시의 표현과 형식을 설명할 수 있다. 시의 표현과 형식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예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의 표현과 형식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예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의 표현과 형식을 설명할 수 있다.

시의 '표현'이란 시인이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 감정, 태도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 표현은 시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의 표현은 시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의 표현은 시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의 '형식'이란 시의 구성과 배열을 의미한다. 시의 형식은 시의 내용과 표현을 담는 틀이다. 시의 형식은 시의 내용과 표현을 담는 틀이다. 시의 형식은 시의 내용과 표현을 담는 틀이다.

**학생 EBS 교재 문제 검색**

EBS 단추에서 문항코드나 사진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러봇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23001-0001]

1. 아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001-0001

푸러봇

※ EBS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검색은 EBSi 교과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재 자료실**

한글다운로드

교재이미지 활용

강의활용자료

※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b>1강</b>   시의 표현과 형식 여승(백석)	009
<b>2강</b>   시의 내용 셋별 지자 종다리 뒀다 ~ (이재) 시비에 개 짓거늘 ~ (작자 미상) 논밭 갈아 김매고 ~ (작자 미상)	012
<b>3강</b>   소설의 서술상 특성 원미동 시인(양귀자)	015
<b>4강</b>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상사동기(작자 미상)	019
<b>5강</b>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출세기(윤대성)	023
<b>6강</b>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겐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신영복)	027
<b>7강</b>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보리피리(한하운)	031
<b>8강</b>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안민가(충담사) / 용비어천가(정인지 외)	035
<b>9강</b>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우상의 눈물(전상국)	038

**2부 적용 학습**

>>> **고전 시가**

<b>01</b> 공무도하가(백수 광부의 아내) / 현화가(견우 노인)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을지문덕)	044
<b>02</b> 동동(작자 미상) / 황계사(작자 미상)	046
<b>03</b> 이화에 월백하고 ~ (이조년) 까마귀 눈비 맞아 ~ (박팽년) 이별하던 날에 ~ (홍서봉) 농부의 집에 쓰다(이덕무)	050
<b>04</b> 말은 가자 울고 ~ (작자 미상) 임 이별 하올 적에 ~ (안민영) 뒤뜰에 봄이 깊으니 ~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 (작자 미상)	053
<b>05</b> 조흥시가(박인로)	055
<b>06</b> 만분가(조위)	058
<b>07</b> 복선화음가(작자 미상)	062
<b>08</b> 일동장유가(김인겸)	066
<b>09</b> 견흥(허난설헌) / 방물가(작자 미상)	069
<b>10</b> 어사용(작자 미상) / 베틀 노래(작자 미상)	073
<b>11</b> 영립(김삿갓) / 원생원(김삿갓) 청산리 벽계수야 ~ (황진이)	075

>>> **현대시**

<b>01</b> 거짓 이별(한용운) / 맹세(조지훈)	078
<b>02</b> 접동새(김소월) / 수철리(김광균)	081
<b>03</b> 싸늘한 이마(박용철) / 월훈(박용래)	083

04	그의 반(정지용) / 사랑법(강은교)	085
05	학(유치환) / 저 새(김용택)	088
06	참회록(윤동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신동엽)	091
07	총총계(박목월) / 동그라미(이대흠)	095
08	초토의 시 1(구상) / 새벽 편지(곽재구)	098
09	폐촌행(신경림) / 세한도(고재중)	101
10	궁금한 일—박수근의 그림에서(장석남)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김명인)	104
11	나팔꽃(송수권) / 가지가 담을 넘을 때(정끝별)	107

### >>> 고전 산문

01	이야기꾼 오물음(작자 미상) 이야기 주머니(작자 미상)	110
02	조신의 꿈(작자 미상)	115
03	공방전(임춘)	118
04	숙향전(작자 미상)	122
05	방한림전(작자 미상)	126
06	창선감의록(조성기)	131
07	김영철전(홍세태) 「김영철전」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인식	136
08	광문자전(박지원)	141
09	토끼전(작자 미상)	145
10	심청가(작자 미상)	149

11	차사본풀이(작자 미상)	153
----	--------------	-----

### >>> 현대 소설

01	사하촌(김정한)	158
02	복덕방(이태준)	162
03	역마(김동리)	166
04	두 파산(염상섭)	170
05	유예(오상원)	174
06	탑(황석영)	178
07	큰 산(이호철)	182
08	우리 동네 김 씨(이문구)	186
09	소리의 빛(이청준)	191
10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박완서)	196
11	달로 간 코미디언(김연수)	200

### >>> 극·수필

01	통영 오광대(작자 미상)	204
02	영웅 모집(채만식)	208
03	소(유치진)	213
04	불꽃(선우휘 원작, 이은성·윤삼육 각색)	217
05	토지(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221
06	경주의 달밤(이병기)	225
07	봄(윤오영)	228
08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나희덕)	231

>>> 갈래 복합

01 어웅(설장수) / 성산별곡(정철) / 고향(유종호)	234
02 견회요(윤선도) / 홍길동전(허균)	239
03 내가 좋다 하고 ~ (변계량)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정호승) 여유당기(정약용)	244
04 상사별곡(작자 미상) / 왜송설(이식)	249
05 도산십이곡 발(이황) / 사친(신사임당) 사노친곡(이담명)	255
06 윤영전(작자 미상) / 동승(함세덕)	259
07 깨빼딴 리(전광웅) / 결혼(이강백)	265
08 낙타(이한직) / 방울 소리(이수익) 말을 찾아서(이순원)	271
09 능금(김춘수) / 석류(이가림) 소완정의 새와 곤충과 풀과 나무(이서구)	277
10 흥부 부부상(박재삼)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 님의 제를 빌려(김사인) 오발탄(이범선)	283
11 원고지(이근삼) / 상행(김광규)	288

3부

실전 학습

1회 [01~04] 말하는 돌(문순태)	296
1회 [05~10] 석가산폭포기(채수) 꽃 피는 해안선(김훈)	300
1회 [11~14] 전가추석(이건창)	305
1회 [15~17] 생명(김남조) / 성에 꽃(문정희)	310
-----	
2회 [01~03] 한거십팔곡(권호문)	312
2회 [04~07] 곡두 운동회(임철우)	315
2회 [08~11] 임진록(작자 미상)	319
2회 [12~17] 오래된 잠버릇(함민복)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김기택) 거꾸로 보기(법정)	324



교과서  
개념  
학습

1  
부

### ◎ 형상화

정서나 교훈, 삶의 이치 등과 같이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다양한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감 나게 그려 내는 것을 뜻한다. 문학에서는 마음이나 윤리적 덕목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난다.

### ◎ 표현과 형식의 관계

시적 표현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폭이 매우 넓어서 형식의 의미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표현과 형식을 별도의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형식을 표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독백과 대화

독백은 화자가 자신을 청자로 삼아 하는 말이고, 대화는 청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따라서 질문, 명령, 부탁, 위로, 격려하는 말의 형식은 대화에 해당한다. ‘~입니다’ 등의 높임말도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대화적 형식에 해당된다.

## 1 시적 표현

### (1) 시적 표현의 개념

-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언어적 표현을 가리킴.
- 비유, 상징, 역설, 반어, 대구, 반복, 설의, 영탄, 도치, 열거, 점층, 우의, 풍자, 병렬 등의 표현 기법이 있음.

### (2) 시적 표현의 여러 가지 효과

- 음악적인 리듬이 느껴지게 함.
- 시어의 함축성을 높여 의미를 풍부하게 함.
-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연상하게 함.
- 상식적인 생각을 뒤집거나 깨뜨림으로써 지적 충격을 줌.
- 재미를 느끼고 웃게 하거나 반대로 슬픈 감정을 환기하게 함.
- 일상적인 표현에 변화를 가하여 말의 묘미를 느끼게 함.
- 화자의 사고나 감정, 상황 등을 강조하거나 부각함.

## 2 시의 형식

### (1) 시의 형식의 개념과 특성

- 율격, 시행, 연 등의 요소가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이루는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를 가리킴. 크게 고정된 형식과 자유로운 형식으로 구별됨.
- 시의 형식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시 고유의 체계와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음.

### (2) 시의 형식의 여러 층위들

- 갈래: 민요, 시조, 가사, 자유시 등
- 담화 양식: 독백, 대화, 편지, 전화 통화의 형식 등
- 구조: 기승전결, 수미상관, 선경후정, 대칭, 아이러니(반어) 등
- 진술 형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이야기시, 극시 등
- 형태: 시행 및 연의 배열 등
- 청자의 존재: 독백, 대화 등
- 시상 전개: 원경-근경, 외부 풍경-내면세계, 과거-현재-미래 등



### 작품으로 이해하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뿡도 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 가지취: 산지의 밝은 숲속에서 자라는 참취나물.
- \* 금점(金店)판: 예전에, 주로 수공업적 방식으로 작업하던 금광의 일터.
- \* 섶벌: 나무 섶에 집을 틀고 항상 나가서 다니는 벌.
- \* 머리오라: 낱알의 머리털.

[23001-0001]

##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서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 ③ 초월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지향을 상징하고 있다.
- ④ 속세를 떠난 대상의 처지를 환기하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 ⑤ 관찰자로서의 화자가 대상에 대해 느낀 감정이 직접 드러나 있다.

[23001-0002]

02 [가]의 시구와 [나]의 설명을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가]		[나]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①	(a) 후각적 심상을 구사하여 속세와 단절된 삶의 이미지를 ‘여승’에게 부여하고 있다.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②	(b) 출가(出家)의 과정에서 ‘여인’이 느꼈을 심리적 고통을 다른 대상에게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③	(c) ‘딸’의 죽음을 에둘러 표현함으로써 감정의 직접적 표출을 절제하면서도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산(山)꿩도 쉽게 울은’	④	(d) 소리를 온도에 대한 감각으로 표현한 감각의 전이를 통해 ‘여인’의 마음 속에 가득했을 서러움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3001-0003]

03 <보기>의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쓴 것은?

[ 보기 ]

선생님: 백석의 「여승」은 가족과 이별하고 여승이 된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민중이 겪은 고난을 다룬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나면 마치 짧은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건 이 작품이 시간의 흐름과 관련 있는 시상 전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주인공 격인 여인의 고단한 삶의 내력이 압축적으로 제시된 서사적인 틀 속에 서정적 감동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작품에 들어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연을 재배열한다면 ( )연 → ( )연 → ( )연 → ( )연'과 같이 될 것입니다.

- ① 1, 2, 3, 4
- ② 1, 4, 2, 3
- ③ 2, 3, 4, 1
- ④ 2, 4, 1, 3
- ⑤ 3, 4, 1, 2

1 시적 화자의 정서

(1) 정서의 개념과 종류

-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을 가리킴. 정서에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됨.
- 희로애락(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대표적인 정서에 해당됨. 긍정적인 정서로는 사랑, 존경, 예찬, 환희, 동경, 희망, 기대 등이, 부정적인 정서로는 미움, 분노, 공포, 비애, 우수, 절망, 원망 등이 있음.

(2) 정서의 특징

- 서정시는 다른 갈래에 비해 화자의 정서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갈래이며, 정서는 곧 시의 주제가 되기도 함.
- 한 작품 안에는 여러 가지 정서가 공존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지배적인 정서가 있을 수 있음.
- 화자의 정서는 주로 태도나 어조를 통해 드러남. 태도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화자가 대응하는 방식을 말하고, 어조는 목소리의 결을 가리킴. 어조는 딱딱한/부드러운, 온화한/냉정한, 거만한/겸손한, 직설적/반어적/냉소적/동정적 어조 등이 있으며, 의도나 목적에 따라 감탄/명령/부탁/간청/위로/격려/보고하는 어조 등의 구별이 있음.

2 소재

(1) 소재의 개념

- 시를 창작하는 데 바탕이 되는 모든 사물, 인물, 현상, 경험 등을 뜻함. 개인적 체험, 자연, 사회 현상, 타인의 인생, 공동체의 역사 등 세상의 모든 것이 시의 소재가 됨. 한 작품 안에 있는 다양한 소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재라고도 함.

(2) 소재의 함축적 의미

- 시에서 쓰이는 주요 소재에 해당되는 시어는 대체로 함축적 의미를 지님. 함축적 의미는 작품 내·외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지시적 의미와 구별됨. 함축적 의미는 집단적으로 전승되어 공유된 것도 있고, 시인이 개성적으로 창조해 낸 것도 있음.

3 이미지

- 이미지(심상)는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을 가리킴. 시각(색채, 동작 등),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열기, 냉기, 감촉 등) 등으로 세분될 수 있음.
- 이미지는 독자의 내면세계를 자극하고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화자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함.

※ 서정시(抒情詩)

서정은 본래 정서를 풀어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를 가리킨다. 서사시나 극시, 교술시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는 서정시에 해당된다.

※ 함축적 의미와 지시적 의미

함축적 의미는 지시적 의미와 동떨어진 채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단어의 지시적 의미를 파악한 뒤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샛별 지자 종다리 떴다 호미 메고 사립 나니  
긴 수풀 찬 이슬에 베잠방이\* 다 젖는다  
아이야 시절이 좋을손 옷이 젖다 관계하라

- 이재

- 나 시비(柴扉)에 개 짓거늘 임만 여겨 나가 보니  
임은 아니 오고 명월이 만정(滿庭)한데 일진(一陣) 추풍에 잎 지는 소리로다  
저 개야 추풍낙엽을 헛되이 짓어 날 속일 줄 어찌오

- 작자 미상

- 다 논밭 갈아 김매고 베잠방이 다임 쳐\* 신 들메고\*  
낮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둘러메고 무림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싹을 베거나  
버히거나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 놓고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부시고\* 곰방대를 툭툭 떨어  
있담배 피어 물고 콧노래에 즐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키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꼬 하더라

- 작자 미상

\* 베잠방이: 베로 지은 짧은 남자용 훌바지.

\* 다임 쳐: 대님 매어. 대님은 바짓가랑이의 발회목 부분을 매는 끈.

\* 신 들메고: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발에 잡아매고.

\* 부시고: 그릇을 씻고, 여기서는 씻듯이 그릇을 다 비웠다는 뜻임.

[23001-0004]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의 ㉠~㉡이 적절하면 '○', 그렇지 않으면 '×'로 표시하십시오.

	설명 내용	(가)	(나)
㉠	축각적 이미지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청각적 이미지가 정서를 표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화자가 동질감을 느낀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명시적으로 설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23001-0005]

## 02 <보기>는 (다)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다)에서 찾아 쓰고,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추측하여 쓰시오.

[ 보기 ]

서정시에서는 1인칭 화자가 자신의 상황과 정서를 고백적인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에서는 화자 자신의 상황과 정서가 아니라 화자가 타인의 행동을 다른 이에게 전달 혹은 보고하는 어조가 나타난다. 이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할 때 쓰는 어미(語尾)가 포함된 서술어 ( ㉠ )을/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직접 관찰한 타인의 행동에 대한 ( ㉡ )을/를 중심으로 내용이 표현되고 있다.

㉠: \_\_\_\_\_

㉡: \_\_\_\_\_

[23001-0006]

##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특정 계절, 하루 중의 특정 시간대 등에 해당되는 시간적 배경은 대개 자연 현상이나 풍경 등과 맞물려 명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암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시에서 시간적 배경은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거나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하면서 시상 전개 과정에서 어떤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는 ‘새별 지’는 자연 현상을 통해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하루의 노동을 시작하려는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에서는 ‘명월이 만정’한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하여, ‘잎 지는 소리’도 들릴 만한 고요한 심야의 분위기와 대비하여 개 짖는 소리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석양이 재 넘어’가는 시간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그 직전까지의 동적인 분위기를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 ④ (가)에서는 ‘이슬’에 ‘베잠방이’가 젖는 상황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나)에서는 ‘추풍낙엽’이라는 소재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⑤ (가)와 (나)에서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된 시적 정황을, (다)에서는 점심 이전부터 황혼 녘까지 연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시적 정황을 보여 주고 있군.

◎ 초점화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 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 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을 초점 인 물 혹은 초점화자(焦點化者, focalizer)라고 한다. 초점이 되는 화자(話者)라는 뜻이 아니다.

◎ 거리

거리는 소설을 매개로 한 소통에 참여하는 작가, 독자, 서술자, 인 물의 사이가 가깝거나 먼 정도를 가리킨다. 대체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주 관이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객관적 태도로 인해 서 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멀어진다.

① 소설에서의 서술

사건의 내용을 언어로 나타내는 행위와 그 결과를 뜻하며, 크게 이야기의 구성과 이야기의 전달로 나뉜. 전자는 사건과 사건의 선후 관계나 인과 관계를 짜는 방법이고, 후자는 시점과 거리, 사건과 인물 제시 방식, 문체 등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관련됨.

② 서술상의 특성을 구현하는 요소들

(1) 시점

이야기 속의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와 이야기 전달 방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별됨.

이야기 전달 방법 서술자의 위치	인물 및 사건의 내면적 분석	인물 및 사건의 외부적 관찰
서술자가 작중 인물인 경우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 를 서술하는 경우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 주인공 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 → 1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 아닌 경우	서술자가 이야기 외부의 전지 적 존재로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거나 인물 및 사건을 논평 하는 경우 →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시점	서술자가 이야기 외부의 관찰 자로서 시선에 포착되는 장면이 나 겉으로 드러난 인물의 말에 국 한하여 서술하는 경우 → 3인칭 관찰자 시점

(2) 사건과 인물 제시 방식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은 말하기(telling)와 보여 주기(showing) 로 구별됨. 전자는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사건, 인물의 성격, 상황을 설명·해 설·요약·논평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서술자가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 리를 묘사하거나 사건을 제시하는 방법임.

(3) 문체

작가가 언어를 구사하는 개성적인 방식을 가리킴. 구어와 문어, 관념적인 단어와 구체 적인 단어, 수식어가 많은 문장과 수식어가 적은 문장, 긴 문장과 짧은 문장, 부드러운 표 현과 딱딱한 표현, 직설적 표현과 함축적 표현, 표준어와 방언 중 어떤 것이 주로 구사되 는지 등에 의해 결정됨.

(4) 태도와 어조

특정 인물이나 작중 현실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이 반어적·풍자적·냉소적·비관적·동 정적·호의적·해학적 태도 등과 이를 반영한 어조로 나타남.

## 작품으로 이해하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미동 시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 쾡한 두 눈에 부스스한 머리칼, 사시사철 껴입고 다니는 물 들인 군용 점퍼와 희끄무레하게 닳아빠진 낡은 청바지가 밤중에 보면 꼭 몽달귀신 같다고 서울 미용실의 미용사 경자 언니가 맨 처음 그를 ‘몽달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경자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좀 경멸하듯이, 어린애 다루듯 함부로 하는 게 보통인데 까닭은 그가 약간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어떻게 살짝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과 다른 것만은 틀림없었다. 몽달 씨는 무궁화 연립 주택 3층에 살고 있었다. 베란다에 화분이 유난히 많고 새장이 새 개나 걸려 있는 몽달 씨네 집은 여름이면 우리 동네에서는 드물게 웅웅거리며 하루 종일 에어컨이 돌아가는 부자였다. 시내에서 한약방을 하는 노인이 늘그막에 젊은 마누라를 얻어 아기자기하게 살아 보는 편인데 결혼한 제 형 집에 있지 않고 새살림 재미에 폭 빠진 아버지 곁으로 옮겨 온 막둥이였다. 그것부터가 팔불출이 짓이라고 강남 부동산의 고흥댁 아줌마가 욕을 해 쌓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왜 바보짓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몽달 씨에게 친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었다. 몽달 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니까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이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리 남자 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동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통명스러워졌다.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 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뻐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리 궁상이 지켜워 맨날 똥하던 언니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몽달 씨와 형제 슈퍼 김 반장과 친구처럼 지내고, 김 반장은 몽달 씨를 일꾼처럼 부려 먹는다. 어느 날 몽달 씨는 불량배들에게 쫓겨 형제 슈퍼를 찾고, 김 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몽달 씨를 매몰차게 쫓아낸다. 몽달 씨는 불량배들에게 얻어맞고 앓아누웠다가 열흘쯤 지나 형제 슈퍼에 다시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김 반장의 일을 돕는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팬스레 팔뚝에 엉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짝 다가앉았다.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탄전만 피우고 있었다.

“슬픈 시가 있어. 들어 볼래?”

치, 누가 그따위 시를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내가 입술을 비죽 내밀거나 말거나 몽달 씨는 기어이 시를 읊고 있었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 하는 순교자 같다…….

“너 글씨 알지? 자, 이것 가져. 나는 다 외었으니까.”

몽달 씨가 구깃구깃한 종이쪽지를 내게로 내밀었다. 아주 슬픈 시라고 말하면서.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는데도 난 자꾸만 눈물이 내려 하였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달 씨…….

—양귀자, 「원미동 시인」

[23001-0007]

## 01

윗글을 읽고 다음의 (1)~(3)이 적절하면 ‘○’, 그렇지 않으면 ‘×’로 표시하시오.

- (1) ‘몽달 씨’라는 별명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2) ‘슬픈 시’의 ‘은사시나무’는 부조리한 일을 경험한 ‘몽달 씨’를 상징하는 것이다. ( )
- (3) ‘나’는 ‘몽달 씨’가 ‘김 반장’이 그에게 한 일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



[23001-0008]

## 0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서술자인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독자 입장에서 그 서술이나 논평을 믿기 어려운 서술자를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하는데, 어린아이 서술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서술자로서 어린아이는 대체로 그 자신이 사건의 중심이기보다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서술자는 어른들과는 달리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지만 때로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조숙함을 바탕으로 뛰어난 사리 분별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서술의 설정은 어른들의 세계가 지닌 부조리함이나 모순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

- ① 자신보다 동네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고흥댁 아줌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스물일곱짜리 남자와 친구로 지낸다는 점에서 어른들과는 다른 순수한 시선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김 반장이 몽달 씨에게 한 일을 잘못된 일이라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리 분별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김 반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이에 비해 조숙함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겠군.

[23001-0009]

## 03 <보기>의 ㉠, ㉡에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이 작품에서 ‘김 반장’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그날 밤] 이전과 이후 다르게 나타난다. [그날 밤] 이전에 ‘나’는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김 반장’을 친구라 생각하면서 그를 ( ㉠ )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나’는 그를 ( ㉡ ) 사람이라 생각하게 된다.

㉠: \_\_\_\_\_

㉡: \_\_\_\_\_

### ◎ 서사(敘事)

서사는 본래 '일을 순서대로 행하다.' '일을 차례대로 펼치다.'라는 의미이다. 서사 문학은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선후 관계와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 서사 문학에는 여러 갈래가 있으며, 소설은 서사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갈래이다.

### ◎ 스토리와 플롯

여러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을 '스토리(story)'라고 하고, 여러 사건이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플롯(plot, 구성)'이라고 한다. 뒤에 일어난 사건을 먼저 일어난 사건보다 더 앞에 배치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스토리도 서로 다른 플롯으로 제시될 수 있다.

## ① 인물 및 성격

### (1) 인물 및 성격의 개념

- 인물은 흔히 성격(캐릭터, character)으로 지칭되지만, 인물은 외부에서의 관찰 대상을, 성격은 그 인물의 내적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성격이 더 본질적이다. 이때 성격은 작품에서 인물이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을 통해 드러나는 개성을 뜻함. 소설에서는 모든 인물이 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
- 인물의 성격은 어떤 사건 속에서 보이는 그의 말과 생각, 행동,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남.

### (2) 인물의 말과 생각, 행동

- 인물의 말과 생각에는 그의 자연관, 인간관, 처세관 등의 가치관이 담겨 있음. 인물의 말과 생각은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함.
- 인물의 행동 또한 그의 가치관을 표상하며 어떤 의도나 상황의 산물임. 행동은 서술자의 말로도 드러나고 인물의 말로도 드러남.

## ② 사건

### (1) 사건의 개념

작품 속에서 발생하고 진행되는 온갖 일들을 가리킴. 대개 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결합되어 연속적으로 전개됨. 인물들의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물들의 행동이 곧 사건으로 제시되기도 함.

### (2) 사건의 연쇄

-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선후 관계만을 맺기도 하고 인과 관계를 맺기도 함.
-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플롯이 만들어지고, 플롯은 일반적으로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단계를 갖춤.

## ③ 배경

### (1) 배경의 개념

- 공간적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의 지리적 위치나 구체적인 장소, 시간적 배경은 인물의 행동이 연출되고 사건이 벌어지는 시대, 시기, 계절, 밤/낮 등의 시간을 말함.
- 사회 현실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사회적 배경, 작중 인물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배경, 어떤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배경도 있음.

### (2) 배경의 기능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품의 주제 구현에 기여함. 또한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생동감을 느끼게도 하며, 배경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함.

## 작품으로 이해하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소문난 풍류랑 김생은 취중에 말을 탄 채 왕자인 화산군의 시녀 영영을 목격한 후부터 그녀를 사모하던 중 영영의 이모를 통해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녀를 기다린다.

김생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일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책상에 기대어 앉아 문을 열어 놓고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거의 정오가 되었는데도 끝내 그림자 하나 나타나지 않자,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도 바보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으니, 마치 그 모습이 서리 맞은 파리 같았다. 견디다 못한 김생은 마침내 벌떡 일어나 부채로 대들보를 치면서 노파를 불러 말했다.

“기다리는 눈은 뚫어지려 하고, 근심 쌓인 애는 끊어지려 하오. 많은 행인들이 지나갔는데도 영아가 아직까지 오지 않으니, 내 희망은 끊어진 것이 아니겠소?”

노파가 위로하며 말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도련님께서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창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차 가까이 들려왔다. 김생이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영영 남자였다. 김생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노파 역시 어린아이가 엄마를 본 것처럼 기뻐하였다.

영영이 집으로 들어서려는데, 대문 앞 버드나무 아래에서 밤빛 털을 가진 말이 길게 울고, 뜰 거의 서늘한 그늘 아래에는 하인들이 죽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영영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머뭇거리고 감히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이에 노파가 짐짓 영영을 꾸짖어 말했다.

“의심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너라. 너는 이 도련님을 모르느냐? 이분은 곧 내 죽은 남편의 친척이니라. 마침 누추한 우리 집에 오셨다가 장차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너는 어찌 하여 이렇게 늦었느냐? 나는 네가 끝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네 부모님 제사를 이미 지냈단다. 너는 안으로 들어와 빨리 술상을 차려서 도련님께 한 잔 올리는 것이 좋겠다.”

영영이 노파의 말대로 술상을 받들고 들어오자, 노파는 김생과 함께 술잔을 주고받았다. ㉠술이 반쯤 취할 즈음에 김생이 영영에게 말했다.

“남자도 들어와 앉으시오. ㉡나는 지나가다가 여기에 들른 것이오.”

영영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마주 대하지 못했다. 이에 노파가 영영에게 말했다.

“너는 깊은 궁중에서 성장하여 세상의 정리(情理)가 어떤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능히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술잔을 주고받는 것이 예의라는 건 알지 않느냐?”

이에 영영은 술잔을 받긴 했으나, 오히려 불쾌한 듯이 향기로운 술잔을 어렵사리 잡고서 살짝 붉은 입술에 대기만 했다.

[종락 부분 줄거리] 두 사람은 회산군 댁으로 남몰래 들어가 인연을 맺지만 영영의 처지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김생은 몇 년간 공부를 하여 장원으로 급제한다.

3일 동안의 유가(遊街)에서 김생은 머리에 계수나무꽃을 꽂고 손에는 상아로 된 홀을 잡았다. 앞에서 는 두 개의 일산(日傘)이 인도하고 뒤에서는 동자들이 웅위하였으며, 좌우에서는 비단옷을 입은 광대들이 재주를 부리고 악공들은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하니,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인 양 바라보았다.

김생은 얼큰하게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 보았다. 갑자기 길가의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백 걸음 정도 빙빙 둘러 있었으며,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나비는 희롱하듯 벌들은 미친 듯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곧 회산군 댁이라고 하였다.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궁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다.

이때 회산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다. 그동안 부인은 마음 붙일 곳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명하여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비단으로 짠 자리에 죽부인을 베개로 삼아 누이게 하였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여 깨어나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다.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풍악을 울리며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다. 궁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귀밑털에 구름 같은 머리채를 한 채 주렴을 걷고 지켜보았는데, 가히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영영이라는 이는 그 가운데 없었다. 김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생사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남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 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는 놀라는 척 말했다.

㉠ “이곳이 어디입니까?” /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희이라는 자가 달려와 아뢰었다.

“회산군 댁입니다.” / 김생은 더욱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희가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도 못 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워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 작자 미상, 「상사동기(相思洞記)」

[23001-0010]

##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를 고르고, 적절하게 고치시오.

㉠	김생은 영영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만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	영영은 이모네 집 대문 앞 풍경이 보통 때와 다르다는 것을 보고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였다.
㉢	회산군 댁 부인은 광대들의 재주보다 김생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 일행을 집 안으로 들였다.
㉣	김생과 영영은 오랜만에 재회하였으면서도 그 감격을 감추어야 하였다.

↳ 적절하지 않은 진술 (            )을 적절하게 고쳐 쓰면,

--

[23001-0011]

## 0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각각 김생이 노파와 회산군 댁 부인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매개이다.
- ② ㉠과 ㉡는 각각 노파와 회산군 댁 부인이 김생에 대한 호의를 담아 대접한 것이다.
- ③ ㉠은 김생에 대한 영영의 신뢰감을, ㉡는 영영에 대한 김생의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④ ㉠은 김생에게 영영과의 인연에 대한 희망을, ㉡는 김생에게 영영과의 인연에 대한 좌절감을 준다.
- ⑤ ㉠은 영영을 현재의 공간에 머물게 하고, ㉡는 영영을 현재의 공간에서 떠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23001-0012]

## 03 <보기>는 ‘김생’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 보기 ─┘

김생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이면서 ( ㉠ )을/를 하듯이 말하는 인물이다. ㉡는 노파의 집을 방문한 것이 미리 약속된 일정이라는 점에서, ㉣와 ㉤는 회산군 댁에 들어와 누운 것이 의도에 따른 결과이고 그것이 시치미를 떼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모두 ( ㉠ )에 해당된다.

① 극의 특성

- 극은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대본으로 삼아 인간의 갈등을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므로 ‘행동의 문학’ 또는 ‘현재화된 인생 표현’으로 불림.
- 극은 배우와 무대, 촬영 기법, 관객 등의 요소를 염두에 두고 구성되고 연행됨.
- 극은 갈등의 예술이라 할 정도로 한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나 인물 간 갈등의 생성, 전개, 해결 또는 해소가 극의 전개에서 중요한 축이 됨.
- 극에서 갈등은 개성적 혹은 전형적 성격을 지니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주동 인물과 그를 방해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반동 인물 사이에서 주로 일어남.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갈등이 제시되어야 극적인 효과가 선명하게 드러남.

② 희곡과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1) 대사

- 등장인물의 말을 가리킴. 대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됨.
  - ① 대화: 인물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
  - ② 독백: 상대역이 없는 가운데 등장인물이 혼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말
  - ③ 방백: 연극에서 무대 위 다른 인물은 듣지 않는 것으로 약속된 상태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말
- 등장인물의 성격과 생활 환경, 신분 등을 드러내고, 플롯을 진전시킴과 동시에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됨. 무대에 재현되지 않는 사건도 대사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음.

(2) 행동

- 극에서 등장인물은 대사를 구사함과 동시에 몸을 움직여 상황을 만들고 의사를 표현함. 대사 없이 행동만으로 상황과 정서가 표현되는 경우도 있음.
- 등장인물의 행동과 표정, 어조는 지시문을 통해 알려 줌.

③ 희곡과 시나리오의 비교

희곡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의 대본</li> <li>• 무대에서 연행된다는 조건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으로 제약이 크고, 등장인물의 수도 제한됨.</li> <li>• 한 번 고정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나 TV 드라마의 대본</li> <li>•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등장인물의 수에서도 제약을 덜 받음.</li> <li>• 촬영 현장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음.</li> </ul>

◎ 지시문(지문)

희곡에서 지시문은 행동 지시와 무대 지시로 구분된다. 행동 지시는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어조, 위치 등에 관한 지시이고, 무대 지시는 무대 장치의 변화, 소도구의 처리, 음향, 조명 등에 관한 지시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지시문이 촬영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촬영 기법, 편집 방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강구가 무너진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국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6일 만에 구출된다. 유명 인사가 된 김창호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후 김창호는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 지내다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

(홍 기자 논문을 읽고 있다. 때로 만년필로 가필도 해 가면서.)

홍 기자: 현대 사회는 다원적인 계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광대한 지역에 산재한 생활 영역으로 인해 복잡 다양한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어서 이 계층 간에는 많은 모순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계층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이 사회 성원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는 대중교통을 대리하는 것이다…… 거대한 집단으로서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는 모든 사회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 사회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 동안 김창호 등장해서 홍 기자가 자기를 봐 주기를 기다린다.)

김창호: 선생님……. / 홍 기자: 뭘니까?

김창호: 저 모르시겠습니까? / 홍 기자: 당신 누군데?

김창호: 홍 기자님이시죠?

홍 기자: 그런데요?

김창호: 저 김창호입니다.

홍 기자: 김창호? 여보, 김창호란 이름이 한두 개요?

김창호: 동진 광업소 동 5 갱에 묻혀 있던 광부 김창호.

홍 기자: 아? 김창호 씨?

김창호: (반갑다) 역시 절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두 참 고마웠지요.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홍 기자: 그런데 뭐 볼일 있수? 나 지금 바쁜데…….

김창호: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비도 떨어지고…….

홍 기자: (돌아서서 5천 원짜리 주며) ㉡이거 가지구 가시우, 그리고 아래층 광고부에 가면 거기서 사람 찾는 광고 취급합니다. 나 바빠서……. (김창호를 무시하고 다시 논문을 본다.)

김창호: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소? ㉢내가 한때는 그래도 영부인한테 초청을 받은 사람이오, 서울시장도 나한테…….

(김창호 멍하니 말을 잃는다. 홍 기자가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동안 천천히 퇴장한다.)

홍 기자: 결론, 따라서 마스크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마스크는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긴요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마스크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마스크 커뮤니케이션! 마스크! 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중략)

(카메라가 가운데 설치되고 있다. 구경꾼들 호기심에 카메라 앞에 몰려 있고 경찰은 정리에 바쁘고, 홍 기자 마이크 잡고 방송 준비. 카메라에 라이트 비친다.)

홍 기자: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동민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메탄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채탄 작업 중이던 광부 34명이 매장됐습니다. 그러나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광부 중 폭발한 갱구 아래 쪽 대피소에 있던 배관공 22세 이호준 씨가 아직 살아 있음이 지상과 연결된 배기 파이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 난 갱구 입구입니다.

(이때 이불 보파리를 멘 김창호 일가 등장한다. 홍 기자, 김창호를 발견한다. 홍 기자 달려온다.)

홍 기자: ⊖ 김창호 씨, 잠깐만!

(이불 보파리를 벗겨 카메라 앞에 세운다.)

홍 기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기억에도 새로운 매물 광부 김창호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갱구 매물로 16일간 굴속에 갇혀 있다 무식 같은 의지와 강인한 육체로 살아남은 김창호 씨!

(구경꾼들 일제히 김창호 씨에게 시선 주며 박수친다. 김창호 처음에는 머뭇거리다. 웃으며 손을 들어 답례한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 1천 2백 미터 갱내 대피소에 인부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출될 때까지 갱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김창호: ⊕ 예, 먼저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이 났다.) 제 경험으로 봐서 배고픈 건 움직이지 않음 참을 수 있는데 추운 건 견디기 힘듭니다. 전구라도 있으면 안고 있어야 합니다. 배기펌프로 공기도 계속 넣어 줘야 되구요.

(그사이 기자 한 사람 뛰어나와서 홍 기자에게 귀엣말한다. 홍 기자 마이크 뺏어 자기 말을 한다.)

홍 기자: 방금 인부들이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포클레인으로 무너진 흙더미의 한 부분을 들어내어 매물 된 인부들이 모두 그 틈으로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 참! 싱겁게 끝나는군. 이런 걸 특종이라구 취재하다니, 자, 갑시다.

(카메라 치운다. 구경꾼들 이젠 흥미 없다는 듯 카메라를 따라 나간다.)

김창호: (정신없다.) 여보세요,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갱 속에서 오래 견디려면 바깥 생각은 말아야 됩니



다. 그저 꼭 참고…… 언젠가는 빛이 보이겠지 하는 희망을 갖구…… 희망…….

(김창호 일가 외엔 아무도 없다.)

박 여인: 여보, 가요!

김창호: 어디로 가? 땅속으로, 아니야, 그래 하늘로 가자! 하늘로 가서 모두 깜짝 놀랄 기록을 세울 거다. 우리 다 같이 가자. 하늘에 가서 기록을 세우는 거다.

(일가 보따리 들고 천천히 퇴장한다.)

- 윤대성, 「출세기」

[23001-0013]

## 01 윗글을 연극으로 상연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로 인해 자신의 일에 방해받은 상황이니 귀찮은 투로 말해 주세요.
- ② ㉡: 상대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이니 다소 격앙된 억양으로 대사를 해 주세요.
- ③ ㉢: 귀찮지만 필요한 상황이니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상대를 불러 주세요.
- ④ ㉣: 오랜만에 대중의 관심을 얻었으니 상기된 표정으로 연기해 주세요.
- ⑤ ㉤: 특종이라는 기대가 허물어졌으니 아쉬움이 담긴 말투로 말해 주세요.

[23001-0014]

## 02 현대 사회에서 ㉡가 지닐 수 있는 문제점을 [A]에서 찾아 2어절로 쓰시오.

[23001-0015]

## 03 <보기>는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보기 ┃

- (가) 김창호가 흥 기사를 찾아간 것은 흥 기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환대를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나) 흥 기자가 김창호를 대하는 태도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김창호를 기삿거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구경꾼들이 김창호의 등장엔 박수를 친 것은 김창호가 매몰된 인부들을 구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라) 김창호가 하늘로 가서 깜짝 놀랄 기록을 세우자고 다짐하는 것은 다시 대중의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수필

수필(隨筆)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는 뜻으로, 본래는 어떤 글의 갈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다. 문학의 분류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면서 서정, 서사, 극을 제외한 나머지 산문적인 글을 통칭하는 갈래 명칭으로 굳어져 쓰이고 있다.

## ① 교술 문학의 특성

- 자유로운 형식과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가진 문학 갈래로서,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사람들도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음. '수필'로 지칭되는 글이 대표적인 교술 문학임.
-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자기 성찰과 사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작품 속의 '나'는 원칙적으로 글쓴이 자신임.
- 깨달음이나 가르침[교(敎)], 설명이나 알림[술(述)]을 목적으로 창작되며, 다른 갈래에 비해 글쓴이의 가치관이 더 분명히 드러남.

## ② 교술 문학의 구성 요소

### (1) 형식

- 교술 문학의 형식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음.
- 과거에는 기(記), 설(說), 논(論) 등 다양한 형식이 있었고, 현재는 일반적인 서술 형식 외에도 일기, 편지, 기행문, 이야기 등의 형식이 차용되기도 함.

### (2) 표현과 문체

- 비유(의인화 포함), 상징, 역설, 반어 등의 수사법은 물론이고 설명, 논증, 묘사 등의 기법도 동원하여 글쓴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함.
- 대화를 삽입하여 소설이나 극의 형식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기도 함.
- 다양한 표현 자질들은 어휘의 종류, 문장의 길이 등에 의해 형성되는 문체적 특성과 결합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 (3) 주제

- 교술 문학의 내용과 주제는 일상적 경험에서 얻는 주관적인 감상에서부터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 교술 문학의 주제에는 글쓴이의 개성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포착된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이 함축되어 있음.
- 교술 문학은 다른 갈래에 비해 주제가 더 명시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

## 작품으로 이해하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거리로는 로마나 파리보다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식 속에는 훨씬 더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비잔틴\*이 서로 구별되지 않은 채 흑해처럼 뭉매하기만 하였습니다.

이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게도 의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이중의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벽이며 우리의 의식 속에 각인된 문화 종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탄불로 오는 이번 여정도 이 두 개의 장벽을 넘어온 셈입니다.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런던·파리·아테네를 거쳐서 이스탄불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돌궐\*과 흉노는 중화(中華)라는 벽을 넘지 않고는 결코 온당한 실상을 만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않고는 이슬람과 비잔틴의 역사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만리장성보다 완고하고 알프스보다 더 높은 장벽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개의 장벽을 넘어 이곳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사이에 앉아 이 엽서를 띄웁니다. 소피아 성당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중심(Omphalion)을 이곳으로 옮겨 온 비잔틴 문명의 절정입니다. 직경 32m의 돔을 지상 56m의 높이에 그것을 받치는 단 한 개의 기둥도 없이 올려놓은 불가사의한 건축입니다. 그보다 못한 유럽의 유적들이 예찬되고 있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또 한 번 우리들의 부당한 편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물과 유적뿐이 아닙니다.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수많은 사화(史話)들이 있습니다.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배가 산을 넘는 등 무수한 무용담은 그리스와 로마의 전사에서도 그에 필적할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 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이 더욱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교도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었기에 더욱 돋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약탈이 허용되는 것이 이슬람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

지시켰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일체의 약탈을 엄금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스만 튀르크가 그들 보다 앞선 유럽 문명의 정화(精華)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이슬람의 그러한 **관용**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이야말로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 놓았습니다. 동과 서, 고와 금이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터키\*는 스스로 아시아·그리스·페르시아·로마·비잔틴·오스만 튀르크 등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카파도키아·에페수스·트로이 등지에는 지금도 그리스·로마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 (중략)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내면의 애정**이 관용과 화해로 개화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금까지 인류사가 달려온 험난한 도정(道程)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가파른 길을 숨 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목표였던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블루 모스크에서 나는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관용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288개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줄기가 99가지 청색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현란한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이것이 곧 이스탄불이 자부하는 과거와 현재, 동과 서의 거대한 합창이었습니다. 이 현란한 빛의 향연과 거대한 합창은 그 속에서 서 있는 나 자신을 풍선처럼 커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와 정반대 편에서 서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유학생의 감동적인 변화도 바로 이스탄불의 관용이 피워 낸 한 송이 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여 준 것은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관용과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역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었습니다. 장벽은 단지 장벽의 건너편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를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굴레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아 놓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가는 멀고 먼 여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신영복,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비잔틴: 비잔틴 제국, 4세기 무렵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할 때 콘스탄티노플에 도읍하여 세워진 나라. 동방 정교회의 본산으로서 찬란한 비잔틴 문화를 이룩함.

\*돌궐: 6세기 중엽에 일어나 약 2세기 동안 몽골고원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친 지역을 지배한 터키계 유목 민족.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활약했던 중국 이민족 흉노의 후예로 보기도 함.

\*터키: '튀르키예'의 전 이름.

[23001-0016]

## 01 다음은 윗글의 갈래에 대한 학습 일지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단, ㉠~㉢에 들어갈 말은 윗글에서 찾아 쓸 것)

### 가. 작품의 갈래 성격

- 글쓴이가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므로, ( ㉠ ) 갈래에 속함.
- 여행 체험을 다루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행 수필로 분류할 수 있음.

### 나. 작품에 드러나는 기행 수필의 구성 요소

- 여정: 글쓴이는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런던·파리·아테네를 거쳐서 터키의 도시 ( ㉡ )에 도착함.
- 견문: ( ㉡ )의 대표적인 두 장소인 ( ㉢ )에 대해 글쓴이가 보거나 들어 아는 바를 드러냄.
- 감상: 글쓴이는 견문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 ㉢ )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 내고 있음.

[23001-0017]

## 02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각각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선생님: 이 작품의 글쓴이는 세계 다른 지역의 역사나 문화유산에 대해 익숙하게 알고 있던 데 비해 터키의 그것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러했던 원인을 ‘이중의 장벽’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까지 □□와/과 □□ 중심의 세계관이 자신의 생각을 제약해 왔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3001-0018]

## 03 ‘관용’을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글쓴이가, 이교도 문화에 마호메트 2세가 베푼 관용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낸 표현이군.
- ② 글쓴이는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이들의 관용에 의해 이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군.
- ③ 글쓴이는 관용의 전통 덕분에 터키가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군.
- ④ 글쓴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면의 애정’을 깨달아야 관용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 ⑤ ‘현란한 빛의 향연’은 글쓴이가 블루 모스크에 깃들어 있다고 여기는 관용의 정신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표현이군.

#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 ◎ 표현론

작가 맥락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관점을 '표현론'이라고 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외재적 관점 중의 하나이다.

## ◎ 효용론

작품과 독자 맥락의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을 '효용론'이라고 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외재적 관점 중의 하나이다.

## ① 작가 맥락

### (1) 자기표현으로서의 문학

- 작가는 불행한 일, 부끄러운 일, 자랑스러운 일, 감격적인 일 등 어떤 사건을 보거나 겪었을 때 소통의 욕구나 치유의 의지 등을 바탕으로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함. 따라서 문학 작품은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의 표현물로 볼 수 있음.
- 이때 작가의 창작 동기, 전기적 사실, 심리 상태 등이 작품 이해의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 독자는 '누가, 그 사람의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왜 썼는가?' 하는 물음을 통해 작품에 접근할 수 있음.

### (2) 작가 맥락의 요소

- 작가의 사회적 정체성: 작가의 가정 환경을 포함한 성장 환경, 생애 주기별 역사적 사건, 직업 등의 사회적 경험, 동일 세대의 문화적 기억 등
- 작품의 창작 동기: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게 된 특정한 계기나 상황

## ② 독자 맥락

### (1) 문학의 미적, 인식적, 윤리적 효용

- 독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정서적인 감흥과 미적인 감동을 얻고, 인간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며 윤리적 교훈을 얻기도 함.
- 독자는 때때로 과거의 어느 독자가 경험한 감동과 교훈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도모할 수 있음. 이때 과거의 독자와 현재의 독자는 대화적 관계를 형성함.

### (2) 독자 맥락의 요소

- 독자의 개인적 취향: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선호 등
- 독자의 개인적 발달 수준: 경험의 폭과 깊이, 지적 수준, 감수성, 공감 능력 등
- 독자의 사회적 정체성: 독자의 세대적, 성적, 지역적, 계층적 특성 등

###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르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靑山)  
어린 때 그리워  
피-르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寰)\*의 거리  
인간사(人間事) 그리워  
피-르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눈물의 언덕을  
피-르 날리리.

- 한하운, 「보리피리」

\*인환: 인간의 세계

[23001-0019]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의 (1)~(4)가 적절하면 ‘○’, 그렇지 않으면 ‘×’로 표시하시오.**

- (1)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 (2) 의인화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
- (3)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    )
- (4) 연쇄법을 구사하여 중심 소재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고 있다. (    )

[23001-0020]

02

〈보기〉는 윗글을 쓴 시인의 자서전 중 일부이다. 〈보기〉와 윗글을 엮어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거울을 쳐다보니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문둥이\* 그 화상이었다. 기절할 노릇이다. 결정은 팔다리 얼굴 할 것 없이 나날이 기하급수로 단말마의 발악처럼 퍼지는 것이었다.

이곳저곳에서 쑥덕쑥덕한다.

하루는 상사가 부른다.

“문둥병이 아닌가?”라고 한다. 빨리 치료를 하라는 것이었다.

인제는 그만이다. 세상아! 잘 있거라 하면서 나는 창황히 집으로 돌아왔었다.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이 꼴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욱 동리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진종일 밤이 오도록 기다렸다. 사람이 안 다니는 호련천 가 뜰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한다. 인제는 정말로 문둥이 된 설움이 가슴을 찢는다. 문둥이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을 통절하게 비판하였다.

이제는 인간 폐업령이 내렸다. 이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하였다. 몇백 번 죽음을 고쳐 죽어도 자옥 자옥 피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문둥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밤이 어두워진다. 모든 것을 검게 가리어 주는 밤이 온다.

- 한하운, 「고고한 생명 - 나의 슬픈 반생기」

\*문둥이: 나병 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 ① ‘세상아! 잘 있거라’ 하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처지였기에 ‘인간사’에 그리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군.
- ② 어린 시절에 대한 시인의 기억 속에서 ‘고향 땅 함흥’은 ‘꽃 청산’의 모습이었겠군.
- ③ 시인은 ‘인간 폐업령’이 내렸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이 지나는 곳들을 ‘눈물의 언덕’으로 느꼈겠군.
- ④ 시인이 느꼈던 ‘피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은 ‘어린 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소산이었겠군.
- ⑤ 시인은 고향에 와서도 ‘모든 것을 검게 가리어 주는 밤’이 오기까지 ‘인환의 거리’에 들어설 용기를 못 내었겠군.



[23001-0021]

### 03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선생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작품의 내용 요소나 형식적 특성을 이해하고 감상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작품이라도 독자마다 서로 다른 심미적 감동을 경험하거나 윤리적 교훈을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한하운의 「보리피리」라는 시가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학생: 저는 그리움의 매개체가 존재한다는 점이 특별히 공감됐어요. 어릴 때 저는 할머니께 선물로 받은 곰 인형을 무척 좋아해서 밤에도 안고 잤거든요. 아직 그 인형을 안 버리고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그 인형을 보면 그 시절이 생각나요. 또 할머니가 그리울 때면 그 인형을 꺼내 보게 돼요. 아마도 이 시의 화자에게는 (            )이/가 저의 곰 인형과 비슷한 것인 듯해요.

◎ 이론적 갈래와 역사적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은 어떤 문화권이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갈래'라고 한다. 이에 비해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특정한 문화권에 존속했던 문학 양식을 가리켜 '역사적 갈래'라고 한다. 가령 시조는 한국의 문학사에 자리 잡고 있는 역사적 갈래의 명칭이지만, 이론적 갈래로는 주로 서정 갈래에 포함된다.

① 문학사적 맥락

(1) 문학사적 맥락의 개념과 특징

- 문학 작품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문학 갈래의 존속, 공동체의 정신과 상상력, 풍속과 사회상 등 문학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과 배경을 가리킴.
- 한 편의 문학 작품은 일정한 언어문화의 지평 안에서 여러 가지 문학적 관습을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소통됨. 한 작품은 선행하는 다른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고 동시대의 수많은 다른 작품들과 공존하면서 문학사적 맥락을 구성함.
- 독자는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망할 수 있음.

(2) 문학사적 맥락의 요소

- 역사적 갈래의 전개 과정: 문학 작품들은 특정한 갈래로 분류되는데, 그 갈래는 역사적으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됨. 각각의 갈래에는 내용, 형식, 표현의 측면에서 다른 갈래와 구별되는 고유의 문학적 관습이 있음.
- 문학사적 영향 관계: 문학 작품은 앞선 시대의 문학 작품이 지닌 내용, 형식, 표현의 영향을 받음. 그 영향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음. 특정한 문학적 요소들은 온전하게 보존되기도 하고 발전적으로 변모되기도 함.
- 사회·문화적 상황, 역사·시대적 상황: 문학 작품은 그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시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게 되며,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산출됨.

② 상호 텍스트적 맥락

- 모든 문학 작품은 잠재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상호 텍스트성이 성립함.
- 패러디된 작품에서와 같이 주어진 작품 안에 다른 작품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상호 텍스트적 맥락의 대표적인 사례임.
- 상호 텍스트성은 직접적인 영향 관계의 유무와 무관하게 독자가 스스로 발견하거나 구성할 수도 있음. 이 경우 각 작품에 담긴 모티프, 이미지, 소재, 주제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읽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거나 심화할 수 있음.

## 작품으로 이해하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하신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이들을 먹여 다스려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한다면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라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이리라
-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此盼喰惡支治良羅  
 此地盼捨遺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國惡支持以支知古如  
 後句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國惡太平恨音叱如

- 충담사, 「안민가(安民歌)」

- 나**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뿔썩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드른 그르래 아니 그출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제2장〉

천세(千世) 우희 미리 정(定)흐산 한수(漢水) 북(北)에 누인개국(累仁開國)흐샤 복년(卜年)이 굶업스시니\*

㉠성신(聖神)이 니스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흐샤샤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낙수(洛水)에 ㉢산행(山行)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제125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복년이 굶업스시니: 왕조의 운수가 계속됨.

\*낙수에 ~ 미드니잇가: 하나라 태강왕이 정사를 잘 돌보지 않고 사냥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자 궁나라의 제후 예에 의해 축출당한 고사를 이룸.

[23001-0022]

01 다음 빈칸에 각각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가)와 (나)에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어떤 속성을 미루어 추측하는 □□의 논리가 나타난다. (가)는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가 마치 □□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았고, (나)는 한 나라의 역사적 운명과 관련된 이치가 나무, 샘 등에 적용되는 자연의 이치와 비슷하다고 봄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변명을 이루는 나라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23001-0023]

0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을 ‘먹여 다스려야’ 하는 주체이다.
- ② ㉢이 ㉡에서 삶을 이어 가야 나라가 유지된다.
- ③ ㉢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에게 명령한다.
- ④ ㉢은 ‘천세’ 전부터 ㉡의 전통을 지켜 오고 있다.
- ⑤ ㉢은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년’을 이루게 된다.

[23001-0024]

03 다음과 같이 (가)와 (나)를 설명할 때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가)와 (나) 모두 바라는 결과와 그 결과를 얻기 위한 (    ㉠    )을/를 가정법의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교훈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	바라는 결과
(가)	임금, 신하, 백성이 본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    ㉡    )을/를 이루게 됨.
(나)	임금들이 (    ㉢    )하면	나라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음.

㉠: (                      ), ㉡: (                      ), ㉢: (                      )

## 1 사회·문화적 맥락

### (1) 사회·문화적 맥락의 개념

- 한 사회에서 같은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나 질서, 그들이 지닌 보편적인 정신세계나 태도의 총체적 연관성을 가리킴. 문학 작품에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됨.
- 독자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

### (2) 사회·문화적 맥락의 요소

- 당대의 다양한 이념이나 사상: 문학 작품은 작가가 살아가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회의 다양한 이념이나 사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함.
- 당대의 사회 제도, 문화적 관습: 문학 작품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회의 사회 제도, 문화적 관습을 반영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함.
-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화자나 인물의 삶의 방식: 작품 속 화자나 인물들은 사회 질서에 대해 대항, 순응, 회피 등의 태도를 보임.

## 2 역사적 맥락

### (1) 역사적 맥락의 개념

- 한 작품을 창작하는 계기가 되거나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사건을 가리킴.
- 독자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에 담긴 주제 의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역사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2) 역사적 맥락의 요소

- 역사적 사건: 왕조 교체, 식민 통치, 전쟁 등 국가 및 민족 단위의 사건은 물론이고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적 사건이 작품의 배경이나 소재가 됨.
-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물질적·정신적 환경: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나 생성, 기존 문물의 소멸 등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여 인간 생활의 변화가 작품에 반영됨.

### ※ 반영론

문학 작품을 현실 세계의 반영이라 보고, 재현의 대상이 된 현실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관점을 '반영론'이라고 한다. 사회·문화적 상황, 역사적 배경 등이 작품의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 ※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의 관계

두 종류의 맥락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해 역사적 맥락은 구체적이다. 그래서 종종 사회·문화적 배경은 드러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은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김유정의 「봄·봄」에는 전통적인 농촌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나타나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맥락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반대로 역사적 맥락이 드러나는 작품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들이 커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본 걸 하룻길 둘만의 자리가 됐을 때 내가 던지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그때 그 일,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한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 그러나 머지않았다.”

나는 웃어 주었다.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형우, 네가 구원해 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재수파들이었다.”

“그런데?” /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다.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기표두 왔었니?”

내가 험쩍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럴 테지. 나는 후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재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뱀이나 다름없어. ㉣개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형우와 갈라서야 하는 길목에 와 있었다. 나는 형우네 집 쪽으로 따라가며 물었다.

“너 지금 무슨 얘길 하는 거냐?”

형우가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 애다. 거기다가 그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 있다. 시집간 기표 누나

가 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산댄다. 기표 동생이 셋이나 있다. 기표 바로 밑의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보냈는데 요즘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아무튼 생활이 말두 아니란 거야. 재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 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에 가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렇게 해 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 “마찬가지다. 재수파들도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을걸.” /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㉔“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중략)

담임 선생이 교단에서 내려서고 그 대신 반장 임형우가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단 위에 섰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룻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표네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였다. 나에게 얘기를 들려줄 때의 그런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오직 우의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정경이며 기표 어머니의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버스 안내원을 하던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표네 식구들의 배고픔이 눈에 보이듯 열거되었다. 그런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결코 곁에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학교에 나온 기표의 의지가 또한 높게 치하되었다.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도 유급을 했기 때문에 일 년간의 학비를 더 마련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들 가슴에 뭉클 뭉클 던져 주었다.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에 떨어져 내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우는 기표네 가정 사정을 낱알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 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의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한 가지 또 알려 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남이 모르게 도와 온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표의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재수파라고 불려 온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이 무시해 온 그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우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 용돈을 저축하고 또는 방학 때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해서 받는 돈으로 기표를 도와 온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매달 자신의 귀한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피를 세 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을 우정으로써 구원하려 한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협동과 봉사-기여 정신의 신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 가지고 온 도시락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매함이었습니다.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 먹어야 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깊은 감동의 강물이 모두의 가슴 한가운데를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 전상국, 『우상의 눈물』

[23001-0025]

## 01 읽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지적 시점에서 인물 간의 갈등 관계와 인물들의 내면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
- ③ 장면의 변화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서술자를 통해 사건들의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해석하고 있다.
- ④ 이야기 밖 서술자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이야기 속 인물로 등장하여 특정 공간의 시대적 변천 과정에 대한 자신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23001-0026]

## 0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묻는 것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근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대화 속에 등장하는 부정적 인물이 지닌 문제점을 구체적인 열거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
- ④ ㉣: 직접 경험했던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부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23001-0027]

### 0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독서 일지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 보기

「우상의 눈물」은 합법적인 권력의 폭력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한 폭력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규율의 내면화와 위선의 활용 등 비가시적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1970년대와 작품이 발표된 1980년대는 독재 정치가 만연한 때이며 독재 정권의 폭력이 점점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형식으로 변모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부당한 현실과 불평등한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저항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불분명해졌다.

작가는 합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비가시적인 폭력이 가시적인 폭력보다 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줌과 동시에 1970~1980년대의 사회·역사적 현실을 교실 상황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있다.

#### <독서 일지>

이 소설의 배경이 1970년대 고등학교라는 것과 이 소설이 1980년에 발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소설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의 악을 상징하는 인물과 합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위선적인 악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통해 후자가 보여 주는 권력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자의 폭력이 더 두려운 것일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폭력의 유형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보이는 그대로의 악행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기표는 ( ㉠ )을/를 나타내는 인물이다. 반면에 담임과 형우의 행동들은 겉으로는 합법적이고 선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 한다는 점이나 기표의 불행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선함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는 면에서 매우 교묘하고 위선적인 ( ㉡ )의 유형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 조건

- 1) 인물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폭력의 유형에 대해 쓸 것.
- 2) <보기>에서 단어를 찾아 활용할 것.

㉠: \_\_\_\_\_

㉡: \_\_\_\_\_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적용 학습

2  
부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찌할꼬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나 자줏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紫布岩乎過希  
 執音乎手母牛放教遣  
 吾盼不喻慚盼伊賜等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 건우 노인, 「헌화가」

다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했네  
 싸움에 이겨 공 이미 높으니  
 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겠소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願云止

- 을지문덕, 「수나라 장수 우종문에게 보내는 시」

[23001-0028]

##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에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 싶은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② (가)~(다)에는 자신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다.
- ③ (가)와 (나)에는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 ④ (나)와 (다)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자기중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다)에는 대상이 지닌 장점이나 대상이 이룬 성취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 있다.

[23001-0029]

## 02 (가)~(다)의 시어나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그 물’과 (나)의 ‘자줏빛 바위 가’는 공간적 배경으로서 화자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 ② (가)의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와 (다)의 ‘신기한 계책’, ‘묘한 계산’은 청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심리나 태도를 드러낸다.
- ③ (가)의 ‘돌아가시니’를 통해 대상과 이별하는 상황을, (나)의 ‘바치오리다’를 통해 대상에게 마음을 전하려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 ④ (나)의 ‘꽃’이 청자에게 알려 주고 싶은 화자의 진심을 상징한다면, (다)의 ‘공’은 ‘싸움’을 통해 청자가 얻은 것으로 앞으로 계속 얻고자 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 ⑤ (나)의 ‘암소’가 화자가 한순간도 버려둘 수 없는 소중한 마음을 의미한다면, (다)의 ‘죽함’은 청자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어 포기할 수 있는 감정을 의미한다.

[23001-0030]

## 03 <보기>의 선생님의 요청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우리가 배우는 고전 문학 작품 중에는 배경 설화나 창작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되는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조선에 살던 백수 광부의 아내가 술에 취해 물을 건너던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을 겪고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신라 성덕왕 때 창작된 향가입니다. 높은 절벽에 핀 철쭉을 꺾어다 바칠 사람이 없냐는 수로 부인의 질문에 모든 시종들이 고개를 젓는 상황에서, 암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 바칠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는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지은 한시입니다. 을지문덕은 거짓으로 패배하는 척하며 수나라 군대를 평양성 인근까지 유인한 후에 적장 우중문에게 일부러 이 시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중문은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고 군사를 물리지만 결국 살수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배경 설화나 창작 배경을 알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다)를 설명해 볼까요?

- ① (가)와 (나)의 경우 배경 설화 속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은이를 ‘백수 광부의 아내’나 ‘견우 노인’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겠군요.
- ② (가)가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면, (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군요.
- ③ (나), (다)의 청자와 달리 (가)의 청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가)의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말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하소연에 가까운 것이겠군요.
- ④ (가), (나)의 화자와 달리 (다)의 화자는 자신의 생각이 청자에게 전해졌을 때, 청자가 어떠한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군요.
- ⑤ (가)~(다)는 배경 설화나 역사적 사건 속의 인물들이 화자와 청자가 되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정월의 냇물은 / 아으 열고자 녹고자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 몸이여 홀로 지내가는구나  
 아으 동동(動動)다리 [A] <정월 노래>
- 이월의 보름에 / 아으 높이 켜  
 등불 같구나 / 만인(萬人) 비추실 모습이로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B] <2월 노래>
- 사월 아니 잊어 / 아으 오시는구나 ㉠ 꾀꼬리 새여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 옛 나를 잊고 계신가  
 아으 동동(動動)다리 <4월 노래>
- 팔월 보름에 / 아으 가윗날이지만  
 임을 모시고 지내야 / 오늘날이 가윗날이로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C] <8월 노래>
- 시월에 / 아으 저며 놓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10월 노래>  
 -작자 미상, 「동동」

\* 녹사: 고려 시대의 관직명.

- 나 일조(一朝)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  
 자네 일정(一定)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이 아해야 말 듣소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짚어 못 오는가  
 이 아해야 말 듣소 [D]  
 춘수(春水)가 만사택(滿四澤)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峰)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 대사 성진이\*는  
 석교(石橋)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㉓ 병풍에 그린 황계(黃鷄) 수탉이 두 나래 동덩 치고

짜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사경(四更) 일점(一點)\*에 날 새라고 꼬피요 울거든 오려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너는 죽어 황하수(黃河水)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都大船)\* 되어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동덩실 떠서 노자

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 데 명휘(明輝)를 빌리려문 나도 보게

이 아해야 말 듣소

추월(秋月)이 양명휘(揚明輝)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대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냐

지어자 좋을시고

ㄱ  
[E]  
ㄷ

- 작자 미상, 「황계사」

\* 돈절하야: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져서.

\* 춘수가 만사택하니: 봄물이 사방 연못에 가득하니.

\* 하운이 다기봉하니: 여름의 구름이 기이한 봉우리마다 많으니.

\* 육관 대사 성진이: 성진은 조선 시대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구운몽」의 주인공임. 육관 대사는 주인공 성진의 스승인데 이 작품에서는 육관 대사와 성진을 같은 인물로 착각하고 있음.

\* 팔선녀: 김만중의 「구운몽」에 나오는 여덟 명의 여주인공들로, 주인공 성진의 아내가 됨.

\* 사경 일점: 사경은 새벽 1~3시 사이의 시간. '점'은 각 '경(更)을 5단위로 나눈 시간으로 사경 일점은 새벽 1시 24분 정도에 해당하는 시각임.

\* 도대선: 큰 나룻배.

\* 추월이 양명휘하니: 가을 달은 밝은 빛 드날리니. 이 구절은 앞의 '춘수가 만사택하니', '하운이 다기봉하니'와 함께 중국 육조 시대의 시인 인 도연명의 「사시(四時)」에서 차용한 구절임.

[23001-0031]

##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에는 임이나 화자가 아닌 제삼의 인물을 청자로 설정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는 특정한 통사 구조가 반복 사용되어 운율감이 생겨나고 있다.
- ④ (가)와 (나)에는 모두 화자와 대상 인물 간의 문답을 통해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계절감을 환기하는 자연물과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23001-0032]

## 0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② ㉠과 ㉡은 모두 화자와 입을 이어 주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는 소재이다.  
 ③ ㉠은 입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은 화자에 대한 입의 태도 변화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④ ㉠은 문제의 원인을 화자 자신에게서 외부 세계로, ㉡은 그 원인을 외부 세계에서 화자 자신으로 전환하게 하는 소재이다.  
 ⑤ ㉠은 입을 향한 화자의 서운한 감정을 심화하는, ㉡은 자신이 바라는 일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23001-0033]

## 03 &lt;보기 1&gt;의 관점에서 &lt;보기 2&gt;를 참고하여 &lt;나&gt;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황계사」는 조선 후기에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십이 가사 중 하나로서 노랫말에 반복과 병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후렴구가 첨가되기도 한다. 작가 의식에 기반해 일관된 주제를 담아내기보다 여러 갈래의 기존 작품들로부터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차용하고 조합해 노랫말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작품의 표현을 차용할 때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가 유지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 차용한 표현들이 노랫말에 다수 삽입되면서 작품이 전달하려는 주제와 동떨어진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작품의 완성도보다 청중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유흥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보기 2 |

조선 후기에 공존했던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 가운데 대중적으로 유행하여 당대 사람들에게 익숙했으면서 「황계사」와 연관성을 지닌 작품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조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니 /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  
- 작자 미상, 「상사별곡」
-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 너 오는 길에 무쇠성을 쌓고 ...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니 한 해도 열두 달이오 ...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 春水滿四澤(춘수만사택) / 夏雲多奇峰(하운다기봉) / 秋月揚明輝(추월양명휘) / 冬嶺秀孤松(동령수고송)  
- 도연명, 「사시」
- 대사가 대노하여 왈, “네 용궁에 가 술을 먹으니 그 죄도 있거니와 오다가 석교상의 팔선녀로 더불어 언어를 희롱하고 ...”  
- 김만중, 「구운몽」
- 벽상에 그린 황계 수탉이 뒤나래 탁탁 치며 긴 목을 늘어서 회회쳐 우도록 노새그러 ...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 ① ‘일조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상사별곡」에 사용된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청중에게 익숙한 사설시조의 표현을 차용하면서 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춘수가 만사택하니’, ‘하운이 다기봉하니’, ‘추월이 양명휘하니’는 도연명의 「사시」에서 한 문 표현의 일부를 가져다 쓰면서 읽기 쉽게 ‘가’, ‘-하니’와 같은 토를 달아 변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 대사 성진이는 /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는 뒤이은 ‘지어자 좋을시고’와 함께 작품 주제와 거리가 먼 표현이지만 여행 현장의 통속적 유흥성을 반영해 「구운몽」에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두 나래 동덩 치고 / 짜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 사경 일점에 날 새라고 꼬피요 울거든 오려는가’는 기존 사설시조의 표현을 차용하면서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표현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3001-0034]

##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는 입을 향한 사랑과 입과의 이별에서 비롯한 슬픔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화자의 내면 심리는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른 태도로 나타난다. (가)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결핍의 상황을 거듭 환기하면서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입의 훌륭함을 예찬하면서 입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 (나)의 화자는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을 주로 드러내면서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자신보다 입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가)의 [A]는 ‘얼고자 녹고자’ 하는 ‘넷물’과 화자의 대비를 통해 ‘몸이여 홀로 지내가는구나’라고 말하면서 화자가 처한 결핍의 상황을 환기하고 있군.
- ② (가)의 [B]는 입의 모습을 사물에 빗대어 ‘높이 켜 / 등불 같구나’, ‘만인 비추실 모습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입의 훌륭함을 예찬하고 있군.
- ③ (가)의 [C]는 ‘가윗날’이라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여 ‘입을 모시고 지내야 / 오늘날이 가윗날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입에 대한 사랑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의 [D]는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라고 말하면서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자신보다 입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나)의 [E]는 ‘달’에게 ‘입 계신 데 명휘를 빌리려문 나도 보게’라고 말하면서 입을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인 제  
일지(一枝) 춘심(春心)을 자규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 나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라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있으라

- 박팽년

- 다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 만지  
압록강 내린 물이 푸른빛이 전혀 없네  
배 위의 허여 센 사공이 처음 본다 하더라

- 홍서봉

- 라 콩깍지 더미 곁으로 오솔길 나뉘어 있는데  
붉은 아침 햇살 살짝 퍼지자 소 떼들이 흩어지네.  
푸른 하늘은 가을 든 산봉우리를 물들이려는 듯  
맑은 기운에 비 갠 뒤의 구름은 먹음직스럽네.  
갈대에 햇살이 반짝반짝, 기러기가 놀라서 일어나고  
벼 앞에 썩 하는 소리, 붕어가 야단스러운가 보다.  
산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으니  
농부에게 반만이라도 빌려 달라 줄라 봐야지.

荳殼堆邊細逕分  
紅暎稍遍散牛群  
娟靑欲染秋來岫  
秀潔堪餐霽後雲  
葦景幡幡奴雁駭  
禾聲瑟瑟婢魚紛  
山南欲遂誅茅計  
願向田翁許半分

- 이덕무, 「농부의 집에 쓰다」

[23001-0035]

## 01 (가)~(라)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다)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비유의 방식을 통해, (라)에서는 물음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외면에서 내면으로, (라)에서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초점이 이동하며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다)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명시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에서는 현재 상황을 묘사하며, (라)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3001-0036]

## 02 색채어 사용의 효과에 주목하여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이화’에 비치고 있는 ‘월’을 백색으로 표현한 것은, 봄날 밤의 청정한 정경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군.
- ② (나)에서 ‘눈비 맞’은 ‘까마귀’를 백색과 흑색으로 혼용하여 표현한 것은, ‘까마귀’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군.
- ③ (나)에서 ‘야광명월’을 흑색인 ‘밤’과 대비하여 표현한 것은, 불안함을 느끼는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군.
- ④ (다)에서 ‘내린 물’을 보고 적색의 ‘피눈물’을 떠올린 것은, 애통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군.
- ⑤ (라)에서 ‘산봉우리’의 색을 ‘하늘’빛인 청색과 연결 지은 것은, 청명한 가을날의 풍경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군.

[23001-0037]

## 03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라)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가)~(라)는 표면적으로는 정경을 묘사한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작품 창작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면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는 고려 후기에 악행을 일삼던 충혜왕에게 충언하다 낙향한 작가의 염려를 담아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나)는 조선 초에 단종을 내몰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대한 작가의 반감을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는 병자호란 이후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청나라의 볼모로 보내던 작가의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조선 후기에 농촌에서의 실제 체험을 통해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가치를 인식한 작가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가)~(라)를 감상해 볼까요?

- ① (가)에서 ‘잠 못 들’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고향에서도 국가와 임금을 걱정하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 ② (나)에서 ‘임 향한 일편단심’을 언급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세조를 따르지 않고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군.
- ③ (다)에서 화자가 ‘이별하던 날’에 본 ‘압록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통해, 인조의 두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작가의 비극적인 상황과 애끓는 심정이 드러나고 있군.
- ④ (다)에서 화자가 ‘압록강’ 물빛이 바뀐 것을 ‘처음 본다’는 ‘허여 쉰 사공’의 말을 인용한 것을 통해, 두 왕자가 타국의 볼모로 끌려가게 된 상황은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일이라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군.
- ⑤ (라)에서 화자가 ‘산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언급한 것을 통해, 농촌을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순에서 도피하여 은거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한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말은 가자 울고 임은 잡고 울고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  
저 임아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 작자 미상

## 나 임 이별 하올 적에 저는 나귀 한치 마시오

가노라 돌아설 제 저는 걸음 아니런들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리오

- 안민영

## 다 ㉢뒤뜰에 봄이 깊으니 그윽한 심회 둘 데 없어

바람결에 슬퍼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온갖 꽃 난만한데 버들 위 꾀꼬리는 쌍쌍이 비껴 날아 울음 울 제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고  
어찌타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새만도 못하느냐

- 작자 미상

## 라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위워쳐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겨워 갈 때 적막한 ㉤빈방  
에 던진 듯 홀로 앉아 임 그려 차마 못 살레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임 보러 바빠 가는 길시오매 전할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23001-0038]

## 01 (가)~(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외양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며 고조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와 (라)는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다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다)와 (라)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23001-0039]

##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입과 헤어져야 하는 화자의 인식을 환기하는 공간이다.
- ② ㉡: 이별하는 이들이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별로 인한 슬픔이 커지는 공간이다.
- ③ ㉢: 화자가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입과 떨어진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 입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여 화자가 입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 ⑤ ㉣: 화자가 입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23001-0040]

## 03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라)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시조 중에는 동물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다수 있다. 이러한 시조에서 동물들은 부정적 상황을 지연시키거나 해결하고, 감정이 이입되는 대상으로 활용된다. 또한 동물들은 부정적 상황을 환기하거나 악화시키는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작품에서는 시적 맥락에 따라 동일한 동물이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① (나)의 화자가 ‘나귀’의 저는 걸음이 아니면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볼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나귀’는 화자에게 이별 상황을 지연시키는 대상으로 인식되었군.
- ② (다)의 화자가 ‘피꼬리’의 울음이 정이 있게 들린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피꼬리’는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라)의 화자가 ‘외기리기’가 입에게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외기리기’는 입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에서 ‘말은 가자 울고’ 있다는 화자의 말과 (나)에서 ‘입 이별 하올 적에 저는 나귀 한’하는 타인의 말은 모두 ‘말’과 ‘나귀’를 부정적 상황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피꼬리’를 자신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말과 (라)에서 입을 보러 간다는 ‘외기리기’의 말을 통해 ‘피꼬리’는 ‘외기리기’와 달리 입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반중(盤中) 조홍(早紅)같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로 설위하나이다 <제1수>

왕상(王祥)\*의 이어(鯉魚) 잡고 맹종(孟宗)\*의 죽순(竹筍) 꺾어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老萊子)\*의 옷을 입고  
일생(一生)에 양지(養志) 성효(誠孝)를 증자(曾子)같이 하리다 <제2수>

만균(萬鈞)\*을 늘어 내어 길게 길게 노를 쪼아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북당(北堂)에 학발쌍친(鶴髮雙親)\*을 더디 늙게 하리라 <제3수>

군봉(群鳳)\* 모이신 데 외가마귀 들어오니  
백옥(白玉) 쌓인 데 돌 하나 같다마는  
봉황(鳳凰)도 비조(飛鳥)와 유(類)이시니 되셔 논들 어떠리 <제4수>

- 박인로, 「조홍시가(早紅柿歌)」

- \*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 중국 삼국 시대 때 육적이란 사람이 원술이 준 귤(유자)을 품속에 품어다가 어머니께 드린 고사를 연상하며 말한 것임.
- \* 왕상: 중국 진나라 때 사람으로, 병을 앓는 계모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자 한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을 깨었는데 그 얼음 구멍에서 한 쌍의 잉어가 튀어나오자 그것을 계모에게 갖다주었음.
- \* 맹종: 중국 오나라 때 사람으로, 죽순을 즐겨 먹는 어머니를 위해 죽순이 나오지 않은 겨울에 대숲으로 가 죽순을 구해 어머니에게 드렸음.
- \* 노래자: 중국 초나라 때 사람으로, 70세에 부모님을 위해 때때옷을 입고 재롱을 피웠음.
- \* 만균: 균은 무게의 단위로, 만균은 쇳덩어리 30만 근에 해당함.
- \* 학발쌍친: 학의 깃털같이 머리가 하얗게 센 부모.
- \* 군봉: 무리를 지어 있는 봉황.

[23001-0041]

01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특정 자연물이 표상하는 가치를 화자가 응시하는 자연물에 대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제2수>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그것에서 발견한 인간적인 덕성을 본받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제3수>에서는 자연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자연물의 색채를 대비하여 과거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2수>와 <제4수>에서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23001-0042]

0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에게 호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는 시간의 흐름을 가시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③ ㉠와 달리 ㉡는 화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을 표상하고 있다.
- ④ ㉡와 달리 ㉠는 다른 사물과의 비교를 통해 우월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⑤ ㉠와 ㉡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른 상실과 회복의 순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23001-0043]

###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조흥시가」는 총 4수에 걸쳐 효(孝)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현존하는 부모를 위한 효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물론, 부재하는 부모에게는 효를 행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자식의 모습을 통해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보여 준다. 작품에는 효행을 대표하는 고사의 인물들이 여럿 등장하는데, 그들의 효행은 비현실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효의 절대적 가치와 실천에 대한 화자의 공감과 절실함을 더욱 부각한다. 그 결과 이 작품에서 효는 일회적인 데에 그치지 않고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인간은 물론 자연물에까지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 관습에서 효를 상징하는 까마귀를 작품에 등장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품어 가 반길 이 없’는 것을 ‘설워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부모를 그리는 마음이 부재하는 부모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군.
- ② ‘왕상의 이어’와 ‘맹종의 죽순’은 관련된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효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군.
- ③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겠다는 화자의 다짐에서 노래자에 대한 공감과, 효의 실천이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만균’이나 되는 셋덩어리를 길게 늘이고자 하는 마음은 생전의 부모인 ‘학발쌍친’에게 효를 실천하지 못해 갖게 된 심적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봉황’의 무리에 효를 상징하는 ‘외가마귀’가 들어와 봉황과 어울려 노는 설정은 효가 자연물에까지 해당되는 것이면서 개인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백옥경 십이루 어디인가  
 오색은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천문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낮이 되어  
 이화 가지 위에 밤낮에 못 올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흥중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리라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맑다마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낮이런가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십 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남 다른 입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오색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은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나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내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마구 내려  
 일모 수죽에 취수도 냉박쿠나  
 유란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A]

(중략)

초수 남관\*이 고금에 한둘이며  
 백발 황상\*에 슬픈 일도 많고 많다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고정 의국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한 눈이 먼 말같이 눈감고 살고 싶다  
 창창 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큰 도적도 성히 놓고 백이(伯夷)도 굶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남화\* 삼십 편에 의론도 너무 많다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밋다  
 고국 송추를 꿈에 가 만져 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회 간장이 굶이굶이 끊어졌네  
 장해 음운\*에 백주에 흠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도깨비와 두역시니가 싫도록 젖은 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입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B]

- 조위, 「만분가」

- \* 초수 남관: 초나라 사람 종의가 남관을 쓰고 간헐했다는 고사를 이름. 벼슬아치가 죄수가 되는 상황을 뜻함.
- \* 백발 황상: 고위직의 높은 신하. 북송 때 황상이라는 신하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음.
- \* 관색성: '옥살이'를 의미하는 별.
- \* 고정 의국에: 유배지에서 나라만을 생각하는 충정에.
- \* 동릉: 중국 후난성에 있는 땅 이름. 옛날에 큰 도적이 살았다고 함.
- \* 남화: 남화진경의 준말. 「장자」의 다른 이름.
- \* 남가의 지난 꿈: 남가지몽. 한때의 부귀와 권세는 꿈과 같음을 이르는 말.
- \* 장해 음운: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

[23001-0044]

01

〈보기〉와 관련지어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고전 문학 작품 중에는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의 이원적 구성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서사적 흐름을 이어 나가는 작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때 천상 세계는 신성하며 초월적인 공간으로, 지상 세계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공간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를 넘나들기 위하여 변신 모티프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변신 모티프란 인간이나 동식물, 사물 등이 원래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변하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요소를 말한다. 「만분가」의 경우, 주체의 간절한 발원을 드러내기 위해 위와 같은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① ‘천상백옥경’과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전’, ‘옥황 향안 전’은 화자가 떠올린 천상 세계의 공간으로, 초월적 공간에 가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싶다는 바람과 관련되어 있군.
- ②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낮이 되어’라는 구절에는 임과 헤어져 지내는 화자가 ‘두견새’가 된다는 변신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의 처지를 밤낮으로 하소연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군.
- ③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를 통해 화자는 ‘구름’이 되어 ‘자미궁에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데, 이는 천상 세계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변신 모티프를 활용한 것이군.
- ④ ‘십 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자연물인 백구를 천상 세계의 존재로 설정한 후, 그 벗이 되겠다는 변신 모티프를 활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 것이군.
- ⑤ ‘초수 남관이 고금에 한둘이며’, ‘백발 황상에 슬픈 일도 많고 많다’를 통해 화자와 비슷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화자가 지내고 있는 지상 세계에 적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군.

[23001-0045]

## 02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꿈조차도 향기롭다’를 통해 입과 함께 지내는 순간의 행복감이 드러난다면, [B]에서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을 통해 입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 ② [A]에서 ‘입의 웃은 못 하여’ 아쉬워하는 모습을 통해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B]에서 ‘서서 끝없이 우는’ 모습을 통해 입과 헤어져 지내는 화자의 서러움과 괴로움이 드러난다.
- ③ [A]에서 ‘백옥 같은 이내 마음’을 통해 입의 사랑을 갈망하던 상황이 드러난다면, [B]에서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를 통해 입의 사랑을 갈구하던 마음이 가라앉았음이 드러난다.
- ④ [A]에서 ‘무서리 마구 내려’를 통해 입이 계시는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다면, [B]에서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를 통해 화자가 지내고 있는 공간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다.
- ⑤ [A]에서 ‘입 계신 데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입과의 재회를 염원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면, [B]에서 ‘하늘 같은 우리 입이 전혀 아니 살피’는 상황을 통해 입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가 드러난다.

[23001-0046]

## 03 <보기>의 인물들을 활용하여 윗글의 **홍중에 쌓인 말씀**을 표현하려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윗글에 언급된 ‘초객’, ‘가태부’, ‘백이’는 고사 속 인물들로 다음과 같은 사연을 지녔다.

\*초객: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굴원’을 이른다. 참소로 인해 유배를 당한 후 세상의 더러움을 탓하며 멍라강에 뛰어들어 삶을 마감하였다.

\*가태부: 한나라의 문인이자 학자인 ‘가의’를 칭한다. 고관들의 시기로 인해 고난을 겪었다.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굴원에 빗대어 작품을 지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백이: 은나라 말에서 주나라 초기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주나라 무왕이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주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고 살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

- ①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태어났을 뿐 제 심정은 멍라강에 뛰어들었던 ‘초객’의 억울한 심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② 입에게 버림을 받아 ‘관색성이 비치는 듯’ 지내고 있으니, ‘상심도 한이 없’는 상황에 굴원을 떠올리는 모습이 ‘가태부’와 비슷합니다.
- ③ ‘초객’처럼 상심에 빠져 있으면서도 항시 ‘고정 의국’을 지니고 있는 저 같은 신하의 진심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④ ‘원망과 울분만 쌓’여 ‘창창 막막’하지만 ‘초객’과 ‘백이’를 똑같이 따를 수는 없으니, 그냥 ‘한 눈이 먼 말’같이 살아야 하는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 ⑤ ‘큰 도적’은 ‘성히 놀고’ 지조를 지키던 ‘백이’는 ‘굶어 죽으니’ 저와 같은 사람들조차 ‘수양산’보다 ‘동릉’에서의 삶을 바라게 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들 형제 진사 급제 가문도赫赫하다  
 딸을 길러 출가하니 혼수범절 치행이야 다시 일러 어떠하리  
 춘하추동 사철 의복 너의 생전 유족하다  
 바느질에 침선(針線)채며 대마구종(大馬驅從) 춘득이요 전갈(傳囑)하님 영매로다\*  
 남녀노비 갖았으니 전답인들 아니 주라  
 대한불갈(大旱不渴)\* 좋은 전답 삼백 석 받는 추수(秋收)  
 동도지(東賭地) 오친 냥은 요용소치(要用所致) 유여(有餘)하다  
 나의 신행(新行)\* 올 때가 도리어 생각난다  
 저 건너 괴퐁어미 시집살이 하던 말을  
 너도 들어 알거니와 대강 일러 경계하마  
 제일 처음 시집올 제 가산(家産)이 만금(萬金)이라  
 마당에 노적(露積)이요 너른 광에 금은이라  
 신행하여 오는 날에 가마문을 나서면서  
 눈을 들어 사방 살펴 기침을 크게 하니 신부 행실 바이없다  
 다담상(茶啖床)의 허다 음식 생률 먹기 괴이하다  
 무슨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을 먹고  
 좌중부녀(座中婦女) 어이 알아 떡 조각을 집어 들고  
 이도 주고 저도 주고 새댁 행실 전혀 없다  
 입구턱에 침이 흘러 연지분도 간데없고  
 아까울사 대단(大緞)치마 얼릉덜렁 흉악하다  
 신부 행동 그러하니 뉘 아니 외면하리  
 삼일을 지낸 후에 형용도 기괴하다  
 백주에 낮잠 자기 혼자 앉아 군소리며  
 둘이 앉아 흥보기와 문틈으로 손 보기며 담에 올라 시비 구경  
 어른 말씀 토 달기와 금강산 어찌 알고 구경한 이 둘째로다  
 기억니은 모르거든 어찌 책을 들고 앉노  
 앉음앉음 용렬하고 걸음걸음 망측하다  
 달음박질하는 때에 너털웃음 무슨 일고  
 치마꼬리 헤어지고 비녀 빠져 개가 문다  
 허리띠 언다 두고 붉은 허리 드러내노  
 어른 걱정 하올 적에 쪽박 함박 드던지며  
 성내어 술 때 닭기 독살 부러 그릇 깨기  
 등잔 뒤에 넘보기며 가만가만 말뚝 세워

[A]

아니 한 말 지어내어 일가 간에 이간질과  
 좋은 물건 잠깐 보면 도적(盜賊)하기 예사로다  
 그중에 행실 보소 악한 사람 부동(符同)하여\* 착한 사람 홍보기와  
 제 처신 그러하니 남편인들 귀할쏘냐  
 금슬 종자 살풀이며 무병(無病)하라 푸닥거리  
 의복 주고 금전 주어 아들 낳고 부귀하기  
 정성껏 빌어 보소 산에 올라 산제(山祭)하고 절에 가서 공양(供養)한들  
 제 인심이 그러하니 귀신인들 도울쏘냐  
**우환이 연접하니 사망인들 없을쏘냐**  
 딸아 딸아 아기 딸아, 복선화음(福善禍淫)\* 하는 법이 이를 보니 분명하다  
 저 건너 괴퐁어미 너도 흡연 안 보았나  
 허다 세간 포진천물(暴殄天物)\* 남용남식(濫用濫食)\* 하고 나서 그 모양이 되었구나  
**딸아 딸아 고명딸아 괴퐁어미 경계하고**  
**너의 어미 살을 받아** 세금 결시 이른 말은 부디 각골(刻骨) 명심하라  
 딸아 딸아 울지 말고 부디부디 잘 가거라  
 효봉구고(孝奉舅姑)\* 순승군자(順承君子)\* 동기우애(同氣友愛) 지친화목(至親和睦)\* [C]  
 기쁜 소식 듣기오면 **명년 삼월 화류시\*에 모녀상봉 하느니라**

[B]

[C]

- 작자 미상, 「복선화음가」

\* 대마구중 춘득이요 전갈하님 영매로다: 큰 말의 고삐를 잡고 가는 하인은 춘득이요, 소식을 전해 주는 계집종은 영매로다. 화자의 딸이 시집 갈 때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여러 하인들과 함께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임.

\* 대한불갈: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 신행: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감.

\* 부동하여: 그른 일에 어울려 한통속이 되어.

\* 복선화음: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림.

\* 포진천물: 물건을 함부로 쓰고도 아까운 줄 모름.

\* 남용남식: 지나치게 쓰고 먹음.

\* 효봉구고: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김.

\* 순승군자: 남편을 순순히 따름.

\* 지친화목: 가까운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냄.

\* 화류시: 화전놀이 할 때.

[23001-0047]

01

**괴퐁어미 시집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어 도적질하기를 예사로 했다.
- ② 몸가짐과 옷매무새가 단정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 ③ 먹을 것에 욕심이 많아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일이 없었다.
- ④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남을 홍보고 일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했다.
- ⑤ 곳을 하고 절에 공양하며 정성껏 기원했지만 굶은일이 계속 일어났다.

[23001-0048]

02

**<보기>**의 관점에서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희화적 표현은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해 웃음거리로 만드는 방법으로, 주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며 독자들이 그 대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게 한다. 대상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평가적 진술이나 반어, 의문과 같은 수사적 표현을 통해 제시된다. 희화적 표현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대상 인물과 비교해 자신이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한편 대상 인물이 억압받는 계층일 경우 그가 보여 주는 엉뚱하고 거침없는 행동은 규범에 얽매어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는 대리 만족의 쾌감을 주기도 했을 것이다.

- ① ‘뉘 아니 외면하리’, ‘무슨 일고’ 같은 의문문 형식으로 진술된 괴퐁어미의 행실은 괴퐁어미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할 수 있겠군.
- ② ‘기역니은 모르거든 어찌 책을 들고 앉노’ 같은 표현으로 진술된 괴퐁어미의 어리석은 모습은 괴퐁어미를 자신보다 열등한 인물로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겠군.
- ③ ‘기괴하다’, ‘용렬하고’, ‘망측하다’ 등의 평가적 진술을 활용해 괴퐁어미의 언행을 묘사한 이유는 괴퐁어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신부 행실’, ‘새댁 행실’과 거리가 먼 괴퐁어미의 행동을 화자가 해학적으로 묘사한 이유는 이제 신부가 될 자신의 딸이 괴퐁어미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백주에 낮잠 자기’, ‘어른 말씀 토 달기’ 같은 거침없는 행동을 통해 괴퐁어미의 모습을 묘사한 이유는 규범에 얽매인 여성의 현실에 비판적인 화자가 대리 만족의 쾌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23001-0049]

### 03 [B]와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와 [C] 모두 같은 인물의 행적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② [B]와 [C] 모두 당대의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는 화자가 당면한 문제가, [C]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 ④ [B]에는 물질적인 면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가, [C]에는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B]에는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긍정적 상황이, [C]에는 화자가 겪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23001-0050]

###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복선화음가」는 조선 말기의 규방 가사로 ‘계녀가’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다. 부모가 혼인하는 딸에게 주는 부녀자의 덕목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를 암송하기 편한 가사의 형식에 담아낸 노래가 계녀가이다. 「복선화음가」는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연술 구조 안에 ‘괴퐁어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점, 그리고 교훈이 추상적 관념이 아닌 구체적 인물 형상을 통해 제시되는 점에서 계녀가 유형에 속하는 일반적인 작품과 구분된다. 다음은 「복선화음가」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㉗ 어머니(‘나’)가  
딸에게 건네는 이야기



㉘ 괴퐁어미 이야기



㉙ 어머니(‘나’)가  
딸에게 건네는 이야기

- ① ㉗의 ‘가문도 헉헉하다’, ‘훈수범절 치행이야 다시 일러 어떠하리’에서 드러나는 가문의 위 의는 ㉘의 ‘우환이 연접하니 사망인들 없을쏘냐’에 나타난 괴퐁어미 집안의 상황과 대비되어 ㉙에서 ‘괴퐁어미 경계하고 / 너의 어미 살을 받아’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고 있군.
- ② 어머니가 자신의 딸과 가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㉗는 ‘저 건너’라는 말을 기점으로 하여 괴퐁어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㉘로 전환되고 있군.
- ③ ㉘의 ‘제일 처음 시집올 제 가산이 만금이라’에 나타난 괴퐁어미의 모습은 혼인할 때 넉넉한 재산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㉗에 제시된 딸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어 ㉗와 ㉘를 연결하는 매개가 되고 있군.
- ④ ‘딸아 딸아 고명딸아’ 하고 딸을 부르는 말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㉘에서 ㉙로 전환되면서 딸에게 가르치려는 부녀자의 덕목이 구체적 인물 형상을 통해 제시되고 있군.
- ⑤ ㉙의 ‘명년 삼월 화류시에 모녀상봉 하느니라’에는, ㉗의 ‘딸을 길러 출가하니’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딸이 느끼게 될 감정을 헤아려 딸을 위로해 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풍(長風)에 돛을 달고, 육선(六船)이 함께 떠나  
삼현(三絃)과 군악 소리 해산(海山)을 진동하니  
㉠ 물속의 어룡(魚龍)들이 웅당히 놀라리라  
해구(海口)를 얼른 나서 오륙도(五六島) 뒤 지우고  
고국(故國)을 돌아보니, 야색(夜色)이 창망(滄茫)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沿海) 각진포(各鎭浦)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뵈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萬斛舟)가 나뭇잎 불리이듯  
㉡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叉桡)처럼 굽어 있고  
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 상하좌우 배 방 넓은 앞뒤에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東萊) 산이 눈썹 같고  
동남(東南)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이없어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함께 떠난 다섯 배는 간 데를 모르겠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水疾)하여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앞네  
다행할사 종사상(從事相)은 태연히 앉았구나

배 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對馬島)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다시 일어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왜선 십여 척이 예선(曳船)차로 모두 왔네 (중략)  
 이십팔 일 발행할 때 수백 필 금안 준마(金鞍駿馬)  
 중하관을 다 태우니 기구도 장하구나  
 각방의 노자(奴子)들도 호사가 참람(僭濫)하다\*  
 좌우에 쌍견마요 한 놈은 우산 받고  
 두 놈은 부축하고 담배 기구 한 놈 들고  
 한 놈은 등불 들고 한 놈은 그릇 메어  
 한 사람이 거느린 수 여덟씩 들었구나  
 나하고 삼 문사(文士)는 가마 타고 먼저 가니  
 금안(金鞍) 지은 재고 큰 말 기(旗) 든 말이 앞에 섰다  
 여염도 왕왕 있고 혼할 손 대밭이다  
 토지가 기름져서 전답이 매우 좋네  
 이십 리 실상사가 삼 사상 조복(朝服)할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왜성으로 바로 가니  
 인민이 부러(富麗)하기 대판만은 못하여도  
 서에서 동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구나  
 관사(館舍)는 본룡사(本龍寺)요 오층 문루 위에  
 여남은 구리 기둥 운소에 닿았구나  
 수석도 기절(奇絶)하고, 죽수(竹樹)도 유취 있네  
 왜항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없다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옥야천리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플손  
 이리 좋은 천부금탕 왜놈의 기물되어  
 칭제 칭왕하고 전자 전손하니  
 개돼지 같은 비린 유를 다 모두 소탕하고  
 사천 리 육십 주를 조선 땅 만들어서  
 왕화에 목욕(沐浴) 감겨 예의국 만들고자

[A]

- 김인겸, 「일동장유가」

\*참람하다: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

[23001-0051]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②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과의 원근에 따른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여정의 경과에 따른 경관의 변화를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직접 겪은 사건 상황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경험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23001-0052]

0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출항할 때 있었던 환송식의 성대함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 태풍이 일어난 상황에서 배 안에서 혼란을 겪는 타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③ ㉢: 화자가 자신이 목격한 물속 생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배 안에서 생사의 위기를 겪은 후 슬퍼하는 동료들에 대한 화자의 공감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화자가 시련을 무사히 견뎌 내고 살아남은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053]

0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일동장유가」는 작가가 통신사의 일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풍물과 생활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일본의 문화를 조선의 문화와 대비시키며 자국의 문화에 대해 성찰하는데, 지식인의 시선으로 타국의 문명을 바라보며 그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감탄에 그칠 뿐이다. 화자는 근본적으로 문명국인 조선의 문인으로서 자국과 일본을 문화와 야만으로 나누고 있기에 일본의 풍족한 자연환경에는 부러운 마음을 내비치면서도 풍속의 미개함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이로써 조선이 문화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는 문명인으로서 자긍심을 분명히 한 것이다.

- ① ‘수백 필 금안 준마 / 중하관을 다 태우’는 것과 ‘노자들’의 ‘호사’를 보고 보인 반응에서 일본 사람들의 사치스러움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여남은 구리 기둥 운소에 닿았구나’라고 한 것과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유취 있네’라고 한 것에서 타국의 문명과 풍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왜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없다’고 한 것과 ‘칭제 칭왕하고 전자 전손하니’에서 일본의 미개한 문화와 대비하여 자국의 문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산형이 웅장하고 수제도 환포하여’ 생긴 ‘옥야천리’를 두고 화자가 ‘아깝고 애달’파하는 것에서 일본이 가진 천혜의 환경에 대한 부러운 마음을 내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일본을 두고 ‘왜놈’이라 하고, ‘개돼지 같’다고 한 것과 ‘예의국’을 ‘만들고자’ 한 것에서 일본을 야만적으로 바라보며 조선이 문화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는 문명인으로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에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      我有一端綺  
 먼지를 털어 내면 맑은 윤이 났었죠.      拂拭光凌亂  
 봉황새 한 쌍이 마주 보게 수놓여 있어      對織雙鳳凰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지요.      文章何燦爛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幾年篋中藏  
 오늘 아침 임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今朝持贈郎  
 임의 바지 짓는 거야 아깝지 않지만      不惜作君袴  
 다른 여인 치맛감으론 주지 마세요.      莫作他人裳      <제3수>

보배스러운 순금으로      精金凝寶氣  
 반달 모양 노리개를 만들었지요.      鑲作半月光  
 시집을 때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서      嫁時舅姑贈  
 다홍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죠.      繫在紅羅裳  
 오늘 길 떠나시는 임에게 드리오니      今日贈君行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願君爲雜佩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不惜棄道上  
 새 여인 허리띠에만은 달아 주지 마세요.      莫結新人帶      <제4수>

- 허난설헌, 「견흥(遣興)」

나 [서방님] 정(情) 떼고 정 이별한대도 날 버리고 못 가리라.  
 금일 송군(送君) 임 가는데 백년 소첩(百年小妾) [나]도 가오.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가오. 한양 낭군님 날 다려가오.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제일명당 터를 닦아 고대광실(高臺廣室) 높은 집에  
 내외 분합(分閤) 물림되며 고불도리\* 선자(扇子)추녀 형뎡그렇게 지어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연지분 주랴. 먼경 석경 주랴. 옥지환(玉指環) 금봉차(金鳳釵) 화관주(花冠珠) 판머리 칠보(七寶)족두리  
 하여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세간치레를 하여나 주랴.  
 용장(龍幟) 봉장(鳳幟)\* 깃도리 책상이며 자개 함룡(函籠) 반단이 삼층  
 각계수리 이층 들미장에 원앙금침(鴛鴦衾枕) 잣베개  
 ㉢셋별 같은 쌍요강 발치 발치 던져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의복 치례를 하여나 주라.

㉓ 보라 향릉(尙綾) 속저고리 도리불수 겹저고리 남문대단 잔솔치마  
백방수화주 고장바지 물면주 단속곳에 고양 나이 속버선에 몽고삼승 길버선에  
자지 상직 수당혜(繡唐鞋)\*를 명례궁(明禮宮) 안에 맞추어 주라.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노리개 치례를 하여나 주라.

㉔ 은(銀)조로롱 금(金)조로롱 산호(珊瑚)가지 밀화불수(蜜花佛手)\*  
밀화장도(蜜花粧刀)\* 곁칼이며 삼천주 바둑실을 남산더미만큼 하여나 주라.

나는 싫소 나는 싫소 아무것도 나는 싫소.

고대광실도 나는 싫고 금의옥식(錦衣玉食)도 나는 싫소.

원앙충충 걷는 말에 마부담(馬負擔)하여 날 다러가오.

- 작자 미상, 「방물가」

\* 고불도리: 동글게 만든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

\* 용장 봉장: 용의 모양을 새긴 옷장과 봉황의 모양을 새겨 꾸민 옷장.

\* 수당혜: 수놓은 비단으로 신을 만든 당혜.

\* 밀화불수: 밀화로 부쳐 손같이 만든, 여자의 패물. 대삼작노리개의 하나.

\* 밀화장도: 밀화로 꾸민, 주머니 속에 넣거나 옷고름에 늘 차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로 주로 장신구로 사용됨.

[23001-0054]

## 01 (가)와 (나)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독백체의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우회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부정의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금기하는 사항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회상의 표현을 통해, (나)는 감정 이입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시각적 심상을, (나)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소유한 물건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

[23001-0055]

## 02 <보기>를 참고하여 (나)와 <보기>의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20세기 초 크게 유행한 잡가는 널리 알려진 작품에서 일부 장면을 차용하였는데,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부귀 등에 대한 대중의 세속적인 욕망을 고려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유지하거나 변형하였다. 이때 특정 구절을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살리기도 했으며, 기존 작품에 없던 일상어들을 추가하여 대중의 욕망에 부응하기도 하고, 비유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중이 선호하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나)는 19세기에 유행하였던 「춘향가」에서 춘향과 이몽룡이 이별하는 장면인 [A]를 차용한 잡가로, 위와 같은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양반 행실이 원수로구나.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합환주를 먹었거니와, 오늘날 이별주가 이게 웬일이냐? 이 술 먹지 말고 이별 말자. 하량 낙일수운기는 소통국의 모자 이별, 정객관산노기중에 오희 월녀의 부부 이별, 초가사면 만영 월의 초패왕 우미인 이별, 엄무사단봉의 왕소군의 한궁 이별, 서출양관무고인은 위성조우 봉  
[A] 우 이별, 이런 이별 있건마는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설위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금낭을 끌러 대모 석경을 내어 주며, “아나, 춘향아. 거울 받아라.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 빛과 같은지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날 본 듯이 내어 보아라.” 춘향이 거울을 간수하고, 저 찢던 옥지환을 바드드드득 벗겨 내어 도련님 전 올리면서, “엿소, 도련님, 지환 받으오. 여자의 명심불망 지환 빛과 같은지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날 본 듯이 내어 보오.”

- ① ㉠: [A]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가창에 적절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군.
- ② ㉡: [A]와 마찬가지로, 남성을 이별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작품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군.
- ③ ㉢: [A]와 마찬가지로, 비유적 표현과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중이 선호하는 이별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군.
- ④ ㉣: [A]와 달리, 값비싸고 다양한 의복의 명칭을 추가하고 나열하여 부귀에 대한 대중의 세속적인 욕망에 부응하고 있군.
- ⑤ ㉤: [A]와 달리, 물질이 사랑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어 신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군.

[23001-0056]

### 03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 (나)의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정표는 ‘간절한 정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물품을 줌. 또는 그 물품.’이라는 의미로, 남녀 간의 애정 성취를 위한 수단이거나 혼인 성사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녀가 이별하는 경우에 정표는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용도, 슬픔을 달래는 용도,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하는 용도, 그리고 상대의 지조를 요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

- ① (가)의 ㉠이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의 용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은 타지에서도 ‘임’이 자신에 대한 지조를 지켜 주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정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이 ‘반달 모양 노리개’의 내력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은 ‘임’과 자신이 혼인한 상대라는 사실을 임이 정표를 통해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가 ‘세간치레’에 대해 묻는 것으로 보아, ㉡는 ㉢과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정표를 통해 전달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가 ‘노리개 치레’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는 ㉢가 느끼는 이별의 슬픔을 정표를 통해 달래고자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가 ‘금의옥식’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아, ㉢는 이별 후에 ㉡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정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엄마 엄마 올 엄마요

나를 낳아 키울 적에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골라 키워 놓고

㉠ 북망산천 가시더니 오늘에도 소식 없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지내건마는

이내 나는 어찌하여 팔공산 짙어지고 낮자리 품 팔아먹고

산천초목으로 후려잡고 지게로 살러를 가노

산천은 보니 청산이요 이내 머리는 백발이 되니

불쌍하고 원통하네

㉡ 가는 허리 바늘 같은 내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드니

㉢ 부르는 건 올 엄마요

찾는 거는 냉수로구나

- 작자 미상, 「어사옹」

나 ㉣ 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기심 매고 올 적에는 올뽕을 따 가지고

삼간방에 누에 놓고 청실홍실 뽑아내서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속에 이매\* 걸어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리나무 북\*에다가

㉤ 짜궁짜궁 짜아 내어 가지잎과 뭉거워라

배꽃같이 아래워서 참외같이 올 짓고

외씨같이 버선 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겉옷 짓고 솜옷 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 작자 미상, 「베틀 노래」

\* 날아다가: (베나 돛자리 등을 찌려고) 틀에 날을 간격이 고르게 벌여 쳐서.

\* 이매: 잉아. 베틀의 날실을 한 칸씩 걸러서 끌어 올리도록 맨 굵은 실.

\* 바디집: 바디를 끼우는 데. '바디'는 베의 날을 고르며 북의 통로를 만들고 씨실을 쳐서 베를 짜는 구실을 함.

\* 북: 베틀에서,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

[23001-0057]

## 0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에 관한 과거의 일을 언급하여 대상의 부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대비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서 화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들을 밝히고 있다.
- ④ ㉣: 동일한 음절을 가진 어휘를 제시하며 화자의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23001-0058]

## 02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진자리 마른자리’는 화자를 위해 마련된, (나)의 ‘삼간방’은 화자가 마련한 장소이다.
- ② (가)의 ‘키워 놓고’는 화자를 향한 애정을, (나)의 ‘뿔아내서’는 화자를 향한 관심을 드러낸다.
- ③ (가)의 ‘팔공산’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나)의 ‘구름’은 화자가 도달하고 싶은 공간이다.
- ④ (가)의 ‘후려잡고’는 화자의 과거의 삶과, (나)의 ‘드리고’는 화자의 미래의 삶과 관련된 행위이다.
- ⑤ (가)의 ‘지계’는 산에서 품을 팔기 위해, (나)의 ‘베틀’은 옷을 짓기 위해 화자에게 필요한 대상이다.

[23001-0059]

## 03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나무를 하거나 베를 짜는 일은 모두 단조로운 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힘겨운 노동으로,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혼자서 노동을 할 때에는 여럿이 함께 일할 때는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노래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혼자서 부르는 노동요에는 자신의 고달픈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현실 인식을 보여 주거나 다른 대상에 빗대어 자신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노동을 통해 얻게 될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노랫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노동의 고통을 이겨 내고 슬픈 마음을 달래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① (가)의 화자는 ‘어떤 사람’과 자신의 처지가 다른 것이 ‘팔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고달픈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현실 인식을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② (가)의 화자는 ‘불쌍하고 원통하’다며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나무를 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노동이기에 가능했겠군.
- ③ (나)의 화자는 베를 짜는 데 필요한 ‘청실홍실’을 마련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베를 짜는 노동의 힘겨움과 단조로움을 이겨 내는 자기 치유의 과정에 해당하겠군.
- ④ (나)의 화자는 베를 짜기 위해 ‘하늘에다 베틀’을 놓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지상과 천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존재에 빗대어 자신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화자는 ‘버선’과 ‘겹옷’, ‘솜옷’을 지어 가족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낸 것에 해당하겠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김삿갓으로 잘 알려진 방랑 시인 김병연은 우여곡절이 많은 자신의 생활을 소재로 삼아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가)는 작가의 사십 년 방랑 세월을 집약하여 드러낸 것이고, (나)는 북도 지방의 어느 마을에 갔던 김삿갓이 원 생원, 서 진사, 문 첨지, 조 석사라고 불리는 네 명의 마을 유지들에게 푸대접을 당한 후 그들을 희롱하기 위해 그들에게 써 준 것이다.

<p><b>가</b> 정처 없는 내 삿갓은 빈 배와 같은데      사십 년 평생 내내 쓰고 다녔네      소 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이요      백사장의 갈매기와 벗하는 어부의 본색이라네      술 취하면 벗어 걸고 꽃나무를 바라보고      흥이 나면 손에 들고 누각에 올라 달구경 하네      속세 사람 의관은 모두 걸치레이니      온 하늘에 비바람 가득해도 나는 걱정 없네</p>	<p>浮浮我笠等虛舟      一着平生四十秋      牧豎輕裝隨野犢      漁翁本色伴沙鷗      醉來脫掛看花樹      興到携登翫月樓      俗子依冠皆外飾      滿天風雨獨無愁</p>
--	---

- 김삿갓, 「영립」

<p><b>나</b> 해 뜨자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고양이 지나가자 쥐가 다 죽네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밤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쏘아 대네</p>	<p>日出猿生原      貓過鼠盡死      黃昏蚊簷至      夜出蚤席射</p>	<p>일출원생원      묘과서진사      황혼문첨지      야출조석사</p>
---	---	---

- 김삿갓, 「원생원」

한시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나)를 이해하면 해 뜨고 나니 ‘원숭이’가 나타나고 죽은 ‘쥐’를 마주치고, 황혼에는 ‘모기’, 밤에는 ‘벼룩’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가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말 독음과 관련지어 이 시를 살펴보면 각 행의 마지막 세 글자가 각각 ‘원 생원’, ‘서 진사’, ‘문 첨지’, ‘조 석사’라는 네 사람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미는 다르지만 유사한 소리가 나는 한지들을 활용하여 자신을 푸대접하는 마을 유지들을 골려 주려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김삿갓이 떠나고 나서야 (나)의 창작 의도를 알아차린 마을 유지들은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전한다.

이와 같이 중의성을 활용해 눈앞의 상대를 희롱하는 의도가 잘 나타나는 작품으로 황진이의 시조도 자주 언급된다.

<p><b>다</b>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p>
--

- 황진이

청산 속에 흘러가는 ‘벽계수’를 푸른 시냇물로, 빈산을 가득 채운 ‘명월’을 밝은 달로 풀이하면 한번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인생과 그 덧없음을 토로하며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에서 쉬어 갈 것을 권유하는 운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벽계수’가 당시 어느 왕족의 별칭이고, ‘명월’이 시조를 지은 ‘황진이’의 기명(妓名)\*임을 알고 다시 읽어 보면 그 맛이 새롭다. 자신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황진이에게 절대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감을 드러냈던 ‘벽계수’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풍류 생활을 즐길 것을 권유하는 황진이의 낭만과 여유가 느껴진다. 명월 황진이가 이 시조를 청아한 목소리로 읊는 동안 벽계수가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졌다는 일화가 함께 전해지는 것을 보면, 황진이의 언어유희가 상대방의 허를 찌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

\* 기명: 기생으로서 가지는 딴 이름.

[23001-0060]

##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도움을 주는 사물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면, (나)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소재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가 화자가 선택한 삶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다)는 화자가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 ③ (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괴로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면, (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가까워지는 임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 ④ (가)와 (나)가 괴로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참아 내는 태도를 예찬하고 있다면, (다)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자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⑤ (가)와 (다)가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을 예찬하며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나)는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찾아내고 있다.

[23001-0061]

## 02 [마을 유지]들이 (나)를 읽고 수용하는 과정을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을 유지들이 (나)의 표면적 의미에 주목했다면, (나)의 화자가 아침부터 밤까지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을 순서대로 마주치는 상황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려 하였겠군.
- ② 마을 유지들이 (나)를 읽을 때 ‘원생원’, ‘서진사’, ‘문침지’, ‘조석사’라는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김삿갓이 자신들을 염두에 두고 시를 지은 것도 알 수 있었겠군.
- ③ 마을 유지들이 (나)에 언급된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이 결국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들이 풍자의 대상이 된 것을 알고 화가 나거나 민망한 기분이 들었겠군.
- ④ 마을 유지들이 (나)를 읽고 김삿갓의 언어유희 방식에 대해 따져 보았다면, 김삿갓이 소재들의 특성과 소재 간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려 하였음을 알아차렸겠군.
- ⑤ 마을 유지들이 (나)와 같은 시를 지어 자신들에게 준 김삿갓의 진의를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자신들이 김삿갓을 대접했던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얻었겠군.

[23001-0062]

###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흔히 ‘시적 화자’는 시인의 대리인으로서 시인 자신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가)와 (다)의 경우 시적 화자가 시인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가)와 (다) 모두 시인의 삶과 시적 상황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삿갓은 과거 시험에서 자신의 조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서 급제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여겨 평생을 큰 삿갓을 쓰고 방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사와 시가에 능한 문인이자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 인정을 받던 황진이는 왕족인 벽계수가 평소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그를 말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작가와 관련된 일화를 떠올리며 (가)와 (다)를 읽으면 그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정처 없는 내 삿갓’이 방랑을 선택한 작가와 그가 선택한 삶과 관련된다면, (다)의 ‘명월이 만공산하니’는 황진이가 서사와 시가에 능한 문인으로서 널리 인정을 받던 상황과 관련되겠군.
- ② (가)의 ‘목동’과 ‘어부’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고 남들 앞에서 얼굴을 감추며 살던 사람들의 삶을 드러낸다면, (다)의 ‘수이 감’은 황진이를 과소평가하고 무시했던 벽계수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의 ‘술 취하면’과 ‘흥이 나면’이 방랑 생활 속에서 자연을 즐기던 작가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면, (다)의 ‘쉬어 간들’은 무상한 인생 속에서 풍류적 삶을 권유하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속세 사람들’이 방랑 생활을 선택한 작가의 눈에 ‘겉치레’만 심한 사람들로 보였다면, (다)의 ‘벽계수’는 뛰어난 역량을 지닌 황진이의 눈에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인물로 보였겠군.
- ⑤ (가)의 ‘온 하늘에 비바람 가득해도’가 떠도는 작가가 인생길에 경험한 시련이나 고통을 드러낸다면, (다)의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는 작가가 파악한 인생의 유한성과 무상감을 표현한 것이겠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 시들어 가는 두 불의 도화(桃花)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 회색이 되어 가는 두 귀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白雪)이 될까요.

머리는 희어 가도 마음은 붉어 갑니다.

㉢ 피는 식어 가도 눈물은 더워 갑니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 한용운, 「거짓 이별」

나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해 돋는 아침에 죽어 가리야.

㉤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나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의(義)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무침을 입은 듣는가.

㉡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이 되는 날까지  
그 솟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23001-0063]

0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대상의 변화를 묘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 ㉡는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은 ㉡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는 ㉠과 달리 대비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은 독백체 방식으로, ㉡는 대화체 방식으로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064]

## 02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언제’는 ‘당신’에게 현재 화자와 이별한 상황임을 환기하게 하는 데 활용된다.
- ② (가)에서 ‘언제나’는 ‘당신’과의 이별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내는 데 활용된다.
- ③ (가)에서 ‘얼마’는 ‘당신’과 이별한 시간이 매우 길게 인식됨을 부각하는 데 활용된다.
- ④ (나)에서 ‘어찌하리야’는 오랫동안 입에 대한 사랑을 지녀 왔음을 강조하는 데 활용된다.
- ⑤ (나)에서 ‘어이하리야’는 사랑하는 입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활용된다.

[23001-0065]

##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도화’에서 ‘낙화’로의 변화는 젊음을 잃어 가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다.
- ② ㉡의 ‘피’와 ‘눈물’의 상태 대비는 시간이 흘러도 강해지는 화자의 사랑을 나타낸다.
- ③ ㉢의 ‘창백한 꽃송이’는 입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절박한 모습을 나타낸다.
- ④ ㉣의 ‘사랑하는 것’은 소중하지만 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해야 할 것을 나타낸다.
- ⑤ ㉤의 ‘피리의 아픈 가락’은 사랑하는 입에게 전달하고 싶은 화자의 지조나 절개를 나타낸다.

[23001-0066]

## 04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하는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 의존하게 된다. (가)와 (나)는 모두 입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가)에서는 입의 부재를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하며 입과의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입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상황을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이별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부정하며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 것이군.
- ② (가)에서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안다는 것은 부재하는 입과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낸 것이군.
- ③ (나)에서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라고 한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입에 대한 열정적 사랑이 영원함을 표현한 것이군.
- ④ (가)에서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온다고 한 것과 (나)에서 ‘해 돋는 아침에 죽어 가’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한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낸 것이군.
- ⑤ (가)에서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논다는 것은 재회에 대한 희망이 지속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 (나)에서 ‘거룩한 일월의 눈부신 모습’을 보며 온다는 것은 절대적 존재를 마주할 때 느끼는 벅찬 감정을 드러낸 것이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위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옮겨가며 슬피 옵니다

- 김소월, 「접동새」

- 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저었다. 갈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굽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줌 흙을 헤치고 나즉—이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땀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23001-0067]

##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일정한 음보를 유지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감탄사를 활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나)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시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④ (가)는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는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나)는 이미지를 나열하여 시적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3001-0068]

## 02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화자가 시적 대상과의 재회를 기대하게 되는 원인이다.
- ② ㉠과 ㉡ 모두 화자와 시적 대상이 이별하게 된 이유를 상징하는 배경이다.
- ③ ㉠과 ㉡ 모두 화자의 개별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확장된 결과이다.
- ④ ㉠은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이고, ㉡은 시적 대상이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계기이다.
- ⑤ ㉠은 시적 대상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시간이고, ㉡은 화자가 시적 대상의 부재를 실감하는 시간이다.

[23001-0069]

## 03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문학 작품 중에는 혈육의 죽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는 계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밤마다 오라비들을 찾아와 운다는 누나의 한 맺힌 사연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나)에서는 누이동생의 무덤가에서 죽음과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인식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누이동생의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의붓어미 시샘에 죽어’집동새가 되었습니다’에서는 계모에 의한 누나의 억울한 죽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② (가)의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에서는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걱정을 거두지 못하는 누나의 한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나)의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짓는 ‘밤나무’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죽은 누이동생을 떠올리게 하고 있군.
- ④ (나)의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에서는 죽은 누이동생과의 간극을 좁힐 수 없음을 인지한 화자의 초월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군.
- ⑤ (나)의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뻤다’에서는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에 서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고 있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라

모두 빼앗기는 듯 눈뿔개 고이 나리면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燐光)\*

㉠까만 귀뚜리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라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기리는 별이라도 맘에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라

- 박용철, 「싸늘한 이마」

\*인광: 빛의 자극을 받아 빛을 내던 물질이, 그 자극이 멎은 뒤에도 계속하여 내는 빛

- 나 점점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판집. 외판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木瓜)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판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 기침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훑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

\*월훈: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23001-0070]

##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가정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공간과 인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형식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표현하려는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23001-0071]

##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이고, ㉡은 노인이 욕망을 투영한 자연물이다.
- ② ㉠은 화자에게 삶의 충만감을 느끼게 하고, ㉡은 노인에게 삶의 결핍감을 느끼게 한다.
- ③ ㉠은 화자에게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이고, ㉡은 노인의 고독과 슬픔을 부각하는 존재이다.
- ④ ㉠은 화자에게 도래할 밝은 미래를 연상하게 하고, ㉡은 노인에게 지나온 어두운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 ⑤ ㉠은 화자의 이완된 심리를 긴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은 노인의 긴장된 심리를 이완하는 역할을 한다.

[23001-0072]

## 03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외로움’은 고립된 인간이 지닌 본원적 감정으로, 시에서 형상화되는 주된 정서 중 하나이다. (가)에서는 화자가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느끼는 극한의 외로움과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알게 된 노인의 외로움과, 누군가에 대한 노인의 애절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큰 어둠 가운데 홀로’ 앉아 ‘눈뿔개 고이 나리’는 모습은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② (나)에서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노인’이 겪는 외로움이 외부와의 단절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군.
- ③ (가)에서 ‘얼마나 한 위로이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을, (나)에서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한 ‘노인’의 절망을 나타낸 것이군.
- ④ (가)에서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은 외로운 처지에 놓인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에서 ‘홀로 잠이 깨어’ 무나 고구마를 꺾는 것은 외로운 처지에 놓인 ‘노인’의 모습을 구체적 행위를 통해 표현한 것이군.
- ⑤ (가)에서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은 외로움으로 예민해진 화자의 상태를, (나)에서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는 것은 외로움으로 밖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노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내 무엇이랴 이름하리 그를?

나의 영혼 안의 고운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눈보다 값진 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나래 떠는 금성(金星),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달은 고산 식물,

] [A] ]

㉡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뻐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머언 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  
때 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 굽이굽이 돌아 나간 시름의 황혼 길 위—  
나—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견노라.

- 정지용, 「그의 반」

나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의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 [B] |

누워 있는 누워 있는 구름,  
결코 잠깨지 않는 별을

㉠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 강은교, 「사랑법」

[23001-0073]

##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자연물에 빗대는 방식으로 대상의 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열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연과 합일하려는 자세를 표출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A]는 정적인 이미지, [B]는 동적인 이미지의 시어로 대상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23001-0074]

## 0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그’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한탄과 자책이 나타나 있다.
- ② ㉡: ‘그’에 대한 사랑이 쉽게 변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인식이 담겨 있다.
- ③ ㉢: ‘그’에게 다가갈수록 괴로움이 더 심화되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그대’가 소망하는 삶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전달하고 있다.
- ⑤ ㉣: ‘그대’가 바라는 세계는 특정한 삶의 태도를 지니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23001-0075]

## 0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는 각기 다른 사랑의 방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절대적 존재인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식으로 고결한 모습의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 (나)의 화자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한발 물러선 관조의 자세를 지닐 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그’가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롭고, ‘항상 머언’ 곳에 있다는 것은 ‘그’가 고결한 모습을 지닌 절대적 존재임을 형상화한 것이로군.
- ② (가)에서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견’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화자가 사랑하는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으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로군.
- ③ (나)에서 ‘침묵할 것’과 ‘실눈으로 볼 것’은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존재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관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밝힌 것이로군.
- ④ (나)에서 ‘꽃’, ‘하늘’, ‘무덤’에 대해 ‘서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사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⑤ (가)에서 ‘오로지 수그릴 뿐’은 화자가 추구하는 사랑의 모습을, (나)에서 ‘떠나게 하고’, ‘잠들게 하고’는 화자가 ‘그대’에게 알려 주려는 사랑의 방식을 나타낸 것이로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나는 ㉠학이로다

박모(薄暮)\*의 수묵색 거리를 가랑이면  
슬픔은 명인 양 목줄기에 맺히어  
소리도 소리도 낼 수 없누나

저마다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건만  
나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아득한 풍랑인 양 머리에 설레노니

깃은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चु고  
자랑은 호을로 높이고 슬프기만 하여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욱되도다  
어둑한 저갯가에 지향없이 서랑이면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 양

— 마르는 학이로다

— 유지환, 「학」

\*박모: 해가 진 뒤 어스레한 동안. 땅거미.

## 나 저 산 ㉡저 새 돌아와 우네

어둑고 캄캄한 저 빈 산에  
저 새 돌아와 우네  
가세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을 지나  
저 어두운 강 건너



저 남산 꽃산에  
 우우우 꽃 피러 가세  
 산아 산아 산아  
 저 어둠 태우며  
 타오를 산아  
 저 꽃산에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여  
 아아, 지금은 저 어두운 빈 산에 갇혀  
 저 새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네.

- 김용택, 「저 새」

[23001-0076]

## 01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주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부정적 현실을 개선하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 ⑤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는 모두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23001-0077]

## 0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대상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겪는 현실적 문제의 원인을 짐작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의 변화하는 심리를, ㉡은 화자의 일관된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 제시한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은 화자가 느끼는 삶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은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대상이다.

[23001-0078]

## 03 &lt;보기&gt;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시적 대상이란, 시인이 주제의 형상화를 위해 제시하는 모든 소재를 지칭한다. 시적 대상에는 특정한 인물이나 자연물, 사물과 같이 구체적 형태를 지닌 것도 있지만 특정한 관념이나 상황, 정서와 같이 무형의 것들도 있다. 시인은 이러한 시적 대상이 지닌 고유한 속성이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나 시적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도 한다.

- ① (가)의 ‘솔바람 소리’는 청량한 이미지를 환기하는 시적 대상으로,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이 언젠가는 해소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군.
- ② (가)의 ‘올빼미’는 겨울밤에도 잠들지 않고 추위를 견디어 내는 시적 대상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군.
- ③ (가)의 ‘갈대’는 마르고 연약한 외형을 지닌 시적 대상으로, 부정적 상황 속에서 쇠잔해져 가는 화자를 형상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군.
- ④ (나)의 ‘꽃’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시적 대상으로,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군.
- ⑤ (나)의 ‘새하얀 새’는 어둠의 시각적 이미지와 대비되는 시적 대상으로, 현실과 상반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형상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A]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B]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윤동주, 「참회록」

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떡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향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C]

㉠ 답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라 [D]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E]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23001-0079]

##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함께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어조로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23001-0080]

## 02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를 통해 화자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를 통해 화자가 미래의 자신의 참회록에 적힐 내용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를 통해 화자가 현실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D]를 통해 화자가 적극적인 자기 변화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리라 결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를 통해 화자가 진정한 현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001-0081]

## 03 ㉠의 ‘사람’과 ㉡의 ‘사람들’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사람’은 ㉡의 ‘사람들’과 달리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② ㉡의 ‘사람들’은 ㉠의 ‘사람’과 달리 집단적 행동을 거부하려 했던 개인적 존재이다.
- ③ ㉠의 ‘사람’과 ㉡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는 세태에 대해 회의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의 ‘사람’과 ㉡의 ‘사람들’은 모두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려 했던 사회적 존재이다.
- ⑤ ㉠의 ‘사람’과 ㉡의 ‘사람들’은 모두 타자의 생각이나 가치를 외면하려 했던 존재이다.

[23001-0082]

## 04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인간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자기 내부로 침잠하여 현실과 관련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변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현실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려고 한다. (가)는 주권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변화를 소망하는 목소리를, (나)는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며 억압적 현실의 변화를 소망하는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 ① (가)에서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고 ‘참회의 글’을 쓴다고 한 것은 일제 강점기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고 여기는 화자의 자기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참회록을 써야 한다’라고 한 것은 주권을 되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기반성이 불가능하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뒹아 보자’라고 한 것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성찰하여 변화시키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네가 본’ 것이 ‘먹구름’과 ‘쇠 항아리’라고 한 것은 억압적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나)에서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고 한 것은 자유와 민주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공론화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적산 가옥\* 구석에 짙막한 층층계……

㉠그 이 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써도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 공허감.

이것은 내일이면 / 지폐가 된다.

어느 것은 어린것의 공납금.

㉡어느 것은 가난한 시랑대\*.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진.

밤 한 시, 혹은 / 두 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의 / 저 무심한 평안함.

아아 나는 다시 / 층층계를 밟고

이 층으로 올라간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곡예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짙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셋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

나의 어린것들은

왜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날무처럼 포름쪽쪽 얼어 있구나.

- 박목월, 「층층계」

\* 적산 가옥(敵産家屋): 적국이 몰러가면서 남겨 놓은 가옥.

\* 시랑대(柴糧代): 쌀값과 식량을 마련할 비용.

나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웅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 하는 사람을 보면 일 항가 땡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강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 낭가가 된다

장가 낭가 당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 한사코 ㅁ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꼬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 주신다

머리가 밭에 닿아 둥글어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 오손도순 살어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 이대흠, 「동그라미」

[23001-0083]

##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열거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3001-0084]

##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처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글을 쓰는 일을 천직이라 여기는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항상 남들을 존중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자식이 늘 의중계 지내기를 바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3001-0085]

## 0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화자의 고통을 몰라주는 대상에 대한 원망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 ② ㉢은 ㉠과 달리 화자와 대상 간의 감정 공유를 통해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③ ㉠과 ㉢ 모두 세상과 단절된 채 생활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엿보이는 공간이다.
- ④ ㉠과 ㉢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 자신의 현재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 ㉢은 대상의 지금까지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된 공간이다.

[23001-0086]

##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박목월의 「층층계」와 이대흠의 「동그라미」는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진술되는 「층층계」는 사다리과 원고지의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자식의 목소리를 통해 진술되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와 어머니의 굽은 허리의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

- ① (가)의 글을 ‘씨도 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 공허감’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글을 쓰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군.
- ② (가)의 곡예사들이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네모 칸이 나열된 원고지의 형태가 사다리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표현이로군.
- ③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되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굽은 허리가 받침 글자인 ㅇ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표현이로군.
- ④ (나)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동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는 진술에서는 허리가 굽게 되는 습관을 고치시기를 희망하는 자식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드러나는군.
- ⑤ (가)의 ‘다시 / 층층계를 밟고 / 이 층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나)의 ‘머리가 발에 닿’을 때까지 ‘살리는 것들’을 쏟아 내시는 모습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 내려쬐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 나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흔들만 깎박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 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 광재구, 「새벽 편지」

[23001-0087]

## 01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나)는 시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열거하며, (나)는 대상의 외형을 묘사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는 정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바라본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정서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처한 현실과 화자의 내면세계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3001-0088]

##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부조리한 세계의 어두운 속성과 대비되는 이상적 세계의 밝고 명량한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
- ③ ㉠은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내면적 성숙을, ㉡은 화자가 타인과 함께 맞이하게 될 낙관적 미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화자가 느끼고 있는 부끄러움을 자극하는 기능을, ㉡은 화자가 느끼고 있는 괴로움을 망각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은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쓰러운 마음을, ㉡은 부정적 현실이 종식된 상황의 긍정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23001-0089]

## 03 &lt;보기&gt;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구상의 「초토의 시 1」과 광재구의 「새벽 편지」는 모두 부정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초토의 시 1」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새벽 편지」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고통 속에서 희망의 단초를 발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전환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나의 뒤를 따’르던 ‘울상이 된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서게 된 것은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의 화자가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새벽 편지를 쓰’는 행위에는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밝아 올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는 ‘아이들’과 (나)의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모두 부정적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가)의 화자가 ‘골목에서 걸음을 멈’추는 행위와 (나)의 화자가 ‘깊숙한 뜨거움과 만’나는 행위는 모두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군.
- ⑤ (가)의 화자가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서 발견한 ‘개나리’와 (나)의 화자가 ‘새벽에 깨어나’ 보고 있는 ‘반짝이는 별’은 모두 화자가 부정적 현실 속에서 발견한 희망으로 볼 수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떨어져 나간 대문짝  
안마당에 복사꽃이 ㉠빨갳다  
가마솥이 그냥 걸려 있다  
㉡별정계 녹이 슬었다

잡초가 우거진 부엌 바닥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엔  
콩나물값과 친정어머니한테 쓰다 만  
편지

빈집 서넛 더 더듬다가  
폐광 올라가는 길에서 한 ㉢늪은이 만나  
동무들 소식 물으니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산동네 이름 두어 곳을 댈다

- 신경림, 「폐촌행(廢村行)」

- 나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꼳꼳이 서 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등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댕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길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막까치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녘에선 ㉡ 꼭두서니 \*빛 타오른다.

- 고재중, 「세한도」

\*꼭두서니: 꼭두서니과의 여러해살이 덩굴풀. 어린잎은 식용하고 뿌리는 붉은색 염료로 씀.

[23001-0090]

##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명령형 문장을 통해 화자가 주목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현재형의 진술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접속어를 사용하여 시상의 반전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대한 언급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대상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23001-0091]

## 02 색채어에 주목하여 (가), (나)를 감상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문짝마저 떨어져 나간 폐가 안마당에 핀 복사꽃의 색깔이므로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환기한다.
- ② ㉡은 방치된 가마솥에 쓴 녹의 색깔이므로 오랫동안 취사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③ ㉢은 동치가 갈라진 아픔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서서 마을을 응시하는 눈의 색깔이므로 청솔이 지닌 굳은 의지를 환기한다.
- ④ ㉣은 서러움을 걸러 내고 풀어내는 숨결의 색깔이므로 힘겨운 현실 속에서 슬픔을 정화해 내는 청솔의 자세를 환기한다.
- ⑤ ㉤은 새들이 동사하는 추운 아침에도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의 색깔이므로 암울한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가 올 것에 대한 기대를 환기한다.

[23001-0092]

## 0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달리 ㉡는 사람들이 떠난 공간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 ② ㉡와 달리 ㉠는 화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품고 있다.
- ③ ㉡와 달리 ㉠는 화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④ ㉠와 ㉡는 모두 때때로 슬픔을 표출하는 행동을 한다.
- ⑤ ㉠와 ㉡는 모두 화자에게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일깨운다.

[23001-0093]

## 04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과거 우리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는 농산어촌의 쇠락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산업 구조의 재편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은 향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갔으며, 그중 다수는 도시의 변두리에 정착하여 빈민층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농업, 광업,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향촌은 노동 인구가 줄어들며 황폐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 광산촌은 광업의 쇠퇴로 인해 폐쇄되는 광산이 늘면서 향촌 전체의 활기가 사라지게 되었다. 농촌의 경우, 새마을 운동 같은 국책 사업을 통해 생산 증대와 향촌 발전을 꾀하기도 했으나 그 효과가 영속적일 수는 없었다.

- ① (가)의 ‘잡초가 우거진 부엌 바닥’이나 (나)의 ‘날로 기우뚱해 가는 마을 회관’은 농산어촌의 쇠락을 보여 주는 소재인 것 같아.
- ② (가)의 ‘편지’는 향촌을 떠나 도시의 변두리에 정착한 소회를, (나)의 ‘앰프 방송’은 생산 증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 같아.
- ③ (가)에서 ‘폐광 올라가는 길’에 ‘빈집’들이 있는 모습은 광업의 쇠퇴로 인해 활기가 사라진 광산촌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 같아.
- ④ (가)에서 ‘산동네’에 산다는 ‘동무들’은 향촌을 떠나 도시의 빈민층이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 ⑤ (나)에서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의 ‘난장 난 비닐하우스’는 향촌 발전을 꾀했던 국책 사업의 효과가 영속적이지 못했던 상황을 보여 주는 것 같아.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치어다보면서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마는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보아도 ㉡가슴이 알알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에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랐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멋쟁이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꿈지락거렸을 햇빛들이며는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는지 모르는 삐걱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입니다.

- 장석남, 「궁금한 일-박수근의 그림에서」

- 나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서 그쳐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갈게 걸쳐진 검은 구름 때  
헛디더 내 아득히 헤맨 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붙고  
스치는 소매 끝마다 툭툭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사라진다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헤진 발바닥의  
무슨 감발에 번진 피얼룩도  
저렇게 저문 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폐선된 목선 하나 덩그러니 뜬 모래벌에는  
무엇인가 줍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

굽은 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엇 던져 놓고도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띄워 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는 수없이 물살 흘러지면서



흩어 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 끝없고  
 마주 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듯배 한 척이 보인다

- 김명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 깎(岬):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23001-0094]

##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③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3001-0095]

##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우두커니 박수근의 그림을 응시하는 시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화자가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 ③ ㉢: 화자가 상상한 장면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④ ㉣: 감동적인 작품을 다시 창작하겠다는 화자의 소망이 표출되고 있다.
- ⑤ ㉣: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23001-0096]

## 0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공존할 수 없었던 과거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 ② ㉠과 ㉡ 모두 생활고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다.
- ③ ㉠과 ㉡ 모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가운데 느끼는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에는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만족감이, ㉡에는 자신이 해 온 일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 ⑤ ㉠에는 가족을 회고하며 연상되는 즐거움이, ㉡에는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서글픔이 드러나고 있다.

[23001-0097]

## 04 &lt;보기&gt;의 '선생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할 때,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시인은 누군가가 남긴 흔적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상상한 바를 형상화하고는 합니다. (가)는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려 했던 화가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서, 가난했던 그의 삶에 관해 떠올린 생각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나)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삶을 상상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는 사실적이고 실용적인 지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지도를 만드는 일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시인은 비유법을 사용해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정호가 겪었을 고난이나 고독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 (나)를 감상해 볼까요?

학생: \_\_\_\_\_

- ① (가)에서 '나'가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보'다가 저녁 무렵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화자가 박수근이 남긴 흔적을 바탕으로 그의 삶에 대해 상상하는 시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 ② (가)에서 '내가 궁금한 일들'이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나 '그리움 같은 것'이 '무엇이 되어 오는지'라는 것은 화자가 서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고 노력했던 박수근의 삶에서 선함과 진실함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③ (나)에서 '헛디더 내 아득히 헤맨 날들'을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김정호가 걸었던 시간으로 이해한다면 '헤진 발바닥의 / 무슨 감발에 번진 피얼룩'은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정호가 겪었을 고난을 상상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④ (나)에서 '목선 하나'가 김정호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모래벌'에 '덩그렇게' 남겨진 '폐선'은 대동여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정호가 겪었을 쓸쓸하고 외로웠던 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⑤ (나)에서 '한 척'의 '돛배'가 김정호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아직도 /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대동여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길 위를 떠도는 김정호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바지랑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뺨은 더 자라서  
 꼬여 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었다
- ㉠그런데도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아쥐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매어 달고는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 송수권 「나팔꽃」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 나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뒀 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도반(道伴): 함께 도를 닦는 벗

[23001-0098]

##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가 지닌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문형 진술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회의적 태도를 노출하고 있다.
- ⑤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3001-0099]

##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나팔꽃’의 개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우리의 아픔’에 대한 것으로 확장된 화자의 인식을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 ‘비’를 의인화한 표현을 통해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 ‘수양 가지’ 이외의 존재를 열거함으로써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⑤ ㉤: 어형(語形)의 유사성을 이용한 시구를 구성함으로써 ‘가지’에게 ‘담’이 지닌 이중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23001-0100]

### 0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인지하는 시간의 경과를 지시하고, ㉡는 화자가 처한 공간의 이동을 의미한다.
- ② ㉠은 의외의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는 동일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을 회고한다.
- ③ ㉠은 화자가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는 화자와 대상의 위치가 뒤바뀐 상황을 형상화한다.
- ④ ㉠은 화자의 내면을 응시하는 쪽으로 시상을 전환하고, ㉡는 화자가 의도한 시상 전개로 초점을 유도한다.
- ⑤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측이 어긋난 상황을 부각하고, ㉡는 화자가 특정 대상을 다른 대상들보다 주목하는 상황을 강조한다.

[23001-0101]

###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시에서 자연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관찰자로서의 화자는 자연물의 조화와 작용, 변화와 성장을 통해 인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때의 교훈 중에는 시련이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삶을 고양하는 의지, 주변의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현실의 제약을 이겨내고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는 용기 등과 같이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들도 있다.

- ① (가)에서 ‘바지랑대 끝’은 관찰 대상인 자연물이 봉착한 한계 상황을 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나팔꽃 줄기’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화자는 인간의 삶에 적용 가능한, 의지에 관한 교훈을 떠올린 것이겠군.
- ③ (가)에서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는 화자의 생각은 시련을 극복하고 삶이 고양되었다는 판단에 해당하겠군.
- ④ (나)에서 ‘한없이 떨기만’ 한다는 것은 주변의 지지와 협력이 부재하여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것은 자연물이 의지를 발휘해 이겨 내야 하는 현실의 제약에 해당하겠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울에 오씨(吳氏)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옛이야기를 잘하기로 유명하여 두루 재상가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는 식성이 오이와 나물을 즐겼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오물음이라 불렀다. 대개 ‘물음’이란 익힌 나물을 이름이요, 오씨와 오이가 음이 비슷한 때문이었다.

한 종실(宗室)\*이 연로하고, 네 아들이 있었다. 물건을 사고팔기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천성이 인색하여 추호도 남 주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여러 아들에게조차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었다. 더러 친한 벗이 권하면, “내게도 생각이 있노라.”

그 대답할 뿐 세월이 흘러도 차마 재산을 나누어 주지 못하였다.

하루는 그가 오물음을 불러 이야기를 시켰다. 오물음이 마음속에 한 꾀를 내어 옛이야기를 지어서 했다.

장안 갑부에 이동지란 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귀 장수하고 아들을 많이 낳아서 사람들이 늘 ‘상팔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동지가 가난해서 고생하다가 자수성가하여 부가옹(富家翁)이란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성질이 인색하였으며 비록 자식 형제에게도 닳아진 부채 한 개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곰곰이 돌이켜 보니, 세상만사가 모두 허사이고, 자기는 오직 재물 재(財) 자 한 자에 일평생 종이 되어서 얽매인 셈이었습니다. 병석에서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볼수록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식들을 불러 유언하기를,

“내 평생, 고생고생하여 재물을 모아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지금 황천길을 떠나는 마당에 백 가지로 생각해 본들 한 개 물건도 가져갈 도리가 없구나. 지난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이 후회스럽다. 명정이 앞을 서니 상엿소리가 구슬프고, 공산에 낙엽 지고 밤비 내리는 쓸쓸한 무덤 속에서 비록 한 푼 돈인들 쓸 수가 있겠느냐. 내 죽어 염습(殮襲)하여 입관할 제 두 손에 악수(握手)\*를 끼우지 말고, 관 양편에 구멍을 뚫어 내 좌우 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내놓아 길거리 행인들로 하여금 내가 재물을 산같이 두고 빈손으로 돌아감을 보도록 하여라.”

하고 이내 운명했습니다.

이동지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감히 유언을 어기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소인이 아까 노상에서 우연히 상행(喪行)을 만나 두 손이 관 밖으로 나왔음을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았더니, 곧 이동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인지장사(人之將死)에 기언야선(其言也善)\*이라더니, 과연 옳은 말입니다.

그 종실 노인이 듣고 보니 은연중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의 말에 조롱하는 뜻이 들었지만, 그 말은 이치에 타당하였다. 이에 즉석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 오물음에게 상을 후하게 주어 보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드디어 여러 자식 앞으로 재산을 나누고 일가 친구에게도 보화를 흠어 주었다. 그리고는 산정에 들어앉아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종신토록 금전상의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 작자 미상, 「이야기꾼 오물음」

\* 종실: 임금의 친족.

\* 악수: 운명한 다음 날, 시신에 수의를 갈아입히고 시신을 이불로 싸 때, 시신의 손을 싸는 행경.

\* 인지장사에 기연아선: 「논어」에 나오는 말로,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그 말이 착하다는 뜻임.

**나** 그전에 참 대갓집이서 독선생을 앉혀 농구 아들 공불 떡 시키는데 이놈이 공불 앉어. 허재며는 자기 아버지하구 그 이웃 노인네하구 앉아서 옛날얘기를 하는데, 이놈이 공불 하면서도 이 얘기하는 것을 다 적는 거야. 적어선, 하룻저녁에 한마디 들으면 하날 적어서 요걸 꼭 종이에다가 적어 가주군 요놈에 걸 봉해 가주군 주머닐 하나 맨들어서 거기다가 처넣구, 처넣구 한 게 삼 년 동안을 딱 그래다 보니깐 주머니 세 개가 찢어어요. 그러니깐 자기 방 대들보에다 딱 달아 놔지. 요놈의 걸, 얘기 주머니를 보니깐 삼 년 동안을 저녁마다 한 개씩 집어넣었으니깐 얘기 주머니가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주머니 세 개가 찢었니깐.

사 년째 되던 해에 장가를 가게 됐어요. 이런 동네서 살 꺼 같음 저기 홍천쯤으로 장가를 가게 됐어요. 이런 영(嶺)을 하나 넘어가야 하는데 그전엔 왜 가마에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널쭌 출발하게 되면 오늘쯤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인들이 있으니깐, 하인더러 명령을 하는 거야.

“너는 내일 누구누구 가말 모시구, 누구는 손님 접대를 해라.”

이렇게 참 정해 줬단 말야.

그런데 그 가마 모시구 그 샌님 도령을 모시구 영 넘어갈 그 종이, 참 동짓달인데 허깨눈이 밤에 갑작시래 이렇게 와서 눈을 썰러 그 도련님 방 문턱엘 이렇게 돌려 썰재니까, 그 방은 도련님은 없구 빈방인데, 얘깃소리가 중중중중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전 공부하던 방인데, ‘하, 도련님이 여기 안 기시는데 여기서 무슨 얘깃소리가 이렇게 나는가?’ 말여. 게서 귀를 이렇게 찌우 들으니깐, 아주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게 “이놈에 새끼가 우릴 주머닐 넣어 가두고 안 풀어놓는다.”는 얘기가.

“그래니깐 이 새끼가 널 저 고개 넘어 장궤 간다니까 널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거지.

“우리 여레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니깐 이런 토론이 많이 나오겠지. 응 귀신찌리라도.

“그럼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래니깐,

“내 말 들어라. 동지설달에 이 고개 마루턱에다가 난데없는 돌배를 크다만 걸 하나를, 이렇게 얹어 피여 늘어지게 하고 돌배가 이렇게 매달리고 허면, 하 그걸 먹으라고 엘 쓸 거다. 그래니깐 그놈의 걸 이렇게 떡 맨들어 놓으면 새신랑이 오다 그거만 딱 처먹으면 죽을 테니깐 걸 해 놓자.”

아, 요걸 그 가매바리\* 모시구 갈 그 종놈이 들었던 얘기가. ‘도련님은 내가 살려야겠다.’는 결심을 먹었거든.

[중략 부분 줄거리] 귀신이 된 이야기들의 계획을 엿들은 하인은 결혼을 위해 떠나는 도련님을 따라나서고, 귀신이 된 이야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부터 도련님을 구한다.

그 애길 짝 했어.

“눈 썰러 이렇게 돌아가니깐 도련님 그 공부하던 방에서 서루 그 귀신들찌리 애길 허는데 그날 가두구서 풀어 주지 않으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구 그래면서 그 돌뺨 만들어 놓구 그걸 먹음 죽게 이렇게 하자구. 그래서 내가 우정 그렇게 간 거라.”

이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 그 얘기 주머니 생각이 나거던.

“아, 그래.”

아, 그래선 참 자기 공부하던 방에 가 보니깐 대들보에다 얘기 주머니 세 개 이렇게 푹푹 말아선 이렇게 주머니 속에 가뜩가뜩 채워 놓 게 매달려 있거든. 아, 그래 이놈의 얘기 주머니를 갖다가선 터쳐서 다 풀어 내보냈단 말야. 그때 헤쳐 내보냈는데 겨우 나는 그놈엿걸 좇아들다 보니깐 그저 한 반 주머니밖에 못 가졌 어요. 예, 이걸루 끝납니다.

- 작자 미상, 「이야기 주머니」

\* 가매바리: 가마채

[23001-0102]

## 01 (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물음’이 이야기를 지어내어 제시하려는 교훈은 구체적 인물의 행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오물음’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 속에 ‘오물음’이 ‘종실 노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다.
- ③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지어내는 ‘오물음’의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는 데 이야기의 중점이 놓여 있다.
- ④ ‘오물음’은 자신이 한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그 이야기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종실 노인’이 이야기를 듣고 보여 준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는 이야기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103]

## 02

##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야기 주머니」 설화는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의 관계 맥락에서 우리 문화사에서 일어난 문화적 변동을 은유적으로 풀어낸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젊은 도련님은 문자 문화의 세계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으며 주머니에 갇혀 사악한 귀신이 된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구술 문화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유통이 되던 이야기들이다. 위협에 처한 주인을 구하는 인물은 도련님의 하인인데 그는 신분상 하층민이지만 글공부하는 도련님을 가까이에 모신다는 점에서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젊은 도련님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만 할 뿐 남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자 이야기들이 도련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 하인이 도련님을 구하고 도련님은 하인의 말을 듣고 이야기들을 주머니에서 풀어 주었다는 내용은 제각기 문화사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 ① ‘대갓집에서 독선생을 앓혀 놓구’ 공부를 하고, 들은 이야기는 ‘꼭 종이에다가 적어’서 기록으로 남겼다는 내용은, 도련님이 문자 문화의 세계에서 성장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도련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종이에 기록해 ‘주머니 넣어 가두고 안 풀어놓는다’는 내용은, 구술 문화 안에서 유통되던 이야기들이 문자로 기록이 되면서 구술 문화로서 이야기의 생명력을 잃어 가던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이 ‘그래니깐 이 새끼가 널 저 고개 넘어 장궤 간다니까 널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도련님을 죽이려고 한 내용은, 지배적 문화인 구술 문화에 대해 문자 문화의 반발이 일어나던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도련님은 내가 살려야겠다.’라고 하며 도련님을 구하고, 도련님에게 말해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을 풀어 주게 한 하인의 모습은, 하인이 문자 문화와 구술 문화 양쪽을 모두 수용하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도련님이 하인의 말을 듣고 ‘이놈의 얘기 주머니를 갖다가선 터쳐서’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을 풀어 주었다는 내용은, 구술 문화가 소멸되지 않고 문자 문화와 공존하게 된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3001-0104]

## 03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와 같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문화를 구술 문화라고 한다. 구술 문화에 입각한 사고와 언어 표현은 문자 문화의 그것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둘 사이의 주요한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ㄱ. 문자 문화의 경우 앞뒤 내용 간의 관계가 논리적, 분석적인 반면 구술 문화는 첨가적, 누적적이고 표현이 장황하거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특징을 보인다.
- ㄴ. 구술 문화에서는 문자 문화에 비해 대상을 이해할 때 구연자가 놓여 있는 지금 여기의 시·공간적 상황, 생활 속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사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 ㄷ. 구술 문화에서 전달하는 주제들은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공적 지혜의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다.
- ㄹ. 문자 문화는 작품의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하여 작가가 작품 안으로 개입하는 일이 드물지만, 구술 문화는 작품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하여 구연자가 작품 안으로 자유롭게 개입한다.

- ① (가)는 주인공 ‘오물음’의 행위를 ‘행위의 계기 → 행위의 실행 → 행위의 결과’라는 논리적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자 문화의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나)는 ‘이런 동네서 살 꺼 같음 저기 흥천쫘으로 장가를 가게 됐어요.’라는 구연자의 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작중 상황을 설명할 때 구연자가 놓여 있는 지금 여기의 시·공간적 상황과 연결해 사고하려 한다는 점에서 구술 문화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는 인물에 관한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가 주제로 제시되는 반면 (나)는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공적 지혜로서 보편적 윤리 규범이 주제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가)보다 (나)가 구술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와 달리 (나)는 ‘겨우 나는 그놈엿걸 좇어듣다 보니깐 그저 한 반 주머니밖에 못 가졌어요.’라는 구연자의 발화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구술 문화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와 달리 (나)는 ‘이놈이 공불 하면서도 이 얘기하는 것을 다 적는 거야. 적어선, 하룻저녁에 한마디 들으면 하날 적어서’에서 ‘적는다’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처럼 이야기 속 여러 장면에서 같은 표현의 장황한 되풀이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구술 문화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世達寺)의 장원이 명주 날리군에 있었다. 본사(本寺)에서는 승려 조신(調信)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벼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곤 네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쭉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댈 수 없어 마침내 실의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매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털너털해지고 백 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羽曲縣)―지금의 우현(羽縣)―에 도착하여 길가에 떠돌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열 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한 가지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따뜻한 옷감은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50년 동안 정분은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결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 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의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의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벼들솨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찌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백 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끊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 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이 전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지난 일을 곰곰이 돌이켜 보니, 어찌 반드시 조신의 꿈만 그러하겠는가? 지금 모든 사람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 기뻐하면서 애를 쓰지만 특별히 깨닫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노래를 지어 경계한다.

즐거운 시간은 잠시뿐 마음은 어느새 시들어  
남모르는 근심 속에 젊던 얼굴 늙었네.  
다시는 좁쌀밥 익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바야흐로 힘든 삶 한순간의 꿈인 걸 깨달았네.  
몸을 닦을지 말지는 먼저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하거늘  
홀아비는 미인을 꿈꾸고 도적은 장물을 꿈꾸네.  
어찌 가을날 맑은 밤의 꿈으로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淸涼)의 세계에 이르는가.

— 작자 미상, 「조신의 꿈」

[23001-0105]

##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발화 내용을 통해 인물들의 상반된 삶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노래의 가사를 통해 서술자가 직접 목격한 사건들을 압축하여 그려 내고 있다.
- ④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과 관련된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23001-0106]

## 0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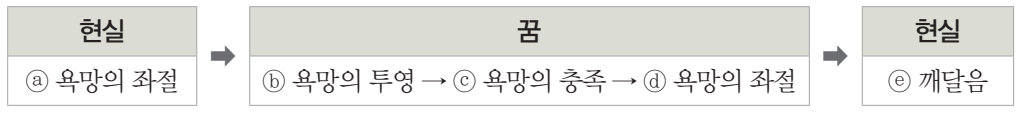
「조신의 꿈」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 하대(下代)를 배경으로 한 설화이다.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신라 하대에 불교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당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백성들에게 현실은 고행(苦行)이지만 이를 감내하고 수행하면 괴로움과 걱정이 없는 극락세계인 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조신의 꿈」은 ‘조신’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이러한 신라 하대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조신이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는 이유에서, 개인적 고민을 불교적 믿음에 의탁하여 해결하려는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군.
- ② 조신의 ‘열 살 난 딸아이’가 ‘아프다고 울’게 된 이유에서, 당대 백성들의 비참한 삶이 경제적 궁핍 때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인이 ‘따뜻한 옷감은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 해 입었’다고 언급하는 데에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현실도 곧 극락과 다름없다는 당대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④ 부인이 조신에게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현실을 고행의 세계로 인식한 당대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⑤ 조신이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하는 장면에서, 내세에 정토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당대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23001-0107]

## 03 <보기>는 윗글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① ㉠: 승려인 조신이 태수 김흔의 딸과의 결연을 소망한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조신의 욕망이 신분 차이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 꿈에 나타난 김 씨의 딸이 조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꿈속 세계의 김 씨의 딸은 조신이 현실 세계에서 지니고 있던 욕망이 투영된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③ ㉢: 조신과 김 씨의 딸이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 조신이 김 씨의 딸과 부부가 되기를 바랐던 욕망은 꿈속 세계에서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 김 씨의 딸과 조신이 각각 아이를 나누어 이별하였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 지냈던 조신의 욕망은 결국 꿈속 세계에서 좌절된 것으로 귀결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 조신이 고달프게 사는 것이 싫어졌다고 말한 점에서 조신이 꿈속 세계에서의 체험을 후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다.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비로소 황제(黃帝) 때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산야(山野)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숲 화로로 이사를 해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B] 공방의 아버지인 천(泉)은 주나라의 태재(太宰)\*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려경(鴻臚卿)\*이 되었다.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濞)가 교만하고 분수 넘침이 지나쳐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호제(虎帝) 때에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제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富民侯)로 임명했다. 그 무리인 염철승(鹽鐵丞)\* 근(僅)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家兄)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子母)\*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루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좇도록 하고,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당시에 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권(文券)\*과 서류가 산과 같이 쌓여 가히 셀 수가 없었다.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으니, 소위 시장 바닥 사귀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 공방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격오(格五)\*를 일삼았다.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백 근과 같다.”라고 했다.

[C] 원제(元帝)가 즉위하자 공우(貢禹)가 글을 올려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는 힘쓰지 않고 다만 전매의 이익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되었으며,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주역(周易)』의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해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 곡량(穀梁)의 학(學)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편을 들었다. 그러자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공방이 문하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에 임금님을 만나,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교화하여 장차 나라의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했다. 이제 조그마한 죄로 내쫓김을 당했다. 그러나 등용되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서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실오라기처럼 살았으니, 앞으로 입이 묶여 말을 하지 못해도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다.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강회(江淮)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약야계(若冶溪) 위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고기를 잡고 술을 사서 민상(閩商), 해고(海賈)와 함께 술 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칠 것이다. 비록 천종(千鐘)의 녹(祿)과 오정(五鼎)\*의 음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이러한 삶과 바꾸겠는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획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 (중략)

당나라가 일어나자 유안(劉晏)이 탁지판관(度支判官)이 되었는데, 당시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유안이 공방의 계획을 사용하여 국가 재정을 이롭게 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당서(唐書)』 「식화지(食貨志)」에 실려 있다. 그런데 공방이 죽은 지 오래되어, 그의 문도들도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하여 공방의 문도들을 수소문하고 일으켜 다시 기용했다. 그 결과 공방의 계획이 개원(開元)·천보(天寶) 연간에 크게 실시되었고, 공방에게는 조의대부 소부승(朝議大夫少府丞)이라는 벼슬이 추증되었다. 송나라 신종(神宗) 때에 왕안석(王安石)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여혜경(呂惠卿)을 [D] 끌어들여 정치를 보좌하도록 하고 청묘법(靑苗法)\*을 사용했다. 그래서 세상이 소란해지고 크게 곤궁해졌다. 소식(蘇軾)이 청묘법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 법을 모두 배척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함에 빠져 쫓겨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는 뒤, 조정의 선비들은 감히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사마광(司馬光)이 재상(宰相)이 되어 청묘법을 폐지하자고 요청하고 소식을 천거해 발탁하니, 공방의 무리들이 점점 쇠퇴하고 다시는 융성해지지 못했다. 공방의 아들 윤(輪)은 뒤편이가 경박하여 세상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다. 뒤에 윤이 수형령(水衡令)\*이 되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사신(史臣)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E]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비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قم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서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들을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하여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했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서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았는가?”

- 임춘, 「공방전」

\* 공방: '엽전'을 달리 이르는 말. 엽전의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름.

\* 관지: '편다'는 뜻. 돈을 께미로 만들기 때문에 '께 관' 자를 써서 '관지'라 함.

- \* 태재: 중국 은나라·주나라 때에 천자를 보좌하던 벼슬.
- \* 홍려경: 외국에서 방문한 사신을 접대하는 관직.
- \* 염철승: 소금과 쇠를 가리키는 의인화된 관직 이름.
- \* 자모: 원금과 이자를 가리킴.
- \* 문권: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 \* 격오: 옛날 놀이로, 지금의 주사위 놀이와 비슷함.
- \* 오정: 소, 양, 돼지, 물고기, 순록을 담아 제사 지내는 다섯 개의 술을 의미하지만, 이 글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뜻함.
- \* 청묘법: 왕안석이 시행한 신법의 하나로, 농촌에 낮은 이자의 자금을 융통하여 가난한 농민을 보호하려고 했던 법.
- \* 수형령: 세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직.

[23001-0108]

## 01 뒷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제는 관상 보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 공방의 선조가 세상에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다.
- ② 염철승 근은 공방의 아버지를 밋고 따랐기에 그와 함께 벼슬을 하며 조정에 참가하였다.
- ③ 간관들은 공방의 위세로 보복을 입을까 두려워하여 그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지 못하였다.
- ④ 곡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은 군비 마련을 위해서 공방의 업무를 줄일 것을 간청하였다.
- ⑤ 왕안석이 나랏일을 맡아보던 때에는 공방의 무리들의 세력이 성하게 되어 세상이 시끄러웠다.

[23001-0109]

## 02 <보기>를 참고하여 공방이 ㉠을 말한 의도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주역』의 ‘해괘(解卦)’에는 ‘짐을 등에 지고 수레에 타니 도적을 불러들인다(負且乘, 致寇至)’라는 구절이 있다. 수레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타는 것이며, 등에 짐을 지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소인의 일이다. 만약 짐을 진 소인이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 위에 앉아 있다면, 이 모습을 본 도적은 소인이 등에 진 것이 남의 재물을 훔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강도로 돌변해 이를 빼앗으려 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군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천한 사람의 행실을 하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① 공방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 하므로, 공방을 관직에서 내쫓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 ② 공방이 맡은 관직은 그 사람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관직이므로, 공방의 직분에 적합한 새로운 관직을 내려 주어야 한다.
- ③ 공방은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에만 신경 쓰는 소인이므로,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그의 관직을 삭탈하여 처벌해야 한다.
- ④ 공방은 관직에 등용되기 전에 탐욕과 비루함으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비리를 일삼는 다른 관리들을 경계하기 위해 공방을 처형해야 한다.
- ⑤ 공방은 능력에 비해 높은 벼슬을 원하는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주므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방의 청탁을 받고 등용된 이들을 파면해야 한다.



[23001-0110]

### 03 [A]~[E]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공방의 자와 선조가 세상에 나오게 된 내력, 그리고 선조가 자리 잡은 장소를 소개하며 공방의 선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공방의 인물됨을 언급한 뒤 공방이 세상에 미친 영향 등을 소개하며 벼슬아치로서 공방이 보인 모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공방이 정치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과 그 이후 공방이 겪는 고초를 소개하며 공방의 노후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공방의 문도들이 관직에 등용된 배경과 공방의 무리와 공방의 아들의 몰락 과정을 소개하며 공방의 후손들의 행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E]에서는 유교적 관점에서 공방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평가하며 공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3001-0111]

###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전(假傳)은 사람들을 경계(警戒)하고 권선(勸善)하기 위해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의 형식으로 서술한 문학 갈래로, 그 대상은 주로 술이나 돈, 대나무 등과 같이 인간 생활과 관련된 사물들이다. 이때, 가전의 작가들은 자신이 의인화한 사물에 대한 관점을 역사상의 인물이나 실제 지명 및 관직들을 활용하여 제시하는데, 돈을 의인화한 「공방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한나라의 벼슬을 하면서도 오나라의 비를 도와 이득을 취한 공방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공익보다 자신의 사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호제 때 부민후로 있으면서 물가를 조절하고 곡식을 천대하여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공방에 대한 평가에서, 백성들이 돈을 중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는군.
- ③ 호제 때의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긴 까닭에 공방이 거두어들이는 문권과 서류가 산과 같이 쌓였다는 것에서, 돈이 벼슬하는 사람들의 청탁의 대가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강회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민상과 해고와 함께 술 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치고겠다는 공방의 말에서, 돈이 없어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작가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당나라 시절 유안의 건의에 따라 공방의 문도들이 등용되어 공방의 계책이 크게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돈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할미가 말하기를,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나이다.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명 있으니, 공자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소서.” / 했다.

이생이 반가워하며 묻기를,

“어디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몇 살이나 되나이까?”

하니 할미가 대답했다.

“하나는 간의태부 진담의 딸로 열여덟 살이요, 하나는 병부 상서 왕건의 딸로 열네 살이며,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로 열여섯 살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더이다. 제가 공자를 위해 세 곳에 기별하니, 두 곳에서는 기꺼이 응답했나이다. 그러나 빌어먹는 아이는 응답하지 않고 이르기를 ‘내 배필이 될 분은 요지에서 ㉠옥가락지의 진주를 가진 사람이니,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야 몸을 허락하리라.’ 하더이다.”

이에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월궁소아로소이다.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도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 왔나이다.”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예비알만 한 진주를 두 손으로 받들고 나와 할미에게 공손히 드리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주고, 날짜를 잡아 기별해 주소서. 혼사에 쓸 것은 제가 다 마련하리다.”

할미가 응답하고 돌아와 숙향에게 진주를 보여 주니, 숙향이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하오니,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소서.”

다음 날 할미가 이생에게 가서 말했다.

“어제 주신 진주가 그 아이의 것이 분명하다 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두었나이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추하고 몹쓸 병이 들어 공자의 배필로 삼기에는 불가능할 듯하옵니다. 공자께서 지금은 연분이 중하다고 하시어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아이를 보시면 눈앞에 두시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 데로 시집가지도 못하고, 젊은것이 평생 혼자 늙으면서 도리어 공자를 원망할 것이니, 일이 참으로 난처하나이다.”

이생이 말하기를,

“할머니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토록 심하게 하시나이까? 숙향 남자가 병든 것도 모두 저 때문에 그리 된 것인데, 제가 어찌 숙향 남자를 박대하오리까?”

하니 할미가 말했다.

“그 아이가 또 말하기를 ‘혼례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하더이다.”

“배필을 맞이하면서 어찌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A] “그러면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행하려 하시나이까?”

이에 이생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 봐 지금은 아뢰지 못하오나, 고모님께 말씀드려 예법에 따라 혼례를 행하리다.”

하니 할미가 허락하며 말했다.

“그러면 이달 14일에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고, 15일에 혼례를 행하시이다.”

이생이 우선 황금 오백 냥을 주며 말하기를,

“할머니께서 가난하여 혼사에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우선 이것을 가져다가 보태어 쓰소서.”

하니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번 혼례 비용은 알아서 마련할 터이니, 이것은 두었다가 공자의 살림살이에 보태소서.”

— 하고 가져가지 않더라.

한편 이생의 고모는 좌복야 여흥의 부인이라.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으며,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이생이 고모 댁에 가니 여 부인이 말하기를,

“밤에 ⑥이상한 꿈을 꾸어서 너를 불러 물어보고자 했는데, 마침 잘 왔도다.”

하거늘 이생이 묻기를,

“무슨 꿈이었나이까?”

하니 여 부인이 대답했다.

“꿈에서 용을 타고 광한전에 올라가니 한 선녀가 이르기를 ‘내가 사랑하는 소아를 그대에게 주나니, 며느리로 삼으라.’ 하거늘, 깨어 보니 남가일몽이라. 아무래도 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것 같구나.”

이생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할미의 말을 자세히 아뢰니, 여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네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서 결코 의지할 데 없는 미친한 사람을 며느리로 삼을 리 없으니, 이 일을 어찌 하리오?”

이에 이생이 아뢰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는 장가들지 않겠나이다.”

하니 여 부인이 말했다.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지금 상서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은 네 부친이 주관하면 되리라.”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 주소서.”

“네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 혼사를 막을 것이니,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름날 나와서 할미 집으로 가거라. 신부 집에 갈 예물은 내가 잘 차려서 보내마.”

이에 이생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날이 되기를 기다리더라.

이때 여 부인이 생각하기를,

‘숙향이 늙은 할미 집에 있다 하니,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하리라.’

하고 예물을 잔뜩 준비해 보냈다.

이윽고 신부 집에 예물을 신고 갔던 하인이 돌아오니 여 부인이 묻기를,

“그 집이 상민의 집이라 하던데, 살림살이가 어떻더냐?”

하니 종들이 여쭙기를,

“소인들이 두루 혼사를 많이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살이가 거룩한 집은 처음 보았나이다.”  
하니 여 부인이 매우 기뻐하더라.

어느덧 보름날이 되었다. 이생이 고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새신랑의 차림새를 갖추어 할미 집에 가니, 구름 같은 차일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안개 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러 있었다. 사방에는 장막과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났으며, 색색의 그림으로 수놓은 휘장과 기구 등 온갖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었다. 좌우에 서 있는 손님들 역시 모두 요지연에서 본 선관과 선녀 같았다. 이생이 허리를 굽혀 맞절하면서 낭자를 바라보니, 과연 요지에서 반도를 주던 선녀가 분명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23001-0112]

## 01 뒷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할미는 숙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생의 요청에 따라 혼례를 승낙한다.
- ② 숙향은 몸소 혼사를 준비하다가 난관을 만나자 할미에게 혼사의 추진을 맡긴다.
- ③ 이생은 숙향에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인해 고민하면서 혼례의 결정을 주저한다.
- ④ 이생은 자신의 고모인 여 부인이 혼사를 주관해 주면 혼례가 성사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⑤ 여 부인은 숙향의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에 대해 못마땅해하면서 종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23001-0113]

## 0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로 작용한다.
- ② ㉠: 남녀가 재회하여 인연을 이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③ ㉡: 해석의 차이로 인해 인물들이 서로 같등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④ ㉡: 인물이 과거에 자신이 범하였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
- ⑤ ㉠, ㉡: 한 인물이 특정 인물의 부유한 삶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매개가 된다.

[23001-0114]

### 0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대화의 상황에서 거짓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그 효과가 발휘된다. 비대칭 정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거나 혹은 한쪽은 우월하게 다른 쪽은 열등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을 때, 즉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진실을 모를 때 성립된다. 거짓말은 대화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거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할미는 숙향의 혼례 의중과 관련하여 이생에게 거짓말을 하기에 유리한 입장에서 있다.
- ② 할미는 숙향의 외모에 관해 이생보다 우월하게 정보를 가지고 이생의 진심을 확인하고 있다.
- ③ 할미는 이생이 예를 갖추어 혼례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 이생보다 열등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④ 이생은 숙향의 실제적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할미에게 거짓말을 하기에 불리한 입장에서 있다.
- ⑤ 이생은 할미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담하게 될 혼례 비용과 관련하여 할미보다 우월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

[23001-0115]

###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천상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겪는 사건을 다루는 적강형 소설에서 인물이 현실 속에서 선계를 여행하거나 천상의 인물과 사물을 마주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은 선계와 속계가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 준다. 이렇게 선(仙)의 세계를 작품에 끌어들이, 현실 세계 안에서 남녀 주인공의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를 하늘이 정해 놓은 인연으로 치부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인물이 독립 의지에 따른 연애를 욕망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나타내 주기도 하는데, 이는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의 지배적 윤리인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일종의 반항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숙향이 '내 배필이 될 분'을 선계에서 만난 한 인물로 정해 놓은 것에서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의 지배적 윤리에 따라 교제 대상을 선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부친이 반대한다 해도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는 장가들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생의 다짐에서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반항적 의식이 드러나고 있음을 찾을 수 있군.
- ③ 이생이 자신의 집에 알리지 않고 '제 소원을 풀'기 위해 부모 몰래 숙향과의 혼례를 추진하는 행위에서 남녀 간의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④ 이생이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던' 사물들을 목격하는 신비한 체험은 선의 세계를 작품의 현실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군.
- ⑤ 이생이 '요지에서 반도를 주던 선녀'를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에는 선계와 속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루는 승상이 홀로 외현(外軒)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홀연 갈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은 사람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승상 앞에 나타났다. 승상이 보니 그 사람의 기골이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기에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황급히 의관을 바로 하고 나아가 맞으며 말했다.

“귀한 손님께서 이렇듯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미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 서 계시게 하여 부끄럽기 그지없나이다. 청컨대, 대청으로 올라오소서.”

그 사람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저는 천산도사라고 하운데, 작은 술법으로 가끔 관상을 보곤 하나이다. 지나가던 중 잠깐 들른 것이운데, 어찌 귀인께서 이렇듯 맞아 주시리라 생각했겠나이까?”

승상이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도인께서 신이한 재주를 가지신 듯하니, 제 얼굴도 보아 주소서.”

도사가 한동안 승상의 얼굴을 지긋이 보고 있다가 대답했다.

“그대의 이마는 보름달처럼 넓고 팔자 눈썹은 높고 맑으니 비록 재주는 많으나 부모를 일찍 여윌 것이요, 코가 살지고 두 귀뺨은 희미한 복사꽃 같으니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만인지상이 될 것이요, 두 눈이 가늘고 길며 흐르는 눈빛이 물결 같으니 재기가 넘치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이요, 입술이 단사(丹砂)를 찍은 듯 얇으니 말주변은 소진(蘇秦)처럼 뛰어나고, 치아는 백옥처럼 희니 짐짓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이옵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답기에 도리어 부부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요, 이마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며 피부가 너무 맑고 빼어나서 자녀가 없을 얼굴이요, 골격이 아담하고 풍치가 있으며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태(態)가 전혀 없으니 수명은 사십을 넘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반드시 오래지 않아 천궁(天宮)에서 옥제(玉帝)께 조회(朝會)하게 되리이다. 제가 본 승상의 관상을 사실대로 아뢰었으니, 당돌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하소서.”

말을 마친 도사는 한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다만 그가 앉아 있던 자리에 꽃부채가 하나 놓여 있었다. 승상이 집어서 보니 도사의 글이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A] “음양을 바꾸어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하리이다. 천궁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하여 이승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끊은 것이니, 스스로 그 죄를 아는가?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이제 옥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 원컨대 내년 삼월 초나흘날에 공을 다시 만나길 기약하노라.”

하였더라.

(중략)

이후 승상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지니, 상서 내외는 망극하여 천지신명께 부친이 더 오래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천자께서도 어의를 보내어 승상의 병을 돌보게 하고 약탕을 친히 달여 보내시는 등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승상의 병이 조금도 차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러다가 승상을 다시 보지 못할까 염려해 친히 승상의 집에 이르시니, 승상이 병약한 몸을 움직여 조복(朝服)을 몸 위에 걸치고 어가(御駕)를 맞이했다. 천자께서 보시기에 승상의 용모가 수척하고 호흡이 가빠 며칠도 지탱하지 못

할 듯했다. 천자가 놀라서 용안이 참혹해지면서 구슬픈 눈물을 흘렸다. 승상의 손을 잡고도 슬픈 나머지 차마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니, 승상이 상서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임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또한 자기의 본색이 죽은 뒤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임금을 속이는 일일 뿐 아니라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을 굳게 정하고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임금께 아뢰었다.

“신이 오늘 용안을 마지막으로 뵈옵게 되었기에 그간의 소회를 모두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성상께서는 죽을죄를 지은 저를 용서하소서.”

천자께서 물으셨다.

“경에게 무슨 소회가 있는가?”

승상이 귀밑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비 오듯 흘리고 오열하며 아뢰었다.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신이 열두 살 되던 해 폐하께서 널리 인재를 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려고 나왔다가 폐하의 성은을 입사와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간 신의 본색을 차마 아뢰지 못했사옵습니다. 또한 영 공이 강요하기에 부득이 영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영녀는 처음부터 신의 본색을 알고서도 성품이 괴이하여 발설

[B] 하지 않았나이다. 그리하여 신과 영녀는 한날 지기가 되어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오늘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황천에 가게 되었기에 그간의 소회를 모두 아뢰옵나이다. 낙성도 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 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것이옵습니다. 마침내 죽기에 이르러 더 이상 폐하를 속일 수가 없어 실상을 모두 아뢰옵고, 또한 신이 규중의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법을 흠트렸기에 감히 팔뚝 위의 주표\*를 보여 드린 후 폐하와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승상이 말을 마치고 넓은 소매를 걷어 올려 옥처럼 고운 팔뚝의 주표를 드러내 어람(御覽)하시기를 기다렸다. 천자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게 승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시더니, 이내 기쁜 얼굴로 크게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C] “오늘 경의 실상을 들으니 놀랍고도 기특하다. 경은 어질면서도 기이한 사람이다. 규중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 같으리오? 규중의 연약한 몸이 이토록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어 적진을 대할 때마다 신출귀몰하며 싸움마다 이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짐은 경의 신체와 용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키가 다른 신하들에 비해 작고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긴 했도다. 그러면서도 망연히 깨닫지 못해 경의 인륜을 온전하게 지켜 주지 못했으니, 이는 짐이 어리석고 사리에 밝지 못한 탓이다. 백 번 뉘우치고 천 번 애달파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리오? 경은 안심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라노라. 짐은 마땅히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주표를 보지 않을지라도 어찌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그러시더니, 승상의 일을 더욱 기이하게 여기며 천자가 재삼 승상을 위로하셨다.

- 작자 미상, 『방한림전』

\* 주표: 여자의 팔에 피꼬리의 피로 문신한 자국. 동정을 잃으면 없어진다고 옛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함.

[23001-0116]

0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의는 승상의 병을 돌보는 과정에서 승상의 본색을 알게 되었으나 발설하지 않았다.
- ② 천산도사는 승상의 관상을 보고 승상의 재능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헤아려 말했다.
- ③ 낙성은 승상의 친아들이 아니지만 승상은 낙성을 하늘이 내려 주신 아이로 생각하여 거두어 길렀다.
- ④ 승상이 천자에게 자신의 본색을 숨겨 왔던 잘못에 대해 벌 받기를 청했으나 천자는 승상을 벌하지 않았다.
- ⑤ 승상은 자신이 세상 사람의 의혹을 피해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는 데 영녀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23001-0117]

02 **<보기>와 관련지어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방한림전」의 주인공 방관주와 그의 부인 영혜빙은 세상을 떠난 후 낙성의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전생담을 들려준다.

우리는 본래 천상의 문곡성(文曲星)과 상아성(嫦娥星)이었는데, 부부간의 정이 너무 깊어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말은 일도 아예 돌보지 않았노라. 상제께서 이를 밍게 여기시던 차에 태율이 우리를 농간하려고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문곡성은 방가(方家)에 내치고 상아성은 영가(瀛家)에 내치셨느니라. 문곡성은 본래 남자이기에 남자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태율이 나를 희롱하려고 일부러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또 영 부인과 헛된 이름으로만 부부가 되게 하여 우리가 천상에서 너무 방자하게 행동한 것을 징벌했노라.

- ① [A]에서 ‘음양을 바꾸어’라고 말한 것은 천상의 문곡성과 상아성이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 태율이 행한 농간 때문에 그 둘의 성별이 뒤바뀌게 된 사실을 뜻하는 것이겠군.
- ② [A]에서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라고 한 말이 뜻하는 행위는 천상에서 문곡성이 본래 남자였다는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겠군.
- ③ [A]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끊은 것이니’라고 한 말이 뜻하는 상황은 천상에서 부부였던 문곡성과 상아성에게 상제가 내린 징벌의 성격을 띠는 것이겠군.
- ④ [A]에서 ‘그 죄를 아는가?’라고 한 말은 천상에서 문곡성과 상아성이 말은 일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 ⑤ [A]에서 ‘옥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라고 말한 것은 상제가 자신이 내친 문곡성을 용서하고 되돌아오게 하려는 뜻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23001-0118]

## 03

〈보기 1〉의 관점에서 윗글과 〈보기 2〉를 연결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여성 영웅 소설은 18~19세기에 유행하였으며 상층 계급의 여성들이 주된 독자층 중 하나였다. 이는 여성 영웅의 형상에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투영되어 있으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 영웅 소설의 유행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시기에 창작·향유되었던 신변 탄식류의 규방 가사를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여성 영웅 소설 속 여성 주인공의 일대기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보기 2 |

다음은 조선 후기의 규방 가사「여자탄(女子嘆)」의 일부이다.

- ㉠ 인간 남자 되었던들 성현호걸 배우리라 / 시서예악 익혀 내고 입신양명하올 제면  
문장공명 일삼으며 사군자의 행실 하고 / 입상출장(入相出將)하여 문호생광(門戶生光) 하오리라
- ㉡ 일인지하 만민상에 부귀영화 함도 할샤 / 위로는 충효 돕고 아래로 만민치정  
태평세를 열어 놓고 / 수역춘대\* 오르고저
- ㉢ 어찌하여 중문 밖을 일생을 못 보시고 / 서황은 어디인가 지옥이 여기로다  
이현경 왕홍벽\*의 여화위남(女化爲男) 하릴없어 / 벽사창 굳게 닫고 침선만 잡고 앉아  
가는 세월 모르거든 / 오는 시절 어이 알리

\*수역춘대: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

\*이현경 왕홍벽: 이현경은 여성 영웅 소설 「이학사전」의 주인공. 왕홍벽은 미상이나 뒤에 오는 '여화위남'(여성이 변화하여 남성이 됨. 즉 남장 여성을 말함)이라는 표현으로 짐작건대 여성 영웅 또는 남장 여성일 것으로 보임.

- ① 〈보기 2〉의 ㉠에서 '인간 남자 되었던들 성현호걸 배우리라'에 나타난 남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윗글의 주인공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본색을 감추고 남성으로 사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② 〈보기 2〉의 ㉡에서 '일인지하 만민상에 부귀영화 함도 할샤'에 나타난 출세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윗글의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존귀하게 될 관상을 지닌 인물로 표현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 ③ 〈보기 2〉의 ㉢에서 '위로는 충효 돕고 아래로 만민치정'에 나타난 공적인 존재로서의 삶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윗글의 주인공이 한 나라의 승상으로서 천자의 인정을 받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④ 〈보기 2〉의 ㉢에서 '어찌하여 중문 밖을 일생을 못 보시고'에 드러난 여성 현실에 대한 한탄은, 여성 독자들이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윗글의 주인공에게 투영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 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 ⑤ 〈보기 2〉의 ㉢에서 '벽사창 굳게 닫고 침선만 잡고 앉아'에 투영된 규방의 삶에 대한 여성의 답답한 심정은, 윗글의 주인공이 천자 앞에서 스스로 여자임을 밝히는 행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3001-0119]

## 04 &lt;보기&gt;를 참고하여 [B], [C]를 읽고 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여성 영웅 소설은 이른바 ‘영웅의 일생’ 구조를 따른다는 점에서 남성 영웅 소설과 유사하지만 일부 이야기 요소가 여성 주인공의 성격에 맞게 변화·조정되면서 남성 영웅 소설과의 차별점이 나타난다. 여성 영웅 서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가) 고귀한 혈통의 무남독녀로 출생함.
- (나) 가문 또는 개인 차원의 시련을 겪음.
- (다) 남장 후 집을 떠남.
- (라) 조력자를 만나 병법과 무예를 익힘.
- (마)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에 오름.
- (바) 국가의 위기를 해결함.
- (사) 왕실 또는 귀족의 권유로 여성(왕실 또는 귀족의 딸)과 정혼함.
- (아) 원치 않게 여성임이 밝혀짐.
- (자) 남성과 결혼하여 여성의 삶으로 회귀함.

작품에 따라 부분적으로 여성 영웅 서사의 일반적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방한립전」은 남성과의 결혼과 여성의 삶으로의 회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가 된다.

- ① [B]: 주인공이 영 공의 강요로 영녀와 인연을 맺었다는 내용은 <보기>의 (사)에 해당하겠군.
- ② [B]: 주인공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가문의 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내용은 <보기>의 (나)에 해당하겠군.
- ③ [B]: 주인공이 열두 살 되던 해,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있던 천자에게 성은을 입었다는 내용은 <보기>의 (마)에 해당하겠군.
- ④ [C]: 주인공이 키가 작고 수염이 없어 오래전부터 천자에게 의심을 샀다는 내용은 <보기>의 (아)에 해당하겠군.
- ⑤ [C]: 주인공이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군세어 적진을 대할 때마다 매번 이겼다는 내용은 <보기>의 (바)에 해당하겠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전에 진 공이 병부에 있을 때였다. 엄송의 양아들 조문화가 진 공의 딸 채경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청혼을 했는데, 공이 매정하게 사양하며 물리친 일이 있었다. 조문화는 크게 분개한 나머지 엄송에게 청탁하여 진 공을 산서성 노안부의 제독으로 좌천시켰다. 그런 후 다시 양식을 시켜 진 공이 태원전(太原錢) 삼천만 냥을 사사로이 착복하였다고 무고한 후, 금의옥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얹어매었다.

조문화는 부인과 채경이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친척 오라버니 오 낭중을 불러 말했다.

“진형수의 죄로 보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한 번 병긋하면 구해 줄 수도 있소. 허나 지난번에 진형수는 나를 심히 업신여기며 우리 집의 청혼을 딱 잘라 거절했었지.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는 없지 않소? 듣자니 그대가 진형수와는 친척 간이라고 하니 진형수가 살아서 감옥 문을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그 딸이 만약 효녀라면 틀림없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 것시오.”

오 낭중은 원래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저 ‘네네’ 하기만 하는 위인이라서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바로 오 부인을 찾아가 그 말을 전해 주었다. 그러자 부인이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조문화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채경이 분연히 아뢰었다.

“옛날 효녀 중에는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이도 있고, 또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 이도 있습니다. 저의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딸이 옥처럼 맑고 서릿발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인은,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참으로 슬프구나.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의심하겠느냐?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버를 살리면 살아난 아버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옛사람의 말에 ‘내기에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했다. 지금 내 마음이 황금을 내기에 건 사람과 같을 뿐이겠느냐?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채경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직접 오 낭중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오 낭중이 크게 기뻐하면서 조문화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 다음 날 조문화가 다시 엄송에게 청탁을 넣으니, 천자는 진 공을 죽이지는 않고 운남으로 귀양을 보냈다.

진 공이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통곡하는데, 진 공은 강개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다.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차려 벼슬을 그만둘 것을, 우유부단하게 지체한 탓에 이 같은 몸쓸 일을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을 목숨을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셨으니 이 또한 천지신명이 보살핀 덕이오.”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조문화와 혼사하기로 한 일을 말했다. 진 공은 화가 치밀어서 머리털이 모두 곤두섰다.

“내가 차라리 처형당해 버려지는 시체가 될지언정 어찌 차마 도적놈과 사돈을 맺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견디겠소? 게다가 우리 딸은 세 살 때부터 이미 윤여옥과 약혼하여 지금 열한 해가 지났는데,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 목숨을 구하겠소?”

채경이 편안한 낯빛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소녀가 경솔하게도 미리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이니 말한들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태연한 기색이었다. 진 공은 기가 막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남다른 담력과 꺾기가 있었지. 지금 하는 말과 행동거지를 보니 틀림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발한 계획이 있는 게야. 그냥 그 뜻을 따르고 지켜봐야겠다.’

**[중략 부분 줄거리]** 채경의 계획을 듣고 안심한 진 공 부부는 채경에게 자신들을 따라오지 말고, 오빠가 머물고 있는 회남으로 갈 것을 당부하며 운남으로 귀양길을 떠난다.

진 공과 부인이 떠나자, 채경은 방으로 돌아와 누워 밤낮으로 흐느끼 울었다. 조문화의 하인이 끊임없이 와서 혼인을 재촉했다. 채경은 유모를 시켜 말을 전하게 했다.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 마음이 멍멍합니다. 수십 일 정도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문화의 하인이 돌아가서 채경의 말을 전했다. 아들이 안달이 나서 조급해하자 조문화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원하는 대로 해 주자꾸나. 그 아이는 이미 손안에 든 바나 진배 없으니 조금 혼인을 늦춘다고 어디로 가겠느냐?”

네댓새 후에 조문화는 계집종을 보내 채경이 어떤지 살펴보게 했다. 채경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신음하고 있다가 가냘픈 목소리로 유모를 불러 말했다.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뒤끝에 심한 감기에 걸렸네. 마음을 편안히 먹고 몸조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몸이 완쾌되어야 아버님을 살려 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네.”

계집종이 돌아가 이 말로 아뢰자 조문화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 아이가 참으로 효성도 지극하고 은혜를 아는구나. 지금 그 뜻대로 해서 성을 돌우지 말자꾸나. 이후로는 매일 문밖에서 안부만 묻고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 열흘이 지나자 채경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 헤아리고, 유모와 몸종 운섬을 데리고 짐을 가볍게 꾸린 후, 남자 옷을 입은 채 밤에 한 마리 나귀를 타고 회남으로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조문화의 하인이 와서 보니, 집이 텅 비어 있고 사람 흔적이 없었다. 크게 놀라고 이상하여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집 아가씨가 어디로 갔소?”

그 사람이 투명스럽게 답했다.

“아가씨인지 아줌씨인지, 그런 사람 난 모르요.”

하인이 하릴없이 돌아가서 조문화에게 알렸다. 조문화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진 채 서로 쳐다만 볼 뿐 아무 말도 못 했다.

— 조성기, 「창선감의록」

[23001-0120]

##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 공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벼슬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며 자책하였다.
- ② 양석은 조문화의 지시에 따라 나랏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진 공을 무고하였다.
- ③ 오 낭중은 조문화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문화의 말을 오 부인에게 전달하였다.
- ④ 엄승이 진 공을 좌천시켜 금의옥에 가두자 황제는 진 공의 죄를 밝히기 위해 운남으로 귀양을 보냈다.
- ⑤ 조문화는 채경의 성품에 감복하여 채경의 몸이 완쾌될 때까지 자신의 아들과 채경의 혼인을 미루었다.

[23001-0121]

## 02 &lt;보기&gt;를 참고할 때,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윤 시랑의 아들인 윤여옥과 진 공의 딸인 채경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다. 어느 날 총계정에서 학 한 마리가 길게 울며 외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본 윤 시랑은 채경에게 이에 대한 시를 짓도록 하였다. 채경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은 시를 지었다.

사람들 놀랄까 큰 울음은 그쳤지만  
삼청(三淸)\*에 이를 날개 어이 없으리  
다만 왕자진\*과 약속 있어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 밖을 그리네

\* 삼청: 도교에서, 신선이 사는 세 공을 의미함.

\* 왕자진: 주나라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어 봉의 울음소리를 냈다고 함. 후에 신선이 되어 백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고 전해짐.

\* 구산: 왕자진이 백학을 타고 신선이 되어 승천한 곳으로, 도를 닦아 신선이 되는 곳을 의미함.

- ㉠ ‘사람들 놀랄까’라는 구절이, 채경의 선택으로 인해 진 공이 노심초사하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 ㉡ ‘큰 울음은 그쳤지만’이라는 구절이, 진 공을 안심시키기 위해 채경이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 ㉢ ‘삼청에 이를 날개 어이 없으리’라는 구절이, 채경이 조문화의 아들과 자신의 혼인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 ㉣ ‘왕자진과 약속’이 있다는 구절이, 윤여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채경이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 ㉤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 밖을 그리’워한다는 구절이, 채경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23001-0122]

## 03 ㉠의 구체적 내용을 ‘채경’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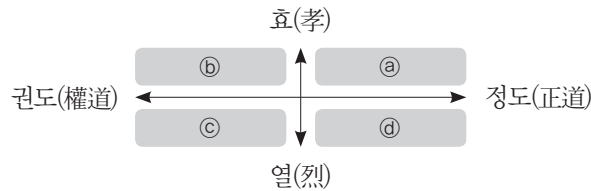
- ㉠ 아버님을 구해 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켜 조문화를 안심시켜야겠군.
- ㉡ 부모님과 헤어진 뒤의 심정을 이야기하며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혼인을 미루어 달라고 부탁해야겠군.
- ㉢ 힘든 일을 겪어 병에 걸렸다고 말한 후 하루빨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출입을 삼가 달라고 말해야겠군.
- ㉣ 부모님께서 조문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행색을 바꾼 후 마을을 떠나야겠군.
- ㉤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집을 나온 시간과 떠나는 장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서 조문화의 추격을 따돌려야겠군.

[23001-0123]

##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어떤 사안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상황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조선 시대에는 이를 ‘정도(正道)’와 ‘권도(權道)’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도’란 ‘도(道)’를 행할 때 원칙을 지키며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권도’라고 한다. 이때 권도는 단순히 상황 논리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명분과 도리를 잃지 않고 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창선감의록」에서 진채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인 ‘효(孝)’와 남녀 간의 도리인 ‘열(烈)’을 실천하기 위해 정도와 권도의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진채경이 보여 주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조문화가 자신의 말을 채경에게 전하라고 오 낭중에게 당부하는 것은 채경에게 ㉞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조문화의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한 채경의 결정에 오 부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평소 채경이 ㉠과 ㉢를 중히 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③ 윤여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채경의 선택에 대해 화를 내는 진 공의 모습은 자신 때문에 채경이 ㉢를 행하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겠군.
- ④ 병환을 핑계로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삼가 달라는 채경의 뜻을 조문화가 따르기로 한 것은 채경이 ㉞와 ㉡를 동시에 선택했다고 믿었기 때문이겠군.
- ⑤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지 않고 채경이 회남으로 떠나는 것은 ㉞와 ㉡를 통해 효와 열을 모두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전한 영철은 후금 장수 아라나의 포로가 되어 건주에서 8년 가까이 살며 두 아들을 얻지만, 아들들을 두고 명나라 등주로 도망친다. 등주에서 6년을 지내며 다시 두 아들을 얻은 영철은 고향 사람을 만나 그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조선으로 돌아온다. 고향에서 다시 가정을 꾸린 영철은 조선의 군대가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 임경업 밑에서 종사하게 된다. 이때 임경업이 명나라 장수에게 조선과 명나라 두 군대가 서로 상해를 끼치지 말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명나라 장수가 편지를 읽고 몹시 기뻐하며 영철에게 은 30냥과 베 20필을 선물로 내리고 답장을 써 주었다. 돌아오는데 불빛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영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가 이곳에 어찌 왔나?”  
 [A] 자세히 보니 바로 전유년이었다. 영철은 경황없는 중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대뜸 처자식 소식부터 묻고는, 선물로 받은 베 20필을 전유년에게 주며 말했다.  
 “가지고 가서 아내와 자식에게 전해 줘요.”

돌아와 배를 대니 날이 밝아 왔다. 영철은 임경업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는데, 임경업이 미처 편지를 뜯어 보기도 전에 갑자기 오랑캐 두 사람이 말을 달려 왔다. 임경업은 즉시 편지를 숨겼다. 오랑캐 두 명이 배에 오르더니 임경업의 목을 움켜잡고 말했다.

“너희 쪽 작은 배가 적진에서 오는 것을 봤다. 내통하고 온 것이 분명하다.”

임경업을 위협하여 옷과 신발을 벗기고, 배에 탄 병사들의 옷도 모두 벗겨 살살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랑캐들이 배에 있는 두 병사를 보고 자백하라며 추궁하자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물을 길기 위해 갔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성이 나서 임경업에게 두 병사의 목을 베라고 했다. 임경업은 소교에게 눈짓을 해 다른 섬에 가서 목을 베게 했다. 소교는 즉시 검을 거꾸로 잡고 내리쳐 목을 베는 시늉을 해 보이고는 자기 코를 때려 검에 피를 묻힌 뒤 돌아와 오랑캐에게 보여 주었다. 오랑캐는 그제야 돌아갔다.

이날 임경업은 명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명나라 군대가 앞으로 밀고 나와 우리 군대를 포위하자 우리 군대는 총알 없는 총을 쏘고 명나라 군대는 화살촉이 빠진 화살을 쏘아 댔다. 이렇게 한참을 싸우며 밀고 밀리기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 그러다 명나라 군대가 쇠갈고리를 우리 배에 걸고 육박해 오자, 우리 군사들 중에 이것이 미리 약속된 행동임을 모르던 이들이 사태가 위급함을 보고 실탄을 장전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결국 일부 명나라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명나라 군대는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7월에 명나라 군대와 오랑캐 군대는 대치 상태를 풀었다. 오랑캐는 다시 임경업으로 하여금 정예병을 선발하여 금주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게 했다.

신사년에 유럽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에 갈 때 영철은 또 종군하게 되었다. 오랑캐 측에서는 아라나를 진중에 보내 군사 업무를 의논하게 했다.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는 이렇게 꾸짖었다.

“나는 네게 세 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그 하나다. 네가 두 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 준 것이 그 둘이다. 내 제수를 너의 아내



로 주고 네게 건주의 집안 살림을 맡긴 것이 그 셋이다. 하지만 너는 세 가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목숨을 살려 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이 첫 번째 죄다. 네게 말을 기르게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네게 부탁했건만 너는 도리어 명나라 놈들과 짜고 나를 배신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다. 도망가면서 내 천리마를 훔쳐 갔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다. 네가 도망간 건 그리 한스럽지 않다만, 내 천리마를 잃은 것은 너무도 한스러워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프다. 내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

그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이 큰 소리로 외쳤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명나라 놈들이 한 짓입니다. 당시에 그놈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아홉 명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공께서는 사정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며 말했다.

“영철이 죄를 짓긴 했습니다만, 공께서 예전에 살려 주셨으면서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덕을 베풀지 못하는 게 되고 맙니다. 제가 영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후히 치르고자 하니 **은덕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가는 **있담배 200근을 짓값으로** 치렀다.

이때 득복이 오랑캐 군중에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에게 말했다.

“네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가?”

[B] 즉시 득복을 불러오게 했다. 부자가 마주 보고 눈물을 흘리니, 진중에서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슬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부터 득복은 매일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을 차려 와 영철을 대접했다. 영철은 귀한 과일은 유림에게 먼저 올리고, 물러 나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때 오랑캐가 금주를 포위했다. 명나라에서는 **10만 군사**를 구원병으로 보내 오랑캐와 싸움을 벌였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유림은 영철을 홍타이지에게 보내 축하 인사를 하게 했다.

(중략)

영철은 의상, 득상, 득발, 기발 네 아들을 두었는데, 자신이 중군하며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했다. 무술년에 조정에서 자모산성을 고쳐 쌓으며 성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역을 면해 주었다. 영철이 즉시 네 아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 살았으니, 이때 이미 영철의 나이 예순이 넘었다.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하릴없이 늙어 가며 가슴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성 위에 올라가 **북쪽으로 건주를, 남쪽으로 등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영철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저버리고** 와 **두 곳의 처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지금 내 **곤궁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게 어찌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또한 한스러이 여길 게 뭐 있겠나?”

영철은 20여 년간 성을 지키다가 84세 되던 해에 죽었다.

— 흥세태, 「김영철전」

나 「김영철전」에는 조선 백성 김영철의 전쟁 체험과 고향의 가족과 재회하기 위한 고달픈 인생 역정이 담겨 있다. 17세기 초 만주 일대에서 후금(청나라)과 명, 조선은 군사적으로 충돌한다. 이때 강홍립의 군대가 명나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출정했다가 후금에 투항하는 ‘심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동원된 김영철은 후금의 포로가 된 후 명나라를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3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다. 김영철은 간신히 고국에 돌아온 후에도 후금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조선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연이어 동원되고 죽을 때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못한다. 「김영철전」에는 후금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오랑캐로 낮추어 보거나 명나라와 협력하여 후금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작가 또한 당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승명반청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23001-0124]

01

**두 곳의 처자식과 관련지어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영철이 전유년에게 ‘처자식 소식’을 물어본 것은 명나라에 남겨 두고 온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의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이겠군.
- ② [B]에서 득북은 영철이 아라나 밑에서 지낼 때 얻은 자식으로, 영철은 득북과 같이 타국에 남겨 놓고 온 자식들이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았을 거라 생각하며 안타까워했던 것이군.
- ③ [A]에서 ‘베 20필’이 두고 온 처자식에 대한 영철의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면, [B]에서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은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 영철에게 효를 실천하려는 득북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A]의 전유년은 처자식을 생각해 명나라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B]의 아라나는 득북을 위해 자신의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인해 영철이 느끼는 ‘곤궁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군.
- ⑤ [A]와 [B]는 각각 ‘남쪽으로 등주’와 ‘북쪽으로 건주’에 남겨 두었던 처자식에 대한 영철의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처자식을 저버리고’ ‘부모의 나라’를 선택한 영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군.

[23001-0125]

## 02 (나)를 참고하여 (가)의 인물들이 한 행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나라 장수가 ‘영철에게 은 30냥과 베 20필을 선물로 내’린 것은 명나라 군대와 싸우고 싶지 않다는 조선 장수의 편지 내용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겠군.
- ② 임경업이 ‘오랑캐 두 사람이 말을 달려’ 오자 영철에게서 받은 편지를 즉시 숨긴 것은 명나라 장수와 서로 약속된 행동을 하기로 한 것이 후금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③ 소교가 임경업의 눈짓을 보고 ‘검을 거꾸로 잡고 내리쳐 목을 베는 시늉을 해’ 오랑캐를 속인 것은 후금과 명나라가 벌인 전쟁에 동원된 우리 병사들의 헛된 희생을 막으려 했던 것이겠군.
- ④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 꾸짖으며 ‘영철을 포박하게’ 한 것은 명나라에 협력하며 조선의 이득을 취하려 한 일에 대해 경고하여 유럽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군.
- ⑤ 유럽이 아라나에게 ‘은덕을 온전히 하시’라며 ‘있담배 200근을 짓값으로 치’른 것은 후금의 지시를 받는 구원병의 입장에서 후금 장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23001-0126]

## 03 (나)를 참고하여 다음 소재들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은 배’는 명나라와 조선의 장수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오랑캐 두 사람’은 이것을 보고 임경업을 의심하게 된다.
- ② ‘총알 없는 총’은 명나라와 협력해야 한다는 친명 노선이 전쟁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명나라 군대를 공격하라는 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 된다.
- ③ ‘정예병’은 임경업이 이끌게 된 후금의 병사들로서, 명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포기하고 후금의 편에 서기로 한 조선 장수에 대한 후금의 신뢰가 과거에 비해 깊어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10만 군사’는 후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명나라가 보낸 구원병 부대로, 이들이 전쟁에서 대패하는 사건은 명나라를 계속해서 섬겨야 한다는 명분이 시대착오적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⑤ ‘성’은 나이가 든 김영철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했던 곳으로, 후금과 조선, 후금과 명나라의 전쟁이 계속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조선의 백성이 고단한 삶을 살게 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127]

## 04 <보기>는 (가)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서술자의 말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외사씨는 말한다.

“…… 가도를 공격하던 때에는 사지를 넘나들면서 힘을 다해 애썼으니 그 공적을 기억할 만하거늘, 손톱만큼의 상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현령은 말값을 받아 냈고 호조에서는 앞담뱃값으로 은을 내놓으라고 독촉했다. 그리하여 늙어서도 성 지키는 일을 하다가 끝내 가난 속에서 울적한 마음을 품은 채 죽고 말았으니, 이 어찌 천하의 충성스러운 선비를 격려하는 방법이란 말인가? 나는 영철의 일이 잊힌 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음을 슬퍼하여 이 전을 지어 후인에게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에 김영철이란 사람이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다.”

- 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되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인공의 행적을 칭송하기 위해 쓴 것이군.
- ② 충성스러운 선비들을 더욱 궁핍한 삶으로 내모는 탐관오리들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군.
- ③ 평생 사지를 넘나들며 나라를 위해 싸웠으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선비의 삶을 소개하려고 쓴 것이군.
- ④ 주인공이 타향에서 겪은 낯설고 신기한 사건을 제시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려고 쓴 것이군.
- 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 선비의 삶 속에도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이 많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문(廣文)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루(鐘樓)의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꽤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꿩꿩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 주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水標橋)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 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외 공동묘지에다 묻고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薦擧)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장자(長者)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날이 없다.”

하고 사죄하였다. 그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宗室)의 빈객(賓客)들과 공경(公卿) 문하(門下)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 대니, 공경 문하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長者)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꽃이, 옥비취,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전장(田庄)·노복 등의 문서

를 저당 잡고서 본값의 십분의 삼이나 십분의 오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千金)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하였다.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희(曼碩戲)를 잘하고 철괴무(鐵拐舞)를 잘 추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니 형은 달문(達文)이다.”라고 놀려 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훌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령 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시늉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 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 버렸다.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땅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팔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하였다.

서울 안에 명기(名妓)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예전에 궁중의 우림아(羽林兒), 각 전(殿)의 별감(別監), 부마도위(駙馬都尉)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 뜨리고 운심(雲心)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거문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다.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에 앉았다.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 대고, 형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였다.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높으락낮으락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갈춤을 한바탕 추었다.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 박지원, 「광문자전」

[23001-0128]

##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의 성격과 관련된 일화들을 삽화의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바꾸어 가며 다양한 시선으로 중심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외부 사건 속에 내부 사건을 복합적으로 배치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편집자적 논평을 내리고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공간의 경치가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하여 인물 간 갈등의 해소를 암시하고 있다.

[23001-0129]

## 0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함께 지낸 광문은 ㉠과 ㉡의 갈등으로 인해 위기에 빠지게 된다.
- ② ㉠과 ㉡은 모두 광문에게 의혹을 가지다가 시간이 지나 의혹을 풀게 된다.
- ③ ㉢은 ㉡을 위해서 광문이 한 선행에 감동하여 광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
- ④ ㉢의 알선으로 일자리를 얻은 광문은 ㉢의 변심에 결국 사의를 표하게 된다.
- ⑤ ㉣이 ㉢을 도와주려고 한 행동으로 인해 광문은 ㉢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

[23001-0130]

## 03 **윗글을 읽고 당대의 세태에 대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시에서 빈민들이 패를 이루어 특정 장소에 모여 살면서 양식을 구걸하러 다녔다.
- ② 귀중품이나 자산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아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 ③ 이웃 사이의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무리의 연장자가 내린 판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
- ④ 남자의 머리 모양으로 결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개인이 집을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 ⑤ 기녀들이 빼어난 외모나 예능적 재주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남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활약하였다.

[23001-0131]

## 04 &lt;보기&gt;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연암 박지원의 소설 작품들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의 모형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 볼 때 주인공 광문은 비록 사회의 하층민이지만 진실하고 순박한 의인(義人)의 한 전형으로 그려진다. 동시대 사대부들의 비생산적 사고와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끈질기게 응시해 온 작가는 양반 사회의 내부를 조명하여 사대부들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어 사회를 비꼬기도 하였다. 작가는, 권력과 재력은 없지만, 인정 많고 신용을 갖추었으며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줄 아는 광문과 같은 인간형을, 양심을 속이고 권모술수로 연명해 가던 세속적인 사대부와 교체되어야 할 대안적 인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광문자전」은 천인(賤人)의 인간성에 나타나는 ‘인(仁)’을 부각하여 사대부들의 위선을 풍자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① 광문은 ‘거지’로서 사회의 하층민이라 할 수 있지만 ‘순박하’며 본인도 어려운 처지임에도 죽은 아이의 장례까지 챙긴다는 점에서 의인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타인의 오해에도 끝내 태연함을 보인 광문이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고 칭송되는 것에서 당시에는 광문과 같은 인간형의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사회 실상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권력이나 재력이 없음에도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면 ‘담보를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에서 금전적 이해득실이 중요한 상황에서조차 광문은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인정 받았음을 알 수 있군.
- ④ 사람이라면 ‘사내’, ‘여자’ 구분할 것 없이 ‘잘생긴 얼굴’을 좋아할 것이라는 광문의 생각에서 광문이 기존의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는 대안적 인식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⑤ 추한 걸모습만을 보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의기가 양양하’게 행동하는 광문이, 사대부들의 요청에도 चु추지 않던 운심을 चु추게 한 것에서 권모술수에 능한 사대부들에 의해 이용당하며 학대받는 하층민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병이 든 동해 용왕이 토끼의 생각이 약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토끼를 잡아 올 신하를 찾는다. 이에 자라는 용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서고, 육지로 올라와 토끼를 만난다.

토끼는 뽕긋뽕긋 웃으며 말했다.

“내 형을 보니 시체(時體) 사람은 아니로다. 의량이 넓고 위인이 관후하니 남을 속이지 않을 것 같소. 나 같은 부생(浮生)을 좋은 곳에 천거하니 감격하기 측량없으나 수부에 들어가서 벼슬하기가 쉬울쏘나.”

자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요놈, 인제야 속았구나.’

자라는 혼연히 대답했다.

“그대가 오히려 경력이 적은 말이로다. 역산에서 밭을 가시던 순임금도 당요(唐堯)의 천자 위(位) 수선(受禪)하고, 위수에서 고기 낚던 강태공도 주문왕의 스승 되고, 산야에서 밭 갈던 이윤(伊尹)도 탕임금의 아형(阿兄) 되고, 표모(漂母)에게 밥 빌던 한신도 한 태조의 대장이 되었으니, 수부나 인간이나 발천하기는 마찬가지라. 이런고로 밝은 임금이 신하를 가리고 어진 신하가 임금을 가리나니 우리 대왕께서는 한 가지 재능과 한 가지 지조가 있는 선비라도 벼슬 직책을 맡기시는지라. 이렇기 때문에 나같이 재주 없는 인물도 주부 일품 자리에 외람히 올랐거늘, 하물며 그대같이 고명한 자격이야 수군절도사는 떼어 놓은 당상이지. 또한, 신수 좋은 얼굴을 능연각(凌煙閣)\*에 걸어 두고 춘추에 빛나는 이름을 죽백(竹帛)에 드리우리니, 이것이 기남자(奇男子)의 보배로운 영광이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토끼 가문 중에 시조(始祖) 되기는 아무 염려 없는지라.”

토끼 웃으며 말했다.

“형의 말은 그럴듯하나, 어젯밤 꿈이 불길해 꺼림칙하도다.”

자라가 말했다.

“내가 젊어서 해몽하는 법을 약간 배웠으니 그대의 몽사를 들려주오.”

토끼는 어젯밤 꿈 이야기를 했다.

“칼을 빼서 배에 대고 몸에 피 칠을 하니 아마도 좋지 못한 정상을 당할까 염려되오.”

자라는 토끼를 책망하며 말했다.

“아주 좋은 몽사를 가지고 공연히 고민하는구려. 배에 칼을 댔으니 칼은 금이라 금띠를 띠 것이요, 몸에 피 칠을 했으니 홍포(紅袍)\*를 입을 징조라. 이 어찌 공명할 길몽이 아니겠소? 장자의 나비 된 꿈은 달관의 꿈이요, 공명의 초당 꿈은 선각의 꿈이라. 그 외에 꿈이라 하는 것은 무비관몽(無非觀夢)\*이요, 개시허몽(皆是虛夢)\*이로다. 오직 그대의 꿈은 몽사 가운데 제일이니 수궁에 들어가면 만인 위에 거한다는 것이니 어찌 아니 좋을쏘나.”

토끼는 점점 곧이듣고 희색이 만면해 말했다.

“노형의 해몽하는 법이 귀신 아니면 도깨비라 할 만하오. 소강절 이순풍이 다시 살아온들 이보다 더할쏘나. 아름다운 몽조가 이미 나타났으니 내 부귀 어디 가랴. 떼어 놓은 당상은 쯤이나 먹지. 하지만 만경창

파를 어찌 득달하오?”

“그대는 조금도 염려 마오. 내 등에만 오르면 순식간에 득달할 터이니, 그런 걱정은 행여 하지도 마소.”  
토끼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천만뜻밖에 그대 같은 군자를 만나 어두운 곳을 떠나 밝은 곳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도우심이라. 성인이 성인을 안다 했으니, 나 같은 영웅을 형 같은 영웅이 아니면 어찌 능히 알리오? 형이 아니었다면 나는 헛되이 산중에서 늙을 뻔했고, 나 아니었다면 수중 백성들은 어진 관원을 만나지 못할 뻔했다.”

(중략)

날이 저물어 잔치가 파하자 용왕이 토 처사에게 말했다.

“토공이 과인의 병만 낫게 하면 천금 상에 만호후를 봉하고 부귀를 한가지로 누릴 것이니 속히 나아가 간을 가져오라.”

토끼가 취한 중에 ‘한 번 속기도 원통하거든 두 번 속을까?’ 하고 혼잣말을 했다.

“대왕은 염려 마시옵소서. 대왕의 은혜를 만분지일이라도 갚고자 하오니 급히 별주부를 같이 보내어 소신의 간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이튿날 왕에게 하직하고 별주부의 등에 올라 만경창과 큰 바다를 순식간에 건너 육지에 내리자 토끼가 자라에게 말했다.

“내 너의 다리뼈를 추려 보내고 싶지만 용서하노니 너의 용왕에게 내 말 전해라. 세상 만물이 어찌 간을 임의로 꺼냈다 넣었다 하리오. 신출귀몰한 나의 피에 너의 미련한 용왕이 잘도 속았다 해라.”

자라가 하릴없이 뒤통수 툭툭 치고 무료히 회정(回程)하니 용왕의 병세와 별주부의 소식을 다시 알 길이 없더라.

토끼는 별주부를 보내고 희희낙락하며 너른 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흥에 겨워 말했다.

“인제 살았구나. 수궁에 들어가서 배 짜일 뻔했는데 내 피로 살아 돌아와서 예전 보던 만산 풍경 다시 보고, 옛적 먹던 산의 열매며 나무 열매 다시 먹을 줄 알았느냐.”

한참 이렇게 노닐 적에 난데없는 독수리가 살 쏘듯이 달려들어 사족을 흠쳐 들고 반공에 높이 나니 토끼의 위급이 경각에 달했다.

토끼는 스스로 생각했다.

‘간을 달라 하던 용왕은 좋은 말로 달랬는데 이 미련하고 배고픈 독수리는 무슨 수로 달래리오.’

토끼는 창황망조(蒼黃罔措)<sup>\*한</sup> 중에 문득 한 피를 내어 말했다.

“여보, 수리 아주머니! 내 말 좀 잠깐 들어 보오. 아주머니 올 줄 알고 몇몇 달 경영해 모은 양식이 쓸데없어 한이니,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만났으니 어서 바빠 갑시다.”

“무슨 음식이 있다고 감언이설로 날 속이려 하느냐? 나는 수궁 용왕이 아니거든 내 어찌 너한테 속으실가?”

“여보, 수리 아주머니! 토진(吐盡)<sup>\*하</sup>는 정담 들어 보시오. 사돈도 이리할 사돈이 있고 저리할 사돈이 있다 함과 같이 수부의 왕은 아무리 속여도 다시 못 볼 사이지만 우리는 종종 서로 만날 사이거늘 어찌 감히

속이겠소. 건넌마을 이 동지가 납제(臘祭)\* 사냥하느라 나를 심히 놀래기로 그 원수 갚기를 생각하더니, 금년 정이월에 그 집 만배 병아리 사십여 수를 들만 남기고 다 잡아 왔소. 또 제일 긴한 용궁에 있던 ㉠피주머니도 내게 있으니, 아주머니는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오니 가지기만 하면 조화가 무궁하지만 내게는 다 부당한 물건이오. 아주머니에게는 모두 긴요한 것이니 나와 함께 어서 갑시다. 음식 도적은 매일 잔치를 한대도 다 못 먹을 것이고 피주머니는 가만히 앉았어도 평생을 잘 견디게 해 주니 어찌 아니 좋겠소?” 미련한 독수리가 슬깃해하며 말했다.

“아무려나 가 보세.”

독수리가 토끼의 처소 찾아가니, 바위 아래로 들어갈 때 조금만 놓아 달라고 토끼가 부탁하자 독수리가 말했다.

“조금 놓아주다가 아주 들어가면 어찌나?”

토끼가 대답했다.

“그러면 조금만 늦춰 주오.”

독수리 생각에 ‘조금 늦춰 주는 거야 어떠하리’ 하고 한 발로 반만 쥐고 있었더니 토끼가 바위 아래로 점점 들어가다가 툭 채치며 말했다.

“바로 요것이 ㉡피주머니지.”

—작자 미상, 「토끼전」

\*능연각: 중국 당나라 때에, 개국 공신 24명의 초상을 그려 걸었던 누각.

\*홍포: 조선 시대에, 삼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입던 붉은색의 예복이나 도포.

\*무비관몽: 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음.

\*개시허몽: 모두가 헛된 꿈이라는 뜻.

\*창황망조: 너무 급하여 어찌할 수가 없음.

\*토진: 간과 쓸개를 다 토한다는 뜻으로, 실정(實情)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말함을 이르는 말.

\*납제: 납일(臘日)에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

[23001-0132]

##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후일담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인물의 말을 통해 앞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인물의 발화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중국의 여러 고사를 인용하여 자연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23001-0133]

0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끼는 자라의 해몽을 듣기 전 자신의 꿈을 길몽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② 자라는 토끼의 웃음을 보고 자신의 내심이 간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자라는 수궁의 대왕이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 ④ 토끼는 만경창파를 득달할 수 있다는 자라의 말에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 ⑤ 토끼는 육지에서 자라와 헤어진 직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23001-0134]

0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토끼가 독수리의 환심을 얻는 계기이다.
- ② ㉠은 토끼와 독수리에게 모두 실제 형체가 있는 대상이다.
- ③ ㉡은 토끼가 독수리에게 약속한 내용이 참임을 증명하는 근거이다.
- ④ ㉠과 ㉡은 모두 독수리로 인해 토끼가 열세에 몰리는 상황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독수리에게 걸핍된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 토끼가 제시한 방안이다.

[23001-0135]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공간적 배경은 소설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작중에 여러 공간이 제시되는 경우에,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며 하나의 사건이 종결되거나 다른 사건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각각의 공간들은 인물이 지닌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공간적 배경은 인물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는 공간이 인물의 행동 방식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공간에서 인물이 시련을 겪으며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다음은 윗글의 공간적 배경과 작중 인물의 이동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a 수궁

⇄

b 육지

⇄

c 반궁

- ① 토끼가 a에서 b로 이동하게 된 것은, 자라가 토끼를 속이는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군.
- ② 자라가 a에서 b로 토끼를 데리고 이동하게 된 것은, 용왕과 토끼가 각자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자라를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군.
- ③ 자라가 b에서 a로 혼자 이동하게 된 것은, a를 경험한 토끼가 자라의 속임수를 믿었던 예전과는 다른 성격의 인물로 변했기 때문이군.
- ④ 토끼가 b에서 a로 이동하게 된 것은, 토끼가 a를 '벼슬'에 대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군.
- ⑤ 토끼가 c에서 b로 이동하게 된 것은, 토끼가 a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독수리와 공유하고자 했기 때문이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리>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을 불러 명일 출천대효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테니 수궁으로 고이 모시라는 엄명이 지엄하니 사해용왕이 명을 듣고 백옥교자를 등대하여 그 시를 과연 기다릴 제 과연 옥 같은 낭자가 홀연히 물에 들거늘, 고이 받들어 교자 위에 앉힌 후에, 용궁으로 들어가는데

<옛모리>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초초하니, ㉡천상신관 선녀들이 심 낭자를 보라 하고 좌우로 벌려 있다. 태을진 학을 타고 안기생은 난을 타고 적송자 구름 타고 갈선용은 사자 타고, 청의동자 홍의동자 쌍쌍이 모였는데 서왕모 마고선녀 남악부인 모셨는데 팔선녀 시위하여 고운 얼굴 고운 의단 향기가 이상하다. ㉢수궁풍악을 시작할 제 왕자진의 봉피리 나나노 나노 불고, 광쳐사 죽장고 정저궁 정궁, 석련자의 거문고는 스리랑 동덩동, 장자방 옥통소 밧띠루 띠루, 현파 북소리 두리동통 동동, 혜강의 해금소리 고가그가가, 능파사 보허사 곁들어 노래할 제, 낭자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하며 별유천지 세계로다. 노경골이 위량이며, 인광이 여일이요, 집어린이 작와하니 서기가 반공이라\*. 응천상지 삼광이요, 비인간지 오복이라\*. 산호주렴 대모병풍 광채 찬란하고 동으로 바라보니 삼백 척 부상가지 일륜홍이 어리었고 남으로 바라보니 요지풍광 푸른 물에 대봉이 훨훨 날아, 서으로 바라보니 약수 삼천리 일쌍 청조가 날아든다. 북으로 바라보니 중련이 놀라난디 벽도화 붉었다. 음식을 들이는데 세상 음식이 아니로다. 자하주 천일주를 인포로 안주 놓고 호로병에 옥잔 감로수를 놓았다. 한가운데 삼천벽도가 덩그렇게 고여 있다. 옥황상제의 어명이라 사해용왕 하회에 각각의 시녀를 보내 조석으로 시중할 제 행어나 부족함이 있을까 조심이 각별터라. (중략)

<중모리> 그때에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을 불러 각기 하교를 내리신다. 심청이 방년에 들어가니 인당수로 환송하라. 분부가 지엄하니 사해용왕 명을 듣고 청이를 환송한다. 꽃봉 속에 심 소저를 모시고 양대 시녀 시위하여 조석공양 찬수 등물을 신고 인당수에 가 번듯 떴다. 천지조화요 용왕님의 징험이라. 바람이 분들 흘러가며 비가 온들 요동하리, ㉣오색 채운이 어리어 주야로 동덩동덩 떠 있을 제 남경 갔던 선인들은 억십만 금 퇴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간다. 북을 두리동 동동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허 어그야 어이야 어허 어그야 인당수를 당도하여 제물을 장만하여 심 소저 혼을 불러 낭혼제를 지내는구나. 낮이야 낮이로다 흥노죽에 시집가던 왕소군의 낮도 아니요 당상의 백발부친 감은 눈을 뜨랴 하고 생죽음을 하였으니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 심 소저의 낮이로구나, 낮이라도 왔거드면 많이 흠향하옵소서, 영좌도 울고 적자도 울고 격군 화장\*들이 울음을 운다.

<아니리> 눈물짓고 한 곳 바라보니 난데없는 꽃 한 송이가 인당수에 가 번뜻 떴거늘, 선인들이 괴히 여겨 그 꽃을 운전하여 뱃장 안에 올려놓으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향취 진동커늘, 고국에 돌아와 수다한 재물을 다 같이 분배할 제, ㉤도사공은 재물을 마다하고 그 꽃을 차지하여 후원의 정한 곳에 든든히 심었더니 이때 마침 송 천자께서 황후 봉어하신 후 간택일을 아니하시니, 화초를 심어 놓고 각 새들을 길들일 제

<중중모리> ㉥화초도 많고 많다. 팔월 부용의 군자용 만당추수 흥련화, 암향부동 월황혼 소식 전턴 한매화, 진시유랑 거후재는 붉어 있다 복송꽃화, 구월구일의 용산음 소축신 국화꽃, 삼천 제지를 강론을 하니 행단 춘풍의 살구꽃, 이화만지 불개문하니 장신궁 중의 배꽃이요, 천태산 들어가니 양변에 작약이라, 원정부지

이별을 하니 옥창오견의 앵도화, 축국한을 못 이기어 제혈하던 두견화, 이화, 노화, 계관화, 홍국, 백국, 사계화, 동원도리 편시춘 목동요지 행화춘, 월중단계 무삼경 달 가운데 계수나무, 백일홍, 영산홍, 왜철쭉, 진달화, 난초, 파초, 오미자, 치자, 감과, 유자, 석류, 능금, 포도, 머루, 으름, 대추, 각색 화초, 갖은 향과 좌우로 심었는데, 향풍이 건듯 불면 나비 새 짐생덜이 짹짹 울어 노닌다.

〈아니리〉 남경 갔던 선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인당수 건진 꽃을 황제전으로 진상하니, 천자 괴히 여기서 상고하는 선인들을 기특타 칭찬하시고 무창의 태수로 제수하신 후에 별궁 시녀로 그 꽃을 운전하여 황극전에 심어 놓으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향취 진동커늘 천자님이 사랑하사 그 꽃 이름을 지으시되, 서천서역 연화꽃이 떨어져 해상으로 떠오르는 듯하니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이르고 날로 보내실 제

〈진양조〉 일일은 천자님이 화계 배회하실 적에 명월은 만정하고 미풍은 부동이라. 강선화 꽃봉이가 언뜻 요동하더니마는, 무슨 소리가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들리거늘, 천자님이 괴히 여겨, 가차이 들어가 꽃봉오리를 열고 보니, 꽃 같은 한 소저가 문밖을 나오려다 다시 몸을 움츠리더니 동정이 없는지라, 천자님이 괴히 여겨, 가차이 들어가 꽃봉오리를 열고 보니 꽃 같은 한 소저가 앉았는데, 양개 시녀가 시위하였거늘

〈아니리〉 시녀 내려 복지하여 여짜오되, 첩은 본시 남해 용궁 시녀온데 상제의 명을 받자옴고 해상으로 떠왔나이다. 천자 괴히 여기서 별궁 시녀로 그 꽃을 운전하여 내궁에 모신 후에 묘당에 물으시니, 문무 제신이 주달하되, 황후 승하하심을 상천이 아시옵고, 인연을 보냈사오니 황후를 봉하소서.

〈중중모리〉 일관 시켜 택일하여 꽃봉 속의 심청이를 황후로 봉하시니, 국가의 경사가 되어 만조 제신들은 산호만세 부르고 억조창생 만민들 ㉠격양가 일삼을 제, 심 황후 입결이 된 연후 당년부터 풍년이 들어 요순천지 다시 되고 선강직거\*가 되었더라.

〈아니리〉 황후는 되었으나 만단 생각이 부친뿐이로다. 하루는 심신이 산란하여 옥난간에 빗겨 설 제

[A] 〈진양조〉 추월은 만정하고 산호주렴에 비추어 들고 실슬은 슬피 울어 나유 안에 흠어질 적 청천의 ㉡외기러기는 월하에 높이 떠서 푸루루루루 길룩 울음을 울고 나니 심 황후 기가 막혀 오느냐 저 기력아 너 어디로 행하느냐 소중량 북해상에 편지 전턴 기러기나,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려 할 제 한 자 쓰고 눈물짓고 두 자 쓰고 한숨을 지으니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모두 수묵이 되고 언어가 도착\*이로구나, 편지 적어 손에 들어 먼 산을 바라보니 기러기는 간데없고 창망한 구름 밖에 별과 달만 밝았구나, 심 황후 기가 막혀 편지를 던지고 울음을 운다.

- 작자 미상, 「심청가」

\*노경골이 위량이며 ~ 서기가 반공이라: '늙은 고래 뼈가 대들보이며 빛이 해와 같고, 비늘로 기와를 하니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있다.'라는 뜻으로, 맥락상 '인간 세계와 전혀 다른 별천지 수궁의 모습'을 표현한 것임.

\*응천상지 삼광이요, 비인간지 오복이라: '천상의 해, 달, 별의 빛에 응하고, 인간의 오복을 갖추었다.'라는 뜻임.

\*격군 화장: 격군은 '사공의 일을 돕던 수부', 화장은 '배에서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을 뜻함.

\*선강직거: '신선이 내려온 좋은 일의 증거이자 사례'라는 뜻으로, 심청이 황후가 된 것이 여러모로 좋은 일임을 강조하는 말임.

\*도착: 뒤바뀌어 거꾸로 됨.

[23001-0136]

##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선인들이 남경을 갈 때 지나가는 공간적 배경으로 심청에게 있어 용궁에 들어가는 길 목이면서 동시에 현세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고 있다.
- ② ㉡은 용왕의 징협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당수 위에 떠 있는 꽃봉오리와 관련하여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은 인당수에 뜬 꽃이 재물보다 가치 있다고 여긴 뱃사람으로, 심청이 천자와 결연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 ④ ㉣은 천자가 심청을 황후로 봉한 후 만민들이 일삼아 부른 노래로, 백성들이 천자와 심청의 결연을 국가의 정사로서 즐겁게 인식하고 수용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옥난간에 빗겨 서 있던 심 황후가 헤어진 부친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로, 부친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심 황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부친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활용되고 있다.

[23001-0137]

## 02

〈보기〉와 관련지어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장면의 극대화’란 이야기의 전개가 플롯의 일관성 또는 응집성을 벗어나 특정한 사건이나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함으로써 사건 진행에 변화를 주는 판소리의 이야기 전개 방식을 일컫는다. 대체로 인물의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다양한 소재를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반복과 대구, 비교와 대조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며 음악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장면의 극대화를 잘 활용하면 청중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장면의 극대화는 판소리 장단 중 엇모리장단이나 중중모리장단과 같이 비교적 빠른 장단을 통해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월적 세계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대목에는 엇모리장단이 주로 사용된다.

- ① ㉠, ㉡는 인물의 행동을 드러내는 서술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역동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는 해당 공간에 있는 소재와 관련된 상황이나 일화를 언급하여 공간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편집자의 논평으로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다면, ㉢는 해당 공간에 들어간 인물들이 느끼는 심리나 정서를 서술하며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는 모두 첫 부분에서 사실을 늘어놓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언급한 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④ ㉠~㉢는 모두 장면의 극대화에 해당하지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며 각 인물들이 내는 소리에 주목한 ㉠, ㉡는 엇모리장단, 관련 사물의 열거에 집중한 ㉢는 중중모리장단을 활용하고 있다.
- ⑤ ㉡는 ㉠, ㉢와 달리 다채로운 의성어를 활용하여 해당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23001-0138]

## 03 [A]에서 ‘편지’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겪는 외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만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과 연결되면서 작품의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③ 과거의 사건과 현재 일어나는 사건의 연결 고리를 드러내어 사건의 의미를 부각한다.
- ④ 주인공의 처지가 급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암시한다.
- ⑤ 주인공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평가가 달라진 까닭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23001-0139]

## 04 &lt;보기&gt;의 밑줄 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소설 속 서사는 인과를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개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대개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은 소설 속에서 사건의 연쇄적 발생, 특정 사물이 나타나는 방식, 개성적 인간성의 발현 과정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그럴듯하다 혹은 그렇게 존재할 까닭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흔히 고전 소설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늘이 정해 둔 일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천명(天命)은 오히려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 세계와 용궁 세계를 넘나들면서 환상 세계를 그려 내는 「심청가」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연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글에서 개연성을 드러내 주는 장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볼까요?

- ① ‘출천대효’ 심청을 ‘수궁으로 고이 모시라’는 옥황상제의 어명은 사해용왕이 심청을 구해 용궁으로 모신 후 각별히 대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개연성을 높여 주고 있군요.
- ② 용궁이라는 공간은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에 속하므로 용궁에서 심청에게 제공한 음식을 두고 ‘세상 음식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겠군요.
- ③ 심 소저가 들어간 ‘꽃봉’이 인당수에 떠 있을 때 바람이 불어도 흘러가지 않고 비가 와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용왕님의 징험’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게 되겠군요.
- ④ 인당수에 당도한 ‘남경 갔던 선인들’이 ‘낭혼제’를 여는 사건은 이후 꽃 한 송이를 건지는 행동으로 이어져 선인들과 심청이 다시 대면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환생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겠군요.
- ⑤ ‘마침 송 천자께서 황후 봉어하신 후 간택일을 아니하’고 있는 시기에 심 소저가 ‘꽃봉오리’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녀를 황후로 삼자는 제안이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군요.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자신의 세 아들이 단명하리라는 예언을 듣고 버물왕은 고승의 도움을 받아 아들들을 살리려 한다. 하지만 세 아들은 금기를 어겨 과양생처에게 살해되고, 이어 과양생처의 세 아들로 환생하나 한날한시에 갑자기 죽는다. 과양생처가 탄 원서를 올려 김치 원님에게 해결을 요구하자 원님은 강림을 저승에 보내 염라왕을 잡아 오게 한다.

“나는 저승 염라왕을 잡으러 갑니다.”

“아이고, 이승 동관님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승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걸어 보십시오. 저승을 갈 수 있는지. 못 가는 법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강림이는,

“저승 동관님아, 나의 갈 길인 저승길을 인도나 시켜 주십시오.”

애원하니, 이원사자\*가 생각하여 보니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어서는 목 걸리는 법이라,

“이승 동관님아, 저의 저승길 인도대로 저승을 가 보십시오. ㉠땀적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삼훈(三魂)을 불러들이거든 혼정(魂情)으로나 저승 초군문(初軍門)을 가 보십시오. 모랫날 사오시(巳午時)면 염라왕이 아래쪽 말젓자부 장자 집의 외딸아가가 신병이 들어서 전세남굿\*을 받으러 내려설 것이니, 초군문에 적패지(赤牌紙)\*를 붙였다가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가마가 도달하면 염라왕이 탄 가마이니 염라왕을 잡아 보십시오. 저승 초군문에 가기 전에 ㉡행기못에 도달하거든 행기못 가에 보면, 인간에서 제명에 못 죽어 남의 명에 죽은 사람들이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와서 슬프게 울고 있을 것입니다. 동관님이 행기못 가에 당하면,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하며 동관님 꿰자 썬을 잡을 것이니, 그때는 ㉢전땀귀의 떡을 자잘하게 부수어서 동서로 뿌리고 보면 저승 초군문에 붙어질 것입니다. 동관님아, 저승 증표나 갖고 있습니까?”

“아이고, 못 가졌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저승 증표가 없으면 저승을 가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강림이가 손뼉을 치면서,

“내 일이로구나!”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큰부인 이별하여 나올 때, 저승 초군문에 가기 전에 급한 대목을 당하거든 ‘허리에 채워 준 명주 전대를 세 번 털면 알 도리가 있으리다.’ 하던데, 이것도 급한 대목이로구나.”

하여 전대 허리띠를 세 번 털어 보니 동심결(同心結)\* 불삽(黻鬚)\* 운삽(雲鬚)\*이 다르르게 떨어집디다. 이원사자가,

“이게 저승 증표입니다.”

그때 낸 법으로 우리 인간 사람도 죽으면 동심결 불삽 운삽을 하여 품기는 법입니다.

저승 이원사자가 강림의 땀적삼을 벗겨서,

“강림이 보오, 강림이 보오.”

삼혼을 불렀더니, 강림의 삼혼은 저승 포도리청 호안성을 지나가 행기못을 가 보니, 행기못 가에 앉은 사람들이,

“오라버님, 날 데리고 가십시오.”

“형님, 날 데리고 가십시오.”

“조카, 동생아, 나도 데리고 가거라. 나도 데리고 가거라.”

관대 섶을 불끈 잡아가니, 강림이 전뎛귀의 떡을 꺼내어 자잘하게 끊어서 동서로 흩뿌리니 저승 못 간 사람들이 배고픈 김에 떡을 주워 먹으려고 관대 섶을 놓아 버린다. 강림이는 눈을 질끈 감아서 행기못으로 빠지고 보니 저승 연추문에 붙어집디다.

(중략)

강림이는 저승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인간 사람 여자는 70, 남자는 80이 정명으로 차례차례 저승으로 와라.’라는 적패지를 붙여 두고 오라는 분부를 받아 강림이가 인간 세상에 오는데, 길이 힘들어서 길옆에 앉아 있더니, 까마귀란 짐승이 까옥까옥하면서,

“형님아, 그 적패지를 내 앞날개에 붙여 주십시오. 인간 세상에 가 붙여 두고 오겠습니다.”

적패지를 까마귀에게 주었더니 앞날개에 달아서 인간 세상에 날아오다 보니, 말 죽은 밭에서 말을 잡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앉아서 말 피 한 점을 얻어먹고 가려고 까옥까옥 울다 보니, ㉠말 잡던 백정이 말발굽을 끊어 잡아 던졌는데, 자기를 향해 쏘는가 하여 까마귀는 앞날개를 벌려 날았더니 적패지는 도록히 떨어 집디다. 담구멍에 있던 백구렁이는 적패지를 움짱 먹어 버리니, 그때 낸 법으로 뱀은 죽는 법이 없고, 아홉 번 죽어도 열 번 환생하는 법입니다.

까마귀는 옆에 보니, 솔개 놈이 앉아 있으므로,

“내 적패지 달라. 까옥.”

“안 보았다. 뺨고로록.”

그때 낸 법으로 지금도 까마귀와 솔개는 만나면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 싸우는 법입니다.

까마귀는 인간 세상에 날아와,

“아이 갈 데 어른 가십시오. 어른 갈 데 아이 가십시오. 부모 갈 데 자식 가십시오. 자손 갈 데 조상 가십시오. 조상 갈 데 자손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 버리니 순서 없이 누구나 죽어 가게 된 것입니다. 까마귀가 굶게 올면 나쁜 법입니다. 아침 까마귀 아이 죽을 까마귀, 낮 까마귀 젊은 사람 죽을 까마귀, 오후의 까마귀 망년 노인 죽을 까마귀, 지붕 꼭대기에서 우는 까마귀 상인 죽을 까마귀, 중간 지붕에서 우는 까마귀 중인 죽을 까마귀, 아래 지붕에서 우는 까마귀 하인 죽을 까마귀, 소리가 듣기 싫은 까마귀는 싸움 날 까마귀, 동으로 앉아 우는 까마귀는 양식 없는 집에 손님이 들어올 까마귀, 서쪽으로 앉아 우는 까마귀 소문 기별 올 까마귀, 초저녁 까마귀는 화재 날 까마귀, 밤중 까마귀는 역적 도모하여 살인 날 까마귀.

저승 초군문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가득하고 보니, **최판관이**,

“어째서 차례차례 오라고 했는데 아이 어른이 다 왔느냐?”

강림이에게 문초를 하니, 강림이는 **까마귀를 잡아 문초를** 하는데, 적패지는 말 죽은 밭에 들어가서 잃어

버렸다고 한다. 보릿대 형틀에 묶어 밀대 곤장으로 까마귀 아랫도리를 때리니, 그때 낸 법으로 까마귀는 갈아 놓은 쌀을 걷는 모양으로 바로 걷지 못하고 아장아장 걷게 되었습니다.

강림이에게 염라왕이 분부를 하되,

“동방삭이를 잡자고 하여 차사를 보내는데, 아이 차사가 가면 어른이 되고, 어른 차사가 가면 아이가 되어도 잡아 오지를 못하니 어떤 일이고? 네가 동방삭이 있는 데 가서 동방삭이를 잡아 오면 한 달을 놀려 주마.”

“어서 그건 그리하십시오.”

강림이가 그 마을에 내려서서 ⊙검은 숲을 시내 방천에서 발강발강 씻고 있더니, 동방삭이가 넘어가다가, “넌 어떤 일로 숲을 앉아 씻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검은 숲을 백 일만 씻고 있으면 하얀 숲이 되어 백 가지 약이 된다고 해서 씻고 있습니다.”

“이놈아, 저놈아, 내가 동방삭이 3천 년을 살아도 그런 말 들어 본 바가 없노라.”

강림이가 방긋 웃으면서 옆에 찻던 홍사 줄을 내놓고 동방삭이 몸을 결박하니,

“어떤 차사가 와도 나를 잡을 차사는 없더라마는 동방삭이 3천 년을 살다 보니 강림의 손에는 잡히는구나. 어서 저승엘 가자.”

염라왕에게 바쳤더니 염라왕이,

“강림이 똑똑하고 역력하니 사람 잡는 인간 차사로 들어서라.”

그 후로 강림은 사람을 잡아가던 인간 차사가 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차사본풀이」

\* 이원사자: 저승사자의 이름.

\* 땀적삼: 땀받이 적삼. 죽은 후 혼을 부르는 ‘삼혼 부르기’를 할 때 적삼을 들고 부름.

\* 전세남굿: 병자가 죽기 전에 살려 주기를 비는 굿 이름.

\* 적패지: 붉은 천에 저승으로 가야 할 자의 이름을 쓴 것.

\* 동심결: 두 고를 내어 맞춰어 매는 매듭. 염습할 때 띠를 매는 매듭에 씌.

\* 불삼: 발인 때에, 상어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제구. ‘표’ 자 형상을 그린 널조각에 긴 자루가 달려 있음.

\* 운삼: 발인 때에, 영구(靈柩)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구름무늬를 그린 널판.

[23001-0140]

## 01 읽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방삭은 강림의 말을 걸으로는 믿는 체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한다.
- ② 강림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이원사자에게 거짓말을 한다.
- ③ 염라왕은 한 달 놀게 해 주는 것을 대가로 하여 강림에게 일을 시킨다.
- ④ 까마귀가 강림을 도우려 한 것은 강림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이다.
- ⑤ 강림이 행기못 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승에서 굶주려 죽은 이들의 영혼이다.

[23001-0141]

##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원사자가 삼훈 부르기를 하여 강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된다.
- ② ㉡은 세계 간의 경계가 되는 장소로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기능을 한다.
- ③ ㉢은 강림이 저승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난관을 극복하는 데 쓰인다.
- ④ ㉣은 강림을 방해하는 존재를 물리침으로써 강림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⑤ ㉤은 강림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를 내어 남을 속이는 데 사용된다.

[23001-0142]

## 03 &lt;보기&gt;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신화의 기능에는 4가지가 있다. 신비적 기능은 인간과 세상이 지닌 신성함을 느끼게 해 주는 기능이다. 우주론적 기능은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이 생겨난 유래,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기능이다. 사회적 기능은 관습, 의례와 같은 사회 질서의 유래를 밝히고 그것을 신성한 존재가 개입한 결과로 설명하여 사회 질서에 권위를 부여하는 기능이다. 교육적 기능은 올바른 삶의 가치와 태도를 일깨워 주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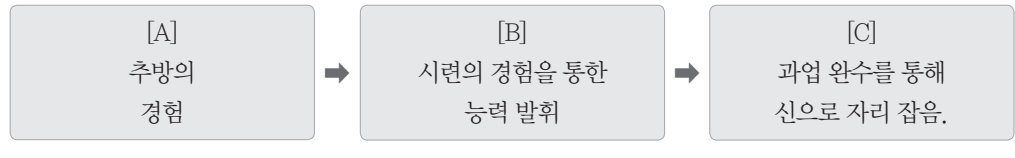
- ① 강림이 삼천 년을 산 동방삭을 저승으로 잡아 왔다는 내용은, 영원히 사는 신적 존재에 대한 신성함을 느끼게 해 준다는 점에서 볼 때 윗글이 지닌 신비적 기능을 이해하게 하는 근거로 볼 수 있겠군.
- ② 강림 때문에 까마귀의 독특한 걸음새가 생겨났다는 내용은, 신성한 존재의 개입으로 특정 현상이 비롯했음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윗글이 지닌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게 하는 근거로 볼 수 있겠군.
- ③ 까마귀의 실수 탓에 사람들이 나이 차례로만 죽지는 않게 되었다는 내용은, 죽음과 관련한 현상의 내력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볼 때 윗글이 지닌 우주론적 기능을 이해하게 하는 근거로 볼 수 있겠군.
- ④ 동심결, 불삽, 운삽이 저승에 가는 데 필요한 물건이었다는 내용은, 죽은 이의 품에 동심결, 불삽, 운삽을 넣어 주는 장례 관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볼 때 윗글이 지닌 신비적 기능을 이해하게 하는 근거로 볼 수 있겠군.
- ⑤ 적패지를 놓고 까마귀와 솔개가 말다툼했던 일이 계기가 되어 까마귀와 솔개가 만나면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내용은, 바람직한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우의와 풍자를 통해 드러낸다는 점에서 볼 때 윗글이 지닌 교육적 기능을 이해하게 하는 근거로 볼 수 있겠군.

[23001-0143]

##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차사본풀이」는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인간 차사(저승 차사)로 자리 잡기까지의 내력을 풀이하는 무속 신화이다. 강림은 저승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바로 그 여행 체험과 과업 수행을 통해 인간 차사의 직책을 부여받는다. 일반적으로 무속 신화의 주인공들은 아래와 같은 연속적 서사를 거치는데 「차사본풀이」 역시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하지만 ‘추방의 경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 ① ‘나는 저승 염라왕을 잡으러 갑니다.’라고 한 강림의 말에서, 강림의 저승 여행이 추방의 결과가 아니라 염라왕을 잡아 와야 하는 과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저의 저승길 인도대로 저승을 가 보십시오.’라고 한 이원사자의 말과 그에 따라 행동하는 강림의 모습에서, 강림이 시련을 이겨 내는 데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강림의 ‘전대 허리띠’에 담긴 물건을 보고 ‘이게 저승 증표입니다.’라고 한 이원사자의 말에서, 강림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는 데 ‘큰부인’의 도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최관관’과 갈등을 겪고 난 다음 강림이 ‘까마귀를 잡아 문초’를 하는 모습에서, 강림이 시련의 경험을 통해 얻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동방삭을 잡아 바친 강림에게 ‘똑똑하고 역력하니 사람 잡는 인간 차사로 들어서라.’라고 한 염라왕의 말에서, 강림이 과업 완수를 통해 이승의 존재에서 신적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붓목에 눈을 가지고서도, ‘유아독존’ 식으로 날뛰는 절 사람들의 세도에 눌려 흘러오는 물조차 맘대로 못 댄 곰보 고 서방은, 마침내 탄은 큰맘을 먹고 자기 눈 물꼬를 조금 더 터놓았다. 그러자 그걸 본 한 양반이 뺨 소리를 내지르며 쫓아왔다. 오더니 다짜고짜로,

㉠ “왜 또 손을 대요?”

“인제 물도 다 돼 가고 하니 나두 좀 대야지요.”

하다가 고 서방은 자기 말이 너무나 약한 것을 깨닫고 한마디 더 보태었다.

㉡ “그리고 당신 눈에는 물이 벌써 철철 넘고 있지 않소.”

“뭘? 넘어? 어디 넘어? 이 양반이 눈이 있나 없나?”

하며 그는 곰보 눈 물꼬를 봉하려고 들었다.

“안 돼요!”

곰보는 물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열면서,

“위에 있는 눈은 한 번 적시지도 못하게 하고 아랫눈만 두렁이 넘게 물을 실으려는 것은 너무 심하잖소?”

“무어—?”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테요?”

“야, 이 친구가 밥줄이 제법 특특한 모양이로군!”

그는 비쭈 냉소를 했다.

“이 친구? 네 집에는 그래 애비도 삼촌도 없니? 누굴 보고 이 친구 저 친구 해?”

“뭘가 어째? 야, 이 녀석이 제법 꼴값을 하는군. 어디 상판대기에 ‘빵꾸’를 좀 더 내 줄까?”

“이놈— 개 같은 놈!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졌기로서니…….”

“야, 이 녀석 좀 봐. 세상이 뒤바뀌어졌다구? 하, 하, 하…….”

그는 다른 사람도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높이더니,

“예끼 건방진 녀석!”

그리고 제보다 몸피가 훨씬 큰 곰보의 뺨을 한 대 갈겼다.

“이게 뭘 믿고서…….”

곰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자의 먹살을 불끈 졸라 쥐니깐, 그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이 별 떼처럼 우— 몰려왔다. 그러자 아까 가동 늪은이를 상해 놓던 고자쟁이 이시봉이가 풋볼 차던 형식으로 곰보의 아랫배 짬을 콕 질렀다. 곰보는 악! 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쓰러진 늪을 여러 놈들이 밟고 차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뻘어져 누운 늪을 끌고 주재소\*에까지 가자고 야단이다. 곰보는 그 말이 무엇보다도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

들깨가 곁에 가도, 곰보는 넋 잃은 사람처럼 눈두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왼편 눈 밑이 퍼렇게 부어올랐다.

저수지의 물은 그에 끊어졌다. 물 끊어진 수문을 우두커니 들여다보는 농민들은 하도 억울해서 말도 욱도 아니 나오고, 그만 그곳에 주저앉았다. 그와 동시에 온종일 수캐처럼 쫓아다니던 피로까지 엄습해서  
[A]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한편, 물을 흐뭇이 댄 보광리—최근에 생긴 중 마을—사람들은 제 눈 물이 행여 아랫눈으로 넘어 흐를세라 돋우어 둔 물꼬와, 논두렁 낮은 짬을 한층 더 단단히 단속하느라고 몹시 바빴다.

고 서방은 분도 분이지만, 그보다 내년 봄엔 영락없이 그 절 논 두 마지기가 떨어지고 말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 나갈 일이 꿈같이 암담하였다.

(중략)

그들의 하소연은, 자기들이 봄에 빌려 쓴 소위 저리 자금의—대부분은 비료 대금이지만—지불 기한을 조금 더 연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광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작료와 또 소작료 매 석에 대해서 너 되씩이나 되는 조합비와, 비료 대금과 그것에 따른 이자를 바쳐야만 되었다. 그리고 비료 대금은 값는 기한이 해마다 호세와 같았다.

의젓하게 교의에 기댄 채 인사도 받는 양 마는 양하는 이사님은, 빌듯이 늘어놓는 구장의 말을랑 귀 밖으로, 한참 ‘시끼시마\*’ 꺾데기에 낙서만 하고 있더니, 문득 정색을 하고는,

㉠“그런 귀치않은 눈은 부치지 않는 게 어때요?”

해 던졌다.

“.....”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나두 인젠 그런 우는소리는 듣기만이라도 귀치않소. 호세만 내고 버티겠거 든 어디 한번 버티어들 보시구려!”

㉡“누가 어디 조합 돈은 안 내겠다는 겁니까. 조금만 연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이번에는 또쫄이가 말을 받았다.

“내든 안 내든 당신들 입맛대로 해 보시오. 난 이 이상 더 당신들과는 이야기 않겠소.”

이사님은 살결 좋은 얼굴에 적어 노기를 띠더니, 그들 틈에 끼어 있는 곰보를 힐끗 보고서는,

㉢“고 서방 당신은 또 뭘 하러 왔소? 작년 것도 못다 내고서 또 무슨 낮으로 여기 오우?”

매섭게 꼬집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장부를 뒤적거리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일행은 허탕을 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며칠 뒤, 저수지 밑 고 서방의 눈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 그예 입도 차압\*의 팻말이 붙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차압 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피땀을 흘려 가면 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다기보다, 꿈쩍없이 이젠 목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고 서방은 드디어 야간도주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어린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애 터지는 말로써 그들의 뒤를 염려했다.

무심한 가을비는 진종일, 고 서방이 지어 두고 간 벼 이삭과 차압 팻말을 휘두들겼다.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당산 등에서 여우가 울어 대고, 외상술도 먹을 곳이 없어진 농민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 깨어진 징 소리와 함께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열음 못 한 빈 짚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혀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 가지고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아낙네들은 전장에나 보내는 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 가지고 남정들을 보냈다. 만약 보광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하고 뒷일을 염려했다.

그러나 또쫓이, 들깨, 철한이, 봉구—이들 장정을 선두로 빈 짚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 뒤 산길을 더우잡았다.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꿈무늬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들어 댔다.

— 김정환 「사하촌」

\*주재소: 일제 강점기에, 순사가 머무르면서 사무를 맡아보던 경찰의 말단 기관.

\*시끼시마: 일본 담배 이름.

\*입도 차압: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를 압류하는 일.

[23001-0144]

## 0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특정 사건의 전말을 언급하고 있다.
- ③ 공간 이동에 따라 중심인물의 내면이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드러내어 작중 분위기가 전환되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하여 각각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23001-0145]

##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동리 농민들은 조합에서 빌려 쓴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곤란을 겪는다.
- ② 조합의 이사는 성동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도 소작료를 올리려 한다.
- ③ 고 서방은 함께 대화를 나누던 보광리 사람이 자신을 하대하고 냉소하자 울분을 표출한다.
- ④ 고 서방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주재소에 가면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 여긴다.
- ⑤ 성동리 아낙네들은 보광사에서 남정들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걱정한다.



[23001-0146]

###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이 하고 있는 행동을 저지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에게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거절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탁을 하러 온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다.

[23001-0147]

### 0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30년대는 일제와 결탁한 지주 세력의 횡포가 극에 달하던 때로, 대다수 농민들은 다각적인 착취에 따른 굶주림과 토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하촌」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주 계층에 속한 보광리 주민들은 보광사의 소작인으로 구성된 성동리 주민들에게 소작료를 징수하고 경작권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매개로 농민들을 수탈함으로써 수탈 행위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직접적인 권력 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이에 성동리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부당한 힘에 맞서고자 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인다.

- ① ‘밥줄이 제법 툭툭한 모양’이라면서 논 물꼬를 트는 고 서방을 헐박하고 제지하려 하는 보광리 주민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성동리 주민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군.
- ② ‘그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이 벌 떼처럼’ 고 서방에게 물려든 상황에서, 굶주리고 있는 소작인에게까지 소작료를 징수하려고 합세하는 보광리 주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고 서방이 ‘내년 봄엔 영락없이 그 절 논 두 마지기’를 잃을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보광리 주민들이 그 논에 경작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겠군.
- ④ 성동리 주민들의 하소연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기저기에’ ‘입도 차압의 핏말이 붙’은 상황에서, 조합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농민들을 수탈하던 지주 세력의 횡포가 드러나는군.
- ⑤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여들어 보광사로 향하는 성동리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연대를 바탕으로 부당한 힘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희완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 년을 상업계에서 눈 안 초시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만은 딸이 듣기에도 판사람인 듯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 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시가 박희완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히 캐어물었다. 그러면 초시는 또 박희완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일 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오십 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 장담하였다.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 회사에 넣고 삼천 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초시는 금시발 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뻐다.

“서 참의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 굳이 널 시켜 네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네깻 놈이 천생 가짜지 별거냐…….”

그러나 신탁 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일 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꽤 나오는 노역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삼천 원의 순이익이 오륙만 원은 될 것이라 만 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하는 타협이 생기어서 안 초시는 으실으실 그, 이를테면 사위 녀석 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나섰다.

\*

일 년이 지났다.

[A]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삼천 원어치 [땅]을 사 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삼십 배가 올랐느니 오십 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완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완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돈을 쓸 때는 일 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밑 도리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서 참의가 실의에 빠진 안 초시를 위로하지만 결국 안 초시가 죽음을 택하고 만 것을 발견한다.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 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 ㉡ “아니야요 아스세요.”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 “저…….”

“저라니?” / “제 명예도 좀…….”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㉔“명예? 안 될 말이지, 명멸 생각하는 사람이 애빌 저 모양으루 세상 떠나게 해?” / “…….”

안경화는 옆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 참의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 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루 할까?” / “네.”

서 참의는 다시 앉았다.

“부친 위해 보험 든 거 있지?” / “네, 간이 보험이요.”

“무슨 보험이던…… 얼마나 타게 되누?” / “사백팔십 원요.”

“부친 위해 들었으니 부친 위해 다 써야지?” / “그럼요.”

“에헴 그럼…… 돌아간 이가 늘 속사쓸 입구퍼 했어. 상등 털 사쓰를 사다 입히구 그 우에 진견으로 수의  
일습 구색 마쳐 짓게 허구…… 선산이 있나 묻힐 데가?” / “웬걸요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루 널찍하게 사구……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 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 게야. 알아들어?” / “네에.”

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

안 초시의 소위 영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리었다.

서 참의와 박희완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갔다. 박희완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 원을  
서 참의가

㉕“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애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영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 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킁킁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 가  
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이  
십 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어라고 지껄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 참의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  
커뎡게 올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 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 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험…….”

하더니 조사(弔辭)를 하였다.

“나 서 참일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살 해 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 아무턴지…….”

하는데 박희완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그려.”

하며 서 참의를 밀어냈다.

박희완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멍청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흠…….”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 이태준, 「복덕방」

\* 청정(淸帳): 장부(帳簿)를 청산한다는 뜻으로, 빚 따위를 깨끗이 갚음을 이르는 말.

[23001-0148]

## 0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의 인물인 서술자가 회상의 형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이야기 속의 인물인 서술자가 특정 상황으로 인해 촉발된 의식의 흐름을 기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중심인물이 겪은 사건의 전모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한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를 입체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23001-0149]

## 02 [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변 모 씨는 축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땅’을 샀었다.
- ② 박희완은 안 초시에게 ‘땅’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전해 주었다.
- ③ 안경화는 연구소 집을 담보로 하여 ‘땅’을 매입하기 위한 돈을 신탁 회사에서 빌렸다.
- ④ 안 초시는 안경화가 청년을 보내자 자신은 ‘땅’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 ⑤ 안 초시는 안경화가 ‘땅’에 투자하기로 하자 자신을 멸시한 서 참의에게 설욕하겠다고 생각했다.

[23001-0150]

###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안 초시가 돈 문제로 인해 딸과 불화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② ㉡: 안경화가 서 참의의 말을 듣고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서 참의가 안 초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안경화를 책망하고 있다.
- ④ ㉣: 서 참의가 안경화가 치르는 장례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⑤ ㉣: 박희완이, 조문객으로서 지나친 언행을 하는 서 참의를 제지하려 하고 있다.

[23001-0151]

### 0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급변하는 시대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신구 세대의 대비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구세대의 인물들은 이웃이나 친족 간의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제각기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부동산 투기의 바람 속에서 물질적 부를 획득해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시대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근대적 인물은 구세대들과 달리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이로 인해 구세대와 갈등을 빚는다.

- ① 안 초시가 딸에게 적극적으로 ‘출자를 권유하는’ 장면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구세대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② 땅값이 올라 ‘줄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대목에서, 일제 강점기에 부동산 투기 바람에 편승하여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안경화가 서 참의에게 ‘제 명예도 좀’ 생각해 달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혈연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생각하는 근대적 인물의 이해타산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영결식장에 모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보이는 행동은, 안 초시에 대한 인정과 의리를 지키려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⑤ 서 참의가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살 해 보겠’느냐며 탄식한 것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채 딸에게도 홀대받던 안 초시의 처지를 떠올렸기 때문이겠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탓이요,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 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 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질을 시켜서 살을 떼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질에서 못다 푼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 장사를 시켜서 풀어 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성기로서도 불경(佛經)보다는 암만해도 이야기책에 끌리는 눈치요, 중질보다는 차라리 장사라도 해 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그러나, 옥화는 **꼭 화개장만 보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그에게 책전을 내어 주기로 했던 것이었다.

성기가 마루 앞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더운데 왜 인제사 내려오냐?” /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 그에게 주었다.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들려주고 있는 듯한 낯선 계집애는,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보았다. ㉠가름한 얼굴에, 흰자위 검은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하며, 갑자기 생기 락 눈으로 집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얼마 뒤,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옥화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 들고나와서,

“체 장수 딸이다.”

하였다.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체 장수라니?”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손가락을 들려고도 않고,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A] “구례 산다더라. 이번에 어찌면 하동으로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 볼 참이라는데 어제저녁에 화갯골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 딸아이는 그 체 장수의 무남독녀인데 영감이 화갯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동안 좀 맡아 있어 주기로 했다면서, 옥화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갯골에서는 며칠이나 있겠단다고?”

“들어가 보고 재미나면 지리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 볼 눈치더라.”

그리고 나서, 옥화는 또, / “그래도 그런 사람의 딸같은 안 봐지?”

하였다. 계연(契妍)이란 이름이었다.

성기는 잠자코 밥손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 버렸다.

이튿날 성기가 책전에 있으려니까, 그 체 장수 딸이 그의 점심을 이고 왔다. 집에서 장터까지래야 소리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였지만, 그래도 전날 늘 이고 다니던 ‘상돌 엄마’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벌써 처녀티가 나는 남의 큰애기더러 이런 사환(使喚)을 시켜 미안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쪽에서는 그러한 빛도 없이, 그 꽃송이같이 환한 두 눈에 웃음까지 담은 채, 그의 앞에 밥함지를 공손스레 놓고는, 떡과 엽과 참외 등을 팔고 있는 음식 전 쪽으로 곧장 눈을 팔고 있었다.

(중략)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

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땀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이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귓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B]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다.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이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 살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뼈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 김동리, 「역마」

\* 명도(明圖): 마마를 잃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다른 여자에게 신이 내려서 길흉화복을 말하고, 온갖 것을 잘 알아맞힌다고 함.

[23001-0152]

## 01 [A]와 [B]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 ②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병용하면서 인물의 대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밖 서술자의 요약적 설명을 통해 사건을 둘러싼 시대적 맥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여 중심인물의 내면이 변화하는 상황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병치하여 작중 갈등의 양상을 다각도로 보여 주고 있다.

[23001-0153]

##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성기는 책전에서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주고 있는 계연을 만났다.
- ② 성기의 할머니는 서른여섯 해 전 체 장수 영감을 만나 계연을 낳게 되었다.
- ③ 성기의 할머니는 성기의 역마살을 떼기 위해 성기가 중을 그만두도록 하였다.
- ④ 계연은 점심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서도 수고롭다는 내색을 성기에게 하지 않았다.
- ⑤ 계연은 사마귀를 옥화에게 보여 주면서 자신이 그녀의 동생일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23001-0154]

###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성기가 처음 본 계연에게서 강렬한 호감을 느낀 원인이 드러난다.
- ② ㉡: 성기가 옥화에게 들은 계연의 내력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자신이 떠나는 상황에 성기가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계연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④ ㉣: 옥화가 오래도록 앓아누워 있는 성기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난다.
- ⑤ ㉣: 성기가 정신적 상처로 인해 쇠약해졌던 상태에서 벗어나 원기를 되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001-0155]

### 0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운명이 한 사람의 고유한 개성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면, 인간이 운명을 발견하는 과정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역마」의 주인공은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타고나는데, 정착을 바라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던 중 결혼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랑에 눈뜨면서 잠시 활기를 띠기도 하지만 혈연에 따른 윤리적 문제로 인해 좌절을 겪는다. 그는 결국 역마살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데, 작가는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운명을 자각하고 수용하는 일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다가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성기의 역마 운’의 장본이 ‘남사당에게 반했던’ 할머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성기의 타고난 운명과 고유한 개성은 혈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옥화가 책 장사를 해 보고 싶다는 성기의 청을 ‘꼭 화개장만 보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에야 허락한 이유는, 아들이 정착하는 삶을 이어 가기를 바랐기 때문이겠군.
- ③ 떠나는 계연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인 성기의 모습에서, 성기가 사랑을 느끼던 계연과의 혈연을 알아차리고 윤리적 문제에 부딪혔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정착하는 삶을 살다가 찾아온 사랑에 실패하여 ‘죽고 말’ 지경에 이른 성기의 모습을 통해, 성기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에서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성기가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며 길을 나서는 모습은, 그가 운명을 수용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갈 희망을 발견했음을 보여 주는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체 예쁘장한 상관이기는 하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마는,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품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던 옥임이는 아니다. 전부터 “네 영감은 어째 점점 더 젊어 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 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고, 60이 넘는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옥임이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마는, 밀도 끝도 없이 길바닥에서 ㉠ ‘젊은 서방’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례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하고, 정례 모친도 비꼬아 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썼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픽픽 웃는 바람에,

“이거 미쳐나려나? 이진 무슨 객설야.”

하고, ㉡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 하였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 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두 뜯어 쓰려구, 이렇게 짹짹거리구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녀은 욕을 좀 단단히 뵈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 사정 보아서 썩 번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 밖에! 그것두 마다니, 남의 돈 생으루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구 뭐냐?”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 이것도 빗쟁이의 돈 받는 상투 수단인가 싶었다.

“누가 안 갚는대나? 돈두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서니난 말이야.”

정례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난 돈밖에 몰라. 내일모레면 거리에 나왔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께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 보려 들겠다면!”

하고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피어드는데, 정례 모친은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봉욕에 눈앞이 아찔하여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랐으나, 언제까지 이려고 섰다가는 예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쳐 옆의 골로 줄달음질을 쳐 들어갔다. ㉣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옥임이는 저대로 간모양이다. 정례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스물예닐곱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 보았을까, 40 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담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 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은 중늙은이로 보이랴. 머리를 곱게 지지고 엷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A] 어느 맥 유한마답이지, 설마 1할, 1할 5푼으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올리는 고리대금업자야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마는,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텅빈 것이다. 중경 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거나 하기 전에야

오래 걸리고 말 것이지요, 걸리는 날이면 떠메어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간이며 땅섬지기나마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였다. 상하 식술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B]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쫓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결눈으로 흘겨보고 입귀를 섯룩 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 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 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뭉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게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 내려면은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버르기는 하였지마는,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나 무어나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마는 자식도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중략)

“오늘은 아퀴\*를 지어 주시렵니까? 언제 값이나 값고 말 것인데 그걸루 의 상할 거야 있나요?”

이튿날 교장이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김옥임이가 그렇게 되다니 불쌍해 못 견디겠어요. 예전에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구 다니고, 『인형의 집』에 신이 나구, 엘렌 케이\*의 숭배자요 하던 그런 옥임이가 동냥자루 같은 돈 전대를 차구 나서면 세상이 모두 노랑 돈뽕으로 보이는지, 어린애 코 묻은 돈뽕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았는 나두 불쌍한 신세지마는 난 옥임이가 가엾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옥임이는 성격 파산인가 보더군요…….”

정례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 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두 듣기에 좀 괴란쩍습니다마는 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토\* 있는 돈을 어엿이 받아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 먹고 등쳐 먹고 알로 먹고 핑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한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허허허.”

하고, 교장은 자기변명인지 옥임이 역성인지를 하는 것이었다.

이날 정례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리며,

“그따위 돈은 안 값아도 좋으니 정장을 하든 어찌든 마음대로 하라구 내버려 두세요.”

하며 팔팔 뛰는 것을 모른 척하고 20만 원 표에 이만 원 현금을 엮어서 옥임이 갖다가 주라고 내놓았다.

- 염상섭, 『두 파산』

- \* 반민법: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의 행위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 이퀴: 일을 마무리하는 끝매듭.
- \* 엘렌 케이: 스웨덴의 여성 운동가.
- \* 명토: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지적. 여기에서의 문맥적 의미는 어떠한 이유.

[23001-0156]

##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시대 상황에 대한 언급을 토대로 인물의 현재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B]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의 유년 시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는 서술자의 주관을 배제하여 사건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B]는 서술자의 주관에 따라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 ③ [A]는 ‘-ㄴ다’의 현재형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B]는 고백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는 인물의 행적과 내력을 바탕으로 인물의 변화된 모습을 언급하고 있으며, [B]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과 함께 인물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이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B]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의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23001-0157]

## 02 길바닥과 구멍가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길바닥’에서 발생한 옥임과 정례 모친의 갈등은 ‘구멍가게’에서 정례 모친과 옥임의 대면을 통해 해결된다.
- ② ‘길바닥’에서 벌어진 옥임과 정례 모친의 갈등은 ‘구멍가게’를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정례 모친의 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길바닥’에서는 표면화되지 않던 옥임과 정례 모친의 갈등은 ‘구멍가게’에 대한 정례 모친과 교장의 대립으로 인해 처음으로 부각된다.
- ④ ‘길바닥’에서 일어난 옥임과 정례 모친의 충돌은 ‘구멍가게’를 지키려 애쓰는 정례 모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옥임의 이해를 심화하는 계기가 된다.
- ⑤ ‘길바닥’은 옥임이 정례 모친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공간이며, ‘구멍가게’는 교장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옥임과 정례 모친 간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공간이다.

[23001-0158]

##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옥임의 갑작스러운 언행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② ㉡: 여러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피하려 애쓰고 있다.  
 ③ ㉢: 옥임의 행동이 빛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갑자기 사라져 버린 옥임을 걱정하고 있다.  
 ⑤ ㉤: 마음속에 맺혀 있는 감정을 풀어 보려 스스로 애쓰고 있다.

[23001-0159]

## 04 &lt;보기&gt;를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두 파산」은 해방 후 여기저기에서 빌린 돈으로 구멍가게를 하게 된 정례 모친과 그녀의 구멍가게를 중심으로 얽힌 인물들을 통해 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등 자본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해방 이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작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비윤리적인 돈벌이에 매달리며 오랜 친구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잇속을 차리는 옥임, 옥임과 정례 모친 사이의 금전 관계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전직 교장 등이 등장한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례 모친의 삶은 그녀가 애초에 의도했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생활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갚아 나가는 기계적인 과정으로 전락한다. 이를 통해 제목인 ‘두 파산’은 해방 직후 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유형의 파산, 즉 경제적 파산과 정신적 파산을 맞게 된 인간 군상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고 다니거나 ‘엘렌 케이의 숭배자’를 자처하던 옥임이 이제는 ‘돈 밖에’ 모른다며 ‘체면’과 ‘우정’도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격 파산’이라는 그녀에 대한 평가가 정신적 파산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매달린 식술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두 뜯어 쓰려구, 이렇게 찢찢거리구’ 다닌다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을 통해, 자기대로 살길을 찾으려는 옥임의 절박함과 불안이 과거와 달리 속물스럽게 변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차리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례 모친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원래 의도했던 삶의 형태가 스스로 노력하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자신의 삶을 ‘살림’이 ‘파산 지경’인 것으로 언급하며, 빚 갚기를 독촉하는 듯한 ‘교장’에게 돈을 건네주는 모습을 통해, 빌린 돈을 갚는 것에 급급하며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된 정례 모친의 상황을 알 수 있군.
- ⑤ ‘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라거나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도 있는 돈을 어엿이 받아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이라고 말하는 ‘교장’을 통해, 해방 이후 사람들이 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무…… 총살, 이 두 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못 박혔다. 눈앞이 아찔하다. 그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거일동을 살폈다. 머리가 텅수룩하고 야윈 얼굴에, 내의 바람의 한 청년이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맨발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소?”

그 위엄으로 보아 대장인가 싶다.

“생명체는 도구와는 다른 것이요. 내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소?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나는 기쁘오. 내가 한 개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 간다는 것, 이것이 한 없이 기쁠 뿐입니다.”

명확한 차가운 음성이었다.

“좋소.”

경멸적인 조소가 입술에 어렸다.

“이 독길을 따라 곧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것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재었다.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등 뒤에 받으며 조금도 주저 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 가고 있다. 인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 곧바로 정면에 눈 준 채 조금도 흠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순간 그는 총을 짊어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썩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서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쓰러진다. 분명 [A] 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이마에선 줄곧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의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의식이 자주 흐린다. 그는 폭고개를 문고 쓰러졌다. 위기일발, 다시 겨누다. 또 어깨 위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다자꾸 흠어지는 의식, 놈들의 사격이 똑 그쳤다. 적은 전후 좌우방으로 흠어져서 육박하여 오고 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별떡 일어섰다.

그 순간 폭 쓰러졌다. 의식이 깜박 사라진다. 갓 지나간 격렬한 총성의 여음이 귓가에서 감돈다. 몸 어느 한구석이 쿡쿡 찌르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머리를 광 하고 내리친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바른편 팔 위에 격통이 일어난다. 그는 간신히 왼편 손으로 바른편 팔을 엮쓸어 더듬었다. 손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 손끝과 손가락 사이에는 피, **검붉은 피가 함뿍 젖어 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

리가 들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먼지와 거미줄이 뽀아니 늘어 붙은 찢어진 천장 구멍으로 사라져 간다. 방 안이다. 방 안에 눕혀져 있는 것이다. 이따금 **흰 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온다. 점점 멀어져 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그의 의식도 희미해진다.

**그 후 몇 번이고 심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밀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뼈거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일까……? 몽롱한 의식의 착오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 오는……정확한……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고여 짊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손아귀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짝 움켜 짚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 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이 함빡 쌓인 흰 독길이다. 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기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오. 것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 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B]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잠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렵듯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희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 본부로 돌아들 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 안으로 들어들 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

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 갔다. 흰 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 오상원 「유예」

[23001-0160]

## 0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줄임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인물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서술에 활용함으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의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과 인물 사이의 대립 관계를 해학적으로 형상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완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외양만을 묘사함으로써 작중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성현들을 언급함으로써 인물이 지닌 신념과 의지를 긍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23001-0161]

## 0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인물이 현실에 대해 느끼는 무상함은 [B]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부각되고 있다.
- ② [A]는 [B]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A]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인물이 느끼게 되는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가 [B]에 드러나고 있다.
- ④ [A]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인물의 노력은 [B]에서 상황이 반전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⑤ [A]의 사건과 [B]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동일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들임을 보여 주고 있다.



[23001-0162]

### 03 **흰 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채 이미지를 표현하는 대상으로, ‘검붉은 피’와의 대조를 통해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 ②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로, ‘햇볕’과의 촉각적 대비를 통해 사건의 참상을 드러낸다.
- ③ 인물의 상황을 보여 주는 소재로,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와 같이 인물이 처해 있는 비정한 현실과 차가운 세계를 나타낸다.
- ④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대상으로, ‘가슴이 탁 트이는 것’과 같이, 전쟁 이후 인물의 희생을 통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상징한다.
- ⑤ 장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로,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명암의 변화를 통해 인물이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상황의 암울함을 표현한다.

[23001-0163]

### 04 <보기>를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유예」는 포로로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탐색한 작품이다. 작가는 소외되고 단절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삶과 죽음 등의 실존적 가치에 몰두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나 사회·역사적 배경보다는 죽음에 임하는 태도 자체, 극한 상황에서도 지켜야만 하는 인간적 가치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타인의 죽음이나 사형 집행과 같은 일을 일상적으로 여기는 인물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전쟁 상황의 비정함도 보여 주고 있다.

- ① ‘한 개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실존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을 비겁하다 생각하며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 죽음과 관련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은 인물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③ ‘그 후 몇 번이고 심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와 같은 서술을 통해 총살 집행 명령이 결정되는 상세한 과정과 죽음을 대하는 인물의 여유로운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④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라는 언급을 통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와 같은 서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죽음이나 사형 집행과 같은 일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의 비정함을 부각하고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인 '나'는 보충병으로 차출되어 작전 지역인 R. POINT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한 분대의 병사들과 함께 월남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탑을 지키라는 무모한 임무를 맡게 된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교전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작전이 변경되어 미군까지 철수한 날 밤 적과의 치열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된다.

여러 개의 드럼통이 한꺼번에 굴러가는 듯한 소리로 클레이모어가 터지고, 돌격하던 게릴라들의 몸이 위로 펄쩍 솟았다가 떨어졌다. 방벽을 넘어려던 게릴라들도 직선으로 날아간 파편에 맞아 굴러떨어진다. 호각 소리가 길게 한 번 들리면서 적의 사격이 멎었다. 차가운 정적이 이 소강상태 속으로 스며들었다. ㉠두 개골 속이 곧 터져 나가기 직전인 것처럼 각자의 맥박 소리만이 들렸고, 갑작스런 고요함 때문에 나는 피부의 땀구멍들이 모두 막혀 버릴 것 같았다. ㉡남의 땅, 남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뭐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나. 도피로가 차단된 일곱 마리의 쥐새끼였다.

“손님을 죽여 버립니다.”

부사수가 말했다.

“분대장, 총살합시다. 저 새끼는 이용 가치도 없잖소.”

“포로를 도로 가운데 묶어 놓자.”

결국 선임조장의 말대로 포로는 길 가운데 교통 표지판에 묶어 놓기로 했다. ㉢우측 대대 지역으로 침투했던 적의 분대는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았다. 적들은 우리의 완강한 저항에 신중해진 모양이었다. 어둠 속에서 부상당한 게릴라의 생존자가 뭐라고 소리를 질러 대고 있었다.

“보내 줘라.”

“수류탄 한 방 날려 버려.”

선임조장이 방벽 앞으로 수류탄을 까 던졌다. 모래 먼지가 일어났고, 곧 조용해졌다. 부사수가 초소 안에서 포로를 끌고 나왔다. 그는 밖으로 끌려 나오자 허공을 향해서 뭐라고 긴 고함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포로의 눈이 번들거렸다. 부사수가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도로 가운데로 걸어갔다. 교통 표지 앞에 앉혀 놓고 붙들어 댔다. 길옆을 따라 포복하고 있는 적의 분대 병력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좌측 대 숲 속으로 적들이 몸을 낮추어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의 화력과 지원포의 탄착점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하사가 말했다.

“이젠 정면을 포로가 막아 준다. 시간을 좀 끌 수 있을 거야.”

“적은 저놈을 사살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걸릴걸. 저쪽두 명령 계통이 있을 테니까.”

㉣적의 통신 신호로 여겨지는 목탁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다가 그쳤다. 좌측 대숲의 적들도 잠잠해졌다. 포로가 길 가운데서 숲을 향해 뭐라고 자꾸만 소리쳤다. 하사가 말했다.

“저자가 뭐라는 거야?” / “아마, 자길 쓰라구 그러는 모양이요.”

선임조장이 말했다. 조명탄이 떠올랐는데 환한 빛에 노출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가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앞에는 발가벗기운 소총수가 절뚝거리며 걸어왔고, 뒤에 적이 바짝 따르고 있었다. 소총

수는 몇 번이나 쓰러지려고 했고, 그때마다 뒤에 붙어 선 자가 부축해 올렸다. 우리는 눈앞에 포로가 된 빈 사의 동료가 다가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교환하죠, 살려야 합니다.”

뒤의 참호 속에서 사수가 말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양쪽에 사상자를 낸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적군은 후퇴를 하고, 탈진한 분대원들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졸다가 아군의 무전 소리에 잠을 깬다.

[A] 국도 북쪽에서 무한궤도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 나뭇잎과 풀을 철모에 꽂은 미군 도로 정찰대가 지뢰 탐지기를 등에 짊어지고 지나갔다. 장갑차의 포수가 머리를 내밀고 준비한 시체들의 사진을 찍었다. 뒤로 멀리 떨어져서 교량에서 철수했던 LVT 세 대와 경비소대가 지나갔다. 2.5톤 한 대가 우리 초소 옆으로 대어졌고, 말쑥한 정글복 차림의 미군 중위가 승차 책임자석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대낮에도 얼굴에 바른 흑색 위장 초콜릿을 지우지 않은 병사들을 도로변에 배치했다. 똑같은 규격으로 허리에 매달린 가스 마스크가 인상적이었다. 미군 중위가 우리를 향해 엄지를 세워 보이면서 웃었다. 대대 지역 안으로도 몰려 들어가는 차량의 행렬이 그치질 않았다. 우리는 배수로에서 기어 나와 담배를 피웠다. 멍청히 주저앉아서 잠을 깨운 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보았다. 흰 페인트로 SEA BEE라고 쓴 미 해군 공병대의 불도저 한 대가 멎었다. 운전석의 배불뚝이 중사가 초소를 가리키며 장교에게 물었다.

“여깁니까?” / “그래, 여길 넓혀야겠어.”

불도저가 크게 회전하더니, 뒤로 멀찍이 물러섰다가 달려들면서 바나나밭을 밀어 버리기 시작했다. 불도저는 드디어 초소 뒤의 빈터를 향하여 굴러왔다. 우리는 담배를 내던지고 벌떡 일어섰다. 선임조장이 불도저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자동 소총을 운전사에게로 겨누었다.

“꺼져, 이 새끼.” / “갈겨 버려.”

미군 중사는 발동을 끄고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우리를 두리번거리고 나서 두 손을 벌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어리둥절해 있는 장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뭐 하는 겁니까?”

장교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다.

“바나나 숲을 밀어내야겠어. 캠프와 토치카를 지을 걸세. 저 해병이 막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우리는 작전 명령에 따라서 저 탑을 지켰습니다.”

나는 초라하게 서 있는 작은 석탑을 가리켰다. 중위가 고개를 저었다.

“탑이라구? 나는 저런 물건에 관해서 명령받은 일이 없는데.”

“아직 통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군은 월남군에게 탑을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민 해방 전선은 저것을 빼앗아 옮겨 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나,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참모들의 심리전적 판단이며 마을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말하고 나자마자 우리는 깨끗이 속아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누구의 것인가.

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불교라는 낱말이 나오자 이 단순한 서양 친구는 ㉠으흥,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중위가 말했다.

“그런 골치 아픈 것은 없애 버려야지. 미합중국 군대는 언제 어디서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네. 세계의 도처에서 말이지.”

[B] 나는 우리가 탐과 맺게 된 더럽고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다. 장교는 자기가 가장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강대국 아메리카인의 전형임을 내세우고, 탐에 대한 견해도 그런 바탕에서 출발할 것이다. 한 무더기의 작은 돌덩어리가 무슨 피를 흘려 지킬 가치가 있었겠는가. 나는 안다. 우리가 싸워 지켜 낸 것은 겨우 우리들 자신의 개 같은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 황석영, 「탐」

[23001-0164]

## 01 [A]와 [B]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신이 관찰하고 경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B]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서술하고 있다.
- ② [A]는 가정을 통해 미래의 상황을 추론하고 있고, [B]는 과거 회상을 바탕으로 현실이 지닌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고 있다.
- ③ [A]는 특정 인물로 초점화되어 제한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 [B]는 전지적인 위치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특정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어 전달하고 있고, [B]는 자신의 주관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 ⑤ [A]는 변화된 공간의 분위기를 통해 고조된 긴장감을 전달하고 있고, [B]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실에 무기력한 인물의 내면을 그려 내고 있다.

[23001-0165]

## 02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부대원의 임무는 적으로부터 탐을 지키는 것이었다.
- ② 선임조장은 적의 접근을 지연시키기 위해 포로를 이용했다.
- ③ 우리 군은 마지막 전투에서 적을 물리치고 임무를 완수했다.
- ④ 미군은 탐을 무너뜨리기 위해 바나나밭을 밀어 버리려 했다.
- ⑤ ‘나’는 미군 중위가 마을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23001-0166]

###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유적인 표현으로 숨 막히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의 상황에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여 적군의 상황이 어떠한지 판단하고 있다.
- ④ ㉣: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적군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행동 묘사를 통해 미군 중위가 ‘나’의 말에 동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23001-0167]

### 04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념과 명분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전쟁에서는 정작 이념이나 명분만이 남고 인간이 도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인간은 이념이나 명분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것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은 쉽게 희생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은 소중히 여겨져야 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은 전쟁 자체의 무의미성을 부각한다. 또한 참여한 냉전의 대립은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제3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황석영의 「탑」은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이와 같은 전쟁의 비인간성과 무의미성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포로를 ‘길 가운데 교통 표지판에 묶어 놓기로’ 한 결정에서 전쟁의 비인간성을 엿볼 수 있군.
- ② ‘환한 빛에 노출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오는 적군의 모습에서 이념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숭고한 인간 정신이 느껴지는군.
- ③ ‘교환하죠, 살려야 합니다.’라는 말에서 참혹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군인들의 동료애를 느낄 수 있군.
- ④ ‘그런 골치 아픈 것은 없애 버려야지.’라는 미군 중위의 말을 통해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제3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피를 흘려 지킬 가치’가 없는 ‘한 무더기의 작은 돌덩어리’는 무의미한 전쟁의 명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나'와 아내는 흰 남자 고무신 한 짝이 마당에 떨어진 것을 보고 웬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나'는 고무신 짝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복에 살 때 밭에 떨어진 지까다비 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린다.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밭에 버려진 신 짝 하나를 보고 공포에 떠는 일이 있다. 비 오는 속의 무밭에 앞대거리 부분이 무있이 무성한 밭 속에 처박혀 있는 검정색 '지까다비[地下足] 짝이었다. 밭뒤축계의 세 개의 호크까지 말짱하던 일이 지금도 뒷등이 선득할 만큼 기억에 또렷하다.

바로 태평양 전쟁이 나던 이듬해인가였는데, 그 무렵에 그 '지까다비'는 대유행이었다. 본시 광산 노동자 용이었던 모양인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검정색 생김생김부터가 광산용으로 꼭 어울려 보였었다. 우리 마을에서 5리쯤 내려가면 철도 공장과 피혁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다니면 징용을 면한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리로 몰렸었고, 그 '지까다비'는 집집마다 흔했던 것이다.

그때 그 무밭의 '지까다비 짝'이 그토록까지 무서웠던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 '지까다비'가 지닌 평범하고도 단순한 용처를 떠나 생판 엉뚱하게도 무밭에 처박혀 있어서, 그 '지까다비'의 '지까다비'로서의 노선 혹은 물에서 벗어나 나온 그 점이 공포감으로 작용했던 것일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뿐일까. 단순히 그 이유였다면 그냥 그 정도로 처결해 치울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무렵 ㉡모든 신의 바닥 고무는 고무 성분이 덜 들어가 녹신녹신하지가 못하였으니까 어찌다가 바닥의 중둥이가 푹 부러져 더 이상 못 신게 되어서 훌쩍 무밭에 버렸으리라, 한 짝은 무밭에 버렸으리라. 한 짝은 무밭 한가운데로 멀리 버리고 한 짝은 이렇게 가장자리계로, 이 '지까다비' 짝에만 한해서는 분명히 이터했을 것이다. 공포감이고 뭐고 느껴질 건덕지라고는 없다.

아, 지금에야 생각이 난다. 그날은 마가을비가 내렸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나는 저녁답에 혼자 비를 맞으며 돌아오고 있었다. 지금 아무리 머릿속을 짜내어도 무슨 이유로 그때 그렇게 혼자만 늦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사실은 학교에서 혼자 나올 때부터 이미 나는 '큰 산'이 안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쓸쓸해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로 패연하게 비가 쏟아지는 날은 으레 '큰 산'은 구름에 깎박 가려진다.

(중략)

“어마,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 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 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연히 떨고 있었다. 거의 혈떡거리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 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 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찌영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아내도 까맣게 질린 얼굴이다.

“대체 어떻게 된 셈이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염병 돌듯이.”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혈떡거리듯이 지껄었다.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 내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을씨년스러운 느낌 섞어 쳐다보았다.

“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그때 그 고무신짝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무엇이?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었다는 말인가?”

“그렇지요.”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되며 말하였다.

“왜?” / “왜라뇨.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던지긴 어느 집으로 던졌어?”

“몰라요.” / “…….”

[A]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 그 어느 집의 부들도 찌영한 느낌에 휘어 감기며 간밤내 근처에서 들리던 낯익은 팽과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 집에건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옮겨 보내고, 제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 는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이네 집에서 영이네 집으로, 영이네 집에서 웅이네 집으로, 웅이네 집에서 건이네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이 없이 그 고무신짝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아내는 당장은 웃을 경황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까지 극성맞게 들어온 이놈의 고무신짝을 대체 어찌란 말인가.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이미 없었다.

- 이호철, 「큰 산」

[23001-0168]

## 01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이 관찰한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이 보지 못한 사건의 내막을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현재형의 어미를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과 상황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속 인물과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서로 교차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⑤ 호흡이 긴 문장을 사용하여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관념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169]

## 02 '지까다비' 짝과 고무신 짝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에게 공포감을 떠올리게 한다.
- ② 특정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 ③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알 수 있게 한다.
- ④ 특정 인물과 다른 인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 ⑤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한다.

[23001-0170]

##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까다비'가 마을에 많아진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 ② ㉡: 신발이 버려진 이유에 대한 '나'의 짐작이 나타난다.
- ③ ㉢: '나'가 집에 혼자 돌아온 이유를 추론할 단서가 된다.
- ④ ㉣: 집에 하얀 고무신 짝이 들어오게 된 일을 뜻한다.
- ⑤ ㉣: 행동 묘사를 통해 아내가 흥분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171]

##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합리성은 현대를 이전 시대와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인이 된다는 것은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의 실상은 표면적으로는 개인들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비합리적 태도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대인들의 이기적 세태의 원인은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큰 산’은 이와 같은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가는 현대인이 지닌 가치 부재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① ‘나’와 아내가 겪은 일에 비추어 보면, ‘구름에 깎박 가려진’ 큰 산은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근원적 가치가 부재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군.
- ② ‘금방 신 내리는 무당’은 비합리적인 태도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내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군.
- ③ 자신은 ‘꺼림칙’하다고 느끼면서 고무신을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다는 것은 현대인의 이기적인 세태를 보여 주는 것이군.
- ④ 이웃들이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현대인들이 표면적으로는 합리성을 추구함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이라는 말에서 동네 사람들의 이율배반적 속성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느낄 수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속으로는 떨떠름했으나 김도 주눅들지 않고 내뻗었다.

“가뭇에 물치기는 땅임자의 도리구 조상에 효도유. 왜 그류?”

중년 사내가 천북면 수리 담당이거나 장승골에 사는 그 비스름한 것이라니 싫어 김은 더욱 독심에 기운을 모았다.

중년 사내가 말했다.

“왜 그류? 왜 그러겠구면……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루 쓰구두 가뭇 핑계만 대면 단 중 아셔?”

중년이 대들려는 짓둥이를 하자 김은 급한 김에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했다.

“내가 원제 불법적으루 썼슈. 물법적으루 썼지. 녁민이 눈에 물을 대는 건 당연히 물법적인 거유.”

그러자 중년은 어이가 없는지, 불이 일고 있던 눈을 끄떡거리려 끄면서 한탄하듯 중얼거렸다.

“공— 뭘 아는 사람이라야 말 같은 소리를 듣지…… 내 새끼두 야중에 이런 사람 될라 미서서 이 노릇 못 집어친다니께. 공—”

“……”

김이 무슨 말인지 미처 못 새기고 있을 때, 중년은 하던 말투를 바꾸지 않고

“사람이라는 것이 종자를 받으면 주똥이에 처능는 것허구 배압는 것버팀 우선적으루 가르치는 뱍이건만, 이 친구는 위치기 컷길래 남의 말에 찌그레잉이 붙는 것버팀 배웠는구…… ㉡불법적으루 쓰다 들켰으면 사 괏적으루 나오는 게 아니구, 뉘세 큰소리쳐? 나 봐, 워따 대구 큰소리여? ㉢당신 허는 짓이 보통 사건인 중 알어? 시대적으루 볼 것 같으면 안보적인 문젠 겨. 뜨건 국에 맛을 몰라두 한도가 있는 게지. 되지못허 게 워따 대구 큰소리여, 큰소리가……”

[A] 마치 철부지를 타이르듯 훨씬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러나 김은 처음부터 별것이 아닌 줄 알았으므로 기세를 누그리지 않았다. 더구나 뒤에는 무솔이 유순봉이와 장재원이 자기를 시험하고 있었다. 남 병만이도 마찬가지였다. 나중 동네에 소문날 일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갈 한마디에 누져\* 버려 그 참 허탕이 될 수는 없겠던 것이다. 김도 손사래를 치며 떠들었다.

“나 봐유. 맥은 워디 기시길래 이러시는지 몰라두, 요란이 과허실 건 읍는 규. 찬밥 그지는 문전 거절을 해 보낼 수 있어두유, 물 한 바가지 동냥을 쫓는 건 풍속을 어그리는 일이유.”

[중략 부분 줄거리] 한전 출장소 직원인 '중년'은 양수기를 돌린다고 전기를 훔쳐 쓴 '김'을 데려가 그 사실을 추궁하려 하고, '김'이 수로에 물을 댄 것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서 있었던 유순봉, 장재원은 '중년'이 '김'을 데리고 가는 걸 막으려 하는 신경전을 벌인다. 그사이 어느덧 민방위 교육 시간이 되어 모두들 마을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게 된다.

“지 자신이 교육에 대비하여 학습해 둔 게 있는 것두 아니구 해서 배랑 험 말두 읍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지가 예서 꿰라구 떠들어 봤자 머릿속에 담구 기억허실 분두 읍을 줄로 알구 있습니다. ㉣그냥 앉어서 죄용히 담배나 피시며 시간을 채우시도록 허셔유. 그러디 퇴비들을 쌓실 때는 뭇 가지 유의를 해 주시라 이깁니다. 위에서 누가 원제 와서 보자구 험는지 알 수 읍으니까, 퇴비장 앞에는 반드시 패찰과 척봉(尺

棒)\*을 꽂으시구, 지붕 개량허구 남은 썩은 새나 그타 여러 가지 찌끄레기루 쌓신 분들은 혼해 터진 풀 좀 버다가 이쁘구 날씬허게 미장을 해 주서유. 정월 보름날 투가리\*에 시래기 무쳐 담듯 허지 마시구, 혼인 때 쓸 두붓모처럼 깨끗허게 쌓 주시라 이겁니다. 퇴비가 일 헥타(ha)당 땃 키로(kg) 이상이라는 것은 잘들 아시구 기실 중 믿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식전에 두 짐 저녁에 두 짐씩, 반드시 비시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김은, 퇴비는 지저분할수록 거름이 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입 밖으로는 무심히

“모냥내구 있네. 땃 평이 일 헥타른지 위치기 알어.”

하고 두런거렸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거였지만, 순전히 남의 말에 토 달기를 예사로 해 온 입버릇 탓이었다. 그러나 좌중은 무심히 넘어가지 않았다. 김의 음성이 너무 컸던 것이다.

“뭐여? 이봐유. 뭘 모른다는 규? @구식 노인네두 다 아는 상식을 당신 증말 몰려서 헨 소리유?”

하며 부면장이 따져 들기 시작했다. 할 말도 없는데 시간은 남고 처져 심란하던 중 계제에 잘됐다든 눈치가 역연했다. 부면장은 마이크 전 손을 뒷집진 채 육성으로 떠들고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위디를 가봐두 으레견 한두 사람씩 있어. 그러나 여기는 그런 농담할 디가 아녀.”

[B] 김은 남의 눈이 수백이라 구새 먹은\* 삭정이 부러지듯 싱겁게 들어가기도 우습고, 그렇다고 줄거리 없이 함부로 말대답하기도 그렇겠고 하여 어쩔 줄 모르다가 마음에 없던 말을 엉겁결에 내뱉었다.

“알면 지랄헌다구 물으유? 평(坪)두 있구 마지기두 있구 배미\*두 있는디, 해필이면 알아듣기 그북허 게 헥타르라구 헨 건 뭤나 이게유.”

“천동면이 그렇게 촌인가…… 저런 딱헌 사람두 다 있으니. 나 보슈. 국가 시책으루, 미터법에 의하야 도량형 명칭 바뀐 지가 원젠디 연태까장 그것두 모르는 겨? 당신이 시방 나를 놀려 보겠다— 이게여?”

부면장은 당장 잡도리할 듯이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다. 곁에 앉은 남병만이가 팔꿈치로 집적거리며 참으라고 했으나 김도 주눅들지 않고 앉은 채로 응수했다.

“내 말은 그렇게백이 안 들리유? 저 핵교 교실 벽뻬기 좀 보슈. 뭤라구 써 붙였슈? 나라 사랑 국어 사랑…… 우리말을 쓰자는 것두 국가 시책이래유. 옛날버팀 관공리 말 다르구 농민들 말 다른 게 원칙인 게 유. 천동면이 이렇게 촌인가…… 끄—”

부면장은 무슨 말이 나오는 것을 참는지 한참 동안 입술만 들먹거리더니 겨우 말머리를 찾은 것 같았다.

“도대체 당신 위디 사는 누구여? 뭣 허는 사람여?”

그러자 누군가가 뒤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두 높어유.”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곁들여졌다.

“놀이 부락 개발 위원이구, 마을문고 후원 회원이구…….”

그러자 여기저기서 우루루하고 아무나 한마디씩 뉘들이를 했다.

“가족계획 추진 위원이구…….”

“부녀회 회원 남편이여.”

“연료림 조성 대책 위원이유.”

“야산 개발 추진 위원이구.”

“단위 조합 회원이여.”

“이장허구 친구여.”

“죄용해 줘유. 앓어 줘유. 그만해 뒤유. 입 다물어 줘유.”

하고 부면장은 다시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고품을 질렀다. 약간 수그러들자 부면장은 언성을 낮추어 말했다.

“일 헝타는 삼천 평입니다. 앞으로는 이백 평이니 말가웃지기\*니 허구 전근대적인 단위는 사용을 삼가 주셔야 되겠다 — 이깁니다.”

말허리를 끊으며 김이 말했다.

“이 바닥에 헝타르를 기본 단위로 말할 만치 땅 너른 사람이 멧이나 되느냐 이게유.”

부면장은 들은 척도 않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에, 날두 더운디, 지루하시드래두 자리 흐트리지 마시구 담배나 피시며 쉬서유. 저 놀미 사는 높은 양반 두 승질 구만 부리시구 편히 쉬서유. 미안합니다.”

그러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김은 그 박수의 입자가 자기라고 믿으며 속으로 웃었다.

— 이문구, 『우리 동네 김 씨』

\* 누져: 성미가 누그러져.

\* 척봉: 길이를 표시하는 막대.

\* 투가리: 뚝배기.

\* 구새 먹은: 나무속이 오래되어 썩어 구멍 뚫린.

\* 배미: 구획진 눈을 세는 단위.

\* 말가웃지기: 한 말의 반기량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논밭의 넓이.

[23001-0172]

##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에 대한 논평을 덧붙여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추측한 바를 서술하여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③ 여러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 ④ 인물들의 행동과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여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의 대화를 인용하여 시·공간의 변화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임을 표현하고 있다.

[23001-0173]

##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핑계를 대어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상대방의 모습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② ㉡: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 상대방을 비판하며 상대방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이 취한 행동이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④ ㉣: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행사 진행에 방해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질문 속에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부정적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3001-0174]

## 03 [A]와 [B]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은 갈등 상황에서 주변 인물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하고 있다.
- ② ‘김’은 농사일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있다.
- ③ ‘김’은 농사일을 위해서라면 무리한 방법을 써도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④ ‘김’은 자신이 행한 것을 부정하며 타인의 지적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⑤ ‘김’은 상대방과의 갈등을 무마하려는 주변의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

[23001-0175]

## 04 &lt;보기&gt;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 씨」는 계속되는 가뭄 탓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옆 마을 저수지에서 흘러 나온 물을 양수기로 퍼 올리는 김승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의 시도는 곧 여러 사람에게 트집을 잡혀 시비가 붙지만 모두들 학교 운동장으로 모여야 하는 민방위 교육 시간이 되어 흐지부지되고 김승두는 교육장인 학교로 이동한다. 어수선한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잔소리만이 쏟아지고 농민들은 억지로 자리를 지킨다. 1970년대 농촌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었던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정부와 관청 주도의 근대화 시책, 일방적인 태도로 농촌을 계몽하려는 관청 주도 행사, 관리들의 권위적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여기에서 소외되었다고 느꼈던 농민들이 그로 인한 씁쓸함을 조롱, 야유, 투덜거림 등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① ‘학습해 둔 게 있는 것두 아니구 해서 배랑 혈 말두 읊’는 부면장이 농민들 앞에서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 1970년대 농촌에서의 일방적 관청 주도 행사의 부정적 일면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부면장의 말에 ‘남의 말에 토 달기를 예사로 해 온 입버릇’대로 대꾸하는 ‘김’의 모습을 제시하여 농촌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비판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자신을 향해 빈정거린 부면장의 말을 되받아 ‘천동면이 이렇게 촌인가’라고 중얼대는 ‘김’의 모습은 권위적 관리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는 농민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뭇 허는 사람’이냐고 묻는 부면장의 물음에 ‘그 사람두 높’다고 ‘김’의 여러 직책을 대며 부면장의 권위적 태도를 조롱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작품에 드러난 해학성을 엿볼 수 있군.
- ⑤ ‘전근대적인 단위는 사용을 삼가’라고 하면서 ‘국가 시책’이라며 농민들이 쓰던 도량형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면장의 모습에서 관청 주도의 근대화가 진행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자가 이윽고 뭔가 사내를 달래듯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안고 있던 북통과 장단 막대를 말없이 사내 앞으로 밀어 놓았다.

소리를 청해 들을 양이면 이제부터 장단을 좀 잡아 달라는 시늉이었다.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겐 흔히 해 온 일이었다. 여자는 으레 손님 of 숨씨를 믿는 얼굴이었다.

여자의 갑작스런 주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사내 쪽이 뜻밖인 모양이었다. 여자가 밀어 보낸 북통을 앞에만 사내의 눈길엔 줄지에 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은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 오고 있는 식이었다.

“하두 오래 손을 잡아 본 일이 없어서……. 내 장단이 자네 소리에 잘 맞아 들지 모르겠네…….”

사내도 마침내는 여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북통을 끌어당겨 갔다.

그로부터 여자와 술손은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듯 하였다.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적막옥방 한 자리에서부터 <춘향가>의 옥중비가 한 대목을 넘어가고, <흥부가> 중의 흥부 매품팔이며 신세 한탄 늘어놓는 진양조 한 가락을 엮어 내고, <수궁가>로 <적벽가>로 명인 명창들의 이름난 더듬들을 두루 불러 돌아간 후에, 나중에는 <심청가>의 심 봉사 황성길 찾아가는 처량한 정경까지 끈질기게 소리를 이어 나갔다.

[A]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킬킬하고 장중한 우조(羽調)뿐 아니라 여인네 특유의 맑고 고운 계면조(界面調)풍도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때로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도저한 기백이 솟아오르는가 하면 때로는 낙화처럼 한스럽고 가을 서릿발처럼 섬뜩섬뜩한 귀기가 넘쳐 났다. 가파른 절벽을 넘고 나면 유장한 강물이 산야를 걸쳐 있고, 사나운 폭풍의 한밤이 지나고 나면 새소리 무르익는 꽃 별판의 한나절이 펼쳐졌다.

놀라운 것은 그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술손의 장단 가락 숨씨 또한 예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 춘향이 옥중가 한 대목이 어떠시오.

— 흥부가 매품팔이 나가는 신세타령 한 대목이 어떠시오?

여인은 소리를 한 대목씩 시작할 때마다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손님도 ‘그저 좋겠네, 그저 좋겠네’, 즐겁게 화답을 보내며 여자가 첫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 가락을 잡아 나가곤 했다.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인의 소리만 시작되면 사내는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숨씨가 익숙했다.

그러나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방의 숨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여인과 손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하고 장단을 몰아 나갈 뿐이었다.

어이 가리 어이 가리 황성만리를 어이 가리

오늘은 가다 어데 가 자며 내일은 가다 어데 잘고……

더듬더듬 더듬으며 정향 없이 올라갈 제  
때는 삼복 중염이라 별빛은 불꽃 같고 땀은 흘러 비 같은데……

여자는 소리를 굴렀다가 꺾었다 멎었다가 풀었다 하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 냈고, 손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장단을 던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빠져 넘나드는가 하면,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는 엇붙임을 빚어내어 그 숨씨를 마음껏 즐기게 하였다.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단이, 서로 몸을 닿지 않고 능히 상대편을 즐기는 음양 간의 기막힌 희롱과도 같은 것이었고, 희롱이라기보다는 그 몸을 대지 않는 소리와 장단의 기묘하게 틈이 없는 포용과도 같은 것이었다.

(중략)

“그렇습니다. 간밤엔 제 오라비를 만났더랍니다.”

주인 사내는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고개를 한 차례 크게 끄덕이고 나서 다시 질문의 꼬리를 이었다. “하기야 나도 간밤부터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 없지 않았다네. 하지만 자넨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길 한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산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배게 하여 낳은 핏덩이가 바로 자네였더라 말인가?”

천씨 사내는 간밤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서슴없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다시 분명하게 대답했다. 사내 앞에선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어젯밤 일부러 그 핏덩이가 계집아이였다는 말씀은 참아 버리셨소. 그 소리꾼 노인이 어린 핏덩이를 싸안고 마을을 떠날 때 어린 당신도 길을 함께하고 있던 일까지…….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닿을 만한 일만 말하시고 기억이 살아 있는 뒷날 일은 입을 덮고 마시더이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 앞에 조용히 털어놓았다.

[B] 소리꾼 아버지는 나 어린 오누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벌고 떠돌아다녔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철도 들기 전의 두 어린것들에게 소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지, 틈만 나면 성화가 대단했었다. 산길을 가다 고갯마루 같은 곳에 다리를 쉬고 앉아 있을 때나 어느 마을 사랑채의 헛간 같은 골방 속에 들어앉아 지낼 때나 아버지는 한사코 어린것들에게 소리를 배워 주려 애를 쓰고 있었다 했다. 하지만 오라비는 웬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 어린 그녀만이 무슨 재간이 좀 뻔했던지 세월 따라 조금씩 소리를 익혀 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마침내 그녀에게만 소리를 하게 했고,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에게는 북장단을 익히게 하여 제 누이의 소리를 짚어 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아버지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오누이의 소리 숨씨는 한동안 시골 마을 사람들의 애깃거리가 되곤 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끝내 그 북채잡이조차도 따르기가 싫었던 모양이다. 어느 해 가을날인가,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가던 아버지가 통곡이라도 하듯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수궁가> 한 대목을 처연스럽게 뽑아 넘기고 나서 기운이 파해 드러누워 있을 때, 오라비는 용변이나 보러 가듯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선 영영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말았다는 것이다.



“오라비가 가고 난 후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질을 칠까 봐 겁이 나지 않았겠소. 그래 아버지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여자는 비로소 한숨 섞인 음성으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녀의 소리는 윤택해지고, 그 덕분에 부녀는 오라비가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이지 않고 이 고을 저 고을로 구걸 유랑을 계속해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럭저럭 환갑길에 들어선 노인이 어느 겨울날 저녁 보성 고을 근처 한 헛간 같은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비로소 그녀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비밀—그녀와 그녀의 달아난 오라비 사이의 어정쩡한 인륜 관계 하며 잠든 딸에게 청강수를 짚어 넣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런 아버지의 업과들을 눈물로 사죄하고 갔다는 것이다.

—이청준, 「소리의 빛」

[23001-0176]

## 01 [A]와 [B]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B]는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자신의 주관 을 더해 전달하고 있다.
- ② [A]는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관념을 전달하고 있고, [B]는 전지적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생 각을 추론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A]는 이야기 속 특정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사건을 전달하고 있고, [B]는 전지적 서술자가 자신이 관찰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④ [A]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B]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A]는 이야기 밖 서술자가 사건 속 인물의 시선으로 사실을 전달하고 있고, [B]는 이야기 속 서로 다른 인물이 교차하며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23001-0177]

##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자’는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 눈이 멀게 되었다.
- ② ‘손님’은 아버지의 권유로 소리를 포기하게 되었다.
- ③ ‘천씨 사내’는 ‘여자’의 사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 ④ ‘손님’은 ‘여자’의 소리에 익숙하게 장단을 맞춰 주고 있었다.
- ⑤ ‘손님’은 어린 시절 산에서 길을 잃어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23001-0178]

### 03 <보기>는 윗글의 일부를 시나리오로 각색한 것이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S# 95. 염전 길**

(동호,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

천가: (소리)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송화: (소리) 예. 제 소리가 저 사람의 복장단을 만났을 때 대번에 동생인지 알아챘지요. 옛날 제 아비 숨씨 그대로였어요.

**S# 96. 염전 주막 안**

천가: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니. 현디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람끼리 왜 서로 모른 척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송화: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천가: 무슨 한이 그렇게도 깊이 맺혔간디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헤어졌단 말이여?

송화: 우리는 간밤에 한을 풀어냈어요.

천가: 어떻게?

송화: 제 소리하고 동생의 복으로요.

천가: 어쩐지 임자 소리가 예전하고 썩 다르다 했더니마는…….

(버스 소리 들려온다.)

**S# 97. 염전 길**

(동호, 버스가 서자 차에 올라탄다. 차 떠난다.)

- ① 윗글과 <보기>에서 남매인 두 사람에게 있어 소리는 서로를 확인하고 교감하는 도구가 되고 있군.
- ② 윗글의 ‘천씨 사내’와 <보기>의 ‘천가’는 각각 ‘여자’와 ‘송화’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③ 윗글에서는 ‘손님’이 ‘여자’의 오빠지만 <보기>에서는 ‘동호’가 ‘송화’의 ‘동생’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군.
- ④ 윗글에서는 ‘천씨 사내’가 간밤의 소리를 엿들었지만 <보기>에서 ‘천가’는 ‘동호’의 장단에 ‘송화’가 소리하는 것을 듣지 못한 것으로 설정된 것이 다르군.
- ⑤ 윗글에서는 ‘여자’가 이전에 자신의 오라비 이야기를 ‘천씨 사내’에게 한 적이 없지만, <보기>에서는 ‘송화’가 ‘동호’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천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점이 다르군.

[23001-0179]

##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소리의 빛」은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작품이다. ‘남도 사람’ 연작은 판소리를 매개로 전통적 한의 정서가 창조적으로 승화되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의 정서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 이끌려 나온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인물이 복수를 생각하면 원한이 되고, 용서를 생각하면 한으로 승화한다. 이때 판소리는 인물의 감정을 한으로 승화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판소리의 사설은 대체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고, 이를 부르고 듣는 행위를 통해 그 아픔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소리를 매개로 한 연희의 참가자, 즉 창자와 고수, 관객들의 호응은 그들의 응어리진 정서를 풀어내고 한의 예술적 승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 ① ‘오늘은 가다 어데 가 자며 내일은 가다 어데 잘고……’와 같은 구절은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그 몸을 대지 않는 소리와 장단의 기묘하게 틈이 없는 포옹’은 창자와 고수와의 호응을 통해 응어리진 정서를 풀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한숨 섞인 음성’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아비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녀의 소리는 윤택해지고’를 통해 소리를 매개로 한이 예술적으로 승화함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청강수를 찍어 넣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여자의 한을 이끌어 내는 비극적 사건으로 볼 수 있겠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1·4 후퇴의 복적이던 피란길에서 수지는 먹을 것을 빼앗기기 싫어 동생 오목의 손을 일부러 놓아 버린 채 혼자 가족에게로 돌아오고, 가족을 잃은 오목은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성장한다. 전쟁 중 부모를 모두 잃은 수지와 오빠 수철은 부모의 유산으로 유복한 생활을 하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오목은 입시 학원의 급사로 취직하여 그곳을 거쳐 삼아 지내다가 설 연휴가 되자 혼자 남게 된다.

고아로 자랐으면서도 그렇게 홀로 있어 보긴 처음이어서 목이는 그 무서움증을 이겨 보려고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그러면 사면의 벽이 즉각 같은 물음으로 그녀를 조소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 악랄한 조소에 그녀는 위축되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릴 것 같았다. 외부를 향해 굳게 셔터가 내려진 7층 건물 속의 정적과 공허는 그녀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도 거대한 괴물이었다.

원장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그가 그 독특한 목청으로 ‘목아’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잡무에 쫓겨 있고 지내던 원장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 하릴없이 홀로 있게 되자 참을 수 없이 간절해졌다.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그 이름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다가 이름으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눈부신 자존심이었던가를 이제 알 것 같았다.

연휴 이틀째 되는 날, 목이는 원장 아버지를 찾아보기 위해 영광 학원을 벗어났다.

“일찍 돌아오도록 해 미스 오. 별 볼일 없이 시내 싸돌아다녀 봤댔자 지갑만 허룩해지지. 이득 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이 지긋한 수위 영감이 생각해서 해 주는 소린데도 목이 듣기엔 네 따위 고아가 외출해 봤댔자 돈 쓸 일 밖에 갈 데나 있겠느냐는 비양거림으로밖에 안 들렸다.

앞에서 보면 위용 당당한 7층 건물이지만 뒷문 밖은 생전 별이 안 드는 음침하고 더러운 뒷골목이었다. 뒷골목의 구옥들은 거의가 다 싸구려 음식집이어서 쓰레기통에 넘치는 연탄재 위에 끼얹은 밥찌꺼기가 얼어 메밀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목이는 뒷골목에 들 별을 차단하고 떡 버티고 선 7층의 괴물스러운 등허리를 쳐다보면서 “이건 집이 아니다”라고 진저리쳤다.

[A] 변화가의 상점들은 모조리 닫혀 있었다. 철시한 거리를 색색 가지 때때웃을 입은 사람들이 보통 때와는 다르게 걸음 그 자체를 즐기듯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게 보기에 좋았다.

집에서 식구들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설을 쇠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식구들 저희끼리만…….

목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식구라는 이름으로 저희끼리만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를 따돌리고 비웃고 약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외롭고 서러웠다. 자기만이 식구라는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의 작은 가슴을 한없이 썰렁하게 했다.

(중략)

수철이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게 되자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6·25 때 잃어버린 누이동생을 찾는 일이었다. 그는 돈 아끼지 않고 신문 광고도 자주 냈거니와 전국의 고아원을 사람 시켜 또는 몸소 수소문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체

면 불고하고 따라나서서 동생의 생사를 애타게 점쳤기 때문에 그의 드물게 착한 마음은 이미 **일가문중 [B] 에 정평이 나 있었고** 칭송이 자자했다.

그러나 그 무렵 그는 이미 오목이라는 성명으로 부모 형제를 찾는 광고가 난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광고를 보자마자 그 진상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기에 급급했다.

발행 부수 몇십만의 신문 광고 중 한 장을 감춘 것으로 온 세상을 눈가림할 수 없다는 것쯤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 수인이나 오목을 기억하는 친척이 과연 있을 것인지는 긴가민가했다. 더군다나 외가 외에는 다 먼 친척이었고 세상은 갈수록 제 살기에만 바빠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신문 광고를 감춘 것은 순전히 수치 때문이었다. 수치와 수인의 각별한 우애를 잘 아는 그로서는 수치까지 오목이란 별명을 잊었다고 생각할 순 없었다.

사진과 함께 실린 그 신문 광고를 보자 단박 그는 오목이야말로 그가 찾는 누이동생 수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터무니없이 옛된 사진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난리통에 먹을 것에 결신이나 식구들의 지청구를 한 몸에 받던 때의 수인의 얼굴 그대로였다. 따로 알아보거나 긴가민가할 여지조차 없었다.

그때의 누이동생의 얼굴은 마치 인화한 것처럼 명료하게 그의 기억 속에 찍혀 있었다.

누이동생을 잃어버린 때가 그의 중학교 때였으니 그럴 만도 했고 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 얼굴은 그에게서 좀체 지워지지 않았다.

수인이가 오목이란 이름으로 살아 있음을 당장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수인이한테로 달려갈 질 못했다. ㉠ 달려갈 생각보다는 자기 말고 누가 또 수인이를 알아보았을까 그것부터 두려웠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수인이를 영영 모른 척할 마음까지 먹은 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의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한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필요로 한 시간은 자기 말고도 오목이가 수인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동안이었다. 만일 그런 일가친척이 있어 그에게 제보를 해 준다면 그때 가서 금시초문인 척 누이를 찾아 나서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제보를 해 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한** 때라 수철이의 가혹한 마음을 위해 그런 기사나 광고라면 빠뜨리지 않고 훑어보았노라는 사람까지도 누이동생은 이제 죽은 셈 치라는 위로의 말을 해 줄 정도였다. 그러나 오목이가 수인임을 알 사람은 천지간에 수철이 하나밖에 없는지도 몰랐다.

오직 ㉡ 자기만이 오목이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데 자신이 생길수록 그는 오목을 찾아 나서길 망설이게 됐다. 오목을 오목인 채로 내버려 둔들 어떠랴 싶었다.

그런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만 해도 스스로도 섬뜩할 정도의 간지였다. ㉢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을까 참으로 망측한 심보였고, 그런 자신이 정떨어져서라도 어떤 변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며칠을 혼자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얻어 낸 변명은 누이동생이 **몸담고 있는 곳이 하필 고아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그는 새삼스럽게 고아원에 진저리를 쳤다. 그렇다면 고아가 고아원 아닌 어디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㉔ 그는 자신의 억지에 실소했지만 그 억지를 철회하진 못했다.

그때 수철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자식을 두고 있었고, 하나 남은 누이동생 수지를 부럽지 않게 호강시켜 가며 곱게 기르고 있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고생 모르고 자라서 그에게 시집과 그의 자식을 낳아 준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너무 사랑해서 ㉕ 누이동생이 하나 달린 것도 속으로 미안한데 하나를 더 끌어들이다니, 그것도 고아원으로부터, 그건 차마 못 할 일이었다.

-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3001-0180]

##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타인을 의식하는 특정 인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외부 현상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비유를 통해 인물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고, [B]는 과장을 통해 인물의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인물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고, [B]는 인물의 행적을 설명하는 요약적 서술을 하고 있다.
- ⑤ [A]는 다른 인물들과의 비교를 통해 인물의 불행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고, [B]는 인물과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제시하여 인물의 긍정적 평판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181]

## 02 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목이 고아원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떨치는 계기가 된다.
- ② 오목이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오목이 가족에 대한 결핍감과 외로움으로 서러움을 느끼는 원인이 된다.
- ④ 오목이 자신이 겪은 아픔을 떠올려 보고 극복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
- ⑤ 오목이 바라던 것을 이루었음에도 성취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23001-0182]

### 0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동생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과거 잘못의 책임을 우선 면피하려 하고 있다.
- ② ㉡: 동생 찾기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혀 온 죄책감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③ ㉢: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모순을 깨닫고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④ ㉣: 잘못을 개선할 의지는 없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⑤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양보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있다.

[23001-0183]

### 0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전쟁 후를 살아가고 있는 ‘수철’, ‘수지’와 ‘오목’ 삼 남매의 삶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개인의 삶에 드리우는 그늘을 드러내고 있다. 1960~70년대 서울에서는 파괴된 도시가 복구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는 중산층 소시민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 유지나 출세를 위한 경쟁에 몰두해 가고 있었다. 유산을 물려받아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철’이 ‘오목’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면서도 정작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위선적 모습을 통해 소시민 가족 공동체의 이면에 존재하는 배타성과 이기주의, 도덕적 몰락을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실상은 위선적 인물인 수철이 선행으로 ‘일가문중에 정평이 나 있었’을 정도로 친척들에게 잘못 알려졌던 것은 전쟁이 개인의 삶에 드리운 그늘이라고 평가할 수 있군.
- ② ‘갈수록 제 살기에만 바빠지고 있었’던 사회의 모습은 이웃을 돌아볼 여유를 잃고 자신의 안위만을 우선시하던 당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했던 모습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누이동생이 몸담고 있는 곳이 하필 고아원’이기 때문에 동생을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꺼리는 모습은 가족 공동체 이면의 배타성과 이기주의를 드러낸다고 평할 수 있군.
- ⑤ 수철이 수지를 ‘부럽지 않게 호강시켜 가며’ 돌보는 모습에서 전쟁 후 서울에서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편지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 텔레비전으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뒤, 그녀는 오래전 미국에서 실종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침이면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얼음물에 담가 둔 물수건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누워 있었다. 아직 어렸던 그녀를 바라볼 때면 검정색 뿔테 안경 너머의 두 눈동자가 연민으로 젖어 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감정이 없는 짐승처럼 일없이 주르르 눈물을 흘리는 때가 더 많았다. 그녀로서는 아버지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역 근처 삼남극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대기실에 있다가 크게 다친 뒤부터였다. 그때, 극장 지붕이 모두 날아간 삼남극장에는 하춘화도 있었고, 이주일도 있었다고 아버지는 회상했다.

늘 짜증스럽다는 듯 찌푸리거나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었기 때문에 1980년 5월, 1970년대 내내 보조 MC로 지방 쇼단을 전전하면서 무명 생활을 거친 끝에 마침내 아버지가 TBC 방송국의 한 쇼 프로그램에 등장했을 때, 그녀는 ‘과연 저 사람이 아버지가 맞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에 나온 아버지의 얼굴은 어떤 일을 당해도 바보처럼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곱 살밖에 먹지 않았지만, 바보 연기를 하느라 안경을 벗은(검은색 뿔테 안경을 낀 바보는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을 게슴츠레 뜨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 그녀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서울 변두리 극장에서 공연할 때면 동네 골목길이나 전신주에 붙은 계란 모양 사진을 가리키며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가 연예인이라는 걸 자랑하던 두 오빠들이 마침내 아버지가 TV에 등장했다는 사실에 환호작약하는 동안, 그녀는 방 한구석에서 귀를 틀어막고 라퐁젤이 나오는 동화책만 들여다봤다.

유랑 극단 시절부터 그녀 아버지의 레퍼토리는 ‘달나라로 간 별주부전’이었다. 그는 지구에서 토끼가 멸종한 21세기, 토끼 간을 구해 오라는 용왕의 특명으로 로켓을 타고 달까지 찾아간 별주부 역을 맡아서 시종 일관 계수나무에 부딪치고, 먹다 버린 당근을 밟아 미끄러지고, 토끼의 피에 속아서 옷을 다 벗은 채 속옷차림으로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선보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군부 세력이 수권했던 80년대, 코미디언 안복남은 대통령을 ‘성군’으로 부르는 등의 연기로 인정받아 방송 출연을 하고, 정부 주도 대규모 문화 행사였던 ‘국풍81’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게 된다. 라디오 피디(PD) 일을 하며 기록물을 찾다가 영상 기록을 통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녀(안미선은 그의 모습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실종된 아버지의 흔적을 꾸준히 찾아 나선다. ‘나’는 점차 도서관 관장에게 시디(CD)를 전해 달라는 그녀의 편지에 적힌 부탁에 따라 점차 도서관을 방문한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어서 대답하기 전까지 당신이 내 앞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청각적으로 봐서는 당신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대답하면 ‘아, 거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거죠. 앞에 없는 줄도 모르고, 제가 사는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하지만 잠을 잘 때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봅니다. 물론 내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시각적 잔영이겠지만, 꿈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이 멀기 전까지 내가 봤던 것들에



대한 시각적 기억은 희미하나마 아직도 남아 있어요.”

[A] 이 관장은 말을 끊고 문 옆에 정수기가 있으니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다. 나는 위에 놓인 종이컵에다 물을 받아서 탁자 위에 놓은 뒤, 그의 손을 잔까지 잡아끌었다. 이 관장이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물을 마실 수 있죠. ‘거기 앞에 있잖아’라고 말하면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주차한 차에 부딪치면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왼쪽은 무한대의 공간인데 그걸 아는 비장애인들은 드물죠. 어쨌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결국 저는 1981년 여름까지 살았던 시각적 세계에서 한 번 죽은 뒤, 시각이 사라진 세계에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그건 마치 전생의 기억을 안고 사는 것과 비슷해요. 누군가 광화문 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광화문 거리는 1981년 여름까지의 광화문 거리죠. 안구를 적출한 뒤에는 전에 한번 가 본 곳일수록 다시 가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기는데, 그건 혹시라도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을 발견할까 두려워서죠. 그건 아마도 성장을 두려워하는 일과 비슷할 테죠. 완강하게 과거의 시각적 잔영만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통에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저는 잘 기억합니다. 예컨대 안 피디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피디의 아버지가 코미디언 안복남 씨라는 건 아시겠죠?”

“이번에 편지 받고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안 피디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군요.”

나는 좀 겸연쩍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전에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은 없었어요.”

“제가 남은 마지막 시각적 잔영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국풍81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안복남 씨가 아직 유명할 때였습니다. 그 안복남 씨가 자기 아버지라고 안 피디가 말하기에 제가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안 피디는 침을 삼키며 머뭇거리다가 ‘가족을 버리고 양육직을 몰래 판 돈을 들고 애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런. 치료를 받아야 했을 텐데, 그렇게 애인과 도망칠 여력이 있었다니요. 연예인이니 돈도 많으셨을 텐데 빨리 치료받았더라면’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피디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아버님은 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몰랐나요?’라고 말했더니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라고 안 피디가 되묻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분이 하신 연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코미디를 한다고 해도 아이 어느 정도 보이는 비장애인들은 그런 식으로 계수나무에 부딪치거나 무대에서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부딪치거나 떨어진다면 눈앞이 희뿌연 상태였다고 봐야겠죠.’ 그랬더니…….”

이 관장이 말을 멈췄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안 피디에게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더라구요. 말했다시피 제 앞에서 누군가 얘기하다가 기척을 내지 않으면 마치 눈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줄 알았

어요. ‘거기 있습니까?’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괜히 제 마음이 불안해져서 더듬더듬 손을 뻗었는데, 그랬더니 안 피디의 얼굴이 만져지더군요. 새벽, 이슬이 맺힌 풀잎을 만질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젖은 목소리로 안 피디가 ‘예, 저 여기 계속 있어요’라고 말했고, 그렇게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게 제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 김연수, 「달로 간 코미디언」

\* 슬랩스틱 코미디: 연기와 동작이 과장되고 소란스러운 희극.

[23001-0184]

##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편지 내용을 소개하여 인물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여 인물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자신의 행동을 묘사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대화를 직접 제시하여 대화에 언급된 인물이 느꼈을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 ⑤ 편지 내용을 언급하여 인물의 가족 관계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23001-0185]

##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이 관장을 만나기 이전에 안미선과 이 관장의 만남이 있었다.
- ② ‘나’는 이 관장과 만나고 나서 안미선과 안복남이 부너지간임을 알게 된다.
- ③ 이 관장은 안미선과 ‘나’의 관계에 대해 추측하고 있던 바를 언급하고 있다.
- ④ 이 관장은 안미선과의 만남을 통해 안복남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 ⑤ 이 관장은 안복남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의 신상에 대해 추측하여 판단하고 있다.

[23001-0186]

### 03 [A]의 이 관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을 돕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② 자신이 기억한 것에 어긋나는 정보를 받아들이지를 거부하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밝히기 꺼려 하고 있다.
- ③ 자신이 경험한 여러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지각 방식을 이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④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이 과거의 기억을 중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⑤ 상대방이 느끼는 감각과 자신이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여 자신의 결정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3001-0187]

###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현대 역사가들은 한 역사적 사건이 정치,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가지는 의미뿐 아니라 역사적 격랑을 겪는 개인의 삶 속에서 갖는 의미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연수는 「달로 간 코미디언」에서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 ‘국풍81’ 등의 실제 사건과 가상의 인물 ‘안복남’을 관련지어 당대를 살았던 인물과 당시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을 그려 낸다. 작가는 실종된 아버지의 자취를 찾아 나서는 ‘안미선’을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사건의 의미를 저마다 다르게 부여하며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 하나하나가 모여 당대의 기억을 형성해 간다는 것, 우연한 과거의 사건이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꾸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기억과 상처로 오래 남아 현재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① 안복남에게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는 눈을 크게 다쳐 안경을 쓰게 되었던 사고로, 그의 가족들은 그 일을 원망하고 있군.
- ② 이 관장과 ‘국풍81’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안미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
- ③ 뉴욕의 쌍둥이 빌딩 사고를 안미선이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선 계기로 삼은 것은 사건의 의미를 개인이 다르게 부여한 예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이 관장과 안미선이 ‘국풍81’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국풍81’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당대의 기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⑤ 안복남이 사고로 눈을 다친 일이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처럼 역사적 사건은 직접 관련된 이 외에도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제2과장 풍자탈

원양반, 다음 양반, 홍백(紅白), 떡탈, 손님, 비뚜르미, 조리중, 말뚝이 순으로 ㉠춤을 추며 등장하여 새면\*을 향하여 일 열로 선다.

원양반: 여러분.

양반들: 왜요?

원양반: 오늘 심심한데 말뚝이 요놈이나 불러다가 농담이나 하여 봅시다.

양반들: 그럼시다.

원양반: 이놈, 말뚝아.

말뚝이: 아— 어, 뽕소이다.

원양반: 소년당상 애기 도령님은 좌우로 둘러서서 소 잡아 장고 메고 말 잡아 북 메고 개 잡아 소고 메고 안성맞춤 꿩과리 치고 운봉내기 징 치고 떡 치고 술 걸러 차려 놓고, 흥문연 높은 잔치 향우장사 칼춤 출때 이내 마음이 심란하여 초당에 비켜 앉아 높은 베개 돌워 베고 고금(古今)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니 어따 괴롭고, 운봉 담양으로 귀양 갈 놈 양반의 철룡 뒤에서 응매 깡깡하는 소리 양반이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이미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하려고 나온 김에 춤이나 한번 추고 가자. (불림) 처절 철철 철철— (긋거리장단에 맞춰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쉬— 이—, (음악과 춤 멈춘다.) 동정(洞庭)은 광활하고 천봉만학(千峯萬壑)은 그림을 그려 있고, 양유천만사(楊柳千萬絲)는 각유춘풍을 자랑하고, 탐화봉접(探花蜂蝶)은 춘풍에 흔들흔들, 별유천지(別有天地)는 비인간(非人間)이로구나. 어디서 말뚝이를 불러 계시는지 말뚝이 문안이요.

양반들: 음— 에헴!

말뚝이: 문안 아홉 가지 평안 아홉 가지 이구 십팔 열여덟 가지 문안을 잘 받아야지 만약 문안을 잘못 받으면 양반놈들 혀를 쑥 빼리로다.

원양반: 예익! 예! 이놈, 네가 상놈으로서 양반을 모욕하고 살기를 바랄쏘냐. 이때는 어느 때뇨, 놀기 좋다 춘삼월 호시(好時)로다. 석양은 재를 넘고 강가의 말은 슬피 울 제, 초당에 앉은 양반 본디부터 그렇게 앉았기로 가장(家長)을 불러 훈장(訓長)을 단속하고 모모 친구 통지하여 술 한잔을 먹음차로 주점에 내려가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삼석 잔 거듭 먹어, 일배일배 부일배로구나.

말뚝이: 주인공은 누구누구 모였던고?

원양반: 영양 공주, 난양 공주, 진채봉, 한일선, 백능과, 계섬월, 심모란, 김옥선 일등 미색 고운 태도 양반 눈앞에 보이니 양반의 마음이 흔들흔들하여 춤이나 한번 추어 보자. (불림) 처절 철철 철철— (긋거리장단에 맞춰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쉬— 이—. (음악과 춤 멈춘다.) 날이 뽕뽕부러하여지니 양반놈들이 연당 못에 물뱀 새끼 모이듯이 춘 골목에 도야지 새끼 모이듯이 그저 주렁주렁 모아 서서 말뚝인지 쇠뚝인지 꽃 피는 삼사월 초파일 날 장안만호(長安萬戶) 등 달듯이 과거장(科擧場) 중에 제 의붓애비 부르듯이 그저 말뚝아 말뚝아 불

러, 이놈들—.

원양반: 저런 죽일 놈이 있느냐? 이놈 네가 상놈으로서 양반을 모욕하고 살기를 바랄쏘냐.

말뚝이: 하! 하하하!— (크게 웃는다.) 니네가 양반이여? 양반이면 양반 근본을 내가 좀 들어 보자.

원양반: 이놈 네가 상놈으로서 양반 근본을 알아 무엇 하랴.

말뚝이: 그럴 것이었다. 니가 근본이 원래 좋지 못한 관계로써 나한테 일러 주지 않을 것은 사실이었다.

내가 너의 고을에 살려고 온 지가 수십 년 되었을 제 너의 근본을 탐정하였으니 내가 일러 줄 터이니 들어라. 첫째 양반 널로 두고 말을 하니 너 역시 양반의 자손이라 하였지만 네 집 근본을 탐정하여 보니 기생이 여덟이라. 기생이라 하는 것은 오는 관리마다 등을 굽어 네를 길렀거든 네가 무슨 양반 자손이라 자랑을 하며, 둘째 양반 널로 두고 말을 하면 너 역시 계집종의 자손으로서 계집종이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등을 굽어서 너를 길렀거든 네가 무슨 양반 자손이라 자랑하며, 셋째 양반 널로 두고 말을 하면 너 한 어머니에 애비가 둘이로다. 한쪽은 흥가가 만들었고 한쪽은 백가가 만들었으니 네가 무슨 양반 자손이라 자랑하냐.

양반들: 예끼! 예끼!

(중략)

원양반: 이놈 네가 상놈으로서 양반 근본을 훼파(毀破)를 하다니 이놈! 그러면 너의 근본을 좀 들어 보자.

말뚝이: 그리하여라. 내 근본을 들어 보자 할 건 사실이었다. 나의 근본을 알라며는 사대조, 오대조, 육대조, 칠대조, 팔대조 이상은 물론하고 우리 할아버지께옵서는 소년에 등과하여 남병사, 북병사, 오한문 도대장을 계셨으니 그 근본이 어떠하뇨, 이놈들. 우리 아버지께옵서는 이십에 등과하여 평안감사, 진영감사, 이 년을 마친 후에 흑각궁, 황각궁을 걸어 매고 오한문 도대장으로 계셨으니 근본이 어떠하뇨, 이놈들. 요의 자식도 못난이요, 순의 자식도 못난이거든, 내 집 사랑에 종놈만도 못한 놈이 이놈 저놈 하는 소리에 아니꼬고 더럽도다 이놈아!

양반들: (소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중모리) 박 생원님 전 비나이다. 박 생원님 여보소, 들어 보시오. 황공하고 무리하여 살려 주오, 살려 주오, 제발 생원님께서 살려 주오.

말뚝이: 너 이놈, 말 들어라. 너희의 행실 불진대는 능지처참을 할 것이로되 인간의 도리로서 차마 죽이지 못하노니 네게 용서할 것이니 너의 마음 개심하여 네 집에 돌아가서 백 년 겁을 반성하라.

양반들: 예—이!

말뚝이: 함께 물러가거라.

양반들: 예—이!

양반들: (소리) (중중모리) 얼씨구나절씨구 얼씨구나절씨구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절씨구 얼씨구나 좋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뎃배기춤\*을 추고 퇴장한다.)

— 작자 미상, 「통영 오광대」

\* 새면: 약사들이 앉는 자리.

\* 뎃배기춤: 뎃배기춤. 농악의 뎃배기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영남 지방 민속춤의 특유한 춤사위.

[23001-0188]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 보기 |

- 가. ㉠에서는 춤을 춤으로써 등장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에서는 춤을 춤으로써 공간의 특징을 드러낸다.
- 나. ㉠에서 등장인물이 추는 춤은 장면의 시작을 알리고, ㉢에서 추는 춤은 장면의 마무리를 알린다.
- 다. ㉠에서는 심란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서, ㉢에서는 봄을 맞이한 흥취를 표출하기 위해 춤을 추려고 한다.
- 라. ㉠의 춤은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고, ㉢의 춤은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나, 라

⑤ 다, 라

[23001-0189]

0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직유의 방식으로 상대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B]에서는 은유의 방식으로 상대에 대한 연민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에서는 반어적 표현으로 상대와 자신의 동질감을 드러내고, [B]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 상대와 자신의 이질감을 드러낸다.
- ③ [A]에서는 고사(故事)를 활용해 상대에게 동정심을 자아내고, [B]에서는 관용구를 활용해 상대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 ④ [A]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해 상대의 무능함을 폭로하려 하고, [B]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해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려 한다.
- ⑤ [A]에서는 열거의 방식으로 상대가 열등한 존재임을 부각하고, [B]에서는 질문의 방식으로 상대보다 자신이 우월한 존재임을 부각한다.

[23001-0190]

###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통영 오광대」는 경상도 지역에서 연행되어 오던 가면극의 일종으로, 조선 후기에 향유된 다른 가면극과 마찬가지로 당대 지배층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다. 풍자의 주체인 ‘말뚝이’는 서민을 대변하는 인물로, 비속어와 과장 등 서민의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지배층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며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다. 또 말뚝이는 한자어와 같은 양반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서민도 양반과 같은 능력을 지님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양반들’은 풍자의 대상으로, 양반의 체통이나 체면을 상실한 인물로 그려진다. 특히 그들의 허위의식은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권력이나 권세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모습을 통해 폭로되기도 한다.

- ① ‘양유천만사는 각유춘풍을 자랑하고’와 ‘별유천지는 비인간이로구나.’처럼 양반의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말뚝이의 말에는, 서민이 양반에게 함부로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님을 전달하려는 창작 의도가 담겨 있군.
- ② ‘만약 문안을 잘못 받으면 양반놈들 혀를 쑥 빼리로다.’라는 말뚝이의 말에는, 서민의 언어를 사용해 직접적으로 지배층을 조롱하려는 창작 의도가 담겨 있군.
- ③ ‘일등 미색 고운 태도 양반 눈앞에 보이니 양반의 마음이 흔들흔들’한다는 원양반의 말에는, 지배층으로서 지녀야 할 예법이나 체면을 중시하지 않는 당대 양반들의 인식을 드러내려는 창작 의도가 담겨 있군.
- ④ ‘연당 못에 물뱀 새끼 모이듯이 촌 골목에 도야지 새끼 모이듯이’ 양반들이 모여 있다는 말뚝이의 말에는, 서민에게 횡포를 가하는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폭로하려는 창작 의도가 담겨 있군.
- ⑤ ‘박 생원님 여보소, 들어 보시오. 황공하고 무리하여 살려 주오’라는 양반들의 말에는, 강자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당대 양반들의 부정적 행태를 보여 주려는 창작 의도가 담겨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사 A: 이 공원을 불하\*를 맡을까 하는데 어떨까?

신사 B: 무엇에 쓰게?

신사 A: 다 헐어 내 버리고…….

신사 B: (가로막으며) 고적을 없애 버린다고 야단들일걸. 소위 민간 측에서.

신사 A: 글쎄, 그건 안된 생각들이란 말이야! 서울같이 땅이 귀하고 부족한 이 복판에다가 그 승거운 탑을 고적이라고 세워 놓고 나무를 심고…… 그래서 게으름뱅이들의 소굴을 만들었으니 그럴 손복\*할 일이 어디 있겠나? 나는 이걸 아주 훌륭하게 실질적이며 생산적으로 이용할 테야.

피에로: (독백) 저런 죽일 놈이!

신사 B: 어떻게!

신사 A: 이 너절한 것을 다 털어 버리고 집을 모다 굉장하게 짓거든…… 어떤 집을 짓느냐 하면 한편은 요릿집, 한편은 카페, 한편은 댄스홀. 그리고 또 한편에는 오락장으로 베비골프, 다마스키\*, 마작구락부…… 어때?

신사 B: 거참, 그랬으면 수입은 상당할걸?

신사 A: 상당만? 대번 부자가 되지. (間) 가만있게. 지금 자본주를 끄는 중이니까. 자본주만 생기면 우선 운동비를 흠뻑 들여서 불하를 맡어 가지고, 응 한바탕할 테니…….

두 사람: (지껄이며 무대의 오른쪽 후면으로 퇴장)

피에로: (성이 나서 독백) ㉠허! 그것참!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 잘 죽이나! (사리탑을 바라보며 감개해서) 그래 저 사리탑의 심오한 예술적 가치와 그리고 우리의 회고적 감정을 짓밟으려 들어? 죽일 놈들! 저놈들도 조선 놈들이야! 앵!

(중략)

순사: 왜 그래, 왜?

노동자: 네, 그저 설은 사정이 있어 그랬습니다.

순사: 아무리 썩더라도 여기는 우는 데가 아니야. 어서 가.

노동자: 네, 갑지요, 지금 뚝섬까지 나가야 합니다. (새 설움이 복받쳐 느낀다. 울음 섞인 소리로) 나가면 사흘째 굶은 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운다.) 살 수가 없어서 일전에 문안에 들어와서 가대기\*를 하고 호구해 가다가 그만 다리를 다쳤답니다. 사흘째 되었어요. (더욱 운다.) 그래도 행여 무슨 별이가 있을까 해서 주린 창자를 졸라매도 못해서 오늘은 이 병든 다리를 끌고 첫새벽에 문안을 들어왔답니다. 들어와서 원종일 돌아다니니 더구나 병신을 누가 일을 붙여 줘니까. 그러다가 깜박 해가 지고 밤이 들었지요. 집에서는 굶어서 다 죽어 가는 처자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이 병든 다리를 끌고 뚝섬까지 나갈 일을 생각하니 (더욱 운다.) 나가기는 나가야지요. 죽어도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죽어야겠으니 나가야겠는데. (울음만 운다.)

순사: 글쎄,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울고만 있으면 수가 생기나! 일어서서 나갈 도리를 해야지…… 일어서.



노동자: (그대로 울며 일어서서 순사를 따라 무대의 왼쪽 후면으로 퇴장)

피에로: ㉠(우두커니 한숨)

룸펜 3, 4인: (무대의 오른쪽 전면으로부터 등장. 모두 땀국이 괴죄죄한 조선옷을 입었다. 주린 빛이 완연하다. 전면 벤치에 죽 걸터앉아 묵묵히 말이 없다.)

어떤 사람 A와 B: (나란히 서서 무대의 왼쪽 전면으로 등장. 이야기를 하면서 오다가 중앙쯤에서 관객석을 향하여 머물러 선다. B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둘이 다 신수가 흰치르르하다.)

A: 글썸 그렇잖소? 저이들은 나더러 변절을 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그야말로 깊이 생각하면 오십보로 소백보지. 저이가 더 나을 게 무어나 말이야.

피에로: (두 사람을 비로소 보고 얼굴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B: (고개만 끄덕거린다.)

A: 차라리 우리처럼 태도나 표명했으면 가령 죄라고 하더라도 덜하지.

B: 그게 도시에 그래요. 민중이니 민족이니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일을 한답시고 하지만 그것이 이익을 끼치는 결국 돈 있는 사람과 그 밑에서 유지니 지사니 해 가시고 일한다는 그 사람들에게게뿐이지 정말 일반 민중이야 어데 그 혜택을 입소?

A: 그렇구말구! 좌우간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외인 편으로 벗어부치고 나서지 않으면 솔직하게 선명하게 바른편에 가담해 가지고 자본주의 그 세대에 알맞은 행세를 하는 게 제일이야.

B: 그렇구말구! 중국의 장개석이 중국을 위해서 일한다지만 그것이 중국 전 민족의 일이 아니라 토착 부르주아를 위한 일이니까……. 자 어서 갑시다. 시간이 거진 다 되었겠소.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버린다.)

두 사람: (무대의 오른쪽 전면으로 유유히 퇴장)

피에로: (그 뒤를 흘기며 이를 간다.)

룸펜 일동: (그동안에 B가 버린 담배 토막을 서로 집으려고 야단이 일어난다.)

피에로: ㉡(이 꼴을 보고 더욱 성이 난다.)

룸펜 일동: (무대의 오른쪽 후면으로 퇴장)

이주민 가족: (무대의 왼쪽 전면으로 등장. 제가꿈 유랑해 가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보꾸러미들을 이고 들고 지고 했다. 전면 중앙에서 관객석을 등지고 머물러 선다.)

딸: (사리탑을 가리키며) 아버지, 저건 무엇이요?

피에로: ㉢(주의해서 바라본다.)

아버지: 오냐, 저건 사리탑이라는 탑이란다. 예전에는 여기가 절터였더란다. 그런데 불이 나서 절은 없어지고 탑만 남았다가 시방은 공원이 되었느니라. (鬨) 모두 잘들 보아 두어라. 이제 마지막으로 간도로 떠나면 언제 다시 와서 서울 구경들을 하겠니!

어머니: (불평스럽게) 영감두 원! **북간도**로 떠둥구러 가는 팔자에 서울 구경을 해서 무얼 하겠다고 가든 길품을 메이고 예서 하루를 묵는단 말이요!

아버지: 마누라도 원 딱한 소리 마우. 우리는 늙었으니 그런 것 저런 것 상관없지만 저것들이야 어데 그렇소? 조선서 태어나서 조선서 저만큼씩이나 자라 가지고 아무리 살 수가 없어 만리타국으로 떠가기는

할망정 그래도 조선 종자들인데 서울 구경 한번 못 한대서야 저이도 인제 원이 아니 되겠소!

아들: 아버지 그런 걱정은 마세요. 인제 잘되면 돌아와서 보란 듯이 살 텐데.

아버지: 아무렴 그래야지. 만리타국의 호지에 가서 영영 뿌리가 백혀서야 쓰겠니. (間) 다들 보았니? 다행히

다시 돌아오거든 시방 하든 말 이르고 잘들 살아라. (눈물이 눈에 고인다. 목멘 소리로) 가자. 인젠.

일동: (무대의 오른쪽 전면으로 퇴장)

피에로: @(방금 울 듯이 그들의 뒤를 바라본다.) 조선을 죽도록 지키잖구!

주정꾼 A와 B: (비틀거리며 마주 잡고 무대 왼쪽 후면으로 등장)

피에로: (이마를 찌푸린다.)

A: 어, 튀튀.

B: 아. 여보. 박 상!

피에로: (흘겨본다.)

B: 게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A: 오랜만이구말구. 응. 긴 상!

B: 아하하하하…… 누—따 주우쿠나.

A: 노들강변 비둘기 한 쌍.

B: 허허허허, 이런 제길.

두 사람: (여전히 비틀거리며 무대 오른쪽 전면으로 퇴장)

피에로: (흘겨보며) **망할 자식들!** (고개를 숙이고 뒷짐을 지고 뚜벅뚜벅 무대 전면을 왔다 갔다 거닐면서 골똘히 생각한다. 가끔가다가 고개를 가웃거린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무래도 큰일 났어. (間) 영웅이, 영웅이! 위대한 영웅이 나아만 해.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래 영웅이 나아 해, 영웅이. 영웅이! (갑자기 무대 왼쪽 전면으로 뛰어 들어간다.)

- 채만식, 「영웅 모집」

\* 불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 손복: 복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음.

\* 다마스카: 당구장이라는 뜻의 일본 말.

\* 가대기: 창고나 부두 따위에서, 인부들이 쌀가마니 따위의 무거운 짐을 갈고리로 찍어 당겨서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또는 그 짐.

[23001-0191]

## 01 윗글의 극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품을 활용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인물 태도의 긍정적 변화 양상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 ② 하나의 무대 위에 두 가지 상황을 번갈아 반복하여 등장시킴으로써 현실과 환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무대와 관객 사이를 오가는 극 중 인물을 통해 관객을 극 중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 ④ 특정 인물의 말과 행동 등을 통해 관객이 극 중 상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특수한 무대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 과정을 압축하여 드러낸다.

[23001-0192]

## 02 **복간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공간이다.
- ② 인물들이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된 공간이다.
- ③ 인물들이 현재 거거하는 곳으로 세태의 변화를 인식하는 공간이다.
- ④ 인물들의 대화 속에 제시되는 곳으로 인물들이 과거에 함께 머물렀던 공간이다.
- ⑤ 인물들이 유랑하는 과정 중에 머무는 곳이며 동시에 최종적으로 정착하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23001-0193]

##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신사 A, B’가 탐의 예술적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에 기인한다.
- ② ㉡: ‘노동자’가 처한 안타깝고 서글픈 상황에 기인한다.
- ③ ㉢: ‘롬펜 일동’이 하는 한심스러운 행동에 기인한다.
- ④ ㉣: ‘딸’이 공원의 ‘사리탑’에 대해 보이는 관심에 기인한다.
- ⑤ ㉤: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짐하는 각오에 대한 공감에 기인한다.

[23001-0194]

## 04 &lt;보기&gt;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영웅 모집」은 1930년대에 발표된 희곡으로, 당시의 다양한 삶의 양상들을 보여 주며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작품에는 장면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좇는 신사들과 불우한 노동자, 한심한 룸펜,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는 지식인인 어떤 사람들,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주민 가족 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의 사회·역사적 상황 아래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각각의 사례로 기능한다. 극 중 무대 배경으로 제시된 ‘공원’은 파고다 공원으로,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곳이다. 작가는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가치인 민족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요릿집’, ‘카페’, ‘댄스홀’ 등을 짓는 것이 ‘실질적이요 생산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신사 A를 통해, 의미 있는 장소를 버려두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일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풍자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순사라는 인물을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병든 다리’와 ‘굶어서 다 죽어 가는 처자’에 대한 노동자의 하소연을 통해 일제 강점기 하층민의 생활상과 힘든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변절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오십보로 소백보’라며 ‘더 나을 게 무어냐’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 A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④ ‘조선서 태어나서 조선서 저만큼씩이나 자라 가지고 아무리 살 수가 없어 만리타국으로’ 떠나는 상황에서도 ‘만리타국의 호지에 가서 영영 뿌리가 백혀서야 쓰겠’나는 아버지를 통해,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지켜야만 하는 가치인 민족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⑤ 주정꾼들을 보고 ‘망할 자식들’이라 언급하며 분노하는 피에로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과 한심한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어.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젊은 일꾼: (일하다가 들어와 보고) 아니, 댁에서들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그려. 아래께 말뚝이가 콩밭에 가는 귀찬이 짐을 받아 지고 가는 것을 나는 봤는데요. (말뚝이 또 운다.)

국서: 콩밭에? 귀찬이? 아니, 건넌집 귀찬이란 녀 말이지? / 젊은 일꾼: 암요.

개똥이: 어제저녁에도 저 아래 대감 나무 밑에서 개하고 살짜기 만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바로 어제저녁이야.

국서 아내: ㉠그러면 그렇다구 왜 진작 대 주지 않구! 그저 두 놈이 똑같애!

개똥이: 그런 소리 대 주다가 형한테 혼나게. 모르는 소리 마. 형이 어떻게 힘이 세다구그래. 바로 「대마도」 같은데.

국서: (말뚝이의 볼을 쥐지르며) 에그, 이 자식! 제 주체에! 밀구멍으로 호박씨 깐구나! 이것두 사내 꼬부랑이라구 그래두 떡국 농간은 있어서 계집애 뒤꽂무니에 따라다닐 줄은 안단 말이지? 에잇, 사람 못된 자식!

국서 아내: …… 그런데 귀찬이 아버지가 아까 와서 그러는데요. 읍내 나까무라 상한테 말해서 그 애를 이번 에 일본으로 팔어먹는대요. / 국서: 일본으로요?

늙은 일꾼: 흥, 땡잡았구나, 그 집에선.

젊은 일꾼: 간밤에 대감 나무 밑에서 말뚝이가 만났다니까 그럼 그 말을 그때 귀찬이한테서 들은 게로구면. 그래서 그런 게지? 응, 말뚝아?

말뚝이: ㉡(고개를 끄덕이며) …… 네. 막 2,000냥(40원) 몸값으로 팔려 간대요. 대감 나무 밑에서 그랬어. 그 망할 년이! 그 죽일 년이! 그 빌어먹을 년이! / 구경꾼: 2,000냥? 그것 잘된 흥정이로군.

국서: 그럼 말뚝아. 너허구 같이 살자구 귀찬이허구 약조한 일이 있니?

말뚝이: 서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해 가지구, 그래 가지구 같이 살자구 철석같이 약조했어. 그래 놓고 그년이 그래요.

국서 아내: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 집에서는 작년 재작년 흉년에 밀린 도지\*를 못 갚아서 자식을 판단다.

늙은 일꾼: 그럼 댁에서 그 묵은 도지를 갚어 주. 그러면 색시를 빼내 올 수 있지.

(중략)

국서 아내: (방에서 튀어나오며) 벌써 다녀오셨수?

국서: 아니야, 가다가 국진이를 길에서 만났어. 맘먹은 대로 변통이 안 됐대.

국서 아내: ㉢에그, 그러면 어떡해요? 돈이 안 되면……. 모레는 나까무라 상이 귀찬이를 데리러 온다는대요.

국서: 저당이라는 게 뭐 해 먹는 겐지. 그걸 하지 않으면 돈을 안 꾸어 준다는 걸 어떡한단 말이야. 제기랄! 그렇게 급하거든 네 현 속곳이나 팔어. 그래 가지구 색시 몸값 치르고 맘에 맞는 며느릴 얻으려무나. 나는 어쩔 수 없어. 대체 무얼 가지구 그놈의 저당을 헌담! 헐 게 있어야 말이지. 내 상투라두 떼어 가려거든 떼어 가.

국진: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닙니다, 형님.

국서: 그럼 어떻게 말을 허람! 내게 팔랑개비 재주가 없는 답에야 뭐라구 해?

(이때 말뚝이, 일하다가 멋도 모르고 노래하며 들어온다.)

국서: ㉔(말뚝이를 보고) 에키! 치독을 맞을 놈의 자식 같으니라구! 무엇이 기뻐서 노랜 불러! 못난 게, 흥, 제 주제에! 꺼들대기는 잘하지! 이놈아, 보기 싫다! 저리 가서 쇠진드기나 잡아 줘라!

(말뚝이, 부루퉁해져서 감나무 밑에 가 앉아 버린다.)

국진: 그러지 말고 형님, 저…… 우리 소를 그만 팔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국서: ㉕아니, 자네 미쳤나? 우리 소는 저 소의 사촌의 아버지의 큰형이…….

국진: 도 장관에게서 일등 상 받았단 말씀이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기서 저 소를 파는 게 그중 상책 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우리 소원대로 돈을 꾸어 준다 합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체 그 비싼 변리(邊利)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 낸단 말요? 변리가 본전이 되구 본전이 변리를 낳아서 급기야는, 소를 팔지 않아선 안 될 고비가 닥쳐오고야 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를 파나, 좀 두었다가 파나 팔기는 마찬가지로요?

국서: 안 돼! 이전부터 이르는 말이 있어. 소는 농가의 명줄이야. 소 팔어먹구 잘되는 놈의 집안은 고금에 없거든!

국진: 그래두 자식보다야 소중하지 않겠지요?

국서: 말 말게. 세상에서는 자식 있는 것보다 송아지 가진 것을 더 중하게 여겨 준다네. 자식이 몇 놈이 있어 봐. 누가 문간에 송아지 한 마리 매어 둔 것보다 낮게 봐 주는지?

국서 아내: 그건 옳은 말입네다. 우리 집에 소 한 마리 키운다구 동리에서 우리를 부자라구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귀찬이 집에서도 우리 소 매어 둔 걸 보고 색시를 준대요.

국서: 암, 그렇겠지. 술집에서 내게 막걸리 잔 외상으로 놓는 것도 우리 집 소를 보고 놓는 거야. “국서 자네 같으면 얼마라두 외상으로 먹게. 자네헌텐 소가 있는걸.” 이러거든! 그들이 어디 자식 보고 그러는 줄 아나? [A]

국진: 그야 소를 가지면 안 가진 것보다야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형님, 이 판에는 하는 수 없어요. 색시 집에서두 도지를 못 갚아서 거리에 나앉는 변이 있더라도, 그걸 참고 계집애를 주려구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서: 정신없는 사람아. 이 조선 땅에서 누가 남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서 색시를 주려는 것은 기왕 선금으로 몸값은 반이나 받아 썼겠다, 그 쓴 돈은 우리가 갚아 주려구 하겠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이리 구나 저리 구나 해되는 것은 없거든! 그래서 색시를 내놓는 거야.

국진: 형님, 이것 보세요. 형님이 아무리 저 소를 소중히 여겨도 우리 논임자가 저걸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거기서는 묵은 도지를 어떻게든지 금년 안으로 받아 내려구 하지 않아요? 내년부터서는 무슨 법령이 갈란다구. 이런 좋은 핑계를 코앞에 두고 그 영리한 양반들이 우리 소를 제자리에 뒹 두겠어요? 썩스러운 생각이지요.

국서 아내: 참, 아까 마름이 여간 노허구 가지를 앓았다우. 그 묵은 도지 때문에.

국진: 예그, 저것 보세요. 그 악바리헌테 걸려서 큰일 났군요. 형님. 이럴 적에 맘을 똑 잘려 버려요? 네?

국서: 허긴 그래……. 묵은 도지가 걱정이야…….

국진: 그리고 어디 자기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으란 법은 없죠. 명년부터서는 남의 병작 소\*라두 먹이  
 죠. 그래두 농사짓는 덴 걱정 없지 않아요?

- 유치진 「소」

\* 도지(賭只):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진 소작료.

\* 병작(井作) 소: 어우리 소. 말아 기르는 대신 일을 시키고 나중에 팔아 얻게 되는 이익을 주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한 소.

[23001-0195]

## 01 읽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젊은 일꾼은 귀찬이가 말퐁이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 ② 국진은 국서를 위해 귀찬이의 몸값을 치르기 위한 돈을 빌리려 했다.
- ③ 국서는 귀찬이가 일본으로 팔려 간다는 소식을 귀찬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 ④ 말퐁이는 대감 나무에서 귀찬이와 대화를 나눈 일을, 개퐁이에게 털어놓았다.
- ⑤ 국서 아내는 소를 팔자는 국진의 말을 듣고 소가 주는 효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23001-0196]

## 02 ㉠~㉣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말을 자식이 하지 않은 것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다.
- ② ㉡: 뜻하지 않은 사태를 겪어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기대가 어긋나 원하지 않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 자신이 시킨 일을 자식이 제대로 행하지 않은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⑤ ㉤: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고 당혹스러워하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197]

## 03 [A]에서 ‘국진’이 ‘국서’를 설득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선택해야 하는 두 대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삼아 판단을 내리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④ 계속 입장을 고수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⑤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3001-0198]

## 04 &lt;보기&gt;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30년대 농촌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대다수의 농민들은 고액의 소작료로 인해 소작농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소작권을 매개로 한 지주 계층의 횡포를 감내해야만 했다. 「소」에서 말뚝이의 혼사와 소의 처분 문제를 놓고 국서네 집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이면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계층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농가에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던 소와, 심지어는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당시의 사회적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보여 준다.

- ① 귀찬이 아버지가 귀찬이를 ‘일본으로 팔어먹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빚을 갚기 위해 자식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삼게 될 정도로 당시의 사회적 모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군.
- ② 말뚝이가 귀찬이와 ‘같이 살자구 철석같이 약조’한 것은, 혼사 문제로 인해 벌어진 집안 내의 갈등을 이겨 내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③ 귀찬이 아버지나 국서가 납부해야 하는 ‘묵은 도지’는, 그들이 소작농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빈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겠군.
- ④ ‘소 팔어먹구 잘되는 놈의 집안은 고금에 없’다는 말을 통해, 국서가 소에 대해 경제적 가치 이상의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국진이 마름을 ‘악바리’라 지칭하고 국서의 처지를 염려하는 대목에서, 국서네가 소의 처분을 놓고 벌이는 갈등의 이면에 소작인과 지주 계층 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S# 138. 광장

연호: 내 말 들으시오. 동무들.

광장에 끌려 나온 사람들. 인민재판의 광장. 거기 잡혀 온 현, 조경태 목사, 국민회 회장—공포의 얼굴, 얼굴들.

연호: 동무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직을 이탈하고 혁명을 반대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 보여 주겠소. (돌아보며) 진행하오.

대기했던 내무서원들,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다. 두려운 얼굴, 얼굴들. 순간 무섭게 나는 몽둥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국민회 회장. 비명, 울부짖음. 싸늘하게 현의 얼굴을 주시하는 연호. 움직임 없는 현의 표정. 금세 시체가 돼서 끌려 나가는 국민회 회장. ㉠현의 얼굴에 배는 식은땀. 다음 차례 조 목사가 끌려 올라간다.

영순: 아버지— 아버지—.

미친 듯 울부짖는 영순. ㉡싸늘히 지키는 연호. 펄. 조 목사의 머리를 강타하는 몽둥이.

영순: 악— 악— 아버지잇—.

힐끗 발아래 시선 던지는 현. 기다란 그림자. 내려치는 몽둥이, 순간

현: 살인이닷. 살인이야앗—.

왈카 돌아보는 연호의 얼굴. 그 얼굴에 증오를 모은 현의 주먹이 무섭게 떨어지며

현: 이놈, 살인이닷.

픽 쓰러지는 동시에 왈카 열댓 놈. 소총을 빼앗아 드는 현. “응?” / “어?”

놀라는 얼굴, 얼굴들. 순식간에 일어난 일. 벌써 비호처럼 내뛰는 현의 모습. “핀다.” / “잡아라.”

탕—탕— 쿵전을 울리는 총성. 휘청. 다리를 맞고 쓰러진 현. 벌컥 일어나 절뚝절뚝 달린다. 벌집 쑤신 광장. 장터는 수라장.

[중략 부분 줄거리] 장터에서 도망친 현은 3·1 운동 때 아버지가 일제에 맞서다 죽음을 맞이했던 동굴로 피신한다. 연호는 현의 할아버지인 고 영감과 현의 어머니를 끌고 동굴 앞에 와서 현을 굴복시키고자 하지만 고 영감은 동굴 앞에서 현에게 이곳에서 도망을 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연호는 그런 고 영감을 총으로 쏜다.

## S# 140. 동굴 안

현: 할아버지잇—.

총을 들고 절규. 뛰어나가려는 순간, 탁 앞을 가로막는

## S# 141. 이미지

검고 크게 압박하는 ㉠그 굳은 껍질의 환영. 순간 그것은 놀랍게도 붉고 붉은 불덩어리가 되면서 화면이 깨질 것 같 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거대한 불덩어리가 하늘 가득히 확산되면서 (슬로 모션)

## S# 142. 계곡

이하 슬로 모션. 소리를 지르며 동굴에서 뛰어나오는 현. 총을 들어 쏜다. 응사하는 괴뢰군들. 한 발은 불발탄. 뛰어나오는 현. 다시 쏜다. 한 놈이 쓰러진다. 현의 어깨죽지에 한 발 맞는다. ㉢그대로 뛰어나오는 현. 또 쏜다. 또 한 놈이 쓰러진다. 연호가 쏜다. 가슴에 맞는 현. 그래도 달려 나오며 연호를 쏜다. 가슴에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연호. 여기까지 슬로 모션.

고 영감: (넘어지며) 그놈 잘한다.

토하듯 한마디. 그대로 숨진다. 비틀비틀 가슴에 피 흘러며 쓰러지는 현. (슬로 모션)

## S# 143. 이미지

확산되어 흩어지는 무수한 불덩어리의 조각. (슬로 모션)

## S# 144. 계곡

하늘을 향해 쓰러지는 현. 멀거니 뜨는 눈.

## S# 145. 이미지

확산되는 불꽃의 수많은 조각. (슬로 모션) 그 찢는 듯한 음향. 아, 거기 넓은 꽃밭. 아스라이 일어나는 뭉게구름. 백마를 타고 달려오는 현. 포진. 하늘을 향해 두 발을 들고 우짖는 백마. 창을 빗겨 든 현의 모습. 꽃밭 속을 달려오는 현 모와 영순. 아니 그것은 아름다운 천사. 현의 백마, 구름 속을 달려간다. 그 찬란한 세계.

## S# 146. 계곡

포성. 가까워진 포성.

현: 으으…….

㉣환희의 얼굴, 이제 거기 새로운 탄생.

현: 으으…….

부릅뜬 현의 눈. 저만치 거꾸로 비탈에 처박혀 죽은 고 영감. 그 아래 선조들의 선영, 아버지가 죽은 동굴. 현, 일어난다. 총을 들고 일어난다. 그것은 강인한 의지, 초능력의 새로운 힘. 일어나는 현, 대지를 곳곳이 밟는 현. 아직도 그의 손바닥엔 한 알의 탄환. 가까이 오는 포성. ㉤거기 그렇게 서 있는 현.

- 선우휘 원작, 이은성·윤삼육 각색, 「불꽃」

[23001-0199]

01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이 긴장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 인물이 비극적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냉정한 사람임을 알 수 있군.
- ③ ㉢: 인물이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④ ㉣: 인물이 자신이 벌인 행동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 인물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3001-0200]

02

〈보기〉를 참고하여 ㉠과 ㉡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불꽃」에서 고 영감은 아들이 일제에 저항하다 죽음을 맞이하자, 손자인 현에게 안온한 삶을 위해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강요한다. 현은 불의한 현실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할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현실을 외면하고 만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불의한 현실에 맞서야 한다는 의지가 안온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현의 행동은 이 작품을 행동주의 문학으로 불리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에서 이와 같은 현의 심리 상태나 행동의 심리적 동기 등은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말투 등을 통해 제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추상적 이미지를 통해 상징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 ① ㉠은 현에게 용기를 주는 대상이고, ㉡은 현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다.
- ② ㉠은 현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은 현이 느끼는 자부심을 나타낸다.
- ③ ㉠은 현의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고, ㉡은 현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④ ㉠은 현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은 현이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이다.
- ⑤ ㉠은 현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고, ㉡은 현이 죽음을 불사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23001-0201]

## 03 S# 142~S# 146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낸다.
- ② 인물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 ③ 슬로 모션을 사용하여 인물이 느끼는 절망감을 극대화한다.
- ④ 현실과 환상을 교차하여 인물의 행동에 담긴 지향을 나타낸다.
- ⑤ 이미지의 연속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23001-0202]

## 04 [A]는 원작인 &lt;보기&gt;를 각색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lt;보기&gt;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P 고을 중앙 네거리에서 열린 인민재판, 연호는 그 자리에 현을 불렀다. 현에게 피를 보이고 그 반응을 보고자 한 것이다.

예정하였던 규탄과 계획한 대로의 군중의 아우성이 쏟아지며 인간의 것이 아닌 잔인한 흥분의 도가니를 이루어 갈 때 연호는 옆에 세워 놓은 현의 얼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반드시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다. 초연히 홀로 고고하겠다는 너는 돌맹이가 아닌 이상 반드시 어떤 마음의 동요가 생길 것이다. 공포, 당황, 기겁, 애원. 그러면 너는 수월히 내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다. 그것은 굴복. 네 사설은 결국 하나의 관념의 유희.’

첫 번째의 희생자, 국민회 회장이 언도를 받자, 군중의 까닭 모를 아우성과 함께 집행자들의 손에 쥐어졌던 곤봉이, 얼굴이 거의 흙빛이 된 반백의 머리 위에 쏟아졌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 살이 떨어져 나가는 무딘 소리.

- ① <보기>와 [A]는 모두 인민재판에 회부된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보기>와 [A]에는 모두 인민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느끼는 공포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보기>와는 달리 [A]에는 현이 국민회 회장과 함께 인민재판을 받는 대상으로 그려져 있다.
- ④ [A]와는 달리 <보기>에는 인민재판을 연 연호를 향해 현이 느끼는 분노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⑤ [A]와는 달리 <보기>에는 인민재판을 연 연호의 의도가 현을 굴복시키기 위함임이 드러나 있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181. (F.) 조준구의 방**

준구: 김 생원계선 어떤 계획을 세우셨소?

김 훈장: 무기가 없으면 죽창으로라도 싸울 채비를 차려야지요.

준구: 죽창으로?!

김 훈장: 우리는 일어서야 하오.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으며 일찍이 왜란, 호란을 겪었으되 우리 주권을 빼앗긴 일은 없었소. 싸움 한번 없이 고스란히 이룰 수는 없소.

준구: …….

김 훈장: 실은 내가 여기 온 것은 다행히 조 공께서 계시니. 아니 어느 면으로 보나 조 공이야말로 지체 높으시고 우리네들과는 달라서 새로운 문물에도 통할하시고 조 공께서 재량하실 수 있는 재물도 그렇고, 달리 또 누가 적격자가 있겠소. 뭐니 뭐니 해도 우선 여러 사람이 움직이려면…….

준구: 김 생원. 아 그래 내게 의병장이 되라 그 말씀이오? 낭도들을 이끌고 산에 들어가서 개죽음을 하라 그 말씀이오? 어렵도 없는.

김 훈장: …….

뜻밖이다. ㉠부릅뜬 눈으로 조준구를 쏘아보는 김 훈장의 턱수염이 파르르 떨고 있다. 김 훈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준구: 아, 아니 왜 일어나시오? 약주나 함께.

㉡팔 잡은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가는 김 훈장.

**S# 182. 타작마당**

넓은 마당에 모인 마을의 장정들.

봉기: 그라믄 우찌되는 겁니까, 우리는.

영팔: 생원님. 나라를 빼겼으니 우리는 땅도 부치목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한조: 제사도 못 모시게 합니까?

두만 아비: 그예 상투도 잘라야 합니까?

김 훈장: 이, 이 사람들아. 그게 무슨 소린고? 이 철없는 백성들아.

김 훈장은 울음을 터뜨린다.

김 훈장: 지금 서울서는 민영환 대감이택의 마당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자결하시고 조 대감은 왜놈 헌병한테 쫓겨나다 가마 안에서 독약을 삼키고 목숨을 끊었는데 나라 잃고 일가권속 가문은 뭐 하는 것이며 땅땀기는 뭐 한단 말인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중략 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부인 홍 씨는 어린 최서희만 남기고 모든 어른이 사망한 최 참판 댁의 재물을 혈육이라는 이유로 무도하게 차지하고, 지주로 행세하며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기쁨으로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중에도 기민미\*를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높다. 용 등의 마을 사람들은 의병을 일으킬 궁리를 하고, 서울로 일하러 갔던 꿈보 목수 윤보가 돌아와 마을의 이런 사정을 알게 된다.

### S# 190. 영산댁의 주막(밤)

㉠윤보와 용은 술잔을 놓고도 먹지도 않으면서 은근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내 3: 까놓고 하는 말이지마는 우리가 머심살이보다 나올 기이 머가 있노? 아 남으 집 머심이라도 산다문 새경은 꼬박꼬박 안 나오겠나? 이놈의 세가 빠지게 농살 지어 봐야 뽀닷이\* 입치레가 될까 말까. 등 빼기는 머로 가리고 뒸노 말이다. 찬물 떠 놓고 코방아나 쫓는다문 모를까 제사고 혼사고 엄두도 못 내겼구마.

사내 4: 코방아만 쫓으라모.

사내 3: 엄두도 못 내지러. 그러니 도지 빛이고 장리 빛이고 안 낼 재주가 있나 말이다. 나중에서 가랭이가 찢어지든 말든 말이다.

사내 4: 흥. 덕분에 살찌는 놈은 조가 놈뿐이지.

사내 2: 승년 들었을 때 그만 뽀사 부리는 건데.

사내 3: 이자는 별수 없구마. 벼락이나 한분 믿어 보는 수밖에.

얼굴을 마주 보는 용과 윤보.

영팔: 머 지금도 늦었다고만 할 수도 없을 기구마.

술잔에서 얼굴을 들며 천천히 말하는 영팔. 영팔은 용과 윤보를 본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빛이라도 발하듯 번쩍한다.

### S# 191. 마을(원경, 밤)

소리 (테마 뮤직)

하나, 둘 불꽃이 핀다. 그 햇불들의 일렁임이 하나로 모여 기인 햇불 행렬을 이룬다.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햇불 행렬. 그 햇불의 물결은 반만년을 참아 왔던 무지한 농민들의 최후의 분노 같다.

### S# 192. 다리 위(밤)

다리를 덮는 햇불 행렬. 분노한 농민들의 얼굴.

### S# 193. 김 훈장의 집 마당(밤)

김 훈장이 뒷짐을 지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집들은 보이지 않고 어둠 속을 움직이고 있는 긴 햇불의 행렬이 멀리 보인다. 그 기물가물하는 햇불의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는 김 훈장의 모습. 김 훈장의 작은 눈동자에 뜨거 [A] 운 것이 흥건해진다. 그런 얼굴을 끄덕이는 김 훈장. ]

**S# 194. 최 참판가 전경(밤)**

수십 개의 홑불에 빙 둘러싸인 최 참판의 집.

**S# 195. 동대문(밤)**

안에서 대문을 열어 주는 삼수. 낫, 도끼, 쇠스랑, 대창 등 각기 연장과 홑불을 든 군중이 대문 안으로 쇠도해 들어온다. ㉠삼수를 살기등등하게 에워싸는 몇몇 장정.

윤보: 그놈으 자석, 알고도 발설 안 했이니 우찌됐던 직이지는 마라.

우루루 사랑으로 쇠도해 가는 윤보들.

**S# 196. 동 사랑 안(밤)**

흙신발째로 난입해 들어오는 장정들. 빈방, 벽장, 협실, 마루 밑을 수색한다. 준구는 없다.

**S# 197. 안채(밤)**

비단필육이며 패물들을 보자기에 싸 걸머진 장정들이 방을 나온다. 황급히 뛰어 들어오는 길상. 열어젖혀서 흐트러진 농작 반닫이 문갑들을 미친 듯이 헤치면서 무언가를 찾는다.

-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 기민미: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쌀.

\* 뽕뎨이: 간신히.

[23001-0203]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마을 사람들은 고달픈 처지를 한탄하며 빛을 내리 이웃을 찾아가기로 의논하고 있다.
- ② 마을 사람들은 조준구의 악행에 맞서 저항할 방법을 찾고자 김 훈장과 의논하고 있다.
- ③ 조준구는 무기를 들고 의병이 되어 나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 ④ 김 훈장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서고자 하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거부하고 있다.
- ⑤ 김 훈장은 조준구를 의병장에 적격이라 여기다가 스스로 의병장이 되기로 마음을 돌리고 있다.

[23001-0204]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김 훈장이 조준구의 말을 듣고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 ② ㉡: 김 훈장이 조준구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도록 지시하고 있다.
- ③ ㉢: 윤보와 용이 주막에서 사내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음을 표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 ④ ㉣: 영팔과 용, 윤보가 주막 사내들에게 품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 ⑤ ㉤: 최 참판가로 물려간 사람들이 삼수에게 가진 적개심을 표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23001-0205]

0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 181~S# 182는 김 훈장이 나라를 잃은 울분을 사람들과 만나며 표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② S# 190~S# 191은 주막에서의 대화가 계기가 되어 햇불 행렬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낸다.
- ③ S# 191~S# 192는 햇불 행렬에 나선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 ④ S# 194~S# 195는 삼수가 조준구에 대한 불만으로 햇불 군중들을 도왔음을 드러낸다.
- ⑤ S# 196~S# 197은 장정들이, 조준구와 그곳의 재물을 다급하게 찾고 있음을 드러낸다.

[23001-0206]

04 **<보기>는 소설 『토지』의 일부이다. <보기>와 [A]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집 앞에 나서서 햇불이 가는 곳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은 김 훈장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어코 일을 저지르는구나 중얼거리고 있었다.

‘머라 캬십니까. 화적 때 걸은 소행이라 말심하십니까? 그라믄 문졌심다. 서울서 우리 군사가 무기고를 부시고 왜군하고 싸질한 거는 멍니까? 그것도 화적 때 걸은 소행입니까? 하기는 왜놈들이 우리 의병들을 폭도라 칸다 캬디다마는.’

곰보 얼굴이 김 훈장 눈앞에 어른거린다.

(중략)

‘누구 재물이든 간에 고방에 썩고 있는 거를 우리 의병이 써야겠다 그겁니다. 싸이란 크나 작으나 배고파도 못 하고 빈주먹으로도 못 하니께, 동네 사람 인심이 딱 일하기 좋게 돼 있고 그동안 일이 되저시리 다 꾸미 뵈이니께, 임실 순창에는 의병들이 모이 있고 우리가 가믄 합세하게 딱 그리 돼 있다 그 말심이요. 머 이런 일을 경영한다고 해서 잃은 나라를 당장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왜군이 물러갈 기라는 생각도 없십니다만 부모가 돌아가시도 곡을 하는 법인데 나라가 죽은 거나 진배없으니, 자결[自決]을 하는 것도 충절이겠지마는 죽기로 작정하고 싸우 보는 기이 지금은 도리가 아니겠십니까. 이분에 우리 군사들도 이길 기다, 살아남을 기다 하는 생각으로 왜군하고 대적한 거는 아니니께요.’

이제는 지나가는 햇불도 없다. 어둠이 있을 뿐이다. 김 훈장은 돌부처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선택은 끝난 뒤다. 화적 때 같은 소행이라고 끝내 노여워하고 반대했던 일은 지금 저질러지고 있다. 그러나 김 훈장은 그들과 함께 이곳을 떠날 것이다.

- 박경리, 『토지』

- ① <보기>는 [A]와 달리 햇불 행렬에 가담한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보기>는 [A]와 달리 김 훈장과 햇불 주동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보기>는 [A]와 달리 김 훈장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보기>와 달리 김 훈장이 햇불 행렬의 뜻에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보기>와 달리 김 훈장이 햇불 행렬을 보며 느끼는 감정의 고조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여관을 나섰다. 저녁을 먹고.

이 경주는 벌써 두어 번이나 본 곳이지만 지금도 처음 보는 것같이 모든 것이 새롭고 이상하게서리 생각한다. 판은 온종일 차에 시달려 온몸이 아니 피곤한 건 아니나 방 안에 누워 있기는 싫고 자꾸 밖으로 밖으로 나가고만 싶다.

여관 옆에는 새로 난 요릿집이 있어 장구 소리와 노랫소리가 난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 보았  
[A] 다. 경주다운 노래나 아닌가 하고, 그러나 나의 요구와는 아주 다르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근  
래 유행하는 노래 그것이다. 실패다. 다른 데로 나가 볼 수밖에 없다.

침침한 좁은 골목을 나서 제법 전등깨나 켜 있는 큰길로 걸어갔다. 좌우에 있는 상점, 포목점, 잡화  
점, 사기점, 철물점, 과자점 따위가 역시 일인(日人)이 아니면 지나인(支那人)\*의 것이고 물러 터진 감,  
[B] 능금, 배나 그 옆에 몇 개 놓고 파는 것만은 그들이 아니다. 하나 어느 것이든지 거기에는 먼지 하나 움  
직이지 않고 전등은 가물가물하고 상인은 졸고 있고 이따금 어디서 쿨룩쿨룩 기침 소리만 날 뿐이다.

나는 봉황대로나 올라갈까 하고 발을 멈추고 망설이다가는 다시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점점 전과  
같은 가로(街路)도 아니고, 상점도 없고, 부조화하여 보이는 일본집 또는 고옥과 공지가 보이고, 흰 저고리  
검정 치마 입은 젊은 여자 오륙 인이 길에 서서 가는 웃음을 치며 소곤소곤하고, 머리 땅은 총각 상투 꼬은  
늙은이 몇 사람은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간다. 나도 그 뒤를 따라간다. ㉡이제는 인가도 드물고 뱃논,  
콩밭, 수수밭 가운데 커다란 신작로만 고요히 누워 있는 곳이다. 나는 이곳에 서서 사면을 둘러보았다. 멀  
리 둘러 있는 산과 산이며 전등이 가물거리는 시가며 동긱동긱한 봉화대들이며 또는 계림이며 침성대며 반  
월성이며 안압지며 그 한편의 빈 들판들을, 그리고 동천에 떠오르는 저녁달을 바라보았다.

이때 이 달은 다만 나를 위하여 비쳐 주는 것 같다. 어찌나 그리도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때까지 보던  
달에는 이때 이곳에서 본 달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달이 없었다. 다만 밝다, 아름답다는 간단한 말로는 도  
저히 형용할 수 없다. 아무리 표정을 잘하는 미인이라도 이때 이 달과 같은 얼굴은 할 수 없으리라고 했다.

생각하면 육부(六部)\*의 여자가 한가위 놀이를 하던 달도 저 달이요, 태종 무열대왕과 문명 황후의 사랑  
이 열매를 맺게 하던 달도 저 달이요, 천삼백육십 방(坊)\* 십팔만 호(戶)에 비치던 달도 저 달이요, 임해전  
놀음에 밤 가는 줄을 모르게 하던 달도 저 달이요, ㉣“동경 밝은 달에……” 하고 처용이로 하여 노래를 부르  
게 하던 달도 또한 저 달이 아닌가.

과연 저 달을 어디에다 비할까. 심양강 상(上)에나 회수 동변(東邊)에 비치던 달로도 비할 수 없는 저 달이다.

과거의 경주에 비친 달도 그렇고 장래의 경주에 비칠 달도 이리하다면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한 저 달  
[C] 이 그 얼마나 무한한가. 저 달을 보는 이때에 그 무한한 느낌을 아니 가질 수 없으며 백 년의 인생이나  
천 년의 신라도 한 찰나에 지나지 못함을 알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저편에서 남자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나더니,

“……이것이 인생이 아니고 무언가.”

하는 여자의 말만 분명히 들리며 어떤 청년 하나 이 여자의 손목을 잡고 내 옆으로 살짝이 비껴서 지나간다.  
그리고는 다시는 오고가는 이도 보이지 않고 달만 달만 한 모양으로 보인다.

나는 처음 오는 이 길이 아무 굴곡도 없고 고하도 없고 가도록 한 모양으로 평탄하여 가기가 싫으나 그것이 얼마나 연장이 되었나, 그 그치는 곳까지 가서 보리라 하는 희망에 끌려 앞으로 다시 발길을 내디뎠다.

Ⓣ 또 콩밭, 수수밭, 벼논을 밟을 지났는지 알 수 없고 수없는 벌레 소리는 요란히 들린다.

가 보니 탄은 머잖은 길이다. 바로 넓은 백사장 하나가 보이고 그 건너는 거뭇한 숲과 조그마한 산이 가로 막혀 있고 백사장 한편에서는 불빛이 반짝이고 여러 사람의 떠드는 소리며 북장구, 노랫소리가 난다. 아하, 이것이 북천(北川) 내인가, 씨름판이 아닌가. 올해는 풍년이라 풍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근처 농민들이 모여 북천 내에 씨름판을 열었다 함은 이 경주를 찾아올 때 차 속에서 누구에게든 들은 법하다. 옳지, 이것이 그것이다. 나는 일종 새로운 흥미를 일으켜 우선 그 씨름판을 향해 간다.

백사장으로 보이던 곳은 사뭇 조약돌 판이다. 한편에 물이 좀 흐르는 듯 마는 듯하고는 반들반들한 조약돌뿐이다. 한참 밟아 가니 발이 아프다. 거의 숲이 있는 데까지 가서야 씨름판이 나선다.

씨름판은 한가운데에는 모래를 듬뿍 깔아 놓고 그 가장자리로는 뽕 둘러앉은 이, 선 이, 수가 없으며, 기다란 횃불을 잡은 두 사람이 양쪽에 하나씩 서서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서는 이가 있으면 횃불을 내 돌려 쫓아내기도 하며, 한쪽에는 높이 시령을 매어 놓고 그중 특수한 이가 그 위에 앉은 모양이며, 씨름 [D] 은 아무나 자원대로 나와서 하며, 이긴대야 나중 결승하는 날이 아니면 상품은 아니 준다 하는데 씨름꾼은 대개 상투쟁이가 아니면 머리 땅은 총각들이다. 구경하러 온 이도 또한 그런 이들이고 간혹 기생을 데리고 온 양복쟁이 몇 사람이 있을 뿐이다. 순 경주 사투리를 써 가지고 함부로덤부로 떠드는 소리는 귀에 설기는 하지만 토속 연구의 재료로는 이 밖에 다시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옆으로는 좌우로 나가며 가갯막\*을 벌여 놓고 음식도 팔고 잡화도 팔고 가지가지 오락도 한다. 이렇게 하여 밤을 새우고 낮을 이어 삼사일 동안을 보내는 것이다.

씨름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 보기에는 썩 단순하다. 원시적 유희라, 향촌의 농민들이 오월 단오 팔월 추석 같은 명절을 당하여 일반적으로 하던 유희라, 아무 설비도 없이 간단히 되는 유희라, 이 유희 [E] 야말로 농민에게는 가장 합리적으로 된 것 아닌가. 나는 이 씨름을 단원(檀園)의 풍속화에서 보았고 그 실물은 지금 여기서야 보게 된다. 다른 경기장에 가서 얻은 감상으로는 여기에 비길 수 없다. 씨름, 단순한 그것이 좋아 보인다. 천진스러워 보인다. 순박한 농민의 성격이 그대로 잘 드러나 보인다.

나는 다시 조약돌 판으로 나와 이리저리 어정이었다. 달은 중천에 떠 있다. 나를 따르는 이는 다만 나의 그림자만이다.

- 이병기, 「경주의 달밤」

\* 지나인: 중국 국적을 가진 한족, 몽골족, 터키족, 티베트족, 그리고 만주족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육부: 신라 때에, 씨름을 중심으로 나는 경주의 여섯 행정 구역.

\* 방: 부(部)를 다시 나는 행정 구역.

\* 가갯막: 허름하게 대강 엮어 임시로 만든 집.

[23001-0207]

## 01 읽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씨름판 주위에 며칠 동안 머물며 여러 가지 오락을 즐겼다.
- ② 밤에 산책을 나선 글쓴이는 논밭 사이의 신작로를 따라 봉황대 쪽으로 걸어갔다.
- ③ 백사장으로 보이거나 실제로는 조약돌이 깔린 길을 한참 걸어 글쓴이는 씨름판에 도착했다.
- ④ 산책 중에 우연히 만난 청년과 여자의 뒤를 따라 걷다 보니 글쓴이는 어느새 북천에 도달했다.
- ⑤ 농민들이 풍년을 자축하는 씨름판을 벌인 이야기를 글쓴이가 처음 들은 것은 경주를 떠날 때였다.

[23001-0208]

##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순을 도치한 문장을 통해 앞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일의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구체적 사물을 추상적 관념에 빗댄으로써 시가지를 벗어난 공간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과거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경주에서 보는 달을 예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인용한 내용을 활용한 설의적 표현으로 경주에서 달을 보는 감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경주의 낮선 밤길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3001-0209]

## 03 <보기>를 참고하여 [A]~[E]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경주의 달밤」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에 경주를 여행하고 쓴 기행(紀行) 수필이다. 글쓴이가 어떤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갈래인 기행 수필은 특별한 형식적 제약은 없지만, 대체로 글쓴이의 여정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또 글쓴이가 묘사한 여행지의 자연과 사회의 모습에는 당대의 시대상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때가 많으며, 그에 대한 사색, 감상, 평가에는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① [A]: 요릿집에서 흔한 유행가가 들리는 것에 실망하고 다른 곳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통해 경주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B]: 골목을 벗어나 큰길로 접어드는 여정을 따라 활기를 잃은 거리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일제 강점기의 경제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환기하고 있군.
- ③ [C]: 달을 보면서 시간의 면면한 흐름을 떠올림으로써 자연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인간사가 짧고 덧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군.
- ④ [D]: 백사장에서 본 사람들에 대한 서술을 통해 씨름판 주위에는 서구적인 차림새의 인물보다 전통적인 머리 모양이나 복색을 한 이들이 더 많이 모이던 1930년 당시 문화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E]: 씨름의 특성이 민중의 순박함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 주목하여 씨름을 풍속화의 소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에 드는 별이 어느덧 봄이다.

봄은 맑고 고요한 것. 비원의 가을을 걸으며 낙엽을 쥐어 본 것이 작년이란 말인가. 나는 텃마루에서 봄별을 쫓으며 비원의 가을을 연상한다. 가을이 가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가을 위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온 것이다. 그러기에 지나간 가을은 해가 멀어 갈수록 아득하게 호수처럼 깊어 있고, 오는 봄은 해가 거듭될수록 쌓이고 쌓여 더욱 부풀어 가지 않는가.

나무는 해를 거듭하면 연륜이 하나씩 늘어 간다. 그 연륜을 보면 지나간 봄과 가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둘레에 남아 금을 긋고 있다. 가을과 봄은 가도 그들이 찍어 놓고 간 자취는 가시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도 흰 터럭이 하나하나 늘어 감에 따라 지나간 봄과 가을이 터럭에 쌓이고 쌓여 느낌이 커 간다.

꽃을 보고 반기는 소녀의 봄은 꽃뿐이지만, 꽃을 캐는 소녀를 아울러 봄으로 느끼는 봄은 꽃과 소녀들이다.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 [A] 있는 홀겁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 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 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 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많이 가져 본 봄이 또 하나는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십 리고 이십 리고 가서 뒤를 돌아다보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다보는 경치가 걸어올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

뜰 앞에 한 그루 ㉠ 밀감나무가 서 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흐른다. 미구에 잎이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서쪽 가지에서는 소식이 없다. 나무의 절반은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에 봄은 올 리 없다. 지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결만 남았을 때, 혹 죽지나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결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 가지의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겨울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낸다.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다만 봄은 나를 잊지 않고 몇 번이라도 찾아와 세월을 깨우쳐 주었지만, 둔감과 태만이 그를 저버린 채 헛되게 늙은 것이 아쉽고 한스러워 다시 찾아 주는 봄에 죄의식조차 느낀다. 그러나 이제 발버둥쳐 봐도 미칠 수 없는 일, 고요히 뜰 앞을 거닐며 지나간 봄의 가지가지 추억과 회상에 잠겨 보는 것이다. 오늘날과 주위는 말할 수 없이 고요하고 따스한 햇빛이 백금처럼 빛나고 있다.

- 윤오영, 「봄」

[23001-0210]

## 0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이 가진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원관념이 지닌 추상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니 것이다’와 같은 어구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글쓴이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3001-0211]

## 02 ㉠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를 살리지 못하는 존재라 해도 봄이 되면 결국 잎이 퍼지고 꽃을 피울 것이다.
- ② ‘동쪽 가지’의 푸른 생기는 ‘밀감나무’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염려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 ③ ‘잎이 다 떨어지고’ 남은 ‘검은 등걸’을 보며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을 것을 예상했다.
- ④ ‘같은 나무’에서 서로 다른 생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처해 있는 환경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 ⑤ ‘파릇파릇’ 돌아나는 싹을 통해 알 수 있는 ‘동쪽 가지’의 인내와 의지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23001-0212]

03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을이 가고 봄이 온 것’이 아니라 ‘가을 위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온다는 것은, 시간이 그저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절 위에 다른 계절이 오는 것과 같이 축적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군.
- ② ‘흰 터럭’이 ‘늘어 감에 따라’ 지나간 시간이 터럭에 쌓인다는 것은, 나무의 연륜처럼 시간의 자취가 가시지 않고 기록되어 간다는 의미이겠군.
- ③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다는 것은 긴 과거로 인해 오늘이 커지는 것과 같이 시간의 축적으로 인한 삶의 풍요로움을 뜻하는 것이겠어.
- ④ ‘거친 모래알’만 쥐어지는 것에 대해 슬프다고 표현한 것은 나이 들어 가며 더 이상 많은 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고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은, 삶에 대한 의미 부여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겠군.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 집에는 **자그마한** 뜰이 있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다는 기쁨보다도 무언가 심고 가꿀 수 있는 몇 평의 땅이 생겼다는 기쁨이 내게는 더 컸다. 그곳엔 이미 목련, 라일락, 감나무, 대추나무, 장미 등이 [A] 한두 그루씩 심어져 있었다. 그 나무들이 서로 썩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그늘을 만들며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 나무들은 이제 내 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그 나무들을 돌보았다.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부실한 감나무 아래에는 거름을 넉넉히 넣어 주고, 옷자란 라일락 가지들은 전지를 해 주고, 장미는 베란다 쪽으로 넝쿨을 올려 주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쥐똥나무 울타리를 가지런하게 잘라 주는 일도 잊지 않았다. 반 넘게 말라 버린 목련 나무는 남은 부분을 살려 내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겨울을 보내고 난 어느 날 마른 가지 위로 ㉠**단 한 송이의 목련이 피어났을 때**, 내게는 그 한 송이가 다른 뜰의 수백 송이 꽃보다 더 눈물겹게 아름다웠다.

나무에 쏟은 내 정성도 적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나무들이 내게 준 위안과 기쁨은 그보다 훨씬 컸다. 그 그늘 아래서 풀을 뽑아 주고 벌레를 잡아 주고 있노라면 시름도 불안도 그렇게 뜰 밖으로 던져지곤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어디론가 자꾸만 달아나려는 내 마음을 그 뿌리들 속에 붙잡아 매려는 **안간힘**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토록 나무 몇 그루에 애착을 넘어서 **집착**을 보였겠는가. 몇 송이의 꽃과 몇 줌의 열매, 그리고 향기와 그늘을 내어 주던 그 나무들이 내게는 하나의 **피난처**처럼 느껴지던 무렵이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나에게 그런 그늘과 향기를 준 사람,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여기에 처음 심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을 떠올렸다. 프로방스 지방의 황무지에 하루도 쉬지 않고 떡갈나무와 자작나무를 심었던 엘제아르 부피에. 아내와 아들을 잃은 그가 참담한 고독 속에서 뿌려 낸 씨앗은 황무지를 **풍요로운 숲과 마을**로 변화시켜 놓았다. 자신이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그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버텨 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나무 심는 일을 선택했던 것이다. [C]

이처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당장 자기가 무엇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 훗날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나무를 가꾸는 동안의 수고로움 역시 그 아름다움이 곧 자기의 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나무보다 아름다워지는 때가 있다면 바로 그런 순간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덜 불행해지려고 나무를 가꾸었던 것 같다. 마음에 잔뜩 품고 있는 독을 중화시키고 내 병을 대신 앓게 하려고 그 푸른 것들에 머물렀던 것만 같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처음 그 나무들을 심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 집착의 뿌리를 서서히 더듬기 시작했다.

[D] 그런데 뜰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 버리기도 전에 우리 식구는 그 집을 떠나게 되고 말았다. 일 년 남짓이나 살았을까, ㉡**갑자기** **닥친** 빛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포기가 안 되는 것은 집보다도 그동안 정들여 키운 나무들이었다. 그 봄날 내 주머니에는 삼만 원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무슨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나는 나가서 이만 오천 원 하는 ㉢**살구나무 한 그루**를 사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이만 오천 원짜리 ‘희망’ 한 그루를 내 뜰에 옮겨 심고 싶었으리라. 그 살구나무 한 그루를 땅에 꽂음으로써 스스로를 버려 내고 싶었으리라.

나는 그제서야 엘제아르 부피에를 이해할 것 같았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엘제아르 부피에로 하여금 나무를 심게 한 것은 어떤 거창한 목표나 선견지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과 고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간절히 믿고 싶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은 떡갈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살구나무 한 그루가 잘 커 나가기를.

살구나무 묘목에는 벌써 ㉠ 흰 꽃망울들이 자잘하게 맺혀 있었다. 그러나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렸는지 꽃망울들은 활짝 펴 보지도 못하고 땅에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말았다. 우리 식구는 결국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 집을 떠나게 되었고, 살구나무는 거기 남게 되었다. 이삿짐을 싣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본 살구나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도 모르게 눈에 그렁 고이던 눈물. 돌아올 거라고, 다시 돌아와 얼마나 자랐는지 만져 볼 거라고 중얼거리며 돌아서던 내 뒷모습을 그 나무는 보고 있었을까.

그 후로 마치 식구 하나를 남겨 두고 온 것처럼 이따금 그 나무의 안부가 궁금해지고는 한다. 처음엔 과일 가게에서 ㉡ 노란 살구를 보고도 마음이 울컥해서 한참을 그 앞에서 머뭇거린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그 뜰에서 멀어질수록 살구나무 생각이 그리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지금쯤 꽃이 피었겠지…… 올해는 그래도 열매를 꽤 달지 않았을까…… 꼭 내 뜰에서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잘 뿌리 내려 꽃과 열매를 전해 주기를……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고 서늘하게 만들어 주기를…… 그래야 너와 더불어 살던 이만 오천 원짜리 내 희망도 곳곳하게 살아 있을 테니까.

조그마한 뜰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모든 땅이 내가 씨 뿌리고 일구어야 할 터전임을 알게 되었다. 그토록 편애하던 나무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더 많은 나무들을 얻게 되었다. 이제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나무들이 내 나무인 것 같다. 아니 죽어 가는, 죽어 있는 나무들조차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산 나무와 죽은 나무의 향기. 그것은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기이면서 동시에 나무를 심고 만지는 인간의 손끝에서 나온 향기이기도 하다. 내가 떠나온 집,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남아 햇빛을 향해 몸을 기울일 것이기에.

- 나희덕,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23001-0213]

## 01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특정 장소에 속한 소재들을 나열하여 그 장소가 주는 느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B]: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내면적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 ③ [C]: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하여 특정 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④ [D]: 시간의 순서에 따라 경험을 서술하여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3001-0214]

##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쓴이가 아끼던 나무를 힘겹게 살려 내어 얻은 결과이다.
- ② ㉡: 글쓴이가 자신이 가꾸던 뜰을 더 이상 소유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이다.
- ③ ㉢: 집을 포기하게 된 상황에서 글쓴이가 희망을 지켜 내고자 마련한 대상이다.
- ④ ㉣: 이사를 앞둔 글쓴이에게 시련을 견뎌 보람을 깨닫게 해 준 계기이다.
- ⑤ ㉤: 글쓴이가 두고 온 나무를 상기하고 그리움을 느끼게 한 매개물이다.

[23001-0215]

## 03 &lt;보기&gt;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나무를 심은 사람』의 엘제아르 부피에는 좌절을 겪고 30여 년 동안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면서 주위의 부정적 상황이나 수차례의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가치 있는 일에 더욱 몰두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의 글쓴이는 이러한 그의 이타적 삶을 떠올리고, 이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과 한 사람의 고결한 삶이 다른 존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면서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 ① 글쓴이가 ‘자그마한 뜰’에서 나무들을 가꾸기 시작한 이유는, 고결한 삶을 살았던 엘제아르 부피에의 행동을 본받고 싶었기 때문이겠군.
- ② ‘풍요로운 숲과 마을’은, 부정적 상황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엘제아르 부피에가 주위에 끼친 선한 영향력의 결실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엘제아르 부피에로 하여금 나무를 심게 한 것이 ‘절망과 고독’이라는 것은, 좌절의 경험이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글쓴이가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고 서늘하게 만들어 주기를’ 살구나무에게 바라게 된 것은, 자신의 것에 집착하던 모습을 반성하고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이겠군.
- ⑤ ‘모든 땅이 내가 씨 뿌리고 일구어야 할 터전’이라는 것은, 자신과 연결된 존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힘쓰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헛된 명예 이루려 조급하게 살지 않고  
 평생 동안 수운향\*을 좇으며 살아가네  
 넓은 호수에 봄은 따사로워 안개가 천리에 퍼지고  
 예스런 언덕에 가을은 높아 달이 한 척의 배로구나  
 자줏빛 거리\*의 흥진엔 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니  
 초록빛 도롱이에 샷갓으로 함께 걷고 함께 사라지네  
 뱃노래 한 가락이 흥취에 젖었으니  
 어찌 인간 세상 옥당 벼슬 부러워하겠는가

不爲浮名役役忙  
 生涯追逐水雲鄉  
 平湖春暖煙千里  
 古岸秋高月一航  
 紫陌紅塵無夢寐  
 綠蓑青蓑共行藏  
 一聲欸乃歌中趣  
 那羨人間有玉堂

— 설장수, 「어옹(漁翁)」

\*수운향: 호숫가나 바닷가에 위치하여 풍경이 그윽한 지방.

\*자줏빛 거리: 벼슬아치들이 자줏빛 의관을 한 채 다니는 거리로서, 도성의 거리를 뜻함.

나 어떤 지날 손[客]이 성산(星山)에 머물면서  
 서하당(棲霞堂) 식영정(息影亭) 주인아 내 말 들소.  
 인생 세간(世間)에 좋은 일 하건마는  
 어찌한 강산을 갈수록 낫다 여겨  
 적막 산중에 들고 아니 나시는고  
 송근(松根)을 다시 쓸고 죽상(竹床)에 자리 보아  
 잠깐 올라앉아 어떤고 다시 보니  
 천변(天邊)에 뗏는 구름 서석(瑞石)을 집을 삼아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과 어떠한고  
 창계(滄溪)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돌렸으니  
 천손운금(天孫雲錦)\*을 누라서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치는 듯 헌사하기도 헌사할샤  
 산중에 책력(冊曆) 없어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눈 아래 헤친 경(景)이 철철이 절로 나니  
 듣거니 보거니 얼마다 선간(仙間)\*이라  
 매창(梅窓) 아침 별에 향기에 잠을 깨니  
 선옹(仙翁)의 할 일이 곧 없도 아니하다  
 울 밑 양지 편에 외씨를 뿌려 두고  
 매거니 돋우거니 비 온 김에 다루어 내니  
 청문고사(靑門故事)를 이제도 있다 하리  
 망혜(芒鞋)를 죄어 신고 죽장(竹杖)을 흘짚으니

도화(桃花) 핀 시내 길이 방초주(芳草洲)에 이었어라  
 닳고 닳은 명경(明鏡) 중 절로 그린 석병풍(石屏風)  
 그림자 벗을 삼아 서하(西河)로 함께 가니  
 도원(桃源)은 어드메오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중략)

공산(空山)에 쌓인 잎을 삭풍(朔風)이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天公)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萬樹千林)을 꾸며곰 내었도다  
 앞 여울 덮어 얼어 외나무다리 비졌는데  
 막대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山翁)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萬古)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聖賢)도 많거니와 호걸(豪傑)도 많고 많아라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과 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허유(許由)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 대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어느 만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거문고 줄에 얹어 풍입송(風入松) 타자꾸나  
 손인동 주인인동 다 잊어버렸어라  
 공중에 떴는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瑤臺) 월하(月下)에 행여 아니 만났는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 천손운금: 직녀가 짠 구름 같은 비단.

\* 선간: 신선이 사는 세계.

\* 경요굴: 아름다운 구슬로 만들었다는 달나라의 동굴.

㉠ 무릉도원 얘기를 전하는 도연명이 복사꽃 지천으로 피는 마을의 복숭아나무 집 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부질없는 공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 종달새도 뜨지 않고 꽃나무도 없는 삭막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어린이가 뒷날 구상할 낙원을 상상해 본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자연이 없는 인공 낙원은 편리할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마음의 고향은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내 자신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낙원에서 만발하는 봄꽃은 살구꽃이다. 우리가 구차했던 시절, 고향의 4월을 그나마도 살 만하게 했던 것은 여기저기 뭉게구름처럼 뭉그렇게 피어 있던 그 살구꽃이었다. 그리고 그 살구나무 아래 섰을 때 온통 머리를 취하게 했던 꿀벌 소리였다. 살구꽃이 없는 낙원은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낙원처럼 벌써 ‘낙원’이 아니리라.

내 낙원의 길가에는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것은 플라타너스도 아니고 은행나무도 아니다. 현사시나무는 더더구나 아니다. 그것은 바람에 나부끼는 키 큰 미루나무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재목으로 쓸모없다 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누가 뭐라건 내 낙원의 가로수는 단연코 미루나무이다. 집을 나서서 무작정 표표히 길을 떠나고 싶었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그때 남북으로 뻗어 있는 신작로에서 어서 오라고 이파리를 흔든 것이 미루나무였다. 미루나무는 나그네의 훌훌함과 설움을 아는 고향의 바람잡이였다. 고향 마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중략)

나의 낙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새소리가 흔하다. 종달새라고 하기보다 노고지리라고 적는 것이 더 어울리는 저 초봄 새의 지저귀이 떠오른다.

보리 이삭 돌아나면 / 종달새 간다지 / 떠나는 그날에도 / 보리피리 불어 주마

보리밭 가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시절이 다시 올 리는 없다. ㉢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반 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험난한 세월이 안겨 준 쓴잔의 뒷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초봄의 노고지리와 초여름의 빠꾸기, 그들 없이 나의 낙원은 완결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있다. 소리보다도 모양으로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장식했던 여름철의 황새와 가을날의 기러기 떼. 이들이 낙원을 떠난 지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나의 낙원에는 또 강이 흐르고 모래톱이 있다. 모래톱에서 만리성을 쌓은 적이 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쌓으며 험하며 긴 만리성을 쌓았다. 또 강가에서 팔매질을 하였다. 멀리 가는 것이 미래의 행복의 지표인 양 던지고 또 던지곤 하였다. 회수할 길 없는 팔매돌과 무너진 지 오래인 성벽을 나의 낙원은 지금껏 간수하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여기까지 적고 보니 나의 낙원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다. 냉장고가 없고 자동차가 없고 아스팔트가 없다. 있는 것은 푸른 하늘과 청명한 나날과 맑은 공기와 구차한 이웃들뿐이다. 노고지리 뜨는 보리밭과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몸이 기울어진 미루나무와 나룻배가 떠 있는 강물이 있을 뿐이다. 낙원의 구상은 아무래도 고향과 어린 시절의 재구성임을 면치 못하는 것인가 보다.

- 유종호, 「고향」

[23001-0216]

##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중 인물의 삶을 본받아서 것처럼 살아 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② 긍정적인 인물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화자의 어조가 드러난다.
- ③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작중 인물의 삶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 ④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이 투영된 역사적인 인물을 동경하는 화자의 시선이 드러난다.
- ⑤ 과거의 결핍된 삶에 견주어 현재의 삶을 다행스러워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23001-0217]

## 02 (가)의 사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행과 제2행에는 부정어를 매개로 인물이 멀리하는 삶과 실제로 영위하는 삶이 각각 나타난다.
- ② 제3행에 형상화된 계절과 제4행에 형상화된 계절의 이미지가 상반되면서 분위기의 대립이 나타난다.
- ③ 제5행의 부정적 대상과 제6행의 긍정적 대상이 다른 색채로 이미지화되어 서로 대응된다.
- ④ 제7행에서 묘사된 시적 정황이 제8행의 정서 표현과 조응을 이루면서 시의 주제가 부각된다.
- ⑤ 제1행의 추상적인 시어가 제8행에서 유사한 의미의 다른 시어로 표현되면서 사상의 안정감이 강화된다.

[23001-0218]

## 03 (나)의 **손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은 주인을 경원시하다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계기로 그 주인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 ② 손은 주인의 정체를 몰라서 불안감을 느끼다가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의 삶을 동경하게 된다.
- ③ 손은 주인에게 경쟁의식을 갖지만 주인의 경지에 압도당하면서 그가 우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 ④ 손은 주인의 삶을 의아해하다가 그가 느끼는 일상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그 삶을 수궁하게 된다.
- ⑤ 손은 주인과 상반된 삶의 가치를 옹호하다가 주인의 실제 삶을 목격하고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23001-0219]

## 04 (다)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체험에 대해 상반된 가치를 부여하여 대조한 후 이를 종합하고 있다.
- ② 심리적 갈등의 발생과 전개, 해소에 이르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장소를 이동하는 순차적인 여정에 따라 인상적인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소재들을 이미지를 중심으로 병렬한 후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⑤ 두 사건의 비교를 통해 그 공통점을 찾아가는 단계적 사고 과정을 논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3001-0220]

## 05 문맥을 고려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이 만든 경치를 통해 각 계절의 풍취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서, 산중에서 책력을 굳이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을 암시한다.
- ② ㉡: 산옹이 누리는 즐거움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을까 봐 우려한다는 뜻으로서, 산옹이 누리는 삶에 대한 옹호에 해당된다.
- ③ ㉢: 수많은 호걸들의 흥망에 담긴 비밀을 술을 마시며 깨달았다는 뜻으로서, 손이 흥망을 초월한 산옹의 삶을 오랫동안 선망해 왔음을 알려 주는 표지이다.
- ④ ㉣: 글쓴이가 자연이 없는 낙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는 뜻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구상하는 낙원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반영된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
- ⑤ ㉤: 어린 시절의 삶을 아름답다고 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를 온전한 낙원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험난한 삶을 살았다는 점을 함축한다.

[23001-0221]

## 06 &lt;보기&gt;를 바탕으로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삶과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이다. 작가 또한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축이나 '이곳'과 '저곳', '그곳' 등으로 구별되는 공간의 축을 바탕으로 작품의 구도를 짠다. 시간과 공간의 축들은 서로 직조되기도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의 세 축은 하나의 시간으로 묶여 통합적으로 제시되면서 그 구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시간과 공간의 축을 바탕으로 작품에 접근하면 화자나 인물의 삶과 정서를 더욱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어옹이 머무는 공간을 '평생 동안'이라는 시간 지표와 직조함으로써, 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삶의 깊이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 ② (나)에서는 '도화' 등으로 표상되는 봄과 '눈'으로 표상되는 겨울의 풍경을 모두 현재형 시제로 진술함으로써 두 계절 간 시간의 차이를 없애고 하나의 시간으로 묶여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③ (다)에서는 과거의 공간인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누린 자연환경에 대한 기억을 가상적 '낙원'에 전이시킴으로써 그 공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④ (가)에서는 '수운향'과 '자줏빛 거리'를, (나)에서는 '인생 세간'과 '적막 산중'을 대비하는 공간적 구도를 통해, 화자가 목도하고 있는 인물의 평화로운 삶이 지닌 가치를 각각 부각하고 있군.
- ⑤ (나)에서는 '주인'이 현재 머무는 공간을 '선간'에 빗댄으로써, (다)에서는 글쓴이가 현재 회상하는 과거의 공간을 '낙원'에 빗댄으로써, 그곳을 어떤 결핍도 없는 이상향적 공간으로 미화하고 있군.

##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내 몸의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라 <제1수>

내가 한 일 망령된 줄을 나라고 하여 모를쓴가  
이 마음 어리석음도 님 위한 탓이로세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님이 헤아려 보소서 <제2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울어 예는 저 시냇물아  
무엇을 하려고 주야로 흐르느냐  
㉠ 님 향한 내 뜻을 좇아 그칠 때를 모르는도다 <제3수>

피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나니 <제4수>

아버이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건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게 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不孝)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나 하루는 나귀를 탄 한 소년이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관아의 문밖에 와 감사 뵈기를 청했다. 감사가 들어오라 하니 그 소년이 마루 위에 올라와 절하며 인사를 올리거늘, 감사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향시 기 다리던 길동이였다. 크게 놀라고 기뻐 좌우를 물리치고 그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길동아, 네 한번 집을 나간 후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여 아버님께서 병이 깊어지셨거늘, 너는 갈수록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나라에 큰 근심이 되니, 네 무슨 마음으로 불충불효를 행하며, 또한 도적이 되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냐? 이런 이유로 전하께서 진노하시어 나에게 너를 잡아들이라 하셨으니, 이는 피하지 못할 일이라. 너는 일찍 서울로 나아가 전하의 명을 순순히 받으라.”

말을 마치자 눈물이 비 오듯 흘렀다.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기를,

“제가 여기 온 것은 아버님과 형을 위태로움에서 구하고자 함이니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대저 대감께서 당초에 천한 길동을 위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도록 하셨던들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지난 일은 말해 봤자 쓸데없거니와, 이제 아우를 결박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소서.”

하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도 장계를 지어 길동의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족

쇄를 채워 수레에 싣고, 건장한 장교 십여 명을 뽑아 죄인을 호송하게 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게 하니, 각 읍 백성들이 길동의 재주를 들었는지라, 잡혀 온다는 말을 듣고 길을 메울 정도로 나와 구경했다.

이때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올리니, 조정과 장안의 백성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누가 길동인지 알 사람이 없었다. 임금께서도 놀라 신하들을 모두 모으고 친히 심문하고자 하셨다. 여덟 길동을 잡아 올리니, 저희끼리 서로 다투며 아뢰기를,

“네가 진짜 길동이요, 나는 아니라.”

하며 싸우니 누가 진짜 길동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임금께서 괴이하게 여겨 즉시 홍 아무개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들 알아보는 데는 아버지만 한 사람이 없다 하니, 저 여덟 중에서 경의 아들을 찾아내라.”

홍 공이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청하며 말하기를,

“신의 천생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사오니 이를 보면 알 것이옵니다.”

하고, 여덟 길동을 꾸짖었다.

“네 지적에 임금님이 계시고 아래에 아버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까워 하지 말라.”

홍 공이 피를 토하고 엎어져 기절하니, 임금께서 크게 놀라 약원에게 구하도록 하셨으나 차도가 없었다. 여덟 길동이 이 광경을 보고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환약을 한 개씩 꺼내어 입에 넣어 드리니, 홍 공이 만나절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중략)

길동이 초인을 없애고 두루 다니다가 사대문에 방을 붙였다.

요신 홍길동은 아무리 해도 잡지 못할 것이나, 병조 판서로 임명하시면 잡힐 것입니다.

임금께서 그 방문을 보시고 조정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셨다. 신하들이 말했다.

“이제 그 도적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고 도리어 병조 판서에 제수하는 것은 아니 되옵니다.”

임금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다만 경상 감사에게 길동을 잡을 것을 재촉하시니, 경상 감사는 임금의 엄한 명령을 받고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줄 몰랐다.

하루는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와 절하고 말했다.

“지금은 진짜 길동이오니 형님은 아무 염려 마시고 아우를 결박하여 서울로 보내소서.”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철없는 아이야! 너도 나와 형제인데, 아버지와 형의 교훈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소란케 하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네 이제 진짜 몸으로 와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도리어 기특한 아이로다.”

급히 길동의 왼쪽 다리를 보니 과연 붉은 혈점이 있었다. 즉시 팔다리를 결박해 수레에 넣고 건장한 장교 수십 명을 뽑아 철통같이 에워싸고 비바람같이 몰아갔으나, 길동의 안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 날 만에 서울에 다다랐다. 대궐 문에 이르러 길동이 한 번 몸을 흔들어 움직이니 굵은 쇠줄이 끊어졌다. 수레를 깨고 길동이 공중에 올라 표연히 구름과 안개에 묻혀 사라지니, 장교와 군사들이 어이없어 공중만 바라보며 다만 낮을 잃을 따름이었다. 어찌할 수 없어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께서 듣고 말씀하셨다.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리오?”

임금께서 크게 근심하시니,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아뢰었다.

“길동이 자신의 소원인 병조 판서를 한번 하면 조선을 떠나겠다고 하옵니다. 한번 소원을 풀면 저 스스로 감사할 것이니, 이때를 틈타 잡는 것이 좋을까 하옵니다.”

임금께서 이 말을 옳다고 여기시어 즉시 홍길동을 병조 판서에 제수하시고 사대문에 방을 붙였다.

이때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모관대에 무소뿔로 장식한 띠를 두르고는 높은 수레를 타고 큰길로 버젓이 들어오면서 외치기를,

“지금 홍 판서가 임금께 인사하러 온다.”

하니, 병조의 하급 관리들이 맞아 호위하여 궐 안으로 들어갔다. 신하들이 모두 모여 의논하기를,

“길동이 오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칼과 도끼로 무장한 군사를 매복하였다가 나오거든 지체 없이 쳐 죽이자.”

하고 약속을 정했다.

길동은 궐 안으로 들어가 임금께 절하고 아뢰었다.

⑥ “소신의 죄악이 지중하거늘, 도리어 임금의 은혜를 입어 평생 한을 풀고 돌아가옵니다. 전하 곁을 영원히 떠나고자 하오니,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말을 마치자 길동이 몸을 공중으로 솟구쳐 구름에 싸여 가니, 가는 곳을 알 수 없었다.

- 허균, 「홍길동전」

[23001-0222]

## 01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변함없는 지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과 정서적인 유대를 맺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연물의 속성과 연관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의 시어들을 배열하고 그 우열 관계를 설정하여 화자의 취향을 명시하고 있다.

[23001-0223]

## 02 &lt;보기&gt;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견훤」은 작가가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원으로 귀양 갔을 때 지은 작품으로 굽힐 수 없는 이상이 좌절되는 시련을 겪으면서 느낀 자괴, 자조의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 이에 화자는 사대부들이 이상적 공간으로 그려 오던 자연마저도 친화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지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무리에서 일탈하여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존재로 형상화함으로써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렇지만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화자의 현실 부정의 이면에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그것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 ① ‘그 밖의 여남은 일’은 접어 두고 ‘내 몸의 할 일만’ ‘뉘을 뿐’이라는 다짐에서 화자의 현실 부정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신념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화자가 자신에 대해 ‘내가 한 일 망령된 줄을’ 안다고 한 것과 ‘이 마음 어리석’다고 고백하는 것은 화자 스스로 느끼는 자괴, 자조의 심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③ ‘뒹는 길고’, ‘물은 멀’다고 하며 ‘시냇물’은 밤낮으로 ‘울어 예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화자는 자연을 자신의 지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짝을 잃은 ‘외기러기’가 ‘울고 가’는 모습은 무리에서 일탈하여 고독한 존재가 된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기 위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님이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화자의 불신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23001-0224]

## 03 (나)의 인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사는 아우인 길동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국법을 따르고자 길동을 구속한다.
- ② 임금은 심문에 앞서 진짜 길동을 찾기 위해 여러 명의 길동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조장한다.
- ③ 길동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난감해하는 형을 도와주기 위해 형 앞에 몸소 나타나 결박당한다.
- ④ 길동은 잡힐 때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 속박에서 벗어난다.
- ⑤ 임금은 길동을 병조 판서에 제수함으로써 길동이 저지른 죄를 사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23001-0225]

## 04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불변과 지속의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나타나 있다.
- ③ ㉡에는 상대방의 평안한 삶에 대한 기원이 담겨 있다.
- ④ ㉠와 ㉡에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
- ⑤ ㉠와 달리 ㉡에는 상대방과 결별하려는 다짐이 나타나 있다.

[23001-0226]

## 05 **붉은 혈점**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발휘하는 비범한 능력의 근원이 된다.
- ②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 ③ 인물 사이의 의혹이 확대되는 궁극적 계기로 작용한다.
- ④ 인물 간의 관계 속에서 특정 인물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 ⑤ 현실에서 보기 드문 신체적 특징으로 인물을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

[23001-0227]

## 0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는 모두 조선 시대에 창작된 문학 작품으로 당시의 지배적 이념이었던 유교의 충효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天倫)이라 하여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도의 실천은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의 체험이며 이러한 사랑이 가정 밖으로 확장되어 겨례를 사랑하고 임금과 나라에 충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물론 때에 따라 충과 효가 상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지만, 효를 근본 덕목으로 삼아 충은 효와 연속된 것으로 인식하여 충효를 같이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 나타나듯 임금과 신하, 임금과 백성 간의 인연을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 공유했던 질서이자 신념이었다.

- ① (가)에서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게 했’다는 발상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처럼 임금과 신하 간의 인연도 천륜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죽기를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며 홍 공이 길동을 심하게 꾸짖었음에도 여덟 길동이 기절한 홍 공에게 환약을 먹이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 ‘아버지와 형의 교훈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소란케 하’는 것을 감사가 애달프게 생각하는 것은 충효를 같이 존중하는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에서 ‘아버지 그리워하는 뜻’이라든지 (나)에서 길동이 아버지를 ‘위태로움에서 구하고자’ 형을 찾아온 행위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가)에서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로 여기는 것과 (나)에서 홍 공이 ‘지척에 임금님이 계시고 아래에 아비가 있음’을 강조한 것은 충과 효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효를 근본 덕목으로 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내가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여도 의 아니면 좇지 말리  
우리는 천성을 지키여 생긴 대로 하리라

- 변계량

- 나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 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 정호승,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 다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고,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善)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맘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성하여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삼십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A]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與], 사망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猶].”라고 하였으니, 아,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 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에듯 하므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사망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한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B]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례(經禮)의 이동(異同)\*을 논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남을 논박하는 소(疏)를 봉(封)해 올려서 조신(朝臣)의 시비(是非)\*를 말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였지만 이것 또한 그만둔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7년이 되는데, 이것\*을 당(堂)에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이윽고 생각해 보고는 그만두었다. 초천(菫川)에 돌아와서야 문미(門楣)에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인다.

- 정약용, 「여유당기」

\* 경례의 이동: 경전이나 예법 해석의 같고 다름.

\* 조신의 시비: 신하들이 낸 의견의 옳고 그름.

\* 이것: 앞에서 언급한 '여유(與猶)라는 노자의 말을 이룸.

[23001-0228]

## 0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실제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윤리적 덕목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폐해를 부각하고 있다.
- ③ 타인에게 도움이 될 교훈으로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이나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다.
- ④ 하늘이 정해 준 운명을 따르는 것이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001-0229]

## 02 (가)의 화자가, (다)의 [A]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이 싫어할 만한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남이 앞에서 한다 해도 그것이 의로운 일이 아니면, 차가움이 뼈를 에듯 하는 시내를 굳이 건너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③ 남을 좇아 행동하려 할 때 매우 부득이한 일이라 생각되어도, 그것이 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④ 매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천성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좋고 남에게도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 ⑤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항상 자기 몸에 이른다고 염려하면서, 내가 좋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남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23001-0230]

## 03 (나)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희망을 품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간직함으로써 절망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겠군.
- ② 희망이 없는 희망은 진정으로 간절한 것은 아니며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사람은 절대 희망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이겠군.
- ③ 절망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간절함이 부족하기에 절망을 충분히 겪은 후에 생겨난 간절한 희망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라는 의미이겠군.
- ④ 절망의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놓여 있으므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절망이 주는 괴로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겠군.
- ⑤ 절망 속의 희망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지만 희망 속의 절망은 더 큰 절망에 이르게 하므로, 희망이 내민 가능성에 너무 큰 기대감을 품지 말라는 의미이겠군.

[23001-0231]

## 04 (다)의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스로 떠올린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②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나열하면서 실패를 겪은 이유를 타인의 시각에서 따져 보고 있다.
- ③ 하려고 마음먹는 것을 멈추고 그만두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④ 앞 문장의 구절을 이어받아 다시 언급하면서 사고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의문형 문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부각하고 있다.

[23001-0232]

## 05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기(記)는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영구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문 양식이다. 기가 다루는 대상은 특정 인물, 사건, 물품이나 풍경 등 매우 잡다하다. 기의 문체적 특징을 다른 한문 양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감상을 주로 적는 부(賦)와 비슷하면서 화려하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논(論)과 비슷하면서 단정을 짓지 않는다. 사건의 자취와 관련하여 요지를 드러내는 서(序)와 비슷하면서 처음이나 끝부분만 가볍게 다루지 않고, 사적(事績)을 기억하기 위해 새기는 비(碑)와 비슷하면서 칭송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라는 양식에 나타나는 글쓰이의 서술 태도와 집필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다)는 정약용이 지은 ‘기’의 하나로, 초천에 돌아와 살게 된 글쓴이가 자신이 머무는 집의 이름과 관련하여 깨달음을 기록한 것이다.

- ① ‘여유당’이라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겪은 사건과 ‘여유당’이 지닌 건축물로서의 특징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집을 지을 때 주의할 점을 밝히려 한 것이군.
- ② 초천에 돌아와서 살게 된 집에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을 밝히면서 자신이 왜 그러한 이름을 붙이려고 하였는지를 기록하여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글이군.
- ③ 자신의 업적에 대해 칭송하며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자신의 깨달음이 절대적인 것이라 단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기(記)의 문체적 특징에서 벗어나 있군.
- ④ 평소의 행동과 성품으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병을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난 후 고칠 수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삶의 이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논(論)의 성격도 지니고 있군.
- ⑤ ‘여유당’이라는 편액을 자기 집에 붙이려고 했다가 그만두고, 초천에 돌아와서 살게 된 집에 붙인 까닭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현명한 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는 글이군.

[23001-0233]

## 06 &lt;보기&gt;와 관련지어 (가)~(다)에 사용된 시어나 구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단어의 뜻이 서로 정반대되는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한다. 이때 한 쌍의 말 사이에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 반의 관계 중 한 영역 안에서 중간 항이 없이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는 반의 관계를 상보 반의 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동시 긍정이나 동시 부정이 불가능하다. 이때 동시 긍정이나 동시 부정이 불가능한 반의어 쌍을 묶어서 함께 사용하면 역설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역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표현 방식을 모순 형용이라고 한다.

- ① (가)의 초장의 경우, ‘좋다’와 ‘싫’다는 ‘나’라는 주체와 ‘남’이라는 주체가 각각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모순 형용에 해당하지 않는군.
- ② (나)에는 ‘희망이 없는 희망’과 ‘절망이 없는 희망’이 제시되는데 ‘절망이 없는 희망’은 성립이 가능하지만, ‘희망’을 하는 동시에 ‘희망이 없’을 수는 없으므로 ‘희망이 없는 희망’은 역설에 해당하는군.
- ③ (나)의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는 ‘희망’이 ‘절망’과 연계될 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데,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군.
- ④ (다)의 글쓴이는 ‘자기는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지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하다’와 ‘그만두다’의 선택을 상호 배타적 관계로 인식한 것이군.
- ⑤ (다)의 글쓴이는 ‘그만둘 수 있는 일’과 ‘그만둘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 드러내면서, ‘그만둘 수 있는 일’과 ‘그만둘 수 없는 일’을 동시 부정이 불가능한 상보 반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군.



##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이별(人間離別) 만사 중(萬事中)의 독수공방(獨守空房)\* 더욱 싫다

상사불견(相思不見) 이내 진정(眞情) 그 뉘 알리  
 맺힌 설움 이렇저렇 헛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 못 보니 가슴 답답

[A]

㉠ 어린 양자(樣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 듣고 지고 임의 소리 보고 지고 임의 얼굴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해 주소서

전생차생(前生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그린 상사(相思) 한데 만나 잊지 말자 백년 기약(百年期約)

[B]

죽지 말고 한데 있어 이별 말자 처음 맹세(盟誓)

천금 주옥(千金珠玉) 귀 박이고 세상 일불 관계하라\*

근원(根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뵈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게 뉘 알리

화옹(化翁)조차 시샘하고 귀신(鬼神)조차 희짓는다

일조 낭군(一朝郎君)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頓絶)하니\*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無情歲月) 절로 간다

소년 청춘(少年青春) 다 보내고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空老)로다\*

오동 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수이 가며

녹음방초(綠陰芳草)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 가노

이내 상사 알으시면 임도 응당 느끼리라

독수공방 홀로 앉아 반야 잔등(半夜殘燈) 벗을 삼아

일촌간장(一寸肝腸) 찌른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가슴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 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랴

㉢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교태(嬌態) 겨워 웃던 웃음 생각하니 목이 맨다

지척(咫尺) 동방(洞房) 천리(千里) 되어 바라보니 암암(暗暗)하도다

만첩 천희(萬妾千姬) 그려 난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랴

산은 첩첩 고개 지고 물은 중중(重重) 흘러 근원 되니

천지 인간(天地人間) 이별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는가

[C]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것다

㉓ 초로(草露) 같은 이내 인생(人生) 무슨 죄로 못 죽는가

바람 불어 ㉔ 꽃은비 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바장이며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이내 상사 허사(虛事)로다

공방 미인(空房美人) 독상사(獨相思)는 예로부터 있건마는

나 혼자 그리는가 임도 나를 그리는가

[D]

노류장화(路柳牆花)\*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㉕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산계야목(山鷄野鶩) 길을 들어 놓을 줄을 모르는가

노류장화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가는 길이 자취 나면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런가

[E]

- 작자 미상, 「상사별곡(相思別曲)」

\* 독수공방: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

\* 양자: 얼굴의 생긴 모양.

\* 세상 일불 관계하라: '세사 일분(世事一分) 관계하라'의 착오인 듯함. 세상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임.

\* 뜬절하니: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지니.

\* 옥빈홍안 공노로다: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의 아름다운 젊은이가 헛되이 늙었도다.

\* 노류장화: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기생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나무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그 본성이 곧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이 생기(生氣)가 충만한 가운데 직립(直立)해서 위로 올라가는 속성으로 말하면, 어떤 나무이든 간에 모두가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 높이 우뚝 솟아 고고(孤高)한 자태를 과시하면서 결코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는 오직 송백(松柏)을 첫손가락에 꼽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송백이 유독 옛날부터 회자(膾炙)되면서 **인간에 비견(比肩)되어 왔던 것이다.**

어느 해이던가 내가 한양(漢陽)에 있을 적에 거처하던 집 한쪽에 소나무 네다섯 그루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몸통의 높이가 대략 몇 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두가 작달막하게 뒤틀린 채 탐스러운 모습을 갖추고만 있을 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도 한결같이 거꾸로 드리워진 채, 긴 것은 땅에 끌리고 있었으며 짧은 것은 몸통을 가려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휘감겨 서린 모습이 **뱀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것과도 같고 수레 위의 둥근 덮개와 일산(日傘)이 활짝 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는데, 마치 여러 가닥의 수실이 엉겨 붙은 듯 서로 들쭉날쭉하면서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타고난 속성이 이처럼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해서 생긴 모양이 그만 이렇게 되었던 말인가.”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그 나무의 본성이 그러해서가 아니다. 이 나무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다른 산에 심어진 것과 비교해 보아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조금 자라났을 적에 사람이 조작(造作)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들은 골라서 베어 버리고, 여러서 유연(柔軟)한 가지들만을 끌어와 결박해서 휘어지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높은 것은 끌어당겨 낮아지게 하고 위로 치솟는 것은 끈으로 묶어 아래를 향하게 하면서, 그 울퉁은 속성을 동요시켜 상하로 뺏으려는 기운을 좌우로 방향을 바꾸게 하였다. 그러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게 하면서 ⑥바람과 서리의 고초(苦楚)를 실컷 맛보게 한 뒤에야, 그 줄기와 가지들이 완전히 변화해 굳어져서 저토록 괴이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지 끝에서 새로 싹이 터서 돌아나는 것들은 그래도 위로 향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고서 무성하게 곧추서곤 하는데, 그럴 때면 또 돌아나는 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고 자르면서 부드럽게 휘어지게 만들곤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기이한 소나무가 된 것일 뿐이니, 이것이 어찌 그 나무의 본성이라고야 하겠는가.”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어찌면 그 물건이 우리 사람의 경우와 그렇게도 흡사한 점이 있단 말인가. 세상에서 일찍부터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보면, 그 용모를 예쁘게 단장하고 그 몸뚱이를 약삭빠르게 놀리면서, 세상에 보기 드문 괴팍한 행동을 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면서 이를 고상하게 여기기만 할 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알고 있으니, 평이(平易)하고 정직(正直)한 그 본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어떠한 할 것이며,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호기(浩氣)에 비추어 보면 또 어떠한 할 것인가. 비젯덩어리나 무두질한 가죽처럼 아첨을 하여 요행히 이득이나 얻으려고 하면서, 그저 구차하게 외물(外物)을 따르며 남을 위하려고 하는 자들을 저 왜송(矮松)과 비교해 본다면 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겠는가.

아, 사람이나 다른 생물이나 각각 항상 지니고 있는 본성이 있는 만큼, 곧게 잘 기르면서 해침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한 연후에야 사람이 되고 생물이 된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만 본성이 손상을 입고 녹아 없어진 나머지, 이처럼 정상적인 것과는 정반대로 참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이 어찌 ‘곧게 길러지지 않은 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일 뿐이다[罔之生也幸而免].’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 그리고 보면 저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역시 슬픈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산속에서 자라나는 송백을 본 일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은 하늘을 뚫고 곧장 위로 치솟으면서 ⑦뇌우(雷雨)에도 끄떡없이 우뚝 서 있었다. 이쯤 되고 보면 사람들이 그 나무를 쳐다볼 때에도 자연히 우러러보고 엄숙하게 공경심이 우러나는 느낌만을 지니게 될 뿐, 손으로 어루만지거나 노리갯감으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은 별로 들지 않을 것이니, 이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호오(好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 대상을 천하게 여기면서 모멸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있는 반면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내에 덕을 존경한다는 뜻이 들어 있는 개념

이라 하겠다. 대저 그 본성을 해친 나머지 남에게 모멸을 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요, 자기의 본성대로 따른 결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효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자라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기만 하면 될 것이니, 저 왜송을 탓할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청사(靑蛇, 을사년) 납월(臘月)\* 대한(大寒)에 쓰다.

- 이식, 「왜송설(矮松說)」

\* 납월: 음력 선달을 달리 이르는 말.

[23001-0234]

## 01 (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 ③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있다.
- ④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지닌 이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믿고 있다.
- ⑤ 초현실적 존재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23001-0235]

## 02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암울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순환하는 삶의 섭리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236]

### 03 (가)의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자’고 ‘깨’는 대조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입에 대한 상사의 정을 부각하고 있군.
- ② [B]: ‘전생차생’을 언급하여 입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입을 만나기를 원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C]: ‘씩은 물’과 ‘눈물’, ‘물’과 ‘한숨’ 간의 연관성을 드러내어 입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서러움을 강조하고 있군.
- ④ [D]: ‘공방 미인’을 통해 입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여성 화자임을 드러내고 있군.
- ⑤ [E]: ‘가는 길’과 ‘오는 길’을 대비하여 떠난 입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23001-0237]

### 04 <보기>를 통해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설(說)은 독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득적인 성격의 글이다. 글쓴이는 주변 사물을 관찰하거나 직접 체험한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게 된 깨달음을 서술하며 현실을 비판하고 독자에게 교훈을 준다. 이때 비유적 표현, 고사나 성현의 어록 인용, 유추의 방식, 우회적 표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글에 담아낸다. 또한 이치를 깨달은 자가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화체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글쓴이와 독자가 지닌 생각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소나무 네다섯 그루’에 대한 글쓴이와 ‘어떤 사람’의 대화를 통해 교훈적 메시지가 문답의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뱀들’, ‘여러 가닥의 수실’을 활용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나무 네다섯 그루’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곧게 길러지지 않은 채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성현의 어록을 인용하여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하늘 높이 우뚝 솟’은 나무가 ‘인간에 비견되어 왔던 것이다’에서 유추의 방식을 통해 ‘송백’과 ‘평이하고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 지닌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그 물건이 우리 사람의 경우와 그렇게도 흡사한 점이 있단 말인가’를 통해 허례허식과 별난 행동을 일삼으며 자신의 의견만 앞세우는 세태를 우회적으로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001-0238]

## 0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② ㉠과 ㉣는 모두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 ③ ㉡와 ㉣는 모두 나무의 외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④ ㉠은 화자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는 화자에게 현재를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 ⑤ ㉡는 집에서 자라난 나무들의 동요된 속성을, ㉣는 산속에서 자라난 나무들의 불변의 속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23001-0239]

## 06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는 자연물 또는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짓고 있는 작품이다. (가)의 화자는 자연물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임에 대한 사랑을, 자연 현상을 제시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자연 속에서 본성을 지키고 있는 자연물과 본성을 잃은 자연물을 대비하여 이들을 각각 사람의 삶과 연결 지어 혼란스럽던 조선 중기에 자신을 곱혀 시류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에서 ‘물’과 ‘뫼’는 영속적 이미지를 지닌 자연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 ‘오동 추야’와 ‘녹음방초’는 특정 계절에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에서 ‘꽃’과 ‘해’는 자연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보여 주는 자연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왜송’은 인위적인 힘의 작용을 받은 자연물로, 이를 통해 글쓴이는 ‘공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송백’은 본래의 모습을 지켜 온 자연물로,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산십이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 곡을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동방의 노래는 대부분 음란하여 족히 말할 것이 없다. 「한림별곡(翰林別曲)」과 같은 유는 글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고 방탕하며 겹하여 점잖지 못하고 장난기가 있어 더욱 군자(君子)가 숭상해야 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에 이별(李鵬)의 6가(歌)가 세상에 성대하게 전하니 오히려 그것이 이보다 좋다고는 하나, 그래도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不恭)한 뜻만 있고, 온유둔후(溫柔敦厚)\*한 내용이 적은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

노인은 평소 음률(音律)을 알지는 못하나 그래도 세속의 음악은 듣기를 싫어하였다. 한가히 살면서 병을 돌보는 여가에 무릇 정성(情性)에 감동이 있는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하지는 못한다. 만약 노래하려면 반드시 시속 말\*로 엮어야 하니, 대개 나라 풍속의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이 씨의 노래를 모방하여 도산 6곡이란 것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뜻을 말함이고, 그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이다. 이 노래를 아이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여 안식에 기대어 듣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기도 하게 한다면 거의 비루한 마음을 씻어 버리고, 감화되어 분발하고 마음이 화락해져서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나의 처신이 자못 세상과 맞지 않으니, 이 같은 한가한 일이 혹시나 말썽을 일으키는 단서가 될는지 알 수 없고, 또 이 곡조가 노래 곡조[腔調]에 들어가며, 음절에 화합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한 부를 써서 상자에 넣어 놓고, 때때로 내어 스스로 반성해 보고 또 훗날에 열람해 보는 자의 취사선택을 기다릴 뿐이다. 가정년 을축 늦봄 16일[既望]에 도산 노인[山老]이 쓴다.

- 이황, 「도산십이곡 발」

\*온유둔후: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터움.

\*지금의 시: 중국의 한시를 뜻하는 것으로 특히 당나라 때 형식이 완성된 근체시를 이룸.

\*시속 말: 그 시대의 풍속에 맞는 말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우리말을 뜻함.

- |   |  |
|---|--|
| <p>나 ㉠ 천리 길 고향은 첩첩 산 너머라<br/>가고픈 마음에 밤마다 ㉡ 꿈속에 찾아가네.<br/>한송정 가에는 하늘과 물속에 달이 걸려 있고<br/>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 불어오네.<br/>㉢ 갈매기는 모래톱에 모였다 흩어졌다<br/>고깃배들은 파도 위로 왔다 갔다.<br/>언제나 강릉 길을 다시 밟고 가<br/>㉣ 색동옷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까?</p> | <p>千里家山萬疊峰<br/>歸心長在夢魂間<br/>寒松亭畔雙輪月<br/>鏡浦臺前一陣風<br/>沙上白鷗恒聚散<br/>波頭漁艇每西東<br/>何時重踏臨瀛路<br/>綵舞斑衣膝下縫</p> |
|---|--|

- 신사임당, 「사친(思親)」

㉠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푸르고 또 푸르니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같이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께 뵈오려뇨.

〈제1수〉

기러기 아니 나니 편지를 뉘 전하리

시름이 가득하니 ㉡ 꾼인들 이룰쏜가

매일에 노친 얼굴이 눈에 삼삼하야라.

〈제6수〉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네

일월이 가까우샤 하토(下土)에 비추시니

㉢ 아모라타 우리 모자지정을 살피실 제 없사오랴.

〈제11수〉

- 이담명, 「사노친곡(思老親曲)」

[23001-0240]

## 01 (가)의 도산 노인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방의 노래 중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많다.
- ② 시 중에는 읊을 수는 있지만 노래할 수 없는 것도 있다.
- ③ 마음속에 있는 비루함을 씻어 버릴 수 있는 노래는 유익하다.
- ④ 군자는 부적절한 내용과 주제를 가진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 ⑤ 다른 사람의 노래를 모방해 창작한 노래는 마음을 감화시키지 못한다.

[23001-0241]

## 02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구조의 시구를 반복하여 음악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여러 가지 의문형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일정한 음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우리말 형용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점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식이 확대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23001-0242]

### 03 (가)의 '도산 노인'의 관점에서 (나), (다)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한자로 창작된 한시 작품이지만 시속 말로 엮지 않아도 읊을 수는 있겠군.
- ② (나)를 화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읊는다면 노래할 수도 있겠군.
- ③ (다)는 시속 말을 활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므로 사람들이 이를 익혀 노래할 수 있겠군.
- ④ (나)와 (다)는 모두 시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감동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와 (다)는 모두 효를 주제로 하여 인정을 드러내는 작품이므로 군자가 숭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군.

[23001-0243]

### 04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극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는 환상적인 가공의 상황을, ㉡는 비극적인 현실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는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는 화자의 괴로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는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공간을, ㉡는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23001-0244]

## 0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장된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물아일체의 경지를 제시하며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화자가 대상과 공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기 위해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드러나고 있다.

[23001-0245]

## 06 &lt;보기&gt;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신사임당의「사친」과 이담명의「사노친곡」은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두 작품에는 각각 혼인을 통해 출가외인이 된 여성 화자와 귀양을 가 있는 남성 화자가 제시되며, 특정한 장소에 있는 그리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두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은 모두 그들이 처한 외부적 상황과 개인적 소망 사이의 괴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면서 여러 가지 자연물을 통해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리움과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나)의 화자가 ‘가고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오늘날과 같이 친정이나 고향을 자유롭게 방문하기 어려웠던 외부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 ② (다)의 화자는 ‘일월’이 ‘하토’를 비춘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그리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나)에는 ‘강릉’에 있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다)에는 ‘고향’에 있는 ‘노모’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나)의 ‘달’과 ‘바람’은 화자의 그리움을 위안하는 역할을, (다)의 ‘기러기’와 ‘하늘’은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물이다.
- ⑤ (나)의 ‘언제나’와 (다)의 ‘어느 날’을 통해 화자가 처한 외부적 상황과 개인적 소망 사이의 괴리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사는 그날 몰래 수성궁을 살펴보았는데, 담장이 높고 험준해서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묵묵히 말을 하지 않고 근심스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사의 노비 가운데 이름이 특(特)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본래 재주가 많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특이 진사의 안색을 보더니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 필히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특은 뜰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에 진사가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자, 특이 말했습니다.

㉡ “어찌 일찍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마땅히 그 일을 도모하겠습니다.”

특이 즉시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아주 가볍고 단순했으며, 능히 접거나 펼 수 있었습니다. 둘둘 말면 병풍을 접은 것과 같고, 펼치면 대어섯 길 정도 되어 손으로 운반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이 사용법을 가르쳐 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다리를 가지고 궁궐 담에 오르고, 다시 안에서 접었다 폈다 하십시오. 내려올 때도 역시 그와 같이 하십시오.”

진사가 특에게 뜰에서 시험해 보게 하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아서 진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사가 가려고 할 때, 특이 또 품속에서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든 버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 “이것이 없으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사가 털가죽 버선을 신고 걸어가니, 나는 새처럼 가벼워 땅을 밟아도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사는 이러한 꾀로 궁궐 안팎의 담을 넘어 들어와 대나무 숲속에 엎드려 있는데, 달빛은 낮처럼 밝고 궁궐 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안에서 나와 산보를 하면서 낮게 시를 읊조렸습니다. 진사는 대나무를 헤치고 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시는 분은 누구신지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낭군께서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진사는 성큼성큼 걸어 나와 절하며 말했습니다.

(중략)

이때 대군은 이전에 지은 비해당에 현판(懸板)을 달기 위해 아름다운 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손님들의 시가 모두 마음에 차지 않자, 궁이 진사를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지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진사는 붓을 한번 휘둘러 써 나갔는데, 글이 썩 잘되어 글자 한 자도 덧붙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에는 산수의 경치와 비해당의 모습이 극진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 비바람을 놀라게 하고 귀신을 통곡하게 할 만했습니다. 대군은 구절마다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뜻밖에 오늘 왕자안\*을 다시 보는구나!”

대군은 읊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사가 지은 시에 ‘담장을 좇아서 그윽이 풍류곡(風流曲)을 흠치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대군은 이 구절에서 읊기를 멈추고 진사를 의심했습니다. 이에 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군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원컨대 물러나고자 합니다.”

대군은 시종에게 진사를 부축하여 전송토록 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 진사가 궁궐로 들어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달아나는 것이 좋겠소. 어제 내가 지은 시를 보고 대군이 의심하셨으니, 오늘 밤 떠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생김새가 영악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목돌선우라고 일컬으면서, ‘이미 오래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長城) 아래서 기다린 지 오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래도 꿈의 징조가 상서롭지 않습니다. 낭군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사가 말했습니다.

“허망한 꿈속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장성이라고 한 것은 궁궐의 담장이요, 그가 목돌이라고 한 것은 노비 특입니다. 낭군은 이 노비의 속내를 잘 알고 있는지요?”

진사가 말했습니다.

“이 노비는 본래 흉악한 놈이나 나에게는 충성을 다하였소. 오늘 낭자와 이렇듯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모두 이 노비의 꾀 때문입니다. 어찌 처음에는 충성을 바치고, 뒤에 악행을 저지를 리가 있겠소?”

이에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낭군의 말씀을 거절하겠습니까? ⊕다만, 자란은 저와 형제처럼 정이 두텁기 때문에 자란에게 알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즉시 자란을 불러와, 세 사람이 삼발처럼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진사의 계획을 자란에게 말하자, 자란이 크게 놀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즐긴 지 오래되어서 이제 스스로 화를 빨리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 2개월 서로 사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차마 담을 넘어 달아나는 짓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주군이 너에게 마음을 기울이신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첫째 이유요, 부인이 사랑하심이 매우 깊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둘째 이유요, 화가 양친(兩親)에게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셋째 이유요, 죄가 서궁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넷째 이유이다. 게다가 천지가 곧 하나의 그물인데, 하늘로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달아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혹시 붙잡히게 된다면 그 화가 어찌 네 한 몸에만 그치겠느냐? 꿈의 징조가 상서롭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꿈이 길조(吉兆)였다면 너는 기꺼이 가려 했더냐? 네가 할 일은 마음을 급하고 뜻을 억누르며, 정절을 지키고 편안히 앉아서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네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주군의 은혜와 사랑이 점차 느슨해질 것이다. 이러한 형편을 보고 있다가 칭병(稱病)하고 오래도록 누워 있으면, 주군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다. 이때 낭군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 백년해로(百年偕老)하는 것보

다 좋은 계획이 없으리라.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감히 도리에 어긋난 꾀를 내니, 네가 누구를 속이며 하늘마저 속이려 하느냐?”

진사는 일이 성사되지 않을 줄 알고 탄식하며 눈물을 머금은 채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 작자 미상, 「운영전」

\*왕자안: 7세기 중반에 태어난 중국 당나라의 대표적 시인으로, 오언 절구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김.

**나** [앞부분 줄거리] 깊은 산중의 절에 사는 동자승인 도념은 어린 시절 떠나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간절히 그녀를 기다린다. 도념은 죽은 자식을 위해 불공을 드리러 오는 미망인에게 마음이 끌리고 미망인 또한 도념에게 정을 느끼며 양자로 삼고자 한다. 도념은 미망인의 목도리를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데리러 올 어머니를 위해 토끼를 잡아 목도리를 만든다. 하지만 주지가 이 토끼 목도리를 발견하게 되고 도념의 살생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

정심을 따라 미망인, 원내로 들어간다.

도념: (홀연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구 싶어요.

주지: 닥디려. 무얼 잘했다구 또 그런 소릴 하구 있니?

도념: 절더러 거짓말한다구만 마시구,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쇼.

주지: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겐 어미라기보다 대천지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계(破戒)를 한 네 어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뜩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헤일 염주면 두 번 헤어야 한다.

도념: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두 인자하시다구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어머니는 이뻐올 것이라구 허는 걸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주지: 그건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너 유식론(唯識論)에 쓰인 경문을 알지? / 도념: 네.

주지: 외면사보살 내면여야차(外面似菩薩 內面如夜叉)라 하셨느니라. 네 어미는 바로 이 경문과 같이, 얼굴은 보살님같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독물이야.

도념: 스님,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습니다.

주지: 네 아버지의 죄가 네 어미에게도 옮겨서 그러니라. / 도념: 옮다니요?

주지: 네 아버지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도 산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의 기슴을 서늘하시게 한 대악 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로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구, 내가 부처님께 내가 저지른 죄를 모다 깨끗이 씻어 주도록 기도해 주마.

도념: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쩔어쩔해요.

주지: 이게 무슨 죄 받을 소리니? (조용히 달려며)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보라.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고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두 한 겹 물만 퍼내구 보면 시꺼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십 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루 올라갈라구 헛바닥을 뽐들거리며 비 오기만 기다리구 있단다. 동네두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로. 겉으루 보면 모두 즐겁구 평화한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애(塵埃)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로새겨 있는 글자 그대로 오탁(五

濁)의 사바(娑婆)니라.

도념: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럭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주지: 누가 그러든? 누가 그래?

도념: 동네 사람들 올라올 적마다 물어봤어요.

주지: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구 내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란 말이지? 오!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 봤나? (하고 펄펄 뛰다.)

도념: 스님, 바른대루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주지: 듣자 듣자 하니까 나중엔 못 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드니, 전신에 살이 뻗친 모양이다.

미망인, 원내에서 나온다. 뒤따라 그의 모(母).

도념: (미망인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 미망인: 응, 염려 마라.

주지: 염려 말라니요? 아씨는 그저 애를 데려가실 작정이십니까? / 미망인: 그럼은요.

친정 모: 못 한다. 넌 애 하는 짓을 지금껏 두 눈으로 푹푹히 보구두 이러니?

미망인: 어머니, 봤기에 더 한층 데려가구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다 했겠어요? 지금 이 애를 바른길루 이끌어 갈려면 내 사랑 속에서 키우는 것밖에 탄 도리가 없어요.

친정 모: 애는 전생에 제 부모의 죄를 받구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구할랴구 해두 구할 수가 없단다. 흥역 마마하듯 이렇게 피하지 못할 죄가 하나씩 돌씩 발생하지 않니? 애보담, 우리 인철이 영혼 축원할 도리나 걱정해라.

미망인: 인철인 기왕 죽은 애니까 재를 다시 지내면 그만 아니에요?

친정 모: 애가 토끼 목도리를 존상 뒤에다 감춰만 뒀다면 모를까, 짙은 별좌(別坐) 애길 들으니까 어젯밤엔 딱 그 더러운 것을 관세음보살님 목에다 걸어 놓구 물끄러미 바라다보구 있었다는구나.

미망인: (울며 미칠 듯이) 어머니, 난 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애당초에 생각이나 안 먹었다면 모를까, 한번 먹어 놓 것이라 잃구는 살 수가 없어요.

주지: 아씨께서 진정으로 애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구 노리개를 삼으실랴구 하시지 말구 애 매디매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뒤 주십시오. 자기 한 몸의 죄만 아니라 제 아버지 어머니 죄두 씻어야 할 테니까 애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념: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드래두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구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구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지: (열화같이 노하며) 수다스러. 한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미망인을 보고 선언하듯) 아씨께서 서방님을 잃으시고 외아들마저 잃으신 것두 다 전생에 죄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아씨 죄두 미처 벗지 못하시구 이 쫓덩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실랴구 이리십니까?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를 끌어내시라거든 다 신이 절에 오시지 마십시오.

- 함세덕, 「동승」

[23001-0246]

## 01 (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김 진사의 안색을 살피며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김 진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 ③ ㉢: 버선이 김 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음산한 분위기를 묘사함으로써 김 진사의 암울한 앞날을 암시하고 있다.
- ⑤ ㉣: 운영과 자란이 매우 돈독한 사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247]

## 02 (가)의 [꿈]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영은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의 속마음을 의심한다.
- ② 자란이 운영의 떠남을 만류하는 근거 중 하나가 꿈이다.
- ③ 운영은 꿈속 인물이 말한 장성은 궁궐의 담장이라고 생각한다.
- ④ 김 진사는 꿈은 허망한 것이라는 점에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 ⑤ 김 진사는 운영의 꿈풀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특의 악행을 예고한다.

[23001-0248]

## 03 (나)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친정 모는 젊은 별좌로부터 지난밤 도념의 행동에 대해 들은 바가 있다.
- ② 도념은 자신의 어머니가 예뻐서였 것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다.
- ③ 도념은 자신이 절을 떠나려는 행동을 주지가 평소에 했던 말을 근거로 정당화한다.
- ④ 주지는 도념과 도념 어머니의 만남이 도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미망인은 친정 모가 언급한 ‘애 하는 짓’이 자신에 대한 도념의 그리움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3001-0249]

## 04 (나)의 [연못]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절을 떠나려는 도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주지가 선택한 화제이다.
- ② 주지는 동네의 걸모습을 연못의 잔잔함에 비유하고 있다.
- ③ 주지는 연못 안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도념이 보지 못한 동네의 본질을 깨우쳐 주고 있다.
- ④ 도념은 자신이 연못을 관찰한 경험을 근거로 연못에 대한 주지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 ⑤ 주지는 연못과 관련된 자신의 말에 대한 도념의 반응에 분노하고 있다.

※ <보기>를 참고하여 05번과 06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문학에서 공간은 인물이 다른 인물과 관계를 맺고 내면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인물의 삶은 그들이 생활하거나 일하는 공간 고유의 성격과 기능에 의지하거나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가)의 공간은 안평 대군이 주인인 수성궁이다. 이 공간은 안평 대군이 선비와 궁녀에게 학문적 성취를 격려한다는 점에서 학구적 공간이다. 하지만 그러한 학문적 성취를 위해 운영을 비롯한 궁녀의 생활을 외부와 철저히 단절한다는 점에서 폐쇄적 공간이고 개인의 욕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욕적 공간이다. (나)의 공간은 깊은 산속의 오래된 사찰이다. 이 공간은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는 경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점에서 율법의 공간이자 전생의 죄와 현생의 죄를 씻는 정화의 공간이며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을 비는 기원의 공간이다. 공간의 이러한 성격은 작품 속 인물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원인이 된다.

[A] 한편, 공간은 인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건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가치나 감정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물은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공간을 이탈하거나 다른 공간에 진입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물은 다른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다른 인물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23001-0250]

05 <보기>의 [A]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수성궁으로 들어가하고자 하는 김 진사의 행동은 운영을 향한 연정에 기인한 것이다.
- ② (가)에서 담장의 외양과 높이는 김 진사와 운영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 ③ (가)에서 운영이 수성궁 밖으로 나가는 문제를 두고 자란은 김 진사의 계획에 반대한다.
- ④ (나)에서 절을 떠나려는 도념에게 미망인과 친정 모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 ⑤ (나)에서 세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도념과 주지가 갈등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23001-0251]

06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수성궁과 (나)의 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수성궁이 궁녀의 생활을 외부와 단절하는 폐쇄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김 진사와 운영의 만남이 대부분 수성궁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군.
- ② (가)의 수성궁이 학문적 성취를 중시하는 학구적 공간이라는 점은 대군이 김 진사의 시에서 특정 구절의 수준을 의심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는군.
- ③ (나)의 절이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을 비는 기원의 공간이라는 점은 미망인이 죽은 아이의 제사를 지내는 설정에서 잘 드러나는군.
- ④ (나)의 절이 현생의 죄를 씻는 정화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지는 토끼를 죽인 도념을 법당으로 데려가려는 것이군.
- ⑤ (나)의 절이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는 율법의 공간이라는 점은 사냥꾼인 도념의 아버지를 주지가 비난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군.



##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이 정결하다는 것과, 치료비가 여느 병원의 갑절이나 비싸다는 점이다.

㉠ 그는 새로 온 환자의 초진(初診)에서는 병에 앞서 우선 그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신통치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슨 핑계를 대든,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더러 따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예진(豫診)은 젊은 의사들이 했다.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 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에 아울러 경제 정도를 판정하는 최종 진단을 내리면 된다.

상대가 지기나 거물급이 아닌 한 외상이라는 명목은 붙을 수 없었다. 설령 있다 해도 이 양면 진단은 한 푼의 미수나 결손도 없게 한 그의 반생을 통한 의술 생활의 신조요 비결이었다.

그러기에 그의 고객은, 왜정 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속에 드는 측들이어야만 했다.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테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아무튼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1·4 후퇴 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셋방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오십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이 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의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속이었지만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적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십팔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2시 40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이십 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함께 삼팔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가야 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伴侶)**이기도 한 것이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 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삼십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이십 대 흥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 시대,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삼팔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십칠석\*.’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째각째 각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리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도, 각모(角帽)와 쓰메에리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 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는 것이었다.

(중략)

國語常用의 家.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박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 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뜻뜻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 갔다.

환자도 일본 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 말만을 써 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 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술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곤잘 지켜 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잡고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저금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 왔다.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손금고가 들어 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다.

- 전광용, 「꺼삐딴 리」

\* 월삼 십칠석: Waltham 17 Jewels. 월섬(Waltham)은 미국에서 1850년에 시작한 시계 제조 회사이며 십칠석(17 Jewels)은 시계에 사용된 보석의 수를 가리킴.

나 남자: (이야기책을 낭독한다.) 옛날에, 옛날에 한 사기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잘생겼으나 땡전

한 닢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외로워졌으므로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누구나 젊음의 한 시기엔 외로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나 결혼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에게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처녀가, 자기 같은 빈털터리 남자와 결혼해 줄 리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몹시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략) 마침내 그 젊은 사기꾼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㉔정원이 딸린 최고급 저택을 빌릴 수 있었으며,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런 의복, 그리고 이 건장한 하인까지 빌렸던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사십오 분 동안만 그가 주인이며 다음엔 되돌려 줘야 합니다. 넥타이는 이십팔 분, 모자는 십구 분 오십 초, 그 밖에 다른 물건에도 제각기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기꾼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여자로부터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맞선을 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쪽이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왜 아직 안 온담? (다시 책을 낭독한다.) 오겠단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하인, 시계를 본 채 손가락 다섯 개를 펼친다.) 딱 오 분 지났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책을 읽어 마음을 달래 보려 하였으나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하인, 아무 말 없이 책을 빼앗아 버린다. 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기계적인 동작이다. 이 극의 마지막까지 하인의 동작은 그러하다. 남자가 항의하려 하자 하인은 무뎠죽하게 자기의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일 뿐이다. 그러고는 남자가 미처 수궁하기도 전에 돌아서더니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 잠시 후, 하인은 돌아와서 남자 곁에 서서 부동자세를 취한다.

남자: 여봐, 자네는 인정사정도 없긴가?

하인: (묵묵부답)

남자: 그래? 아 참, 자넨 말을 앓는다며? 자네 주인께서도 그러시더군. “빌려는 드리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는 마십시오. 이 하인은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난 그걸 잊을 뻔했네. 그러나저러나 웬일이야? (하인의 회중시계를 들여다본다.) 이제 십 분째 지나가구 있어. 황금 같은 내 인생이 이 꼴로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다니 안타깝지 뭐가?

남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 낭패한 표정으로 관객석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왔다 갔다 한다.

남자, 한 여성 관객에게 말을 건다. 언뜻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듯 미소를 짓고 있다.

(중략)

여자: 왜 난폭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

남자: 하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여자: 그냥 두시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남자: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 주는 겁니다.

여자: 당신은 너무 착하세요.

남자: 글썬요. 내가 착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태도 하나만은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㉕이렇게 하나둘씩 되돌려 주면서도 당신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

어나고 있습니다. 아, 나의 천사님, 아니 덤이여!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과 그리고 옷에 대해서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 예로만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 청혼을 받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인, 돌아와서 두 남녀에게 우뚝 선다.

여자: 어마, 또 왔어요!

남자: 염려 마십시오. 나도 이젠 그의 의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여자: 그의 의무? 의무가 뭐죠?

남자: 내가 빌린 물건들을 이 하인은 주인에게 가져다주는 겁니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여자: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남자: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여자: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여자: (충격을 받는다.)

남자: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저기 두동실 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하늬바람도, 그리고 어찌면 여기 있는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여자: 잠시 빌렸다고요?

남자: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두발로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남자: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 이강백, 「결혼」

[23001-0252]

## 01 (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인물의 내면을 주로 드러내면서 그의 현실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여러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사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의 태도를 견지하며 그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⑤ 겉 이야기와 속 이야기로 짜인 액자식 구성을 통해 인물을 향한 이중적인 시선을 제시하고 있다.

[23001-0253]

## 02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지 하나도 없’는 병원은 청결에 대한 이인국의 강한 집착을 대변한다.
- ②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는 수복 후 이인국의 성공한 삶을 대변한다.
- ③ ‘왕진 가방’은 삼팔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로서 이인국의 어려웠던 시기를 상징한다.
- ④ ‘비상용 캐비닛’은 이인국이 귀중품을 넣어 두는 곳으로, 조심성 많은 그의 성격이 드러난다.
- ⑤ ‘이 종잇장’은 해방 직후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에 능숙했던 이인국의 능력을 상징한다.

[23001-0254]

## 03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의 낭독을 통해 극 중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소품의 분실과 발견을 통해 사건의 전개를 빠르게 반전시키고 있다.
- ③ 두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이인국의 형식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조명의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며 등장인물의 심리를 색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무대와 객석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 관객이 무대에 몰입하는 극적 환상을 조성하고 있다.

[23001-0255]

## 04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인은 남자가 묻는 말에 침묵으로 대응한다.
- ② 남자는 여성 관객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미소를 짓는다.
- ③ 여자는 하인의 행동이 난폭하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해한다.
- ④ 여자는 하인이 남자에게 건넨 쪽지를 읽으며 진실을 깨닫는다.
- ⑤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를 신으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23001-0256]

## 0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환자의 병세보다 경제적 부담 능력을 우선하는 행동으로, 인물의 속물적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② ㉡: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던 자신의 선택을 긍정하는 마음으로, 친일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 ③ ㉢: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익과 가족의 생존만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④ ㉣: 부자처럼 보일 수 있는 물건들을 일시적으로 빌린 모습으로, 결혼의 조건에서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속물근성을 엿볼 수 있다.
- ⑤ ㉤: 모든 것을 되돌려 주면서도 사랑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소유에 대한 현대인의 강박을 엿볼 수 있다.

[23001-0257]

## 06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의 회중시계와 (나)의 회중시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회중시계는 주머니 등에 넣어 몸에 지닐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시계이다. 휴대하기 편한 시계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회중시계를 통해 수시로 시간을 재거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회중시계에는 사람들이 몸에 지니며 사용하는 소장품의 성격도 있다. 특히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하면 소유자의 애장품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회중시계는 전광용의 「꺼삐딴 리」와 이강백의 「결혼」에서 공통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소재이다. 두 작품에서 회중시계는 시간 측정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인물이 애착을 느끼는 애장품으로 취급된다. 회중시계의 이러한 특성은 더 나아가 두 작품에서 인물의 심리 변화와 서사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서사적 기능을 발휘한다.

- ① (가)에서 '인생의 반려'라는 비유는 회중시계가 이인국의 애장품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② (가)에서 회중시계는 회상의 매개물로서 이인국의 지난 행적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③ (나)에서 하인에게 항의하는 남자의 행동은 회중시계가 남자의 애장품이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 ④ (나)에서 회중시계는 물건을 반납할 시간을 환기하면서 남자의 긴장을 고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⑤ (가)에서 이인국이 회중시계를 꺼내 보는 것과 (나)에서 하인이 시계를 보는 것은 회중시계를 시간 측정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눈을 감으면

㉠ 어린 시절,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회초리를 들고서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향시 추억한다  
—옛날에 옛날에—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내가 여원 동심의 옛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

—이한직, 「낙타」

나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 배고픈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올려 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따라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 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 이수익, 「방울 소리」

**㉠ [앞부분 줄거리]** 어른들은 ‘나’를 아들이 없는 당숙의 양자로 들이고, 당숙 내외는 ‘나’에게 학비, 옷, 용돈 등을 보내며 지극한 정성을 쏟는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나뻐던 건 어느 토요일 오후, 하룻길에서의 일이었다. 남대천에서 모래를 퍼 실어 나르다 길옆 버드나무 그늘 아래 마차를 세우고 다른 마부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땀을 들이던 당숙이 같은 반의 다른 동무들과 함께 독길을 걸어오는 나를 보았던 것이었다. 내가 고개를 꼭 꺾고 가면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언짢더라도 못 본 척해야 되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 자리에서 당숙이 나를 붙잡았다. 어찌면 다른 마부들 앞에서 뭔가 낫을 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학교 마치고 오나?” / “야.”

나는 친구들 앞에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점심은 먹은?” / “토요일이잖아요.”

“가마이 있어 봐라. 그래도 뭘 먹고 가야제. 안 봤다면 몰라두…….”

그러면서 당숙은 품에서 **뺏뺏한 1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주었다. 나는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그 자리에서 얼른 벗어날 생각으로 돈을 받았다.

“어이, 은별이, 가는 누구야?”

당숙보다 대여섯 살쯤은 아래로 보이는 다른 마부가 당숙에게 물었다. 당숙 말고는 대부분 말만 끄는 사 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호칭도 얼룩이, 점박이, 하는 식으로 노새의 이름으로 불렀다. 훗날 어이, 몇 호, 몇 호, 하고 자동차 끝 번호 두 자리를 이름 대신으로 부르던 택시 회사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만, 사람 이름을 은별이, 점박이, 하고 노새 이름으로 부르던 것도 내게는 낯선 일이었다.

“장래 우리 집 대주시다.”

“대주라니?”

“우리 맘상주라구.”

당숙은 보란 듯이 내 모자를 바로 씌어 주면서 말했다.

“뭘야, 그렇게 큰 아들이 있었던 말이야?”

㉠ 아들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져 오는 느낌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돈을 당숙에게 도로 내밀었다. 대주니, 맘상주니 하는 말을 할 때만 해도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동 무들 앞에서 노새를 끄는 마부의 아들 소리까지 나온 것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대변에 그 사람 느 아버지나, 하고 물을 것이었다.

“뭘 사 먹고 가라니까.”



“싫어요. 나 이제 아재 양재 안 해요!”

나는 기어이 그 돈을 당숙 앞에 던지고 냅다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뛰었다. 뒤에 다른 마부들 앞에 당숙이 어떤 얼굴이 되었을까는 생각할 틈도 없었다. 당장 동무들 앞의 내 얼굴이 문제였다. 정말 그것만은 감추고 싶었고, 감추어 왔던 일이었다. 나는 동무들에게 먼 친척 아저씨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분수를 모르고 나한테 짹짹거리는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 동네 애들한테도 물어보라고. 내가 어느 집에 누구하고 살고 우리 아버지가 말을 끄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마 그 일이 있고 나서였을 것이다. 처음엔 밤마다 술에 취해 마차를 끌고 들어오던 당숙이 어느 날 집을 나간 다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방학의 반이 지나 세 달이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엔 집안 어른들도 무슨 일인가 몰랐다가 당숙모가 당숙이 떠나기 전의 일들을 얘기해 모두 그 일을 알게 되었다.

“집 나가기 전에 술을 잔뜩 먹고 와 그런 말을 하잖우. 어디 가서 여자를 사서라도 애 하나를 낳아 와야겠다구. 그러면서 또 나한테 그러잖우. 내가 오죽하면 아 못 낳는 자네 가슴에 못 지를 말을 하고 있겠느냐구, 그러면서 대구 울구…….”

(중략)

“그러믄 나두 니한테 뭐 물어봐두 되젠?” / “야.”

“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날 데리구 오라구 시키든?”

“데리구 오라고 시키긴 했는데, 이렇게 데리구 오라고 시키지는 않았어요.”

“날 아부제라고 부르라구 시킨 것두 아니구?” / “야.”

“그럼, 니가 니 마음으루다 부른 말인?” / “야, 아부제.”

“그러믄 하나 더 물어두 되젠?” / “야.”

“니 내가 말 끄는 게 싫은?” / “…….”

그 말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부제도 그 말을 두 번 묻지 않았다.

“아부제.” / “어.”

“나 내려가면 이제 아부제 집에 가서 살려구 해요.”

“우리 집에?” / “야.”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구 시키든?” / “아뇨. 지 마음으료요.”

“니 마음으로?” / ⊕ “야. 그래서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 방 하나 치워 놓으라고 했어요.”

“수호야.” / “야.”

“아부제는 고맙다. 무슨 말인 줄 알제?” / “야.”

“그래, 내려가믄 나두 이 짐승 치우지 뭐. 니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 있젠.” / “…….”

“허, 이눔이 말귀 알아듣나. 짹 치운다니까 대가리를 흔들게.”

“안 치워도 나 아부제 집에 가 살아요…….”

“그래, 치우지 뭐. 치울 거야. 이제 이거 힘두 제대로 못 써 사람 망신시키는 거. 늙어서 고집두 늘구…….”

그날 아부제와 나는 온 하늘과 온 산이 붉게 동틀 무렵 하생골 집에 닿았다.

그러나 그날 밤길에도 그랬고, 먼저 살던 집에서 아부제 집으로 살림을 옮기듯 책상과 책가방, 입던 옷가지들과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후에도 끝내 말과는, 그리고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 예전보다 덜 부끄럽다고 해도 그랬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도 ‘노새집 양재 새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으로 느끼던 열세 살의 소년이었다.

그 말은 내가 중학교 3학년일 때까지 집에 있었다. 내가 저를 퍽박하고 서러움 줄 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모습도 그랬다. 말굽을 박았는데 공사장에서 벽돌을 내릴 때 땅에서 바로 선 대못을 밟아 오른쪽 앞다리부터 못 쓰게 되더니 한 해 겨울을 한쪽 다리를 늘 구부린 채 서서 앓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만 것이었다. 알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시내의 마부들이 마차를 끌고 와 죽은 그를 신고 내려갔다. 아부제는 따라가지 않았다. 마부들이 그림 저녁때 고기라도 보낼까, 하고 묻자 아부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작으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남몰래 감추는 아부제의 눈물을 보았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받았다.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는데도 그랬다. 아마 그가 죽어 정말 하늘의 은별이 되었다 해도 나는 앞으로도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이순원 「말을 찾아서」

[23001-0258]

##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작품의 표면에 화자를 내세워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의인화의 방식을 통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사색적인 어조를 통해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 과정을 진술하고 있다.

[23001-0259]

## 02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화자가 어린 시절의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통해 화자의 유년 시절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통해 현재 화자는 사람들과 자동차로 시끄러운 문명의 공간으로 변해 버린 고향 마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통해 ‘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노새를 끄는 마부의 아들로 여겨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통해 ‘나’가 당숙의 양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당숙과 함께 생활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3001-0260]

### 03 (가)의 **동물원**과 (나)의 **골동품 가게**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동물원’과 달리 (나)의 ‘골동품 가게’는 화자가 얻게 된 가치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② (나)의 ‘골동품 가게’와 달리 (가)의 ‘동물원’은 화자의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를 암시하는 공간이다.
- ③ (가)의 ‘동물원’, (나)의 ‘골동품 가게’ 모두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부각하는 공간이다.
- ④ (가)의 ‘동물원’, (나)의 ‘골동품 가게’ 모두 화자의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가 나타나는 공간이다.
- ⑤ (가)의 ‘동물원’, (나)의 ‘골동품 가게’ 모두 화자가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이다.

[23001-0261]

### 04 (다)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사건의 원인을 요약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②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예측하고 있다.
- ③ 내면적 갈등을 일으켰던 원인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드러나는 인물의 태도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262]

### 05 (다)의 **빳빳한 100원짜리 한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에 대한 당숙의 자랑스러움을 드러낸다.
- ② 마부로 일하는 당숙의 고달픈 처지를 상징한다.
- ③ ‘나’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는 기회가 된다.
- ④ 당숙이 ‘나’에 대한 미련을 떨쳐 버리는 계기가 된다.
- ⑤ ‘나’가 한 ‘만상주’ 노릇에 대한 당숙의 고마움을 표현한다.

[23001-0263]

## 06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문학 작품 속에서 동물은 단순한 소재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인간과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동물은 인간과 차별성을 가지는 존재로 타자화되면서 인간의 속성이나 삶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외적, 내적 특성에 기반하여 동물이 인간과 동일시되면서 인간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결국 문학 작품 속에서의 동물은 인간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매개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가)에서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기억 속에 존재하는 특정한 인물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그 인물과 동물의 형태적 유사성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동심의 옛이야기’를 ‘여윈’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라고 한 것은 현재 봄볕을 받고 있는 화자 자신이 동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내가 물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 소리’라고 한 것은 동물과 인간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인간의 속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당숙을 아부제라고 부르기로 한 후에도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숙이 노새를 끄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던 유년 시절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나는 앞으로도’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같이 사는 동안 나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동물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 쉽게 잊을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1.

그는 그리움에 산다.

그리움은 익어서

㉠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다.

그리움은 마침내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의

비할 바 없이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

## 2.

이미 가 버린 그날과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머물른

이 아쉬운 자리에는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익어 간다.

보라,

높고 맑은 곳에서

㉡ 가을이 그에게

한결같은 애무의

눈짓을 보낸다.

## 3.

놓칠 듯 놓칠 듯 숨 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며는

세월도 알 수 없는 거기

푸르게만 고인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다.

우리들 두 눈에

그득히 물결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

- 김춘수, 「능금」

- 나 언제부터  
이 잉겔볼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킴킴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A]

나 혼자 부둥켜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 가는 어둠을  
이젠 알알이 쏟아 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 어지러운 층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아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 주소서

- 이기림, 「석류」

㉔ 나는 도성의 시가 한복판에 살고 있어서 이웃한 곳이 모두 드넓은 대로와 골목길이라. 자연을 즐기고 인생을 구가하기에 적절한 들녘과 산림의 멋이라곤 없다. 오로지 소완정(素玩亭)이 집 안의 중앙에 제법 높다랗게 솟아 있어 시야가 탁 트여 시원스럽고, 담장 뒤편에는 몇 그루 나무가 서 있어 해마다 여름이면 그늘을 만드니, 들보에 그들이 감돌 때면 푸른빛이 짙게 드리운다. 그럴 때면 나는 날마다 그 속에서 쉬면서 새와 곤충, 풀과 나무에 속하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물이면 어느 것이나 눈으로는 세밀하게 살피고 귀로는 꼼꼼하게 엿들었다. 그리하여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바로 시로 읊어서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새는 16편을 얻었고, 곤충은 10편을, 풀과 나무 역시 각각 9편씩을 얻어 모두 합해보니 44편이었다.

그때 어떤 손님이 이렇게 말하였다.

“㉕ 옛사람들은, ‘이하(李賀)는 문장을 지을 때 꽃과 새, 벌과 나비라는 소재를 벗어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군요. 당신은 오로지 지극히 미미한 사물을 관찰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에 정신을 소모하니, 저 이하의 경우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답하였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 바윗돌은 둥그렇게 놓여 있는 단단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 물건이 산꼭대기나 바닷가에 아무렇게 놓여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서는 ‘저기 둥그렇게 단단한 물건은 바윗돌이야’라고 아무 생각 없이 대강 말하고 맙니다. 그들 가운데 조금 자중하는 사람 들조차 ‘저기 둥그렇게 단단한 물건은 바윗돌인데, 그것은 흙이 뭉쳐서 단단해진 것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눈썹을 추켜올리고 눈동자를 크게 굴리면서 사물의 이치를 신통하게 이해한다고 의기양양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은 모릅니다. 사물을 헤아려서 물건을 처음 만드는 학자는, 바윗돌의 거칠고 가는 무늬와 옆으로 퍼지고 종으로 가파른 형세를 꼼꼼히 살핍니다. 그 색깔을 분별할 때에는 나방 눈썹 같은 녹색인지 썩익 같은 청색인지를 나누며, 그 재질을 구분할 때에는 문리(文理)\*가 얼어서 반짝이는 것인지 거북 등이 터져서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나눕니다. 한쪽은 움푹 들어가고 한쪽은 돌출한 것 같은 작은 현상조차 감히 조금도 무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부여한 특징을 소홀하게 보아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새는 날고 곤충은 구물거리며 풀은 싹을 틔우고 나무는 우뚝 솟아올라 수만 가지 모양이 같지 않고 제각기 그 자태를 뽐냅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서 나는 것은 새요 구물거리는 것은 곤충이라 하고, [B] 싹을 틔우는 것을 풀이라 부르고 우뚝 솟아오른 것을 나무라 부른다고 알 뿐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저들의 가슴속에는 새와 곤충, 풀과 나무라는 겨우 네 가지 어휘만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네 가지 어휘가 옛날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분명 그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릇 새와 곤충, 풀과 나무는 천지의 문장이요, 문장이란 인간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장식하고자 한다면 천지에 있는 문장을 빌려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㉖ 이러한 까닭에 먼 옛날의 성인께서는 책을 써서 명명하는 것에서부터 가옥이나 의복, 수레, 깃발, 그릇 등을 장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저 네 가지에서 뜻을 취하고 형상을 만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천지를 가득 메운 사물 가운데 이들을 제외하면 다른 사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⑥전해 오는 말에,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안다’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서는 시를 짓고, 풀을 만나면 반드시 기록해 둔다. 이것이 경대부(卿大夫)의 재능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은연중 그러한 취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좋은 말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내가 쓴 것을 모아서 『소완정금충초목권(素玩亭禽蟲艸木卷)』을 엮었다.

— 이서구, 「소완정의 새와 곤충과 풀과 나무」

\* 문리: 무늬와 관련된 의미로 새길 수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미상임.

[23001-0264]

##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 모두 자연물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다) 모두 자연물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다)의 글쓴이와 달리 스스로 자연물의 입장에서 말하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자연물을 통해 당대의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작품에 직접 등장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밝히고 있다.

[23001-0265]

## 02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감탄문을 활용하여 사랑이 깊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고, [B]에서는 의문문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일에 회의가 깊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에서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사랑의 열병을 앓던 상황을 묘사하고, [B]에서는 열거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 미래를 예측하여 밝히고, [B]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 ④ [A]에서는 독백체의 방식으로 사랑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입증하고, [B]에서는 대화체의 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상대보다 우월함을 입증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비유를 통해 가둘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가득한 상태를 드러내고, [B]에서는 자문자답을 통해 각 대상의 고유성을 무시한 채 개념의 틀에만 가두려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23001-0266]

###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김춘수의 「능금」은 과일이 익어 가는 과정을 통해 결핍된 존재가 내적 성숙을 이루어 가는 과정과 그 과정을 보며 느낀 경이로움과 감동을 표현한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구나 시행의 의미를 이해해 볼까요?

- ① ‘스스로의 무게로 / 떨어져 온다’는 결핍되었던 존재가 내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로군.
- ② ‘그윽한 / 여운을 새긴다’는 내적인 성숙을 이룬 존재를 대면했을 때 느끼는 감동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③ ‘이 아쉬운 자리에는 /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 익어 간다’는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내적 성숙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로군.
- ④ ‘농칠 듯 농칠 듯 숨 가쁘게’는 내면이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려 노력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로군.
- ⑤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는 특정 존재가 지닌 충만한 내면세계를 비유한 것으로 성숙한 존재로부터 느끼게 된 경이로움과 연관된 것이로군.

[23001-0267]

### 04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도성 시가에 위치한 ‘소완정’에 간혀 사는 처지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 ② ‘나’는 ‘어떤 손님’이 자신과 달리 자연물에 대한 시를 쓰지 않는다는 비판했다.
- ③ ‘나’는 ‘물건을 처음 만드는 학자’들이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 ④ ‘나’는 ‘새와 곤충, 풀과 나무’를 생계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 문장의 소재로 삼으려 했다.
- ⑤ ‘나’는 ‘그 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한 시집을 제작했다.

[23001-0268]

## 0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절한 그리움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된 긍정적 결과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사랑 고백을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나’가 글의 소재로 삼는 네 사물이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23001-0269]

## 06 ㉠와 ㉡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서, ㉡에서는 글쓴이가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이다.
- ② ㉠에서는 상대의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에서는 글쓴이가 자기 말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이다.
- ③ ㉠에서는 상대에게 반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에서는 글쓴이가 자신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 ④ ㉠에서는 상대가 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에서는 글쓴이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 ⑤ ㉠에서는 상대 행동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서는 글쓴이가 자기 행동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흥부 부부상」

- 나 세월은 또 한 고비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몸부림치다 와 닿는  
둘째 놈 애린 손끝이 천 근으로 아프다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를 애비라 믿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바로 뉘고 이불을 다독여 준다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메꿔 밥 비는 재주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나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밖에는 바람 소리 사정없고

㉠ 며칠 후면 남이 누을 방바닥  
잠이 오지 않는다

- 김사인,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님의 제(題)를 빌려」

㉡ 철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물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엔 대야 밑바닥에 한 사나이의 얼굴을 보았다. 철호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 사나이는 얼굴의 온 근육을 이상스레 히물히물 움직이며 입을 비죽거리며 웃고 있었다.

이마에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밑에 우묵하니 파인 두 눈. 깎아진 볼. 날카롭게 여윈 턱. 송장처럼 꺼멓고 윤기 없는 얼굴.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였다.

몽둥이 끝에, 모난 돌을 하나 침녕쿨로 아무렇게나 잡아매서 들고, 동굴 속에 남겨 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하여 온종일 숲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곰? 그건 용기가 부족하다. / 멧돼지? 힘이 모자란다.

노루? 너무 날쌔어서. / 꿩? 그놈은 하늘을 난다.

토끼? 토끼. 그래, 고놈쯤은 꽤 때려잡음 직하다. ㉢ 그런데 그것마저 요즈음은 뒀에 잘 돌아오지 않는다. 사냥꾼이 너무 많다. 토끼보다도 더 많다.

그래도 무어든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나이는 바위 잔등에 무릎을 꿇고 앉아 냇물에 손을 씻는다. 파란 물속에 빨간 놀이 잠겼다. 끈적끈적하게 사나이의 손에 묻었던 피가 놀빛보다 더 진하게 우러난다.

무엇인가 때려잡은 모양이다. 곰? 멧돼지? 노루? 꿩? 토끼?

그런데 사나이가 들고 일어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내장. 그것이 무슨 짐승의 내장인지는 사나이 자신도 모른다. 사나이는 그 짐승의 머리도 꼬리도 못 보았다. 누군가가 숲속에 끌어들여 버린 것을 주워 오는 것이었다.

철호는 옆에 놓인 비누를 집어 들었다. 마구 두 손바닥으로 비볐다. 우구구 까닭 모를 울분이 끓어올랐다.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흘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추어오르기에는 배 속이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 갑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 부엌에서들 아무 데나 마구 버린 뜨물이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헌데 더렁이\* 모양 깔렸다.

저만큼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열기설기 문살에 얹어맨 철호네 집 방문이 보였다. 철호는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형질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를 않았다. 아래가 잔뜩 집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 나왔다.

“가자!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가 아니

고, 짹짹하고 간사한 게 어떤 판사람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의 얼굴에 걸레 썩는 냄새 같은 것이 확 풍겨 왔다. 철호는 문안에 들어선 채 우두커니 아랫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A] 중학교 시절에 박물관에서 미라를 본 일이 있었다. 그건 꼭 숨 누더기에 싸 놓은 미라였다. 흰 머리카락은 한 오리도 제대로 놓인 것이 없었다. 그대로 수세미였다. 그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서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자 가자,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짹짹한 소리가 나오는지 이상하였다.

철호는 윗방으로 올라가 털썩 벽에 기대어 앉아 버렸다. 가슴에 커다란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정말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 눈을 꼭 지르감으며 애써 침을 삼켰다.

(중략)

“어디 취직을 해야지.”

“취직이요? 형님처럼요? 전차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이지요?”

“그럼 뭐 별 뽀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 “……?”

어처구니없는 영호의 수작에 철호는 그저 멍청하니 영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손끝이 따가웠다. 철호는 비루(맥주) 깡통으로 만든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켜다.

“용기?” / “네, [용기].”

“용기라니?” / “적어도 까마귀만 한 용기만이라도 말입니다. 영리할 필요는 없더군요. 우둔해도 상관없어요. 까마귀는 도무지 ㉞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탓으로 그놈의 까마귀는 애당초 허수아비를 무서워할 줄조차 모르거든요.”

영호의 입가에는 좀 전에 파랑새 꼬초에다 불을 댕기는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야릇한 웃음이 또 소리 없이 감돌고 있었다.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B] 철호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 하고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들도 남처럼 다 벗어던지고 훌기분한 몸차림으로 달려 보자는 것이죠, 뭐.” / “벗어던지고?”

“네, 벗어던지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던지고 말입니다.”

영호의 큰 두 눈이 유난히 빛나는가 하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고 들었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 “……”

“너는, 너는……” / “……”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겠다.” /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 이범선, 「오발탄」

\*레이션: 미군의 전투용 휴대 식량.

\*더뎡이: 부스럼 딱지나 때 따위가 거뜬 붙어서 된 조각.

[23001-0270]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명령문 형식을 통해 청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23001-0271]

02 <보기>에서 (다)의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 묶은 것은?

┌ 보기 ─┘

ㄱ. 철호의 미래 상황에 대해 영호가 낙관적으로 전망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ㄴ. 철호가 볼 때 지금까지 자신이 택하지 않았던 부정적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

ㄷ. 영호가 볼 때 자기 형제 이외의 동시대인들에게 결여된 처세의 태도에 해당한다.

ㄹ. 영호가 도덕이나 규율에서 벗어난 수단을 동원하여 목적을 이루려는 의지를 가리킨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001-0272]

0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B]와 달리 인물들 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 ② [A]에는 [B]와 달리 특정 인물의 외양에 관한 인상이 비유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③ [B]에는 [A]와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평가가 노출되어 있다.
- ④ [B]에는 [A]와 달리 특정 인물의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 ⑤ [A]와 [B] 모두 이야기 속의 인물이 서술자의 역할을 하며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23001-0273]

04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거에 대한 회한을, ㉡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빚댄 것이다.
- ② ㉠은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빚댄 것이다.
- ③ ㉠은 시간의 지속적인 흐름을, ㉡는 공간의 일시적인 이동을 빚댄 것이다.
- ④ ㉠은 운수에 따라 주어지는 이익을, ㉡는 근면한 노동의 결실을 빚댄 것이다.
- ⑤ ㉠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 풍요를, ㉡는 보편적인 사회 규범을 빚댄 것이다.

[23001-0274]

0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나타낸다.
- ② ㉡: 막막한 처지로 인해 화자가 갖게 된 절망적 인식과 관련된다.
- ③ ㉢: 사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 ④ ㉣: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대한 인물의 생각을 반영한다.
- ⑤ ㉤: 열악한 생활 환경을 환기하는 공간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23001-0275]

0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를 ‘가족 응집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적절한 수준일 때 각 구성원의 소속감, 애착, 자율성 등이 균형을 이룬다. 가족 응집성을 높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교감하는 일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해 준다. 예컨대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는 가장의 경우,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면 가장의 책임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가족 간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이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 ① (가)의 흥부 부부가 ‘손발 닳은 처지’이면서도 ‘같이 웃어 비추’며 서로에게 ‘웃음살’을 건네는 것은 비언어적 수단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구성원끼리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흥부 부부가 ‘서로 부끄러’거나 ‘서로 소스라쳐’ 놀라는 것은 자신에게 상대방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과 반성으로 가족 응집성이 약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며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심정을 느끼는 것은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는 가장으로서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의 화자가 잠든 아이를 ‘바로 눕고 이불을 다독여 준’다든지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애착 같은 정서적 유대감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다)에서 ‘동굴 속에 남겨 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해 ‘무어든 들고 들어가야 하는’ 사나이가 ‘누군가가 숲속에 끌어내어 버린 것을 주워 오는’ 상황을 상상하며 철호가 ‘까담 모를 울분’을 느끼는 것은 가장의 책임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 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펴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툰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툰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시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 (중략)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 쪽 찢어 처에게 넘겨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채더니 자루 안에 넣어 넣는다. 그리고

처: 삼백 환!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처: 육백 환! (이어) 구백 환!

플랫폼 방이 다시 밝아진다.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장남, 장녀가 또 무엇을 처먹으면서 거울 앞에 가더니 얼굴의 여드름을 찢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처가 결사적으로 일을 한다. 처의 요란스러운 셈 소리가 삼천 환을 훨씬 넘었다. 감독관이 다시 창가를 지나가며 기웃거리고 사라진다.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처: 왜 그러세요?

교수: 참 신기한 일이야.

처: 삼천 환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무엇이 신기해요.

교수: 이 원고지 말이요. 다 이백 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백구십 자 칸밖에 안 들었어. 열 자 모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군.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이상한데, 이상해.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전면을 바라본다.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교수: (한참 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앓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쥐꼬리만 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 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요.

교수: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사고(思考)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事故)가 난걸요.

교수: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리는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 된다. 잠시 후 새소리, 닭 우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장녀: (관객들에게)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 (교수를 깨운다.) 아버지. (교수 눈을 비비며 머리를 든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 드리겠어요.

- 이근삼, 「원고지」

- 나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낮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낮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곱잡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나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⑥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김광규, 「상행」

[23001-0276]

## 01 (가)의 극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 ② 음악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인물의 의지를 부각한다.
- ③ 무대 밖 목소리를 통해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상황을 전달한다.
- ④ 무대의 잦은 전환을 통해 여러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속도감 있게 재현한다.
- ⑤ 복수의 인물이 해설자의 역할을 맡아 관객을 향해 특정 인물과 상황을 소개하고 논평한다.

[23001-0277]

## 02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녀는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신문을 읽어 준다.
- ② 교수는 진리의 정열로 가득한 과거의 삶을 그리워한다.
- ③ 장남은 부모의 책임감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④ 천사는 교수가 자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를 방문한다.
- ⑤ 아내는 경제적 이익을 바라면서 남편의 원고 번역을 강하게 독려한다.

[23001-0278]

## 03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근삼의 「원고지」는 원고 독촉에 시달리는 교수와 주변 인물들을 통해 인간적 삶을 훼손하는 현대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다. 현대 사회는 근대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전 국면을 표준화하고 개인의 일상을 그러한 표준에 맞추도록 규제하고 강요한다. 표준화의 규격은 개성을 억압하고 개인을 구속하는데, 부모, 학생, 직장인 등 사회적 직분이란 규격에 갇힌 개인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품들은 현대인의 이러한 일상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자는 이 작품의 다양한 소품에 주목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 ① ‘원고지 칸 투성이’의 양복은 교수가 입을 옷으로, 표준화된 일상의 규격을 상징하는 소품이다.
- ② ‘쇠사슬’은 교수가 허리에 차고 있는 것으로, 직장과 사회의 과중한 책임과 구속을 의미하는 소품이다.
- ③ ‘또 하나의 굵은 줄’은 처가 교수의 허리에 감아 주는 것으로, 현대인에게 집이 휴식이 아닌 구속의 공간임을 드러내는 소품이다.
- ④ ‘백구십 자 칸’의 원고지는 교수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간적 삶이 훼손된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소품이다.
- ⑤ ‘회초리’는 감독관이 휘두르는 것으로, 현대인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현대 사회의 규율적 면모를 부각하는 소품이다.

[23001-0279]

## 04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과 관련된 시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시적 상황의 반복과 순환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의문문을 사용하여 화자가 궁금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청자에게 구하고 있다.
- ⑤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청자에게 특정한 인식과 행동을 권하고 있다.

[23001-0280]

## 0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을 지지하는 가족을 향한 애정을, ㉡는 고통과 갈등이 없는 일상을 향한 애정을 의미한다.
- ② ㉠은 타자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는 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 ③ ㉠은 희망과 정열을 깨닫고 실현할 수 있는 이성을, ㉡는 일상과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을 의미한다.
- ④ ㉠은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는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자족감을 의미한다.
- ⑤ ㉠은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연민을, ㉡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고 절망하는 위기의식을 의미한다.

[23001-0281]

## 06 &lt;보기&gt;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원고지」와 「상행」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사실이나 진실과는 상반된 말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원고지」에서는 인물의 행동이나 처지와는 상반된 대사를 활용한다. 지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현대인의 무기력함을 부각한다. 「상행」에서는 화자의 말이 반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어는 말하는 이가 참된 의미를 감추고 이와 반대되는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반대되는 의미의 말을 통해 감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작품을 감상할 때는 인물이나 화자의 말이 지닌 축자적 의미를 참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발화의 맥락을 살피면서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① ㉠: 교수의 표정이나 하품 소리와는 일치하지 않는 표현으로, 극도로 고단한 교수의 삶이 애처롭게 느껴지는군.
- ② ㉡: 생계에 매몰된 교수의 일상과는 상반된 표현으로,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 가는 교수의 처지가 안타깝군.
- ③ ㉢: 이 표현의 숨겨진 의미는 낯선 얼굴과 같은 속물적 모습을 청자의 본모습으로 인정하라는 것으로, 나에게도 그런 속물적 모습이 있는지 살펴야겠군.
- ④ ㉣: 이 표현의 숨겨진 의미는 흥미 위주의 소비문화에 매몰되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것으로, 그러한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해 봐야겠군.
- ⑤ ㉤: 이 표현의 숨겨진 의미는 듣기는 힘들지만 현대 사회의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으로, 그러한 소리가 지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군.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실전 학습

3부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장돌식이한테 마을에 내려가 삼과 팥이를 가져오도록 시킨 나는 눈을 뻘히 뜨고 누워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워서 빨갱게 단풍이 든 떡갈나무 잎을 뜯어 으스스한 동굴의 입구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눈을 가렸다.

그날 우리들은 썩은 돌비늘이 두껍게 깔린 땅을 파고 아버지를 묻었다. 흙을 저 나를 수도, 폐를 뜰 수도 없어 평장(平葬)을 하고 둘이서 끙끙거리며 돌을 날라다 무덤 위에 덮었다.

나는 아버지의 돌무덤을 곰배팔이 장돌식이한테 부탁한 뒤, 상엿집에서 하룻밤을 더 자고 **날이 밝기 전에 쫓기듯 월곡리를 떠났다.**

월곡리를 떠나면서 나는 장돌식이한테, 월곡리 사람들을 머슴으로 부릴 수 있을 만큼 큰돈을 벌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 결심을 말해 주었다.

「 그 결심을 맺돌질하듯 어금니 응등 물고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뼈가 굵고 손바닥 발바닥이 닳 [A] 도록 뛰어, 월곡리 사람들을 모두 머슴으로 부릴 만한 돈은 못 되어도, 이만하면 어깨 펴고 살겠다  
└ 싶어서야 두 눈 부릅뜨고 고향에 돌아갔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고향에 돌아온 ‘나’는 좌익 활동을 하며 부면장 부자를 죽였다는 아버지의 누명이 소명된 것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무덤 이장 작업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을 동원한다.

나는 비닐봉지 속의 아버지 유골 부스러기를 향해 마음속으로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

— ㉠아버님, 이제 한이 풀리십니까. 옛날 아버님을 소처럼 부리고 개처럼 천대하던 주인의 아들들이 내가 시킨 대로 아버님 무덤에 덮을 뗏장을 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죄를 벗으려고 죄 없는 아버님을 죽인 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저의 한이 풀렸으니 아버님의 한도 풀리셨지요.—

유골 부스러기를 광 속에 놓고 흙을 덮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유골이 땅속 깊숙이 묻히고, 덩실하게 봉분을 짓기 시작하자 나는 차츰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쾌감을 맛보았다.

㉡“이만하면 월곡리 안에서는 켈로 큰 묘등이 되겠지만.”

“석물만 얹힌다면 세종 대왕 능보다 더 덩실해!”

마을 사람들은 나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지 큰 소리로 한마디씩 하였다.

이장 일을 모두 끝내고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서 남은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한 잔씩 돌려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계획대로 내 신분을 밝혔다. 나는 그들이 내 신분을 알고 얼마나 놀라서 까무러칠까 하는, 일종의 달콤한 복수심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고 뽕뽕하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은 제 고향이 바로 월곡입니다. 3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나갔었죠. 제 가친은 오랫동안 머슴을 살았던 황바우 씨니다요. 오늘 여러분들이 묘를 써 주신 분.”

나는 되도록이면 목줄에 힘을 주어 그렇게 말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놀라는 표정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 표정에 별로 크게 놀라는 빛이 없었다. 특히 나는 부면장네 아들과 아버지를 죽인 네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죄스러움이나 위축감 따위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침부터 황바우 아들이라고 밝힐 것이재 원!”

“아들이 잘된 걸 보니 돌무덤 자리가 명당이었던갑구만.”

㉔“황바우 일이라면 우리가 이르게 많은 돈을 받기가 미안헌디.”

“참말로 사람 팔자는 알 수 없는 일이구만.”

“그나저나 돈 벌어서 효도 한번 푸지게 잘했네그려.”

하고들 몇몇 사람들이 언뜻언뜻 한마디씩 뱉어 냈을 뿐이었다.

월곡리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남은 한 잔의 술까지도 깡그리 털어 마시고, 저물어 가는 햇살을 받으며 지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까치산에서 내려가 버렸다.

나는 순간 까치산에서 내려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조차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 버렸다. / 잠시 후에, 산에서 내려가던 부면장네 아들이 허위허위 허리를 꺾고 다시 올라왔다.

“오랜만에 고향이라고 왔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소. 자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았으면 한번 찾아갔을 걸세.”

부면장 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하고, 같이 내려가자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잠시 후에 내려가 하룻밤 묵고 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먼저 내려가도록 했다.

㉕“꼭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야 허네 잉?”

부면장 아들은 산에서 내려가면서 다짐을 받았다.

양귀비꽃 같은 놀이 깔리기 시작하는 까치산 꼭대기에는 나와 장돌식과 음식 그릇을 치우는 장돌식의 처만 남아 있었다.

나는 장돌식이한테 인부를 불러 아버지의 돌무덤에서 한쪽 다박솔 옆에 숨겨 놓다시피 한 못생긴 큰 돌을 버스 길까지 운반해 주도록 부탁하고, 아버지의 큰 무덤 위에 올라앉아 월곡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돌은 왜 신작로까지 운반하라고 그러는가?”

장돌식은 산을 내려가던 인부 한 사람을 불러 내가 부탁한 대로 다박솔 옆의, 30년 전 우리들이 끙끙거리며 옮겼던 큰 돌을 운반해 달라고 시키고 나서 내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집으로 가져가려고.” / “미쳤는가? 하필이면 그 큰 돌을……”

“어쩐지 그 돌에 우리 아버지의 혼이 들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네와 나 두 사람의 우정과, 월곡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그 돌이라도 집에 갖다 놔야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장돌식을 보며 허탈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㉖“건 그렇고, 그래, 자네 기분이 어쩐가? 이제야 한이 풀리는가?”

장돌식도 나를 보고 씩씩하게 웃으면서 물었다.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구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말일세. 이제 부끄러워서 다시는 고향에 올 수가 없겠어. 내가 크게 잘못했네. 아버지의 한을 풀어 주기는커녕 되레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말았어.”

나는 마치 내 심장을 떼어서 아버지의 유골 부스러기와 함께 무덤 속에 파묻어 버린 것처럼 마음이 공허해졌다.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산을 내려왔다. 장돌식이가 부면장 아들과 약속한 대로 하룻밤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것을 탈탈 뿌리쳤다. 내가 저지른 부끄러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돌을 깔고 앉은 채 버스 안에서 자올자올 졸았다.

[B]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깔고 앉아 있었다. 내 엉덩이 아래 깔린 아버지가 몹시 괴로운 듯 버둥거리더니 ‘이 불효막심한 놈아’ 하고 고함을 쳤다. **고함** 소리에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났다. **뽕뽕** 자동차 클랙스 소리가 귀청을 뜯었다. 버스는 불빛 사이에 낀 기억처럼 어둠이 출렁이는 도시로 접어들고 있었다.

- 문순태, 『말하는 돌』

[23001-0282]

### 01 [A]와 [B]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대비되는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인물들 각각의 내면 심리를 조명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현재형의 서술을 활용함으로써 사건에 대해 인물들이 느끼는 긴장감과 초조함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감각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인물이 속한 공간적 배경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 ④ [A]는 [B]와 달리 구체적인 시간의 경과를 바탕으로 과거를 서술함으로써 인물이 지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다.

[23001-0283]

### 02 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로 하여금 고향을 상기시키며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되새기도록 만드는 대상이다.
- ② ‘나’가 마을을 떠날 때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 ③ ‘나’가 아버지의 혼이 들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 ④ 아버지를 잃은 ‘나’를 도우며 굶은일을 함께해 주었던 ‘장돌식’과의 관계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⑤ ‘나’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한 이장 일을 통해 맛보게 되는 쾌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재이다.

[23001-0284]

##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내적 독백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내재된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 ② ㉡: 대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정서적 표현을 활용하여 과분한 대가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당위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나타내고 있다.
- ⑤ ㉣: 의문문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솔직한 심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23001-0285]

## 04 &lt;보기&gt;를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말하는 돌」은 탈향-귀향 모티프가 나타나는 작품으로, 소설에 그려진 탈향의 원인은 6·25 전쟁, 좌우의 이념 대립과 같은 사회·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전쟁, 이념 대립과 같은 사회·역사적 상황은 전통적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그로 인한 억울한 죽음 등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인 ‘나’는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게 된다. 성인이 된 ‘나’는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복수를 시도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복수가 갈등의 진정한 해결책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 ①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고 ‘날이 밝기 전에 쫓기듯 월곡리’를 떠나는 과정을 통해 ‘나’가 겪은 탈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군.
- ② ‘자기네들 죄를 벗으려고 죄 없는 아버님을 죽인’ 것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이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주인의 아들들’이 아버지 ‘무덤에 덮을 땃장’을 나르는 상황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행위에 가해자들이 동원된 것으로, ‘나’가 시도하는 복수의 과정을 드러낸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나’가 기대한 것과 달리 ‘크게 놀라는 빛’이 없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 ‘나’는 어린 시절 겪었던 것과 같은 정신적·물리적 상처를 또다시 크게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나’의 행동이 도리어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복수가 갈등의 해결이나 상처의 치유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0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청허자(淸虛子)는 평소 산수를 몹시 좋아했다. 우리나라 명산 중에 삼각산, 금강산, 지리산, 팔공산, 가야산, 비슬산, 황악산, 속리산 등은 모두 정상까지 올랐다. 속세를 벗어나 드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천지가 크고 높고 넓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좋은 것은 만 길 높이로 솟은 기암괴석, 그 사이에 자라난 소나무와 전나무, 어른거리는 구름과 안개, 맑은 시내와 하얀 바위, 호젓한 개울과 으스스한 숲이다. 모두 세속의 걱정을 깨끗이 씻어 내고 의지와 기개를 키우기 충분하다. 사방을 유람하는 선비와 승려를 만나 산수 이야기를 하노라면 나는 몹시 즐거워 묻고 답하느라 입에 침이 줄줄 흘렀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벽(癖)이 있다고 비웃었다.

그러다 늘그막에 다리 힘이 빠져 잘 걷지 못하게 되자 어찌할 수가 없어 부득이 누워서 유람할 꾀를 내었다. 고금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산수화를 모아서 벽에 걸어 놓고 보았다. 가서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약간 위안이 되기는 했지만, 그저 정교하고 강건한 필력과 가물가물한 풍경을 건졌을 뿐, 생동하고 짙직한 형상은 찾아보기 어려웠기에 마음속으로 늘 안타까워했다.

남산에 있는 내 별장에는 남쪽 담장 바깥 바위틈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맛이 달고 시원하다. ㉡그래서 마루 앞에 못을 파고 물을 담아 연꽃을 심고, 괴석을 가져다 그 가운데 가산(假山)을 만들고는 높고 자그마한 소나무와 삼나무, 회양목을 심었다. 또 샘물이 나오는 바위틈을 계산하니 지면에서 석 자 정도 높았다. 땅 아래로 물을 끌어와 못 동쪽으로 흐르게 하였다. 대나무를 잘라서 구부린 다음 땅속에 묻어 대통으로 물이 들어가게 만드니, 그 물이 가산 위쪽으로 터져 나와 폭포가 되어 흘러내리는데, 두 단으로 못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샘물이 담장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물이 땅 아래의 대통에서 나온 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맑은 물이 가산 꼭대기에서 솟아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모두들 깜짝 놀라며 그 물이 가산에서 바로 나온 줄 안다.

예로부터 산을 좋아하여 석가산(石假山)을 만든 사람은 많다. 간혹 폭포를 만든 사람도 있었지만, 으레 가산 뒤편의 땅을 높이고 가산 앞으로 물이 흐르도록 폭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 놓으면 사면이 모두 못물에 둘러싸여 폭포의 맑은 물이 혼탁한 못물과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비해 나의 것은 가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나와 폭포를 이루니 더욱 기이하다. 고금에 이러한 것은 없었을 듯하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하고 쉬운 것으로 어려운 것을 시도하는 법. 이 못은 둘레가 겨우 몇 길이고 깊이도 몇 자 되지 않는다. 산은 높이가 다섯 자이고 둘레가 일곱 자, 폭포는 두 자 남짓이고 나무는 네댓 치이다. 그런데도 봉우리가 험준하고 골짜기가 그윽하며 쏟아지는 폭포와 다투어 흐르는 물줄기가 진짜를 방불케 한다. 몇 길 땅 안에 큰 바다를 갈무리하고, 몇 자의 돌에다가 봉래산과 방장산을 축소해 넣었으니, 정건이나 왕유처럼 숨씨 좋은 화가들이 정성을 쏟고 기교를 다해 그린 그림이라도 여기에 비하면 만분의 일도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아,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가? 결국은 천지도 모두 가짜를 합한 것이고 사람의 육신과 사지도 모두 가짜를 합한 것이니, 큰 것과 작은 것, 진짜와 가짜를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저 내가 좋아하는 바를 취할 뿐이다.

게다가 세상 만물에는 입에는 맞지만 눈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눈에는 맞지만 귀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은가? 이 샘물은 달고 시원하여 우리 집과 이웃에서 아침저녁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니 입에 맞는다 하겠다. 이 샘물이 기암괴석과 소나무, 전나무 사이를 흘러 몇 자 높이에서 곧바로 떨어지는데, 마치 한 가닥 물줄기가 병풍 같은 푸른 산을 갈라놓은 듯 흰하다. 아침저녁으로 보아도 지겹지 않으니, 눈에 맞는다 하겠다. 고요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베개를 높이 베고 그 소리를 듣노라면 공후나 축을 연주하는 맑은 소리처럼 울려 퍼지니, 귀에 맞는다 하겠다.

㉔나는 집이 가난하고 벼슬이 초라하여 곱게 단장한 여인네가 눈을 즐겁게 하는 일도 없고, 달고 기름진 음식이 입을 즐겁게 하는 일도 없으며, 피리나 거문고 같은 악기가 귀를 즐겁게 하는 일도 없다. 그저 이 샘물 하나에 의지하여 세 가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니, 참으로 담박하면서도 운치가 있다.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초라한 나를 비웃겠지만 나는 즐거우니, 이 즐거움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

- 채수, 「석가산폭포기」

## 나

[A] 여수의 남쪽, 돌산도 해안선에 동백이 피었다. 산수유도 피고 매화도 피었다. 자전거는 길 위에서 겨울을 났다.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다 지나오고 나도, 지나온 길들이 아직도 거기에 그렇게 뻗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길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이다. 겨우내 끌고 다니던 월동 장구를 모두 다 버렸다. 방한복, 장갑, 털양말도 다 벗어 버렸다. 몸이 가벼워지면 길은 더 멀어 보인다. ㉕티셔츠 차림으로 꽃 피는 남쪽 바다 해안선을 따라 달릴 때, 온몸의 숨구멍이 바람 속에서 열렸다.

돌산도 향일암 앞바다의 동백 숲은 바닷바람에 수련거린다. 동백꽃은 해안선을 가득 메우고도 군집으로서의 현란한 힘을 이루지 않는다.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런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 버린다. ‘눈물처럼 후드득’ 떨어져 버린다.

[B] 돌산도 울림리 정미자 씨 집 마당에 매화가 피었다. 1월 중순에 눈 속에서 봉오리가 맺혔고, 이제 활짝 피었다. 매화는 잎이 없는 마른 가지로 꽃을 피운다. 나무가 몸속의 꽃을 밖으로 밀어내서, 꽃은 뿔어져 나오듯이 피어난다. 매화는 피어서 군집을 이룬다. 꽃 핀 매화 숲은 구름처럼 보인다. 이 꽃구름은 그 경계선이 흔들리는 봄의 대기 속에서 풀어져 있다. 그래서 매화의 구름은 혼곤하고 몽롱하다. 이것은 신기루다. 매화는 질 때,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꽃잎 한 개 한 개가 날날이 바람에 날려 산화(散華)한다. 매화는 바람에 불려 가서 소멸하는 시간의 모습으로 꽃보라가 되어 사라진다. 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에 닿는 동안,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잠시 동안이 매화의 절정이고, 매화의 죽음은 풍장이다. 배꽃과 복사꽃과 벚꽃이 다 이와 같다.

선암사 뒷산에는 산수유가 피었다.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의 그림자로서 피어난다. 그러나 이 그림자 속에는 빛이 가득하다. 빛은 이 그림자 속에 오글오글 모여서 들끓는다. 산수유는 존재로서의 중량감이 전혀 없다.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어렵풋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산야에 번져 있

다. 산수유가 언제 지는 것인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그 그림자 같은 꽃은 다른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노을이 스러지듯이 문득 종적을 감춘다. 그 꽃이 스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우개로 저 자신을 지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인다.

산수유가 사라지면 목련이 핀다. 목련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꽃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목련의 절정이다. 목련은 자의식에 가득 차 있다. 그 꽃은 존재의 중량감을 과시하면서 한사코 하늘을 향해 봉오리를 치켜올린다. 꽃이 질 때, 목련은 세상의 꽃 중에서 가장 남루하고 가장 참혹하다.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꽃잎은 누더기가 되어 나뭇가지에서 너털거리다가 바람에 날려 땅바닥에 떨어진다. 목련꽃은 냉큼 죽지 않고 한꺼번에 통째로 툭 떨어지지도 않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꽃잎 조각들은 저마다의 생로병사를 끝까지 치러 낸다. 목련꽃의 죽음은 느리고도 무겁다. 천천히 진행되는 말기 암 환자처럼, 그 꽃은 죽음이 요구하는 모든 고통을 다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떨어진다. ㉠ 펼썩, 소리를 내면서 무겁게 떨어진다. 그 무거운 소리로 목련은 살아 있는 동안의 중량감을 마감한다. 봄의 꽃들은 바람이 데려가거나 흙이 데려간다. 가벼운 꽃은 가볍게 죽고 무거운 꽃은 무겁게 죽는데, 목련이 지고 나면 봄은 다 간 것이다.

㉢ 향일암 앞바다의 동백꽃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봄빛 부서지는 먼바다를 쳐다본다. 바닷가에 핀 매화 꽃잎은 바람에 날려서 눈처럼 바다로 떨어져 내린다.

매화 꽃잎 떨어지는 봄 바다에는, 나고 또 죽는 시간의 가루들이 수억만 개의 물비늘로 반짝이며 명멸을 거듭했다. 사람의 생명 속을 흐르는 시간의 풍경도 저러할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봄 바다 위의 그 순결한 시간의 빛들은 사람의 손가락 사이를 다 빠져나가서 사람이 그것을 움켜질 수 없을 듯싶었고, 그 손떨 수 없는 시간의 바다 위에 꽃잎은 막무가내로 쏟아져 내렸다.

봄은 숨어 있던 운명의 모습들을 가차 없이 드러내 보이고, 거기에 마음이 부대끼는 사람들은 봄 빛 속에서 몸이 파리하게 마른다. 봄에 몸이 마르는 슬픔이 춘수(春瘦)다.

- 김훈, 「꽃 피는 해안선」

[23001-0286]

## 0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며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자연의 이치에 주목하여 삶의 목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 ③ 상황의 변화를 언급하며 글쓴이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다른 대상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핵심 제재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지난날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여 의지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3001-0287]

## 06 (가)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속의 일로 걱정이 있거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크게 만들고 싶으면 아름다운 자연을 유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② 유명한 화가들의 산수화를 수집하는 취미를 타인들이 비웃는 것에 대해 자신의 연로함을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남산의 별장에 만든 석가산의 폭포는 정건이나 왕유가 만들었던 폭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④ 남산의 별장에서 솟는 샘물은 이웃들이 꺼려하더라도 나와 집안사람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충분히 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⑤ 천지와 사람은 모두 가짜를 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풍경을 보면서 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001-0288]

## 07 (나)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글쓴이는 계절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소유물을 버리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 글쓴이는 자전거를 타고 여러 장소에서 마주한 꽃들의 개화와 낙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C]에서 글쓴이는 [B]에서 언급한 꽃 중 일부만을 언급한 후, 그 꽃들이 바다 위로 떨어지는 모습에 주목하여 인간의 탄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의 흐름에 대한 사색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④ [C]에서 글쓴이는 꽃들의 개화와 낙화를 통해 깨달은 ‘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의 모습과 연관 지으며 특정 단어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⑤ [A]에서 글쓴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B]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모습을 소개한 후, [C]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대상의 모습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23001-0289]

## 0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행위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며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과 그 구성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 ② ㉡: 대조적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하여 글쓴이가 만든 석가산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서술어로 특정 어휘를 반복하며 글쓴이가 석가산을 담박한 곳에 만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④ ㉣: 신체의 변화를 피동 표현으로 나타내며 자연과 조응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목련꽃의 무게감과 목련꽃의 소멸 과정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23001-0290]

09

③와 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③은 글쓴이에게 다양한 감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상이고, ⑥는 글쓴이의 시각을 자극하여 슬픔을 유발하는 장소이다.
- ② ③은 글쓴이가 남산에 있는 별장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원인이 되는 대상이고, ⑥는 글쓴이가 다시 자전거를 타기로 마음을 먹는 장소이다.
- ③ ③은 글쓴이가 석가산이 있는 연못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고, ⑥는 글쓴이가 낙화하는 꽃들을 바라보며 특정 계절의 의미를 탐색하는 장소이다.
- ④ ③은 글쓴이가 만든 석가산과 다른 이들이 만든 석가산에 차별성을 부여하는 대상이고, ⑥는 글쓴이가 낙화하는 꽃들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장소이다.
- ⑤ ③은 글쓴이의 취미가 지닌 멋스러움을 다른 이들이 확인하는 대상이고, ⑥는 글쓴이가 다른 이들에게 낙화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장소이다.

[23001-0291]

10

&lt;보기&gt;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묘사’란 글쓴이가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언어적으로 서술하는 서술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묘사는 특정 시·공간에 위치한 대상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설명적 묘사와 감각적인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참신한 시각을 드러내는 암시적 묘사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대상 전체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전달하거나 대상을 이루는 부분들 중 글쓴이가 주목한 특징적 모습을 드러낼 때에도 묘사가 활용되는데, 글쓴이는 이러한 묘사를 활용하여 독자들이 대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정서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① (가)에서 석가산과 석가산이 위치한 못의 전반적인 모습을 설명적 묘사의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직접 접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석가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특정 시간에 석가산의 폭포 소리에서 느낀 감회를 청각적 심상과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석가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에서 동백꽃의 낙화 과정을 암시적 묘사의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절정의 순간에 낙화하는 동백에 대한 글쓴이의 참신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 특정 장소에서 피어난 매화와 낙화하는 매화를 각각 ‘꽃구름’과 ‘꽃보라’에 비유함으로써, 매화 숲 전체의 포괄적인 모습과 그 숲을 이루는 부분들의 특징적 모습을 전달하고 있군.
- ⑤ (나)에서 ‘파스텔처럼 산야에 번져 있’던 산수유가 낙화하는 모습을 ‘지우개로 저 자신을 지우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산수유가 위치한 공간이 지닌 환상적 분위기를 암시적 묘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군.



##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울이야 부귀한 사람들 모인 곳이라  
 철따라 명절을 챙기지만  
 시골은 빈천한 사람들  
 추석 같은 명절 또 있으랴!

京師富貴地  
 四時多佳節  
 鄉里貧賤人  
 莫如仲秋日

[A]

가을날 햇빛이 맑게 비치고  
 가을밤 달이 밝게 떠서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우리들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

秋日有清暉  
 秋宵有明月  
 風景固自佳  
 非爲我輩設

보이나니 사방으로 트인 들판에  
 좋은 곡식 이삭을 드리우니  
 올벼는 벌써 타작마당 올랐고  
 콩과 팥도 따로 거두고  
 마당가에 해바라기씨 털어 내고  
 뒤뜰에선 알밤을 깐다네.

但見四野中  
 嘉穀正垂實  
 早禾已登場  
 豆菽亦採擷  
 中庭剝旅葵  
 後園摘苞栗

[B]

둥그런 질화로에  
 고주배기\* 별장게 타올라  
 밥 짓고 국 끓여서  
 온 가족 실컷 먹고 마시네  
 한번 배가 부르매 기분이 늘어져서  
 떠들썩 이런저런 이야기꽃 피네.

團團土火爐  
 吹扇紅棗柸  
 煮飯作羹湯  
 大家劇啗啜  
 一飽便意氣  
 散漫雜言說

지난해 큰 흉년 만났을 쟈  
 아주 죽어 못 살 듯싶더니만  
 금년엔 대풍이 들었어  
 ㉡하늘이 사람을 영영 죽이실 리 있겠나.

去年大凶年  
 幾乎死不活  
 今年大豐年  
 天意固不殺

(중략)

앞마을엔 막걸리 거르고  
 뒷마을엔 누렁소 잡는데

南里釀白酒  
 北里宰黃犢

}

홀로 서촌의 어느 집에  
 쉼디스럽게 밤새도록 곡을 하고,  
 곡하는 이 누군가 물어보니  
 ㉠ 유복자 안은 홀어미라네.

獨有西隣家  
 哀哀終夜哭  
 借問哭者誰  
 寡婦抱遺腹

[C]

서방님이 살아 계실 적엔  
 두 식구가 이 한 집 지켜  
 문전의 명석만 한 땅에서  
 매해 벌어서 근근이 풀칠은 하였는데  
 지난해 가을 서리 일찍 내려  
 비로 쓴 듯 콩 반쪽도 구경 못 했다오.  
 겨와 밀기울에 송기를 섞어 먹어도  
 겨울나기 부족하였지요.

夫君在世日  
 兩口守一屋  
 門前一席之地  
 歲收僅糜粥  
 去年秋早霜  
 掃地無半菽  
 糠麩雜公皮  
 過冬猶不足

[D]

봄이 오자 부잣집에 가서  
 나락을 구걸하여 한 줌 얻어다가  
 ㉡ 한 톨도 먹기 아까워  
고스란히 간직했다 종자로 쓰고 나니  
근력은 날로 쇠약해지고  
위와 창자 날로 오그라들고

春來向富人  
 乞禾得滿匊  
 一粒惜不噉  
 持爲種田穀  
 氣力日以微  
 腸胃日以縮

굶거나 먹거나 함께하였는데  
 이 몸은 나무동치처럼 모진지……  
 홀연히 서방님만 저세상으로 보내어  
 앞산 기슭에 내 손으로 묻었다오.

同是一般飢  
 妾何頑如木  
 却送夫君去  
 去埋前山麓

㉢ 앞산에 묻힌 사람 씩어 갈 때에  
논에 심은 곡식은 익어 갔다오.  
 벼 이삭 익은들 무엇하리오?  
 차마 보지 못해 문 닫고 들어앉아  
 ㉣ 차라리 따라 죽자 해도  
젓먹이 어린것 두고 어이하리 ……

埋人人骨朽  
 種穀穀頭熟  
 穀頭熟何爲  
 閉門不忍目  
 卽欲決相隨  
 奈此兒匍匐

이 아이 비록 아버를 모르지만  
 단 하나 서방님의 혈육이니

兒雖不識父  
 猶是君骨肉

아이를 품에 안고 영위 앞에 고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혼절하였는데  
문득 문을 두들기는 소리  
아전이 세곡 바치라 외쳐 댈다.

抱兒向靈語  
氣絕久不續  
忽驚吏打門  
叫呼覓稅粟

—  
[E]  
—

—이건창, 「전가추석(田家秋夕)」

\* 고주배기: 땀감으로 사용한 나무 그루터기.

[23001-0292]

##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정경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농민의 삶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을 통해 현실 문제의 원인을, 인물 간 대화를 통해 문제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사건과 관련된 시간적 배경과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발생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특정 계절의 풍속에 대한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들려주어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3001-0293]

##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난한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드러나 있다.
- ② ㉡: 금년의 풍년을 하늘의 뜻으로 여겨 감사해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③ ㉢: 지난해의 흉년으로 굶주리면서도 종자로 쓸 곡식을 먹지 못하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④ ㉣: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결실에 감사해하면서 그 희생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 상실감으로 생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어린 자식 때문에 억제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23001-0294]

## 13 &lt;보기&gt;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전가추석」은 이견창이 26세 때인 1877년에 지은 작품이다. 그는 당시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가 호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관료의 학정과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의 문란, 계층 간 불평등과 같은 현실 모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소재로 하여 쓴 시가 이 작품이다. 작품에 언급된 ‘지난해’는 조선 시대 최악의 흉년으로 꼽히는 ‘병자년(1876년) 기근’이 있었던 해로, 당시 수많은 백성이 굶어 죽거나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었다. 재난을 당해 힘든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돕는 진휼 제도가 있었지만 그 실질적 혜택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 수령과 향리들이 고통 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갖은 농간을 부려 진휼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착복했기 때문이다. 이듬해 풍년을 맞이했지만 흉년을 견뎌 낸 이들과 그러지 못한 이들의 상반된 현실은 작가로 하여금 풍요로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정경으로 추석을 형상화하게 했다.

- ① [A]에서는 ‘서울’의 ‘부귀한 사람들’과 ‘시골’의 ‘빈천한 사람들’을 비교해 추석의 의미가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는데, 이는 작가가 암행어사로서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면서 얻게 된 현실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B]에서는 ‘올벼는 벌써 타작마당 올랐고’, ‘뒤뜰에선 알밤을 깐다네’로 표현된 농촌의 가을 정경을 제시하는데, 이는 지난해의 흉년을 견뎌 내고 풍년과 추석을 맞이한 농민들의 풍요로움과 활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C]에서는 ‘막걸리 거르고’, ‘누렁소 잡는데’로 표현된 흥성거리는 풍경을 배경으로 ‘싫디 싫게 밤새도록 곡’을 하는 인물의 모습을 부각하는데, 이는 재난을 당해 힘든 상황에서 고향을 떠난 유랑민의 비극적 현실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D]에서는 ‘문전의 명석만 한 땅’을 경작해 근근이 살다가 ‘지난해 가을 서리 일찍 내려’ 굶주리게 된 상황을 보여 주는데, 이는 조선 시대 최악의 흉년으로 꼽히는 ‘병자년 기근’으로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E]에서는 ‘말을 잊지 못하고 혼절하였는데’로 표현된 비극적 상황과 ‘아전이 세곡 바치라 외쳐 댄다’에 나타난 관리의 모습을 대비하여 제시하는데, 이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는 가혹한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14 [23001-0295] 윗글의 ㉠와 ㉡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큰애기 새각시 짧은 치마 맨다리로 진흙탕에서  
 팽이자루 손에 쥐고 연뿌리 파고들 있구나.  
 길 가던 사람 걸음 멈추고 웃으며 “당신들 그건 캐서 뭏하오?”  
 “이걸로 입에 풀칠이나 하자고요.” 하며 형편을 말하네.  
 “작년에는 큰 가뭄 들어서 산이 타고 개천이 말라  
 논농사 밭농사는 물론이요, 나무 열매 풀씨도 없는 지경이라.  
 금년 초여름 보릿고개 넘어가기 어찌 이리 더딘지  
 나락 바치라 돈 내나라 발꿈치 돌릴 새도 없이  
 소나무 가지 꺾질 다 벗겨지고 들에는 캐고 캐서 풀이 없는 지경에  
 주린 배 안고서 날이면 날마다 어디 간들 양식 얻을 곳 있으랴!

(중략)

우리네야 연뿌리 캐서 이걸로 식량을 삼지요.  
 그 맛 딱딱하고 뚱어서 입에 넘기기 거북합니다.”

- 여규형, 「익주채련곡」

- ① ㉠와 달리 ㉡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와 달리 ㉠는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여 허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고, ㉡는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 ④ ㉠와 ㉡ 모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 ⑤ ㉠와 ㉡ 모두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

별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 초록의 겨울 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나무들을 보라 /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앞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 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 충전 부식돌임을 보라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해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 김남조, 「생명」

## 나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허긴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 문정희, 「성에 꽃」

[23001-0296]

## 1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단정적인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23001-0297]

## 1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그 존재감이 부각된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통과 의례적 기능을 한다.
- ④ ㉡은 ㉠과 달리 화자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대상이다.
- ⑤ ㉡은 ㉠과 달리 가혹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23001-0298]

## 17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김남조의 「생명」과 문정희의 「성에 꽃」은 모두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관찰과 인식의 확장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두 작품에서 화자는 추운 겨울, 일상적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는 대상을 관찰하며 고통과 시련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와 성숙한 정신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초록의 겨울 보리’와 (나)의 ‘투명한 꽃’은 모두 추운 겨울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화자가 역설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군.
- ② (가)의 ‘진실도’와 (나)의 ‘사람도’에서 화자가 대상에 대해 관찰한 내용이 인간의 삶과 관련된 성숙한 인식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군.
- ③ (가)의 ‘면도날’과 (나)의 ‘얇고 날카로운’이라는 시어들은 모두 추운 겨울에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혹독한 고통과 시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겨울나무들’을, (나)는 화자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된 ‘유리창’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발전시키고 있군.
- 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혹독한 고통과 시련의 경험을 통해 각각 ‘생명’과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과 같은 소중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재 황황(十載遑遑)\*하노라 <제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無心) 어조(魚鳥)\*는 자한한(自閑閑)하였더니  
 조만(早晚)에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明哲) 군자(君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라 빈천거(貧賤居)를 하오리라 <제8수>

청산(靑山)이 벽계림(碧溪臨)하고 계상(溪上)에 연촌(煙村)이라  
 초당(草堂) 심사(心事)를 백구(白鷗)인들 제 알라  
 죽창정(竹窓靜) 야월명(夜月明)한대 일장금(一張琴)이 있나니라 <제9수>

궁달(窮達) 부운(浮雲)같이 보아 세사(世事) 잊어 두고  
 호산(好山) 가수(佳水)에 노는 뜻을  
 원학(猿鶴)\*이 내 벗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아실꼬 <제10수>

제월(霽月)\*이 구름 뚫고 솔 끝에 날아올라  
 십분(十分) 청광(淸光)이 벽계중(碧溪中)에 비졌거늘  
 어디서 무리 잃은 갈매기 나를 좇아오는가 <제12수>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 없어  
 송관(松關)을 달고 월하(月下)에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제13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यो 다르지 않으니 아무 텐들 어떠리 <제17수>



강간(江干)에 누워서 강수(江水) 보는 뜻은  
 서자여사(逝者如斯)하니 백세(百歲)인들 몇 근이요\*  
 십 년 전(十年前) 진세(塵世)\* 일념(一念)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십재 황황: (마음이 급하여) 십 년을 허둥지둥함.
- \*무심 어조: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
- \*원학: 원숭이와 학.
- \*제월: 비가 갠 하늘의 밝은 달.
- \*서자여사하니 백세인들 몇 근이요: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긴 세월이겠는가.
- \*진세: 정신에 고통을 주는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23001-0299]

## 0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백적 어조를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적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특정한 인물에 대해 가진 화자의 신뢰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나열하며 제시하고 있다.
- ④ 타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첫 수와 끝 수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인식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23001-0300]

## 02 시어를 중심으로 〈제9수〉와 〈제12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9수〉는 ‘청산’부터 ‘초당’으로, 〈제12수〉는 ‘구름’부터 ‘술’로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며 바라본 전경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제9수〉의 ‘일장금’은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제12수〉의 ‘청광’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제9수〉의 ‘백구’와 〈제12수〉의 ‘갈매기’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외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9수〉의 ‘야월명’과 〈제12수〉의 ‘제월’은 모두 달을 보며 애상에 잠겨 있는 화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제9수〉의 ‘벽계림’과 〈제12수〉의 ‘벽계중’은 모두 화자가 목도한 자연 경관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23001-0301]

03 <보기>는 윗글을 감상한 학생이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한, 학생의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궁금한 점	
	「한거십팔곡」은 공명과 은거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보여 주는 작품인가?
조사한 내용과 결론	
퇴계 이황의 제자인 권호문은 진사가 된 후에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은거(隱居) 전의 고민과 은거를 선택한 후의 만족감을 「한거십팔곡」을 통해 노래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다른 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A]	5월에 삼년상을 마쳤다. — 선생은 젊어서부터 과거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탄식하여 말하길, “처음에 내가 뜻을 굽혀 과거 시험장에 나간 것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비록 한 번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누구를 영광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무엇 때문에 과거 공부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황 선생이 듣고 기뻐하며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과거 공부를 이미 억지로 해서 안 된다면 일찍 판단하여 네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span style="float: right;">- 권호문, 『송암집』 「별집」</span>
[B]	... 외진 곳에서 가난을 즐기며 책 속에서 성현의 아름다운 자취를 탐구하고, 고금의 일을 추론하니 근심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즐거운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다. 이것으로써 나의 시름을 느긋하게 하고 이것으로써 나의 뜻을 연마하며, 이것으로써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고민하지 않으며, 이것으로써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낸다. 애오라지 죽을 때까지 송재(松齋)에서 지내는 즐거움이라면 족할 것이다. <span style="float: right;">- 권호문, 『송암집』 「속집」</span>

- ① [A]를 참고할 때, <제1수>의 ‘충효’를 하고자 하여 ‘십재 황황’했다는 데에서 화자가 과거 공부를 했던 것은 어머니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A]를 참고할 때, <제3수>에서 ‘무심’한 ‘어조’를 따르겠다는 데에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했던 과거의 삶을 긍정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B]를 참고할 때, <제8수>에서 ‘치군’, ‘부귀’ 대신에 ‘처’, ‘빈천거’의 삶을 선택하겠다는 데에서 속세와 동떨어진 곳에서 가난한 삶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B]를 참고할 때, <제13수>에서 ‘할 일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는 데에서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⑤ [B]를 참고할 때, <제17수>에서 ‘은커나 현커나’ ‘도’는 ‘한가지 길’이라는 데에서 은거 생활 속에서 고금의 일을 추론하며 성현의 자취를 따르려는 화자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겠군.

## [04~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평화롭던 마을에 반란군이 진주하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운동장으로 불러 모은다. 반란군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협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동안 비밀리에 반체제적 활동을 해 온 소금 장수, 푸죽 간집 곰보, 대장장이는 갑자기 활개 치며 마을 사람들을 반란군에 협력한 사람들과 적대적이었던 사람들로 분류하기 시작한다. 목사를 비롯한 반란군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곧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다.

— 오전 11시 40분

드디어 이날의 예정된 행사는 거의 끝이 났다. 새끼줄의 왼쪽과 오른쪽은 ▣□▣와 같은 꼴로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어 있었다.

“모두 끝났습니다.”

병사 하나가 그렇게 보고를 했다. ㉠매부리코 장교는 마침 한 손에 물컵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보고를 받더니 “그래? 이제 다 마쳤구먼. 아아, 모두가 끝난 셈이란 말이지.” 하고 대답한 뒤 훌쩍 컵을 마셔 비웠다.

교문 근처의 노인들과 아이들은 운동장 양편으로 분리된 두 패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명확하게 두 동강이로 갈라놓은 가늘고 긴 새끼줄을 먼발치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작은 마을에서 아침저녁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 온 지극히 순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을 지금 이 순간 두 개의 전혀 판이한 운명으로 나눠 놓은 것이 고작 그 가느다랗고 볼품없는 새끼줄 몇 가닥이라는 사실은 얼핏 믿기지가 않았다. 그 두 집단을 분단시켜 놓은 새끼줄과 새끼줄 사이의 공간이라고 해야 겨우 스무 발짝도 채 못 되는 거리였지만 ㉡이 순간 그것은 바다보다도 더 까마득하게 멀고 먼 거리로 여겨졌다.

한동안 바닷가 작은 마을의 학교 운동장 안에는 기괴하리만큼 완벽한 정적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다. 이따금 혼자 펄럭거리곤 하던 계양대의 깃발은 매마침 정지했고, 포플러 나무 가지 끝에서 매미도 돌연 칼날 같기를 중지했다. ㉢새끼줄의 왼쪽도 오른쪽도, 그리고 그 양분된 두 덩어리의 집단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교문 쪽도 모두 입을 다문 채 유령처럼 고요해져 있었다.

(중략)

— 1950년 7월 28일 낮 12시

마침내 정오였다.

단상 위에 우뚝 서 있던 매부리코 장교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불현듯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번쩍 펼쳐 올리는 것이었다. ㉤목사의 눈에 그것은 악마의 신탁(神託)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무엇인가 하늘을 향해 외치려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이날 행사의 클라이맥스를 알리는 운명의 신호였음을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까맣게 몰랐다.

애애애애……앵.

매부리코 장교의 치켜올린 팔이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느닷없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갈가리 찢어 대기 시작했다.

뜻밖에도 사이렌 소리는 학교 담 너머로부터 날아들고 있었다. 운동장에 모인 모두의 눈이—왼쪽도, 오른쪽도, 완장 패거리들과 적군 제복의 병사들까지도—일제히 교문을 향하여 집중했다. 그 순간 주민들은 똑같이 경악했다. 그들의 눈앞에선 지금 마약 실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눈을 의심했다. 새끼줄의 왼쪽도, 오른쪽도, 완장 패거리들도, 아이들과 노인들도 모조리 팔각 호흡이 멎어 버렸다.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다.

한 대.

두 대.

[A] 세 대.

모두 세 대였다. 트럭의 뒤 칸마다 무장한 병사들이 가득가득 타고 있었다.

“이, 이럴 수가……”

지켜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눈앞이 일제히 뒤집히는 것만 같았다.

아군이였다. 눈에 익은 청색 깃발을 펴리며 들어오고 있는 그들은 분명 바로 어제저녁까지 읍사무소에 주둔해 있던 그 아군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트럭에서 내린 그들은 저벅저벅 군화 소리를 내며 마을 사람들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는 그 중앙의 공간을 가로질러 유유히 행진해 들어오고 있었다. 이윽고 그 배불뚝이 아군 부대장과 매부리코 적군 장교가 자신들의 바로 눈앞에서 만나 힘차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사람들은 푹푹히 지켜보았다.

“아니야아. 거짓말이야. 모조리 속임수란 말이야앗!”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창고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 나오며 고함을 치고 있는 게 보였다. 온몸이 푹푹 뭉인 채 끌려 나오고 있는 그 사내가 바로 이날 내내 종적이 묘연하던 그 약방집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달았다.

“아이쿠 속았구나!”

소금 장수와 푸줏간집 곰보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 대장장은 서 있는 채로 바지에다 쫄쫄 오줌을 누고 말았다.

“허허허허. 자아, 이제야 모두 끝났나 봅니다. 허허. 본의 아니게도 죄 없는 여러분들이 십년감수하셨겠소이다. 우리 몇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뻔히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었지요. 우리인들 달리 어찌겠습니까. 허허허. 이렇게 해야만 숨어 있는 불순분자들을 하나 남김없이 깡그리, 그것도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만들 수가 있다고들 하니 말입니다. 허허헛. 그래서 우리 관리들 몇은 어젯밤부터 모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각본대로 연극을 좀 해 봤지 뭐니까. 저분들은 사실 K시(市)의 아군 부대 병사들이랍니다. 반란군 제복으로 갈아입고 감쪽같이 그럴듯하게 적군 행세를 한 거지요. 읍사무소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는 이웃 마을에 잠시 철수해 있다가, 오늘 낮 12시 정각에 나타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는군요. 허허헛.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힘 하나 안 들이고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허허. 벌써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써 보았더니 그 효과가 아주 좋았다지 뭐니까. 으허허헛.”

그때까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꿏어앉아 있던 ㉞은 장은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꺽이나 재미 있는 놀이였다는 양 그렇게 설명을 해 주고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는 거였다.

- 임철우, 「곡두 운동회」

[23001-0302]

## 04 [A]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역순행적 서술 방식을 통해 인물의 행동 이면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감정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박진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④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국면 전환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3001-0303]

## 0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모여 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차이를 만든 공간이기에 실제보다 먼 거리로 느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 때문에 모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시선을 끄는 과장된 행동으로 마을의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고자 하는 인물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④ ㉣: 목사가 매부리코 장교의 행동을 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앞으로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여 서사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23001-0304]

## 0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적절한 시기에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내어 계획한 일이 진행되도록 지휘하고 있다.
- ② ㉠: 일의 수행에 따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기보다는 평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③ ㉡: 자신이 그 의도를 숨기고 진행한 일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다가 사건의 내막을 밝히고 있다.
- ⑤ ㉡: 일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언급하며 업적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23001-0305]

## 07 &lt;보기&gt;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임철우의 「곡두 운동회」는 가상의 평화로운 마을에 어느 날 반란군이 들어와 하루아침에 한 마을 사람들의 생사가 오락가락하게 된 상황을 그려 낸다. 마을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둘 중 하나로 규정당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기까지 하는데, 이는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분열되고 전쟁 폭력의 피해를 입었던 우리 민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목의 ‘곡두’는 ‘꼭두각시’를 의미하는 말로 일종의 위장극 속 역할로 조종당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일컫는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의 폭력과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졌던 권력자들의 부조리한 행태,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겪었던 혼란과 고통을 재현하고 있다.

- ① 마을 사람들이 ‘눈알이 일제히 뒤집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는 모습은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느낀 혼란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군.
- ② ‘두 개의 전혀 판이한 운명’은 타의에 의해 이념적 성향을 규정당하여 하루아침에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군.
- ③ 한 마을에서 ‘아침저녁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사람들을 양편으로 가른 모습은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해 분열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군.
- ④ 소금 장수와 푸죽간집 곰보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속았다고 느끼는 모습은 위장극 속 역할로 조종당했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부조리한 행태를 뉘우치는 모습이군.
- ⑤ 위장 전략을 쓴 것이 ‘불순분자들을 하나 남김없이 깡그리’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설명하는 읍장의 모습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권력자들이 저지른 부조리한 행태를 떠올리게 하는군.

### [0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김응서와 강홍립이 일본으로 행할새, 임금이 양 장의 손을 잡고 왈,

“경 등은 충성을 다하여 위엄을 타국에 빛내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리오. 경 등은 삼가 적을 알아보지 말고 속히 성공하여 돌아와 군신이 서로 반기게 하라.”

하시니, 양 장이 수명한 후 홍립은 선봉이 되고, 응서는 후군장이 되어 정병 이만을 거느려 발행하니, 이때는 무술 시월이라. 동래 부산에 다다라 발선(發船)하려 할새, 문득 공중에서 응서를 불러 왈,

“장군은 잠깐 내 말을 들으라.”

하거늘, 응서가 놀라 돌아보니, 옷 벗고 발 벗은 사람이 완전히 공중으로 내려와 뵈거늘, 응서가 문득 왈,

“너는 어떤 사람이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 그 사람이 대 왈,

“나는 조선에 의탁하여 머무는 어득광이라 하는 귀신이라. 마침 장군의 운수를 살핀즉 행군을 서서히 하여야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고, 간데없거늘, 응서가 괴히 여겨 군을 머무르고, 홍립을 청하여 귀신의 말을 전하고 군중의 무양함을 물으니, 홍립 왈,

“대사에는 작은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어찌 범사한 말로 대군을 머물게 하리오.”

하고, 북을 울려 행군을 재촉하니, 또 그 귀신이 응서의 진 뒤에서 통곡 왈,

“장군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리라.”

하거늘, 응서가 쟁을 쳐 군사를 머무르니, 홍립이 대로 왈,

① “장군이 병법을 모르는도다. 문헌에 이르기를,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감히 범하지 못한다고 하니, 나는 군중 주장이요, 그대는 아장이라. 어찌 내 말을 듣지 아니리오. 만일 다시 말함이 있으면 군법으로 시행하리라.”

하니, 응서가 왈,

“만일 후회함이 있어도 나를 원망치 말라.”

하고, 행군하여 여러 날 만에 일본국 동선령에 다다른지라.

이때, 왜왕은 대병이 함몰함에 분노하여 다시 기병하여 설치코자 하더니, 일일은 천기를 살핀즉 조선이 기병하여 일본으로 향하거늘, 놀라 제신을 모아 의논할새, 대장 예팔도와 예팔낙을 불러 정병 삼만을 주어 왈,

“급히 나아가 동선령 좌편에 매복하였다가 도적이 모일 모시에 그곳에 오거든 일시에 내달아 치되, 만일 그때 아니 오거든 기다리지 말고 회군하라.”

한대, 양 장이 청명하고 행군하니라.

이때, 홍립의 전군이 보하되,

“영 아래 길이 협착하여 행군하기 어렵다.”

하거늘, 홍립이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재촉하여 영을 넘더니, 문득 일성포향에 좌우 북병이 내달아 치니, 만리 장로(長路)에 곤핍한 군사가 어찌 적병의 예기를 당하리오. 홍립과 응서가 의외의 적병을 만나 미처 항오를 수습치 못하여 경각간에 수십만 군을 다 죽였는지라. 응서 등이 탄식 왈,

“이제 타국에 와 대군을 다 함몰하고 하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가 왕상을 뵈오리오.”  
 하며, 홍립을 책하여 왈,  
 “이는 다 장군의 허물이라.”  
 하더라.

**[종락 부분 줄거리]** 응서가 검술로 예팔도와 예팔낙을 베풀어, 왜왕은 놀라 두 사람을 청해 후하게 대접하고 자신의 누이, 공주와 혼인할 것을 권한다.

홍립이 먼저 배사(拜辭) 왈,  
 “대왕이 패군지장을 이같이 예대하시고, 또 옥낭자로 하혼(下婚)하시니 그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니, 응서는 홍립의 허락함을 보고 마지못하여 허락하는지라. 왕은 양 장이 허락함을 듣고, 즉시 택일하여 양인이 전안성례(奠雁成禮)하니라.

일일은 양 장이 궐하(闕下)에서 술을 먹으며 한담하더니, 응서가 왈,  
 “아동이 이곳에 와 대군을 다 죽이고 돌아갈 기약이 없이 이미 삼 년이라. 고국 생각을 두지 아니하니 이는 임금을 배반함이라. 장군은 어찌 하려 하느뇨.”

홍립이 변색 왈,  
 “우리 이곳에 부귀영화가 극진하고 왜왕의 대접이 또한 간절하니, 나는 차마 돌아갈 마음이 없다.”  
 하거늘, 응서가 이 말을 듣고 불승분노(不勝忿怒) 왈,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하니, 대장부가 어찌 두 임금을 섬겨 후세의 꾸지람을 받고자 하느뇨.”

홍립 왈,  
 “사람의 마음 다 각각이라. 그대는 나를 다시 궐념(掛念)치 말라.”  
 응서가 왈,  
 “그러하면 그대는 알아서 하라. 나는 밤을 타 왜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하니, 홍립이 다른 말은 아니하고 바로 들어가 응서의 말을 고하니, 왕이 대로하여 백관을 모으고, 응서를 붙잡아 와 대질 왈,

① “너의 재주와 충심을 기특히 여겨 잔명을 살리고, 또한 마음을 허락하여 부마로 삼았거늘, 네 무슨 나쁜이 있으며 돌아가고자 함은 충심이어나와, 도리어 나를 해치고자 함은 이는 왕망(王莽)\*의 유(類)라.”  
 하고, 무사를 명하여,

“내어 베라.” 하니,  
 응서가 대매 왈,  
 “네 천시를 모르고 조선을 침범하였다가 지금 세궁역진(勢窮力盡)하매, 겉으로 우리를 후대하나 안으로 양양지심(怏怏之心)을 품었음을 내 어찌 모르리오. 내 이곳에 와 외로운 몸이 되어 이미 삼 년에 네 의식도 많이 허비하였거니와, 임금을 생각하며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기로 너를 베어 임진년 원수를 갚고자 하였더니, 슬프다. 하늘이 무심하시고, 또 홍립이 임금을 배반하니 신자(臣子)가 차마 못할 바라. 내 너를 베어 후인을 징비(懲毖)하고, 내 죽은 후에 혼이라도 성상께 나



아가 뵈오리라.”

하고, 비수를 빼어 홍립을 베고, 양천탄식하고 칼을 들어 자기의 머리를 베어 던지니, 응서가 타던 말이 응서의 머리를 물고 순식간에 창해를 건너 용강으로 가니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왕망: 중국 전한 시대의 정치가로, 자신이 옹립한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제위를 빼앗아 국호를 신(新)으로 명명함. 후에 유수에게 피살됨.

[23001-0306]

## 0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은 왜국으로 가는 강홍립과 김응서에게 신중하게 왜병과 맞설 것을 당부하였다.
- ② 어득광은 운수를 근거로 왜국 원정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김응서에게 알려 주었다.
- ③ 왜왕은 조선이 기병하였다는 제신들의 보고를 받고 군사들을 불러 매복할 것을 지시하였다.
- ④ 김응서는 싸움에서 패한 원인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홍립을 비난하였다.
- ⑤ 강홍립은 김응서가 왜왕을 죽이고 조선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점을 알아차린 뒤 이를 밀고하였다.

[23001-0307]

## 0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은 반어적 진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
- ② ㉠은 앞으로 닥칠 상황을 언급하며, ㉡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 ③ ㉠은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며, ㉡은 상대방의 무지를 비하하며 자신을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 ④ ㉠은 문헌의 구절을 인용하며, ㉡은 역사상 인물과의 유사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자신과 상대방의 신분 차이를 이유로, ㉡은 상대방의 현재 신분을 이유로 자신의 선택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23001-0308]

## 10 &lt;보기&gt;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임진록」에서 일본 정벌담은 당대 우리 민중들이 일본에 대해 지니고 있던 적대감과 복수 의지를 잘 드러낸 부분에 해당한다. 일본 정벌담에 등장하는 강홍립과 김응서는 명나라가 후금을 무찌르려고 조선에 군사를 요청하였을 때 명나라에 원정을 간 장수들로, 이들은 패배하여 후금에 항복을 하게 된다. 강홍립은 나중에 조선을 공격하는 장수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김응서는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몰래 후금의 사정을 일기에 써서 조선으로 보내려다가 들켜 죽고 만다. 일본 정벌담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인물 간의 대립 구도에 영향을 주는 소설적 장치를 결합하여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는데, 작가는 두 인물에 대한 당대 민중들의 평가와 함께 김응서가 전쟁에서 패하거나 지조를 지키다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민중들의 심리도 드러내고 있다.

- ① 행군을 재촉하는 김응서의 진 뒤에서 화를 당할 것이라며 통곡하는 귀신의 모습은, 김응서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민중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행군이 어렵다는 전군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행군을 강행하다 병사를 모두 잃는 강홍립의 모습은, 장수로서 무능한 모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민중들의 부정적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강홍립과 김응서가 왜왕에게 항복한 후 왜왕의 가족들과 혼인을 하는 것은, 강홍립과 김응서가 후금에 항복을 한 역사적 사실과 두 인물의 대립 구도를 해소하는 소설적 장치가 결합된 것에 해당하겠군.
- ④ 일본에서의 부귀영화를 선택한 강홍립을 비판하며 왜왕을 죽이려 하는 김응서의 모습은, 변함없는 지조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민중들의 긍정적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조선을 침범한 후에도 여전히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왜왕을 베어 임진년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는 김응서의 말은, 일본에 대한 민중들의 적대감과 복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11

[23001-0309]

〈보기〉는 [A]에 해당하는 「임진록」의 이본이다.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응서 할 수 없어 죽는 연유를 쓰되,  
 “조선 중군장 신 김응서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네 번 절한 후 전하께 일봉서(一封書)를 올리  
 오니 임금께서 몸소 보시옵소서.”  
 말의 귀에 편지를 매고 그 말에게 당부하며 말하기를,  
 “네 비록 짐승이나 조선 수토(水土)를 먹고 조선 정기를 타고 나서 만리 해도에 나를 따라와  
 공을 이루지 못하고 임자를 떠나니 어찌 슬프지 아니리오마는, 저 강홍립이 왜놈과 부동하니  
 할 수 없어 내 죽나니, 너는 아무쪼록 내 머리를 가져다가 우리 전하께 올리고, 또 이 편지를  
 가지고 내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혀 주기를 너만 믿나니, 만리 해도에 무사히 건너가라.”  
 하고 방성통곡하니, 홍립이 십 일 만에 나와 응서를 달래어 왈,  
 “장군은 권도(權道)를 써 부귀를 누리소서.”  
 응서는 분을 참지 못하여 홍립의 머리를 베어 던지고, 또 제 머리를 베어 던지니, 슬프다. 응  
 서의 말이 제 임자 머리를 물고 소리를 지르며 사족을 모으고 구름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 삼 일  
 만에 한양에 득달하니.

- ① [A]보다 〈보기〉에서 김응서는 강홍립을 처단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군.
- ② 〈보기〉와 달리 [A]에서 김응서는 임금의 명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군.
- ③ [A]와 달리 〈보기〉에서 김응서는 임금이 자신의 결백함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A]에서는 왜왕을 향해, 〈보기〉에서는 조선의 임금을 향해 김응서는 자신이 자결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군.
- ⑤ [A]와 〈보기〉 모두에서 김응서는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 잠시 동안 현실과 타협할 것을 권유하는 강홍립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군.

##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날개 휘젓던 공간밖에 믿을 게 없어  
 날개의 길박에 믿을 게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즈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는 슬프다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한다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나 보다

- 함민복, 「오래된 잠버릇」

나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아침에 퇴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이어 흩어지던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잔광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 있던 방.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방 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었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 주던 방.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취 주고 되비취 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㉔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날날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중략)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㉕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틀에 생기가 돌 것이다.

㉖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함께 열리는 법이다.

인도의 명상가이며 철학자, 그리고 구루(영적인 스승)인 크리슈나무르티는 그의 저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 어떤 고정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릴 것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어디서 나오는 무슨 차는 맛이 좋고, 어디 차는 맛이 시원

치 않다고, 물론 기호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 맛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편없는 차감만 아니라면 한 잔의 차를 통해 삶에 대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는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바로 ‘그 차 맛’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인격에 고정된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지닌 좋은 덕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 법정, 「거꾸로 보기」

[23001-0310]

## 1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관찰을 통해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일상의 경험을 소재로 삼아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도출하고 있다.
- ⑤ 시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23001-0311]

## 1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공간적 배경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3001-0312]

| 보기 |

시에 사용되는 ‘낮설게하기’는 문학 작품에 사용되는 언어 사용 방식과 관련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문학의 언어는 익숙한 언어의 형태나 규범을 파괴하는 리듬, 비유, 역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대상이나 의미 등을 두드러지게 만들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낮설게하기’의 방식은 언어 사용 방식과 더불어 일상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되지 않았던 것들과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것들에 주목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 ① (가)에서는 화자를 바꾸어 ‘저 사내’가 아닌 ‘파리’의 관점에서 동일한 공간과 상황을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시적 배경과 상황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천장’에서 잠을 잔다는 표현을 통해 잠자는 공간을 낮설게 설정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당연하게 여겨 온 것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③ (나)에서 ‘어둠’을 ‘퀴퀴하고 걸쭉’하다고 표현한 것은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 사용으로, ‘어둠’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④ (나)에서 ‘눈알’이 어둠에 박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낮선 표현은 어둠 속에서 대상을 보려고 하는 화자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군.
- ⑤ (나)의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이라는 역설적 표현은 독자에게 어둠에 대한 낮선 인식을 갖게 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 15 (다)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3001-0313]

- ① 천장에 매달려 잠을 자는 ‘파리’가 슬플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굳어진 결과이겠군.
- ② ‘파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날개 휘젓던 공간’과 ‘날개의 길’뿐이라는 ‘저 사내’의 생각은 그가 가진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③ 바닥에서 ‘저 사내’를 바라보며 그의 심리를 추측하는 ‘파리’를 통해 인간이 끝없이 변모하고 형성되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파리’의 입장에서 ‘저 사내’를 외로운 존재로 인식한 것은 ‘열린 눈’을 통해 그의 실체가 지닌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파리’와 ‘저 사내’가 상이한 공간을 ‘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파리’와 ‘저 사내’가 모두 자신의 고정 관념에 따라 대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겠군.

[23001-0314]

## 16 ㉠와 관련하여,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일 마주하는 권태로운 일상의 시·공간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소중한 시·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 ② 캄캄한 어둠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 ③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찰나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 ④ 어둠을 그저 캄캄하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했었는데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 ⑤ 어둠이라는 것은 늘 답답하고 암울한 시간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암울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광명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23001-0315]

##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선입견 없이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은 대상의 새로운 모습을 포착하는 눈이다.
- ② ㉠은 인지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하는 눈이고, ㉡은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눈이다.
- ③ ㉠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고, ㉡은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적인 눈이다.
- ④ ㉠은 세계를 인식하는 보편적인 시선을, ㉡은 세계를 인식하는 개성적인 시선을 의미한다.
- ⑤ ㉠은 즉물적 사고에 의해 왜곡된 시선을, ㉡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 왜곡된 시선을 의미한다.